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

ERICH FROMM

THE WORLD LITERATURE ENGLISH-KOREAN BILINGUALISM



CHOUN PUBLISHING CO.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 ERICH FROMM

장재형/역자소개

일본 게이오 대학 영문학과 졸업/ 단국 대학교 영문학과 교수 역입/코리아 라이프, 관광 코리아 고문/역서 《자유로부터의 도피》 《언어의 비밀》 《시지프스의 신화》 등 다수.

THE ART OF LOVING/사랑의 기술

초판 인쇄일/1981년 12월 15일 초판 발행일/1981년 12월 30일 수정판 4쇄 인쇄일/1998년 4월 15일 수정판 4쇄 발행일/1998년 4월 30일 저자/에리히 프롬 — 역자/장재형 발행인/윤여득 — 발행처/도서출판 조은문화사 등록일/1980년 7월 12일 — 등록번호/제6-27호 주소/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4가 90-4

URL: http://www1.youngjin.co.kr/~choun/ E-mail: choun80@ hitel.net

하이텔 ID: 조은문화(독자의 의견을 E-mail로 받습니다)

※책값은 표지의 뒷면에 있습니다.

- ▶이 영한대역 시리즈는 오랜 세월 동안 명저라 일컬어지고 있고 교양서적으로 필독해야 할 가치가 있는 책들로만 엄선하여, 영어공부를 하려는 학생을 위해 우리말의 완역과 주석을 첨가하여 엮었다.
- ▶가능한 한 원문에 충실하고자 노력했음은 물론. 대역판의 기능을 살리고자 의역보다는 정확한 직역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원문의 뜻을 더욱 깊이있게 음미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내용의 음미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학습효과를 올리기 위해 어려운 단어, 숙어, 어구 등은 번호를 붙여 주석을 달아 줌으로써,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 ▶인생의 깊은 지혜가 스며 있고 탁월한 문장력으로 꾸며진 명저들을 읽고, 새 시대를 이끌어 갈 학생들의 실력배양은 물론, 일반 독자들의 교양을 돈독히 하는 생활의 지침서가 될 수 있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다.

도서출판 조은문화사 편집부

LOVE IN ALL ITS ASPECTS

"Love," says Dr. Fromm, "is the only satisfactory answer to the problem of human existence."

Yet most of us are unable to develop our capacities for love on the only level that really counts — a love that is compounded of maturity, self-knowledge and courage.

Learning to love, like other arts, demands practice and concentration. Even more than any other art it demands genuine insight and understanding.

In this startling book, Dr. Fromm discusses love in all its aspects, not only romantic love, so surrounded by false conceptions, but also love of parents for children, brotherly love, erotic love, self-love and love of God.

CONTENTS/차례

머리말/8

서시 12

- I. IS LOVE AN ART? 사랑은 기술인가/14
- II. THE THEORY OF LOVE 사랑의 이론
 - 1. Love, the answer to the Problem of Human Existence 사랑. 인간 실존의 문제에 관한 해답/28
 - 2. Love, between Parent and Child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100
 - 3. The Objects of Love 사랑의 대상/118
 - , a. Brotherly Love 인류애
 - b. Motherly Love 모성애
 - c. Erotic Love 성애
 - d. Self-Love 자기애
 - e. Love of God 신에 대한 사랑
- III. LOVE AND ITS DISINTEGRATION IN CONTEMPORARY WESTERN SOCIETY 현대 서구 사회에 있어서의 사랑과 그 붕괴/204
- Ⅳ. THE PRACTICE OF LOVE 사랑의 실천/258

Foreword

THE READING of this book would be a disappointing experience for anyone who expects easy instruction in the art of loving. This book, on the contrary, wants to show that love is not a sentiment which can be easily indulged in by anyone, regardless of the level of maturity reached by him. It wants to convince the reader that all his attempts for love are bound to fail, unless he tries most actively to develop his total personality, so as to achieve a productive orientation; that satisfaction in individual love cannot be attained without the capacity to love one's neighbor, without true humility, courage, faith and discipline. In a culture in which these qualities are rare, the attainment of the capacity to love must remain a rare achievement. Or — anyone can ask himself how many truly loving persons he has known.

Yet, the difficulty of the task must not be a reason to abstain from trying to know the difficulties as well as the conditions for its achievement. To avoid unnecessary complications I have tried to deal with the problem in a language which is non-technical as far as this is possible. For the same reason I have also kept to a minimum references to the literature on love.

For another problem I did not find a completely satisfactory solution; that, namely, of avoiding repetition of ideas expressed in previous books of mine. The reader

사랑의 기술(技術)에 대한 편리한 지침(指針)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고 실망을 느낄 것이다. 그와 반대로 이 책은 개인의 성숙도(成熟度)와는 무관하게 쉽사리 향유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려는 것이다. 이 책은 독자들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자신의 인격 전체를 개발시키려 하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해도 반드시 실패하게 마련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 없는 한, 또한 참된 겸손, 용기, 믿음, 수양이 없는 한, 개인적인 사랑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우쳐 주려고 한다. 이러한 성품이 드문 문화에 있어서는 사랑하는 능력의 획득은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다면 그 누구든 참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지 자문해 볼수도 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이 어렵다고 해서 이 어려움을 알아보고 사랑에 도 달하는 조건들을 알아보는 일조차 삼가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복잡성을 피 하기 위해 나는 가능한 한 비전문적 용어로 이 문제를 다뤘으며, 같은 이유 로 나는 사랑에 대한 문헌의 참고도 최소한으로 줄였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 즉 이전의 나의 저서들에 표현된 사상의 되풀이를 피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만족스럽게 해결되지는 못했다. 특히 《자유로부터 의 도피》, 《자립적 인간(自立的人間)》, 《건전한 사회》를 탐닉한 독자들은 이 책에서 앞에 말한 책들에 표현되어 있는 사상을 상당히 발견할 것이다. 그러 나 《사랑의 기술》은 결코 단순한 요약은 아니다. 이 책에는 이전에 밝힌 사상 이상의 것이 제시되어 있으며,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옛 사상이라 하더라도 사랑의 기술이라는 하나의 주제에 집중됨으로써 새로운 시야를 얻게 된다. familiar, especially, with Escape from Freedom, Man for Himself, and The Sane Society, will find in this book many ideas expressed in these previous works. However, The Art of Loving is by no means mainly a recapitulation. It presents many ideas beyond the previously expressed ones, and quite naturally even older ones sometimes gain new perspectives by the fact that they are all centered around one topic, that of the art of loving.

E.F.

He who knows nothing, loves nothing. He who can do nothing understands nothing. He who understands nothing is worthless. But he who understands also loves, notices, sees. . . . The more knowledge is inherent in a thing, the greater the love . . . Anyone who imagines that all fruits ripen at the same time as the strawberries knows nothing about grapes.

PARACELSUS.

아무것도 모르는 자는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한다.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자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무가치하다. 그러나 이해하는 자는 또한 사랑하고 주목하고 파악한다…… 어떤 것에 대한 지식이 늘면 늘수록 사랑도 더욱더 커진다…… 모든 열매가 딸기와 동시에 익는다고 상상하는 사람은 포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

파라켈수스

Is Love an Art?

IS LOVE an art? Then it requires knowledge and effort. Or is love a pleasant sensation, which to experience is a matter of chance, something one "falls into" if one is lucky? This little book is based on the former premise, while undoubtedly the majority of people today believe in the latter.

Not that people think that love is not important. They are starved for it; they watch endless numbers of films about happy and unhappy love stories, they listen to hundreds of trashy songs about love — yet hardly anyone thinks that there is anything that needs to be learned about love.

This peculiar attitude is based on several premises which either singly or combined tend to uphold it. Most people see the problem of love primarily as that of being loved, rather than that of loving, of one's capacity to love. Hence the problem to them is how to be loved, how to be lovable. In pursuit of this aim they follow several paths. One, which is especially used by men, is to be successful, to be as powerful and rich as the social margin of one's position permits. Another, used especially by women, is to make oneself attractive, by cultivating one's body, dress, etc. Other ways of making oneself attractive, used both by men

사랑은 기술인가

사랑은 기술인가? 그렇다면 그 기술에는 노력과 지식이 필요하다. 또는 사랑은 우연한 기회에 경험하게 되는 유쾌한 감정이며, 운만 따른다면 '빠지게되는' 그런 것인가? 이 작은 책은 전자에 기초를 두고 있으나, 현대인들은 대부분 후자를 믿고 있다.

그렇다고 현대인들이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을 갈구하고, 행복한 사랑의 이야기, 불행한 사랑의 이야기를 그려 놓은 수많은 영화를 보고 시시한 사랑의 노래들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사랑에 관해 배워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이런 특이한 태도는 독립된 경우 또는 복합된 경우 등 몇 가지 전제에 기초를 두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의 문제를 '사랑하는', 다시 말해서 사랑할 줄 아는 개인의 능력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주로 '사랑받는' 문제로 생각한다. 그들에게 있어 사랑의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사랑스러워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그들이 이 목적을 추구할 때는 몇가지 방법에 따른다. 남자들이 주로 애용하는 방법은 성공해서 그의 지위가 허용하는 범주 안에서 권력과 부를 얻는 것이다. 여성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몸을 가꾸고 옷치장을 하는 등 자기 자신을 매력 있게 만드는 것이다. 남녀가 공용하는 또 한 가지의 매력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유쾌한 태도와 홍

① not that=it is not that ② endless numbers/무수한

and women, are to develop pleasant manners, interesting conversation, to be helpful, modest, inoffensive. Many of the ways to make oneself lovable are the same as those used to make oneself successful,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As a matter of fact, what most people in our culture mean by being lovable is essentially a mixture between being popular and having sex appeal.

A second premise behind the attitude that there is nothing to be learned about love is the assumption that the problem of love is the problem of an object, not the problem of a faculty. People think that to love is simple, but that to find the right object to love — or to be loved by is difficult. This attitude has several reasons rooted in the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One reason is the great change which occurred in the twentieth century with respect to the choice of a "love object." In the Victorian age, as in many traditional cultures, love was mostly not a spontaneous personal experience which then might lead to marriage. On the contrary, marriage was contracted by convention — either by the respective families. or by a marriage broker, or without the help of such intermediaries: it was concluded on the basis of social considerations, and love was supposed to develop once the marriage had been concluded. In the last few generations the concept of romantic love has become almost universal in the Western world. In the United States, while considerations of a conventional nature are not entirely absent, to a vast

사랑은 기술인가

미있는 대화술을 익히고 유능하고 겸손하고 둥글둥글하게 처신하는 것이다. 사랑스러워지려는 여러 방법은 성공하기 위해, 즉 '벗을 얻고 사람들에게 영 항력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과 같다. 사실상 현대 문명 속에 서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스럽다고 말하는 경우, 그 의미는 본질적으로 통속적 인기와 성적(性的) 매력이 혼합된 것이다.

사랑에 관해 배울 것이 없다는 태도의 배경이 되는 두 번째 전제는 사랑의 문제는 '대상(對象)'의 문제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가정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고 사랑할—또는 사랑받을—을바른 대상의 발견이어려울 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이 태도에는 근대 사회 발달에 기인한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 한 가지 이유는 '사랑의 대상'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20세기에 일어난 커다란 변화이다. 빅토리아 시대에는 전통 문화에서 그랬듯이, 사랑은 결혼까지 이어지는 자발적 개인의 체험은 아니었다. 오히려 각자의 가문에 의하여, 또는 결혼 중매인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중개인의 도움 없이 인습에 따라 이루어졌다. 결혼은 사회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사랑은 일단 결혼이 결정된 후에 성숙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낭만적 사랑의 개념이 서구 사회에서 보편화된 것은 최근 수세기 동안의 일이다. 미국에서는 인습적인 특성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낭

① to be loved by;the right object/~에게서 사랑을 받는, 즉 나를 사랑해 줄 대상 ② by the respective families/각자의 가문에 따라, respective/각자의, 저마다의

extent people are in search of "romantic love," of the personal experience of love which then should lead to marriage. This new concept of freedom in love must have greatly enhanced the importance of the object as against the importance of the function.

Closely related to this factor is another feature characteristic of contemporary culture. Our whole culture is based on the appetite for buying, on the idea of a mutually favorable exchange. Modern man's happiness consists in the thrill of looking at the shop windows, and in buying all that he can afford to buy, either for cash or on installments. He (or she) looks at people in a similar way. For the man an attractive girl - and for the woman an attractive man — are the prizes they are after. "Attractive" usually means a nice package of qualities which are popular and sought after on the personality market. What specifically makes a person attractive depends on the fashion of the time, physically as well as mentally. During the twenties, a drinking and smoking girl, tough and sexy, was attractive: today the fashion demands more domesticity and coyness. At the end of the nineteenth and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a man had to be aggressive and ambitious — today he has to be social and tolerant — in order to be an attractive "package." At any rate, the sense of falling in love develops usually only with regard to such human commodities as are within reach of one's own possibilities for exchange. I am out for a bargain; the object

사랑은 기술인가

만적 사랑, 즉 결혼까지 가야 할 개인적인 사랑의 체험을 추구하고 있다. 사랑에 있어서의 자유라는 이 새로운 개념은 확실히 '능력'의 중요성에 비해 '대상'의 중요성을 증대시켰음에 틀림없다.

현대 문화의 또 다른 현저한 특징이 이 요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의 모든 문화는 구매욕(購買欲)에, 또한 상호 유리한 교환이라는 개념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대 인간의 행복은 진열창을 바라보고 즐기거나, 현금 또는월부로 살 형편이 닿는 것은 모두 사들이는 데에 깃들어 있다. 남자나 여자나 비슷한 각도에서 사람을 본다. 남자에게는 매력적인 여자가, 여자에게는 매력적인 남자가 바로 그들이 구하는 상품이다. '매력적'이라는 것은 보통 인격의 시장에서 인기가 있고 수요가 있는 품질의 상품 꾸러미를 의미한다. 특히 인간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은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그 시대의 유행에 좌우된다. 20년대에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는, 거칠고 성적 매력이 있는 소녀가 매력적이었다. 오늘날의 유행은 오히려 가정적이고 수줍어하는 것을 요구한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는 매력적인 '상품'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은 사교적이며 관대해야 하지만, 진취적이고 패기 만만해야 했다. 어쨌든 사랑에 빠진다는 느낌은 보통 상호 교환이 가능한 인간 상품에 한해서만 발전된다. 내가 홍정에 나선다고 하자. 상대는 사회적 가치의

Signature of the Signat

① to a vast extent=to a great extent/대부분은 ② as against/~와 비교하여 ③ be after/~을 추구하다

should be desirable from the standpoint of its social value, and at the same time should want me, considering my overt and hidden assets and potentialities. Two persons thus fall in love when they feel they have found the best object available on the market,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eir own exchange values. Often, as in buying real estate, the hidden potentialities which can be developed play a considerable role in this bargain. In a culture in which the marketing orientation prevails, and in which material success is the outstanding value, there is little reason to be surprised that human love relations follow the same pattern of exchange which governs the commodity and the labor market

The third error leading to the assumption that there is nothing to be learned about love lies in the confusion between the initial experience of "falling" in love, and the permanent state of being in love, or as we might better say, of "standing" in love. If two people who have been strangers, as all of us are, suddenly let the wall between them break down, and feel close, feel one, this moment of oneness is one of the most exhilarating, most exciting experiences in life. It is all the more wonderful and miraculous for persons who have been shut off, isolated, without love. This miracle of sudden intimacy is often facilitated if it is combined with, or initiated by, sexual attraction and consummation. However, this type of love is by its very nature not lasting. The two persons become well

사랑은 기술인가

면에서 볼 때 바람직해야 하고 동시에 상대자도 나의 명백한, 또는 숨겨진 자산이나 잠재력을 고려한 다음 나를 원해야 한다. 이리하여 자기 자신의 교환 가치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시장에서 입수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대상을 찾았다고 느낄 때에만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지게 된다. 종종 부동산을 살 때처럼 발전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잠재력은 이러한 홍정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 시장 지향적이고 물질적 성공이 높이 평가되는 문화에서는 인간의 사랑관계가 상품과 노동 시장을 지배하는 교환 양식과 동일한 양식을 따르더라도 놀랄 이유는 하나도 없다.

사랑에 관해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는 가정을 유도하는 세 번째 오류는 사랑을 '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하고 '있는' 지속적 상대, 좀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사랑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혼동하는 데 있다. 우리가 모두 그러하듯이 지금까지 남이었던 두 사람이 갑자기 그들 사이의 벽을 허물고 친밀감을 느끼고 하나가 되는 것을 느낄 때, 이 합일의 순간은 일생 중 가장 유쾌하고 가장 흥분된 경험이 될 것이다. 그것은 소외되고 고독하며 사랑 없이지내 온 사람에게는 더욱 경이롭고 기적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이 기적과도 같은 갑작스런 친밀은 성적 매력과 성적 결합에 의해 시작되는 경우, 대체로 더욱 촉진된다. 그러나 이런 형태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 두 사람이 서로 잘 보게 되면 그들의 친밀감은 기적적인 성격을 점점 더

the transfer to the transfer t

① fall in love/사랑에 빠지다 ② little reason to be surprised/놀랄 만한 이유가 없다 ③ by its very nature/그 본질상으로

acquainted, their intimacy loses more and more its miraculous character, until their antagonism, their disappointments, their mutual boredom kill whatever is left of the initial excitement. Yet, in the beginning they do not know all this: in fact, they take the intensity of the infatuation, this being "crazy" about each other, for proof of the intensity of their love, while it may only prove the degree of their preceding loneliness.

This attitude — that nothing is easier than to love — has continued to be the prevalent idea about love in spite of the overwhelming evidence to the contrary. There is hardly any activity, any enterprise, which is started with such tremendous hopes and expectations, and yet, which fails so regularly, as love. If this were the case with any other activity, people would be eager to know the reasons for the failure, and to learn how one could do better — or they would give up the activity. Since the latter is impossible in the case of love, there seems to be only one adequate way to overcome the failure of love — to examine the reasons for this failure, and to proceed to study the meaning of love.

The first step to take is to become aware that *love is an* art, just as living is an art; if we want to learn how to love we must proceed in the same way we have to proceed if we want to learn any other art, say music, painting, carpentry, or the art of medicine or engineering.

What are the necessary steps in learning any art?

사랑은 기술인가

잃어 가고, 마침내는 그들의 대립, 실망, 상호 권태로 최초의 홍분을 송두리째 앗아 간다. 그러나 처음에는 그들은 이러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다. 사실상 그들이 홀딱 반해 서로 '미쳐 버리는' 강도를 그들 사랑의 강도의 증거로 오해하지만, 그것은 단지 그들이 서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고독했던가를 밝혀 주는 데 지나지 않는다.

사랑하기보다 수월한 것이 없다는 이러한 태도는 그렇지 않다는 압도적인 입증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에 대한 지배적 의견으로서 지속되어 왔다. 사랑처럼 거대한 희망과 기대를 걸고 시작하여 으레 실패하고 마는 활동이 나 사업은 거의 없다. 이것이 어떤 다른 활동의 경우라면 사람들은 실패의원인을 찾고자 할 것이며, 더 잘할 수 있는 법을 배우든가 그 활동을 포기할 것이다. 사랑의 경우, 포기는 불가능하므로 사랑의 실패를 극복하는 유일하고 적절한 방법은 실패의 원인을 조사하고 그 사랑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다.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삶이 기술이듯이 '사랑도 기술'이라는 것을 알아야한다는 점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음악이나 그림, 건축 또는 의학, 공학을 배우고자 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해야한다.

어떤 기술을 배우는 데 필요한 과정은 무엇일까?

① take~for/~으로 잘못 생각하다, 착각하다

The process of learning an art can be divided conveniently into two parts; one, the mastery of the theory; the other, the mastery of the practice. If I want to learn the art of medicine, I must first know the facts about the human body, and about various diseases. When I have all this theoretical knowledge. I am by no means competent in the art of medicine. I shall become a master in this art only after a great deal of practice, until eventually the results of my theoretical knowledge and the results of my practice are blended into one - my intuition, the essence of the mastery of any art. But, aside from learning the theory and practice, there is a third factor necessary to becoming a master in any art - the mastery of the art must be a matter of ultimate concern; there must be nothing else in the world more important than the art. This holds true for music, for medicine, for carpentry — and for love. And, maybe, here lies the answer to the question of why people in our culture try so rarely to learn this art, in spite of their obvious failures: in spite of the deep-seated craving for love, almost everything else is considered to be more important than love: success, prestige, money, power - almost all our energy is used for the learning of how to achieve these aims, and almost none to learn the art of loving.

Could it be that only those things are considered worthy of being learned with which one can earn money or prestige, and that love, which "only" profits the soul, but is prof-

사랑은 기술인가

기술을 배우는 과정은 편의상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하나는 이 론의 숨들이고 또 하나는 실천의 숨들이다 만일 내가 의술(整術)을 배우려 한다면, 나는 먼저 사람의 몸과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내가 이러한 이론적 지식을 모두 안다고 해서 의술에 숙달한 것은 결코 아니 다 이론적 지식의 결과와 실천의 기술이 궁극에 하나로 유합될 때까지 수많 은 호련을 쌓은 호에야 의숙에 익숙하게 되는데 융합은 모든 기술의 습득에 기보이 되다고 생각하다 이론과 실천의 숨득 이외에도 어떤 기술에 능숙한 자가 되려면 제3의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기술의 숙달이 궁극의 목 표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그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음악에도 의학에도 건축에도 그리고 사랑 에도 적용되다. 우리 문화권의 사람들이 뚜렷한 실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왜 사랑의 기술을 좀처럼 배우려 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의 해답도 여기 에 있다. 사랑에 대한 뿌리 깊은 갈망에도 불구하고 사랑 이외의 것들, 즉 출 세. 명성, 금력, 권력을 사랑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목 표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배우기 위해 온 정력을 쏟으면서도 사랑의 기술 을 배우는 데는 조금도 정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돈이나 명성을 얻는 데 도움이 되는 것만이 배울 가치가 있고, '오직' 정신 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대적 감각에서는 무익한 사랑은 정력을 쏟을 필요가

والمناور والمراور وال

① intuition/직관 ② aside from/~은 별 문제로 하고, ~외에 ③ holds true for/~에도 적용되다

THE ART OF LOWING

itless in the modern sense, is a luxury we have no right to spend much energy on? However this may be, the following discussion will treat the art of loving in the sense of the foregoing divisions: first I shall discuss the theory of love—and this will comprise the greater part of the book; and secondly I shall discuss the practice of love—little as can be said about practice in this, as in any other field.

사랑은 기술인가

없는 사치라는 말인가? 어쨌든 앞으로는 사랑의 기술을 앞의 구분에 따라 다루기로 한다. 우선 사랑의 이론을 논의할 것인데, 이것이 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는 사랑의 실천에 대해 논의할 것인데, 다른분이에서도 그러하듯이 이 책에서도 실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별로 없다.

The Theory of Love

1. LOVE, THE ANSWER TO THE PROBLEM OF HUMAN EXISTENCE

ANY THEORY of love must begin with a theory of man, of human existence. While we find love, or rather, the equivalent of love, in animals, their attachments are mainly a part of their instinctual equipment; only remnants of this instinctual equipment can be seen operating in man. What is essential in the existence of man is the fact that he has emerged from the animal kingdom, from instinctive adaptation, that he has transcended nature — although he never leaves it; he is a part of it — and yet once torn away from nature, he cannot return to it; once thrown out of paradise — a state of original oneness with nature — cherubim with flaming swords block his way, if he should try to return. Man can only go forward by developing his reason, by finding a new harmony, a human one, instead of the prehuman harmony which is irretrievably lost.

When man is born, the human race as well as the individual, he is thrown out of a situation which was definite, as definite as the instincts, into a situation which is indefinite, uncertain and open. There is certainty only about the past — and about the future only as far as that it is

사랑의 이론

I. 사랑, 인간 실존의 문제에 관한 해답

사랑에 대한 어떤 이론이든지 인간론, 즉 인간 실존의 이론과 더불어 시작되어야 한다. 사랑이기보다는 오히려 사랑과 동등한 것이라고 할 만한 것이동물에게도 있지만, 동물의 애정은 본능적인 수단의 일부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간에게 있어서는 본능적인 수단의 그 잔재만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다. 인간 실존의 본질은 인간이 동물 세계, 즉 본능적 순용의 세계로부터 벗어났고 자연을 초월해 있다는 — 비록 인간은 자연을 결코 버리지 못하지만 — 사실이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다. 그러나 일단 자연과 헤어지면 다시는 인간은 자연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 일단 낙원 — 자연과의 원초적 합일의 상태 — 에서 쫓겨나면, 돌아가고자 해도, 케루빔 천사가 번쩍이는 칼을 갖고 길을 막아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은 이미 잃어 되찾을 수 없는 전인간적 조화(前人間的調和) 대신에, 그의 이성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조화,즉 인간적 조화를 발견함으로써 전진할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개인으로서뿐 아니라 인류로서 본능이 그러하듯이 불명확하고 불확실하며 개방적인 상황으로 쫓겨난다. 확실한 것은 과거에 관한 것뿐이고 미래에 관해서 확실한 것은 죽음뿐이다.

death.

Man is gifted with reason; he is life being aware of itself; he has awareness of himself, of his fellow man, of his past, and of the possibilities of his future. This awareness of himself as a separate entity, the awareness of his own short life span, of the fact that without his will he is born and against his will he dies, that he will die before those whom he loves, or they before him, the awareness of his aloneness and separateness, of his helplessness before the forces of nature and of society, all this makes his separate, disunited existence an unbearable prison. He would become insane could be not liberate himself from this prison and reach out, unite himself in some form or other with men, with the world outside.

The experience of separateness arouses anxiety; it is, indeed, the source of all anxiety. Being separate means being cut off, without any capacity to use my human powers. Hence to be separate means to be helpless, unable to grasp the world — things and people — actively; it means that the world can invade me without my ability to react. Thus, separateness is the source of intense anxiety. Beyond that, it arouses shame and the feeling of guilt. This experience of guilt and shame in separateness is expressed in the Biblical story of Adam and Eve. After Adam and Eve have eaten of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after they have disobeyed (there is no good and evil unless there is freedom to disobey), after they have become

사랑의 이론

인간은 타고난 이성이 있다. 인간은 '생명 그 자체를 의식하는 생명체'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동료를, 자신의 과거를, 자신의 미래의 가능성을 의식한다. 이와 같은 분리된 실재라는 자의식(自意識), 자신의 일생은 극히 짧으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나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죽게 되며, 사랑하는 사람들보다 자기가 먼저 죽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보다 먼저 죽으리라는 사실의 의식, 자신의 고독과 자신의 분리와 자연 및 사회의 힘 앞에서의 무기력함의 의식—이런 모든 의식이 홀로 떨어져 있어 고립된 존재를 견디기 어려운 감옥으로 만든다. 인간은 이 감옥에서 해방되어 어떤 형태로든 다른 인간, 또는 외부 세계에 적응해 나가지 못한다면 미쳐 버릴 것이다.

분리의 체험은 불안을 야기한다. 실로 그것은 모든 불안의 근원이 된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나의 재능을 활용할 능력을 상실케 되는 차단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분리되어 있는 것은 무기력하고 물질과 인간 세계를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나의 반응 능력 이상으로 세계가 나를 침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분리는 심각한 불안의 근원이 된다. 그것을 넘어서 분리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야기한다. 분리 상태에서의 수치심과 죄책감의 체험은 성서에 나오는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 속에 나타난다.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을 판별하는 지혜의 열매'를 먹은 후, 즉 인간으로서 탄생한 후 그들은 '발가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

① beyond that;that=the source of intense anxiety/심각한 불안의 근원을 넘어서

human by having emancipated themselves from the original animal harmony with nature. i.e. after their birth as human beings - they saw "that they were naked - and they were ashamed." Should we assume that a myth as old and elementary as this has the prudish morals of the nineteenth-century outlook, and that the important point the story wants to convey to us is the embarrassment that their genitals were visible? This can hardly be so, and by understanding the story in a Victorian spirit, we miss the main point, which seems to be the following: after man and woman have become aware of themselves and of each other, they are aware of their separateness, and of their difference, inasmuch as they belong to different sexes. But while recognizing their separateness they remain strangers, because they have not yet learned to love each other (as is also made very clear by the fact that Adam defends himself by blaming Eve, rather than by trying to defend her). The awareness of human separation, without reunion by love - is the source of shame. It is at the same time the source of guilt and anxiety.

The deepest need of man, then, is the need to overcome his separateness, to leave the prison of his aloneness. The absolute failure to achieve this aim means insanity, because the panic of complete isolation can be overcome only by such a radical withdrawal from the world outside that the feeling of separation disappears — because the world outside, from which one is separated, has disappeared.

사랑의 이론

고 '부끄러워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최초의 옛 신화에 19세기적인 견해인 형식적인 윤리판이 있으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 주고자 하는 요점은 그들의 성기(性器)가 눈에 띄게 된 데서 오는 당황함에 있다고 생각해야 할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며, 이 이야기를 빅토리아 시대의 정신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점을 간파하게 될 것이다. 즉, 남녀가 서로를 알게 된 후, 그들은 분리되어 있고, 그들이 서로 다른 성(性)에 속하는 것처럼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반면 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가 타인으로 남는다(이 점은 아담이 이브를 변호하기는커녕 책망함으로써 자신을 지키려고 한 사실에 의해 뚜렷해진다). '사랑에 의한 재결합이 없이인간이 분리되어 있다는 의식은 수치심의 근원인 동시에 죄책감과 불안의 근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간절한 욕구는 이러한 분리 상태를 극복해서 고독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려는 욕구이다. 이런 목표의 달성에 '절대적으로' 실패한다는 것은 정신 이상을 의미하는데, 완전한 고립이라는 공포는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물러남으로써 분리의 감정이 사라져야만 극복될 수 있고, 분리의 감정은 인간이 분리되어 있는 외부 세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소멸된다.

· 小でうとうとうとうとうとうとうとうとうとうとうとうというとうというと

① emancipate~from/~에서 해방되다 ② i.e./다시 말하면, 즉 ③ prudish/정숙한 체하는, 암전 빼는, 형식적인 ④ inasmuch as/~이므로(since, seeing that~), 감 안하건대(in view of the fact that), ~하는 한은(in so far as) ⑤ panic/공포, 당황

Man - of all ages and cultures - is confronted with the solution of one and the same question: the question of how to overcome separateness, how to achieve union, how to transcend one's own individual life and find at-onement. The question is the same for primitive man living in caves. for nomadic man taking care of his flocks, for the peasant in Egypt, the Phoenician trader, the Roman soldier, the medieval monk, the Japanese samurai, the modern clerk and factory hand. The question is the same, for it springs from the same ground: the human situation, the conditions of human existence. The answer varies. The question can be answered by animal worship, by human sacrifice or military conquest, by indulgence in luxury, by ascetic renunciation, by obsessional work, by artistic creation, by the love of God, and by the love of Man. While there are many answers - the record of which is human history they are nevertheless not innumerable. On the contrary, as soon as one ignores smaller differences which belong more to the periphery than to the center, one discovers that there is only a limited number of answers which have been given, and only could have been given by man in the various cultures in which he has lived. The history of religion and philosophy is the history of these answers, of their diversity, as well as of their limitation in number.

The answers depend, to some extent, on the degree of individuation which an individual has reached. In the infant I-ness has developed but little yet; he still feels one

모든 시대. 모든 문화의 인간은 하나의 동일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 에 직면하게 되는데, 즉 그것은 어떻게 분리 상태를 극복하는가, 어떻게 결함 하는가, 어떻게 자신의 개체적 생명(個體的生命)을 초월하여 합일점을 찾는 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은 동굴 속에 사는 원시인에게도, 양떼를 지키는 유 목민에게도 이집트의 농부에게도 페니키아의 상인에게도 로마의 병사에게 도 중세의 수도사에게도 일본의 사무라이에게도 현대의 사무워이나 공장 의 직공에게도 동일하다. 이 문제는 인간 실존의 조건과 상황이라는 같은 배 경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대답은 여러 가지이다. 이 질 문은 동물 숭배에 의해, 인간의 희생 또는 군대의 정복에 의해, 사치에의 탐 닉에 의해, 금욕적인 단념에 의해, 강제 노동에 의해, 예술적 창조에 의해, 신 에 대한 사랑에 의해. 인간에 대한 사랑에 의해 대답될 수 있다. 수많은 해답 ─ 이 대답의 기록이 인간의 역사이다 ─ 이 있지만 그렇다고 한없이 많은 것은 아니다. 그 반대로 핵심이 아닌 지엽적인 사소한 차이를 무시한다면, 제 시된 해답의 수는 극히 제한되어 있고 또한 이러한 해답은 여러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인간에 의해서만 제시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 종교와 철학의 역사는 이러한 해답의 역사이며, 해답의 수효가 제하되었음 뿐 아니라 그들의 다양성을 보여 주는 역사이기도 하다

그 해답은 어느 정도까지 개인이 성취할 수 있는 개성화의 정도에 달려 있다. 유아의 경우, 나라고 하는 것(I-ness)은 발달되기는 했지만 아직 미비하

①be confronte with/~와 직면하다 ② at-onement/합일점 ③ periphery/주위, 주변

with mother, has no feeling of separateness as long as mother is present. Its sense of aloneness is cured by the physical presence of the mother, her breasts, her skin. Only to the degree that the child develops his sense of separateness and individuality is the physical presence of the mother not sufficient any more, and does the need to overcome separateness in other ways arise.

Similarly, the human race in its infancy still feels one with nature. The soil, the animals, the plants are still man's world. He identifies himself with animals, and this is expressed by the wearing of animal masks, by the worshiping of a totem animal or animal gods. But the more the human race emerges from these primary bonds, the more it separates itself from the natural world, the more intense becomes the need to find new ways of escaping separateness.

One way of achieving this aim lies in all kinds of orgiastic states. These may have the form of an auto-induced trance, sometimes with the help of drugs. Many rituals of primitive tribes offer a vivid picture of this type of solution. In a transitory state of exaltation the world outside disappears, and with it the feeling of separateness from it. Inasmuch as these rituals are practiced in common, an experience of fusion with the group is added which makes this solution all the more effective. Closely related to, and often blended with this orgiastic solution, is the sexual experience. The sexual orgasm can produce a state similar

다. 유아는 여전히 어머니와의 일체감(一體感)을 느끼며, 어머니가 있는 한 분리감을 느끼지 않는다. 유아의 고독감은 어머니의 육체적 존재, 즉 어머니 의 젖가슴과 어머니의 살갗에 의해서 치유된다. 어린이가 분리감과 개성을 발전시키는 단계까지는 어머니의 육체적 존재만으로는 아직 부족하고 다른 방법으로 분리 상태를 극복하고자 하는 욕구가 발생한다.

마찬가지로 인류는 그 유아기에는 역시 자연과 일체감을 느낀다. 흙, 동물, 식물은 여전히 인간의 세계이다. 인간은 동물과 자신을 동일시한다. 그리고 이것은 동물의 가면을 쓴다든지, 토템 동물이나 동물신을 숭배한다든지 하는 일에 표현된다. 그러나 인류가 원시적 구속에서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인류가 자연 세계와 분리되면 분리될수록 분리에서 도피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으려는 욕구는 더욱더 강렬해진다.

온갖 종류의 '진탕 마시고 떠드는 상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는 때때로 환각제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자동적으로 유도되는 황홀경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다. 원시 종족의 수많은 의식들이 이러한 유형의 해결책을 생생히 나타내 준다. 이 황홀경의 홍분 상태에서는 외부 세계는 사라지고 동시에 외부 세계와의 분리감도 사라진다. 이러한 의식은 공동으로 행해지므로 해결책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집단과의 융합이라는 체험이 중가된다. 이러한 도취적 해결에는 성적 경험이 밀접히 관련되거나 혼돈된다. 성적 오르가슴은 황홀경이 만들어 내는 상태나 환각제의 효력

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

① in its infancy/유아기에, 여기에서는 '태고에'② orgiastic states/주신제와 같이 떠들썩한 상태 ③ fusion/용해, 용해, 융합

to the one produced by a trance, or to the effects of certain drugs. Rites of communal sexual orgies were a part of many primitive rituals. It seems that after the orgiastic experience, man can go on for a time without suffering too much from his separateness. Slowly the tension of anxiety mounts, and then is reduced again by the repeated performance of the ritual.

As long as these orginstic states are a matter of common practice in a tribe, they do not produce anxiety or guilt. To act in this way is right, and even virtuous, because it is a way shared by all, approved and demanded by the medicine men or priests; hence there is no reason to feel guilty or ashamed. It is quite different when the same solution is chosen by an individual in a culture which has left behind these common practices. Alcoholism and drug addiction are the forms which the individual chooses in a non-orgiastic culture. In contrast to those participating in the socially patterned solution, such individuals suffer from guilt feelings and remorse. While they try to escape from separateness by taking refuge in alcohol or drugs, they feel all the more separate after the orginstic experience is over, and thus are driven to take recourse to it with increasing frequency and intensity. Slightly different from this is the recourse to a sexual orginstic solution. To some extent it is a natural and normal form of overcoming separateness, and a partial answer to the problem of isolation. But in many individuals in whom separateness 과 비슷한 상태를 만들어 낼 수가 있다. 부락 단위의 성적인 의식은 많은 원시 의식의 일부였다. 이런 의식을 거행한 후 얼마 동안은 분리감으로부터 그리 많은 고통을 받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불안의 긴장감은 서서히 고조되다가 의식을 반복함에 따라 다시 감소된다

이러한 도취 상태가 중족의 공통된 관습으로 존재하는 한, 불안감이나 최책감을 야기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방식의 행위는 정당하며 심지어 도덕적이 기까지 하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방법이고 무당이나 사제(司祭)에 의해 인정되고 요구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거기에는 죄의식이나 수치심을 느낄 이유가 없다. 그러나 공통된 관습이 이미 과거의 일이 되어 버린 문화에 있어서 개인이 선택하는 유사한 방법은 양식이 전혀 달라진다. 비도취적(非陶醉的) 문화권에 살고 있는 개인이 선택하는 형태는 알콜 중독과 마약 중독이다. 사회적으로 정형화(定型化)된 해결책에 참여하는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이런 개인들은 죄악감과 후회로 고통받는다. 그들은 알콜이나 마약에 빠짐으로써 분리감에서 탈피하려 하지만 그 도취 상태가 끝난 후더욱 심하게 분리감을 느끼고, 따라서 더욱더 심하고, 더욱더 빈번하게 그것에 의지하게 된다. 성적 도취의 해결책은 이것과 약간 다르다. 이것은 어느정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분리감을 극복하는 방법이며, 고립에 대한 부분적인 해답도 된다. 그러나 분리감이 다른 방법으로 제거되지 않는 많은 개인들

① trance/황홀경 ② have left behind/뒤에 남겨 놓다, 과거의 것으로 만들다 ③ to some extent/어느 정도까지는

is not relieved in other ways, the search for the sexual orgasm assumes a function which makes it not very different from alcoholism and drug addiction. It becomes a desperate attempt to escape the anxiety engendered by separateness, and it results in an ever-increasing sense of separateness, since the sexual act without love never bridges the gap between two human beings, except momentarily.

All forms of orgiastic union have three characteristics: they are intense, even violent; they occur in the total personality, mind and body; they are transitory and periodical. Exactly the opposite holds true for that form of union which is by far the most frequent solution chosen by man in the past and in the present: the union based on conformity with the group, its customs, practices and beliefs. Here again we find a considerable development.

In a primitive society the group is small; it consists of those with whom one shares blood and soil. With the growing development of culture, the group enlarges; it becomes the citizenry of a polis, the citizenry of a large state, the members of a church. Even the poor Roman felt pride because he could say "civis romanus sum"; Rome and the Empire were his family, his home, his world. Also in contemporary Western society the union with the group is the prevalent way of overcoming separateness. It is a union in which the individual self disappears to a large extent, and where the aim is to belong to the herd.

에게 있어서 성적 오르가슴의 추구는 알콜 중독이나 마약 중독과는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가 되어 버린다. 성적 오르가슴의 추구는 분리감에서 발생하는 불안감을 도피해 보려는 절망적인 시도이며, 결과적으로는 분리감을 더욱 중대시킨다. 사랑이 수반되지 않는 성행위는 일시적일 뿐 두 사람 사이의 간격을 메우진 못한다.

모든 도취적 합일의 형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는 강렬하고 심지어 격렬한 정도라는 것이고, 둘째는 몸과 마음의 인격 전체를 통해 발생하며, 셋째는 일시적이고 주기적이라는 것이다.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인간이 가장 빈번히 선택하는 해결책으로서의 합일의 형식, 즉 집단——그 관습, 행동, 신앙——과의 '순응'에 기초를 둔합일의 방식에는 정반대의 경우도 적용된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상당한 진전을 발견하게 된다.

원시 사회에 있어서 집단은 소규모였는데, 그것은 혈족과 토지를 공유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문화의 발전에 따라 집단도 팽창하여 집단은 '도시 국가(者市國家, polis)'의 시민, 큰 나라의 시민, 교회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다. 가난한 로마 인까지도 그가 '우리는 로마 인'이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부심을 느꼈다. 로마와 그 제국은 그의 가족이었고 가정이었으며 세계였다. 현대 서구 사회에서도 집단과의 합일은 분리감을 극복하는 보편적인 방법이다. 이것은 개인의 자아가 대부분 사라지고 목표가 민중에 예속되는 합

① conformity/부합, 적합, 순응, 신봉 ② civis romanus sum/우리는 로마 인이다 (라틴어) ③ contemporary/동시대의, 현대의

If I am like everybody else, if I have no feelings or thoughts which make me different, if I conform in custom, dress, ideas, to the pattern of the group, I am saved; saved from the frightening experience of aloneness. The dictatorial systems use threats and terror to induce this conformity: the democratic countries, suggestion and propaganda, There is, indeed, one great difference between the two systems. In the democracies non-conformity is possible and. in fact, by no means entirely absent; in the totalitarian systems, only a few unusual heroes and martyrs can be expected to refuse obedience. But in spite of this difference the democratic societies show an overwhelming degree of conformity. The reason lies in the fact that there has to be an answer to the quest for union, and if there is no other or better way, then the union of herd conformity becomes the predominant one. One can only understand the power of the fear to be different the fear to be only a few steps away from the herd, if one understands the depths of the need not to be separated. Sometimes this fear of non-conformity is rationalized as fear of practical dangers which colud threaten the nonconformist. But actually, people want to conform to a much higher degree than they are forced to conform, at least in the Western democracies.

Most people are not even aware of their need to conform. They live under the illusion that they follow their own ideas and inclinations, that they are individualists,

일이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똑같고 나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할 만한 사고나 감정이 없으며 관습이나 복장이나 사상의 면에서 내가 그 집단 의 유형에 순용한다면, 나는 고독이라는 무서운 시련에서 구제되다. 독재 체 제에서는 이 순응을 유도하기 위해 위협과 공포를 사용하지만, 민주 국가에 서는 암시와 선정을 사용한다 실로 이 두 체제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 다. 민주주의에 있어 불응은 가능하나 사실상 완전한 불응이란 있을 수 없다. 전체주의 체제에서는 몇몇의 특별한 영웅이나 순교자들만이 복종을 거부할 수 있으리라 기대될 뿐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 사회에 서는 압도적인 순응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합일의 추구에 대해서는 해답 이 있어야 하며, 만약에 다른 방법 또는 더 나은 방법이 없다면, 민준의 순웅 으로 이루어지는 합일이 지배적이 된다는 것이다. 분리되지 않으려는 욕구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이해한다면 남과 다르다는 데에서 느끼는 곳포 군중과 약간 떨어져 있다는 데에서 느끼는 공포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이해할 수 있 다. 때로는 이런 불웅의 공포도 불웅자들을 위협할 수도 있는 실질적인 위험 의 두려움으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적어도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는, 사람들은 순응하도록 '강요받는' 것 이상으로 순응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용하려는 자신들의 욕구를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사상과 기호에 따르고 있으며, 자신은 개인주의자이며, 자기 사고의 결과로 현재의 의견에 도달해 있으며, 자신의 견해가 다수의

① martyrs/순교자들 ② predominant/탁월한, 지배적인, 유력한

that they have arrived at their opinions as the result of their own thinking — and that it just happens that their ideas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majority. The consensus of all serves as a proof for the correctness of "their" ideas. Since there is still a need to feel some individuality, such need is satisfied with regard to minor differences; the initials on the handbag or the sweater, the name plate of the bank teller, the belonging to the Democratic as against the Republican party, to the Elks instead of to the Shriners become the expression of individual differences. The advertising slogan of "it is different" shows up this pathetic need for difference, when in reality there is hardly any left.

This increasing tendency for the elimination of differences is closely related to the concept and the experience of equality, as it is developing in the most advanced industrial societies. Equality had meant, in a religious context, that we are all God's children, that we all share in the same human-divine substance, that we are all one. It meant also that the very differences between individuals must be respected, that while it is true that we are all one, it is also true that each one of us is a unique entity, is a cosmos by itself. Such conviction of the uniqueness of the individual is expressed for instance in the Talmudic statement: "Whosoever saves a single life is as if he had saved the whole world; whosoever destroys a single life is

견해와 같은 것은 우연일 따름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모든 의견의 일치는 '자신들'의견의 정확성을 입중해 주는 것이 된다. 그러나 다소간의 개성을 느끼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욕구는 사소한 차이밖에 없다는 사실로 만족된다. 핸드백이나 스웨터에 붙어 있는 머릿글자, 은행 출납계원의 명찰, 공화당에 반대하여 민주당에 가담하는 일, 슈라이너 회대신 엘크스 회에 가입하는 일 등은 개인적인 차이를 표명하는 것이 된다. '이것은 다르다'라는 상품의 선전 문구는 실제로 거의 아무런 차이도 없는데, 다르기를 바라는 감상적 욕구를 표현하는 것이다.

차이를 제거하려는 경향이 이와 같이 강화되는 것은 고도로 발달된 산업 사회에서 전개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평등의 개념 및 체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평등은 종교적 의미로는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이며, 똑같은 인간 으로서의 고귀한 자질을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뜻을 갖고 있다. 또한 평등은 개인 간의 차이가 존중되어야 하고, 우리가 모두 하 나라는 것이 진실인 한, 우리는 각자가 유일 무이한 실재자이며, 하나의 우주 가 된다는 것도 진실임을 의미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특성은, 이를테면 탈 무드 속에 '한 생명을 구한 자는 전 세계를 구한 자와 같으며, 한 생명을 멸 한 자는 전 세계를 멸한 자와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다. 개성 발달의 한 조건

① serves as a proof/~의 증거로서 도움이 되다 ② initials/처음의, 최초의, 어두

의, 머릿글자의 ③ in a religious context/종교적인 문맥에 있어서 ④ unique entity/ 유일한 실재 ⑤ Talmudic/탈무드의, Talmud는 유태교의 율법 원문과 그 주석을 말함

condition for the development of individuality was also the meaning of the concept in the philosophy of the Western Enlightenment. It meant (most clearly formulated by Kant) that no man must be the means for the ends of another man. That all men are equal inasmuch as they are ends, and only ends, and never means to each other. Following the ideas of the Enlightenment, Socialist thinkers of various schools defined equality as abolition of exploitation, of the use of man by man, regardless of whether this use were cruel or "human."

In contemporary capitalistic society the meaning of equality has been transformed. By equality one refers to the equality of automatons; of men who have lost their individuality. Equality today means "sameness," rather than "oneness." It is the sameness of abstractions, of the men who work in the same jobs, who have the same amusements. who read the same newspapers, who have the same feelings and the same ideas. In this respect one must also look with some skepticism at some achievements which are usually praised as signs of our progress, such as the equality of women. Needless to say I am not speaking against the equality of women; but the positive aspects of this tendency for equality must not deceive one. It is part of the trend toward the elimination of differences. Equality is bought at this very price: women are equal because they are not different any more. The proposition of Enlightenment philosophy, l'ame n'a pas de sexe, the soul has no sex,

으로서의 평등은 서구 계몽 철학에서의 평등의 개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했다. (칸트에 의해서 확립된) 평등의 개념은 어떠한 인간과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모든 인간은 자신이 목표이기 때문에 평등하고 결코 타인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계몽 사상에 따르는 여러 학파의 사회주의 사상가들은 평등을 착취의 폐지, 인간에 의한 인간의 이용—이러한 이용이 잔인한 것이건 '인간적인' 것이건 간에—의 폐지라고 것의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평등의 의미는 달라졌다. 평등이란 기계적인, 즉 개성을 상실한 인간들의 평등을 말한다. 오늘날 평등이란 '합일성'보다는 오히려 '동일성'을 뜻한다. 그것은 추상적 개념의 동일성, 즉 같은 일터에서 일하고 같은 오락을 갖고 같은 신문을 읽고 감정과 견해가 같은 사람들의 동일성을 말한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역시 남녀 평등과 같은 진보의 표시로서 찬양되고 있는 몇몇 업적에 대해서도 다소 의문을 갖고 바라보아야 한다. 물론 나는 남녀 평등에 반대해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 평등을 추구하는 이러한 경향이 갖는 적극적인 면이 사람을 현혹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차이를 제거하려는 경향의 일면이기도 하다. 여성은 이제 다른 점이 없기에 평등하다는 대가를 지불하고 나서 평등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영혼에는 성(性)이 없다'는 계몽 철학의 주장은 일반적으로 관습이 되었다. 성의 양극성

まじまじまじまいないないないないないまじまじまじまじまじまじます。

① in contemporary capitalistic society/현대 자본주의 사회 ② with some skepticism/어느 정도 회의를 지니고 ③ needless to say/말할 필요도 없이, 물론 ④ l'ame n'a pas de sexe=the soul has no sex

has become the general practice. The polarity of the sexes is disappearing, and with it erotic love, which is based on this polarity. Men and women become the same, not equals as opposite poles. Contemporary society preaches this ideal of unindividualized equality because it needs human atoms, each one the same, to make them function in a mass aggregation, smoothly, without friction; all obeying the same commands, yet everybody being convinced that he is following his own desires. Just as modern mass production requires the standardization of commodities, so the social process requires standardization of man, and this standardization is called "equality."

Union by conformity is not intense and violent; it is calm, dictated by routine, and for this very reason often is insufficient to pacify the anxiety of separateness. The incidence of alcoholism, drug addiction, compulsive sexualism, and suicide in contemporary Western society are symptoms of this relative failure of herd conformity. Furthermore, this solution concerns mainly the mind and not the body, and for this reason too is lacking in comparison with the orgiastic solutions. Herd conformity has only one advantage: it is permanent, and not spasmodic. The individual is introduced into the conformity pattern at the age of three or four, and subsequently never loses his contact with the herd. Even his funeral, which he anticipates as his last great social affair, is in strict conformance with the pattern.

(兩極性)은 사라져 가고 있으며 이 양면성에 기반을 둔 성애(性愛, erotic love)도 그와 함께 사라져 가고 있다. 상반되는 극으로서 '동등'하지는 않지만 남녀는 '동일'하다. 현대 사회는 거대한 집단 속에서 마찰 없이 원활하게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나하나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원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비개성적인 평등 사상을 부르짖고 있다. 모두 같은 요구에 순종하면서 각기 자신의 소망에 따르고 있다고 확신한다. 근대의 대량 생산이 상품의 표준화를 요구하듯이 사회의 추이는 인간의 표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 표준화는 '평등'이라고 불리고 있다.

일치에 의한 합일은 강하거나 격렬하지 않으며, 조용하고 상례적으로 이루어진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분리의 불안감을 진정시키는 데 불충분한 경우가 있다. 현대 서구 사회에서는 알콜 중독, 마약 중독, 강박적 성애 중시(性愛重視), 자살 등은 군중과의 일치에 상대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이다. 게다가 이에 대한 해결은 주로 정신에 관계가 있지 신체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도취적 해결과 비교할 때 부족한 점이 있다. 군중과의 일치에는 단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그것은 영구적이며 지속적인 것이다. 개개인은 서너 살이 되었을 때 일치의 유형으로 유도되고, 그 후 결코 군중과의 접촉을 상실하지 않는다. 자신의 최후의 사회 의식으로 예기되는 그의 장례에서조차 그러한 양식에 엄격하게 따르게 된다.

① by routine/상례적으로, 관례적으로 ② pacify/진정시키다, 가시게 하다 ③ spasmodic/발작적인, 경련의

THE ART OF LOVING

In addition to conformity as a way to relieve the anxiety springing from separateness, another factor of contemporary life must be considered: the role of the work routine and of the pleasure routine. Man becomes a "nine to fiver." he is part of the labor force, or the bureaucratic force of clerks and managers. He has little initiative, his tasks are prescribed by the organization of the work; there is even little difference between those high up on the ladder and those on the bottom. They all perform tasks prescribed by the whole structure of the organization, at a prescribed speed, and in a prescribed manner. Even the feelings are prescribed: cheerfulness, tolerance, reliability, ambition, and an ability to get along with everybody without friction. Fun is routinized in similar, although not quite as drastic ways. Books are selected by the book clubs. movies by the film and theater owners and the advertising slogans paid for by them; the rest is also uniform: the Sunday ride in the car, the television session, the card game, the social parties. From birth to death, from Monday to Monday, from morning to evening - all activities are routinized, and prefabricated. How should a man caught in this net of routine not forget that he is a man. a unique individual, one who is given only this one chance of living, with hopes and disappointments, with sorrow and fear, with the longing for love and the dread of the nothing and of separateness?

A third way of attaining union lies in creative activity,

분리로 야기되는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일치와 더불어 현대 생활의 또 다른 요소 즉 틈에 박힌 일상 노동과 오락의 역할을 고려해야 한다. 사람 은 '보잘것없는 월급쟁이'가 되고 노동력 또는 사무워과 관리자들의 관료적 회의 일부분이 되는 것이다. 그는 주도권이 없으며 그의 직무는 작업 편제에 의해 규정된다. 지위의 고하(高下)에는 차이가 거의 없다. 그들은 모두 조직 전체 구조에 의해 규정된 작업을 규정된 속도로 규정된 방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감정까지도 규정되는데, 즐거움, 인내, 신뢰성, 야맛, 마찰 없이 사 람들과 사귈 수 있는 능력 등이 규정된다. 여기에 오락도 뚜렷하지는 않으나 유사한 방법으로 상례화되어 간다. 책은 독서 클럽에 의해 선정되고 영화는 극장주에 의해 선택되고 광고는 광고주에 의해 선택된다. 휴식의 방법도 일 정하다. 즉, 일요일의 드라이브, 텔레비전의 연속물, 트럼프 놀이, 사교적 파 티 등이 그렇다. 태어나 죽을 때까지. 월요일부터 다음 월요일까지. 아침부터 저녁까지의 모든 활동은 틀에 박혀 있으며, 이미 만들어진 조립품과 같은 것 이다. 이 틀에 박힌 그물 속에 갇혀 있는 인간이 어떻게 자신이 희맛과 절맛. 슬픔과 두려움. 사랑에 대한 동경과 무(無)와 분리에 대한 공포를 가진 한 인 간이며, 유일 무이한 존재이며, 한 번의 삶의 기회가 주어진 자라는 점을 잊 지 않고 지낼 수 있단 말인가?

합일을 달성하는 세 번째 방법은 예술가의 경우이건 직공의 경우이건 간

① nine to fiver/월급쟁이, 9시에 출근하여 5시에 퇴근하는 평범한 근로자 ② bureaucratic/광료적이 ③ prefabricate/미리 만들다. 조립식으로 만들다

be it that of the artist, or of the artisan. In any kind of creative work the creating person unites himself with his material, which represents the world outside of himself. Whether a carpenter makes a table, or a goldsmith a piece of jewelry, whether the peasant grows his corn or the painter paints a picture, in all types of creative work the worker and his object become one, man unites himself with the world in the process of creation. This, however, holds true only for productive work, for work in which I plan, produce, see the result of my work. In the modern work process of a clerk, the worker on the endless belt, little is left of this uniting quality of work. The worker becomes an appendix to the machine or to the bureaucratic organization. He has ceased to be he — hence no union takes place beyond that of conformity.

The unity achieved in productive work is not interpersonal; the unity achieved in orginatic fusion is transitory; the unity achieved by conformity is only pseudo-unity. Hence, they are only partial answers to the problem of existence. The full answer lies in the achievement of interpersonal union, of fusion with another person, in love.

This desire for interpersonal fusion is the most powerful striving in man. It is the most fundamental passion, it is the force which keeps the human race together, the clan, the family, society. The failure to achieve it means insanity or destruction — self-destruction or destruction of others. Without love, humanity could not exist for a day.

에 '창조적 활동'에 있다. 어떤 창조적 활동이든 창조자는 그의 재료와 자신을 결합하여 자신의 외부 세계를 표현한다. 목수가 탁자를 짜든, 금세공인 (金細工人)이 보석을 다듬든, 농부가 곡식을 재배하든, 미술가가 그림을 그리든, 모든 창조적 활동에 있어서 일하는 사람과 그 대상은 하나가 되고 인간은 그 창조 과정에서 세계와 결합한다. 하지만 이것은 생산적 활동, 즉'내'가 계획하고 생산하며 그 결과를 본다는 그런 작업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끝없는 피대 위에 놓여 있는 근대 사무적 노동 과정에 있어 이상과 같은 결합적 성격의 작업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노동자는 기계 또는 관료 조직의 부속물이 되고 만다. 그는 이미 그 자신이 아니며, 따라서 동조를 초월한 합일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산적인 작업에서 성취되는 합일은 대인간적(對人間的)인 것이 아니다. 도취적 융합에서 성취되는 합일은 일시적인 것이다. 일치에 의해서 성취되는 합일은 가면적일 뿐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은 실존 문제에 대한 부분적인 해 답에 불과하다. 완전한 해답은 대인간적인 합일, 타인과의 융합의 성취, 즉 '사랑'에 있는 것이다.

이 대인간적인 융합에의 욕망은 인간에 있어 가장 강한 욕망이다. 그것은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염원이고 인류와 집단과 가족과 사회를 유지하는 힘 인 것이다. 융합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은 정신 이상 또는 자기 자신의 파 괴나 타인의 파괴를 의미한다. 사랑이 없다면 인류는 하루도 존재할 수 없을

والمراج والمراج

① artisan/직공, 기능공 ② appendix/부속물, 부기물 ③ interpersonal/인간적인, 인간 대 인간의 ④ pseudo-unity/가짜 합일 ⑤ clan/집단 ⑥ without love/가정법으로 if there were not love

Yet, if we call the achievement of interpersonal union "love," we find ourselves in a serious difficulty. Fusion can be achieved in different ways — and the differences are not less significant than what is common to the various forms of love. Should they all be called love? Or should we reserve the word "love" only for a specific kind of union, one which has been the ideal virtue in all great humanistic religions and philosophical systems of the last four thousand years of Western and Eastern history?

As with all semantic difficulties, the answer can only be arbitrary. What matters is that we know what kind of union we are talking about when we speak of love. Do we refer to love as the mature answer to the problem of existence, or do we speak of those immature forms of love which may be called symbiotic union? In the following pages I shall call love only the former. I shall begin the discussion of "love" with the latter.

Symbiotic union has its biological patter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gnant mother and the foetus. They are two, and yet one. They live "together" (symbiosis), they need each other. The foetus is a part of the mother, it receives everything it needs from her; mother is its wrold, as it were; she feeds it, she protects it, but also her own life is enhanced by it. In the psychic symbiotic union, the two bodies are independent, but the same kind of attachment exists psychologically.

The passive form of the symbiotic union is that of sub-

것이다. 그러나 대인간적인 합일을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융합은 여러 다른 방법으로 성취될 수 있으며 그 차이는 여러 가지 형태의 사랑에서 볼 수 있는 것 못지않게 현저하다. 그런 것들이 모두 사랑이라 불릴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랑'이란 말을 다만 서구와 동양의 과거 4천년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본주의적(人本主義的) 종교나 철학 체계에서 이상적 선(善)으로 여겨져 온 특수한 종류의 합일로서 알아 두어야할 것인가?

어의상의 모든 어려움 때문에 그 해답은 임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다.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언급할 때 어떤 종류의 합일을 일컫는가를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다. 사랑을 실존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해답으로서 말할 것인가, 또는 '공생적 합일(共生的合一)'이라 부를 수 있는 미숙한 형식 의 사랑을 말할 것인가? 앞으로 나는 전자만을 사랑이라 부르겠지만 후자의 '사랑'부터 논의하겠다.

'공생적 합일'은 임산부와 그 태아와의 관계에서 생물학적 양상을 나타낸다. 그들은 둘이면서 하나이다. 그들은 '함께'살며 서로를 필요로 한다. 그 태아는 어머니의 일부분이며 필요한 모든 것을 어머니에게서 받는다. 말하자면 어머니는 태아의 세계이며 어머니는 태아를 양육하고 보호한다. 그러나어머니는 그 태아로 인하여 자신의 삶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다. '정신적'인 공생적 합일에 있어서는 두 몸이 독립적이지만, 심리적으로는 동일한 종류의 애착을 갖는다.

공생적 합일의 '수동적' 형태는 복종의 형태이며, 임상(臨床) 용어를 사용

① semantic/어의상의 ② arbitrary/임의의, 제멋대로의, 변덕스러운 ③ symbiotic/공생의

mission, or if we use a clinical term, of masochism. The masochistic person escapes from the unbearable feeling of isolation and separateness by making himself part and parcel of another person who directs him. guides him. protects him: who is his life and his oxygen, as it were. The power of the one to whom one submits is inflated, may he be a person or a god; he is everything, I am nothing, except inasmuch as I am part of him. As a part. I am part of greatness, of power, of certainty. The masochistic person does not have to make decisions, does not have to take any risks; he is never alone - but he is not independent: he has no integrity; he is not yet fully born. In a religious context the object of worship is called an idol: in a secular context of a masochistic love relationship the essential mechanism, that of idolatry, is the same. The masochistic relationship can be blended with physical, sexual desire; in this case it is not only a submission in which one's mind participates, but also one's whole body. There can be masochistic submission to fate, to sickness, to rhythmic music, to the orgiastic state produced by drugs or under hypnotic trance - in all these instances the person renounces his integrity, makes himself the instrument of somebody or something outside of himself; he need not solve the problem of living by productive activity.

The active form of symbiotic fusion is domination or, to use the psychological term corresponding to masochism, sadism. The sadistic person wants to escape from his alone-

한다면. '매저키즘'의 형태이다. 매저키스트는 자기 자신을 이끌어 주고 지도 해 주고 보호해 주는 사람, 말하자면 그의 생명이자 그가 호혼할 산소(酸素) 와 같은 존재가 되는 어떤 사람의 일부가 됚으로써 고립과 분리라는 견딜 수 없는 감정으로부터 도피한다. 사람이건 신이건 간에 사람이 복종하는 자의 힘은 팽창한다. 그는 모든 것이고 내가 그의 일부가 아닌 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부분으로서 나는 위대성, 힘, 확실성의 일부이다. 매저키스트는 결단 을 했하지 않으면 어떤 모험도 하지 않는다. 그는 결코 외롭지는 않지만 독 립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는 완전하지 못하며 완전히 태어난 것도 아니다. 종교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숭배의 대상은 우상이라 불린다. 매저키즘적인 사 랑의 관계라는 비종교적 의미에서는 본질적인 메커니즘과 우상 숭배의 메커 니즘은 동일한 것이다. 매저키즘적 관계는 육체적, 성적 욕구가 혼합되어 있 다. 이 경우에 있어 복종은 정신뿐 아니라 몸 전체도 참여하는 복종이 된다. 매저키즘적 복종에는 운명에 대한, 질병에 대한, 율동적인 음악에 대한, 마약 또는 최면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도취적 상태에 대한 복종일 수 있다. 이런 모든 경우에 있어서 매저키스트는 자신의 완전성을 포기하고 자신을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이나 다른 것의 도구로서 취급한다. 이런 사람은 생산적 활 동에 의한 삶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다.

공생적 합일의 '능동적' 형태는 지배인데, 이것을 매저키즘에 상용하는 심 리학적 용어를 사용한다면 '새디즘'이다. 새디스트는 다른 사람을 자신의 일부

① masochism/피학대 음란증 ② secular/여기서는 '비종교적인'의 뜻 ③ mechanism/심리 과정 ④ sadism/가학성 음란증

ness and his sense of imprisonment by making another person part and parcel of himself. He inflates and enhances himself by incorporating another person, who worships him

The sadistic person is as dependent on the submissive person as the latter is on the former; neither can live without the other. The difference is only that the sadistic person commands, exploits, hurts, humiliates, and that the masochistic person is commanded. exploited. hurt. humiliated. This is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a realistic sense: in a deeper emotional sense, the difference is not so great as that which they both have in common; fusion without integrity. If one understands this, it is also not surprising to find that usually a person reacts in both the sadistic and the masochistic manner, usually toward different objects. Hitler reacted primarily in a sadistic fashion toward people, but masochistically toward fate, history, the "higher power" of nature. His end - suicide among general destruction — is as characteristic as was his dream of success — total domination¹.

In contrast to symbiotic union, mature love is union under the condition of preserving one's integrity, one's individuality. Love is an active power in man; a power which breaks through the walls which separate man from his fellow men, which unites him with others; love makes

¹Cf. a more detailed study of sadism and masochism in E. Fromm, Escape from Freedom, Rinehart & Company, New York, 1941.

로 만들어서 자신의 고독감과 유폐감(幽閉感)으로부터 도피하려 한다. 그는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을 끌어들임으로써 자신을 팽창시키고 강화해 나간다.

매저키스트가 새디스트에게 의존하듯 새디스트는 매저키스트에게 의존한다. 양자는 한쪽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차이점이란 단지 새디스트는 명령하고 착취하고 고통을 주고 굴욕을 느끼게 하는 반면, 매저키스트는 명령받고 착취당하고 고통받고 굴욕을 느낀다는 것이다. 이것은 현실적 의미에서는 고려해 볼 만한 차이이지만 좀더 심오한 정서적 의미에 있어서는 양자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완전성이 결여된 융합이라는 것보다 더 큰 차이는 없다. 이것을 이해한다면, 사람이 새디즘적이고도 매저키즘적인 행동으로 흔히 여러가지 대상에 대해 대용한다는 것을 본다 해도 그것 역시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히틀러는 인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새디즘적 방식으로 대했지만, 운명, 역사, 자연의 '더욱 큰 힘'에 대해서는 매저키즘적 방식으로 반응했다. 전반적인 파괴 속에서 자살로 끝난 그의 최후는 전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그의 성공의 꿈처럼 독특한 것이었다.

공생적 합일과는 대조적으로 성숙한 '사랑'은 '개인의 완전성'과 개성을 '보존하는 상태에 있어서의 합일'이다. 사랑은 인간 내부에 있는 능동적인 힘이다. 즉, 인간을 동료로부터 격리시키는 장벽을 파괴하는 힘이며 타인과 결1. 새디즘과 매저키즘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E. Fromm, Escape from Freedom (Rinehart & Company, New York, 1941)을 참조할 것.

①in a realistic sense/현실적인 의미 ② general destruction/전반적인 파괴, 광범위 하 파괴 him overcome the sense of isolation and separateness, yet it permits him to be himself, to retain his integrity. In love the paradox occurs that two beings become one and yet remain two.

If we say love is an activity, we face a difficulty which lies in the ambiguous meaning of the word "activity." By "activity." in the modern usage of the word, is usually meant an action which brings about a change in an existing situation by means of an expenditure of energy. Thus a man is considered active if he does business, studies medicine, works on an endless belt, builds a table, or is engaged in sports. Common to all these activities is that they are directed toward an outside goal to be achieved. What is not taken into account is the motivation of activity. Take for instance a man driven to incessant work by a sense of deep insecurity and loneliness; or another one driven by ambition, or greed for money. In all these cases the person is the slave of a passion, and his activity is in reality a "passivity" because he is driven; he is the sufferer, not the "actor." On the other hand. a man sitting quiet and contemplating, with no purpose or aim except that of experiencing himself and his oneness with the world, is considered to be "passive," because he is not "doing" anything. In reality, this attitude of concentrated meditation is the highest activity there is, an activity of the soul, which is possible only under the condition of inner freedom and independence. One concept of activity,

합시키는 힘이다.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고립감과 분리감을 극복하게 하면 서도 각자에게 각자의 특성을 허용하고 자신의 완전성을 보존하게 한다. 사 랑에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면서도 둘로 남는 모순이 성립된다.

만일 우리가 사랑을 활동이라 한다면, '활동'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해석되는 데에서 오는 곤란에 직면한다. 근대적 어법에 있어서 '활동'이란 대개 에너지의 소비에 의한 기존 상태의 변화를 초래하는 행동을 뜻한다. 그러므로 인간이 사업을 하거나 의학을 연구하거나 끝없는 피대 위에서 일하거나 탁자를 짜거나 스포츠에 종사하는 사람은 활동적인 사람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모든 활동들의 공통점은 이러한 활동이 외적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것은 활동의 '동기'이다. 심한 불안감과 고독감에 빠져 끊임없이 일을 하는 사람이나, 야심이나 금전욕에 쫓기는 사람을 예로들어 보자. 이 모든 경우에 있어 인간은 열정의 노예이고 그가 쫓기고 있기때문에 그의 행동은 실제로는 '수동적'인 것이다. 즉, 그는 '행위자'가 아니라 피해자이다. 이와는 달리 자신과 세계의 일체성을 체험한다는 목적 이외에어떤 의도나 목적 없이 조용히 앉아 명상에 잠겨 있는 사람은 그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동적'이라 간주된다. 사실 명상에 잠긴다는 태도는 가장 높은 활동이며, 내부의 자유와 독립의 상태에서만 가능한 정신적인 활동이다. 활동의 또 하나의 개념, 즉 현대적 개념은 외부 목표의 달성을 위

① ambiguous/애매 모호한, 불명료한 ② on the other hand/이와는 달리, 다른 한 편으로는 ③ inner freedom/정신적인 자유, 내부적인 자유

the modern one, refers to the use of energy for the achievement of external aims; the other concept of activity refers to the use of man's inherent powers, regardless of whether any external change is brought about. The latter concept of activity has been formulated most clearly by Spinoza. He differentiates among the affects between active and passive affects, "actions" and "passions." In the exercise of an active affect, man is free, he is the master of his affect; in the exercise of a passive affect, man is driven, the object of motivations of which he himself is not aware. Thus Spinoza arrives at the statement that virtue and power are one and the same.² Envy, jealousy, ambition, any kind of greed are passions; love is an action, the practice of a human power, which can be practiced only in freedom and never as the result of a compulsion.

Love is an activity, not a passive affect; it is a "standing in," not a "falling for." In the most general way, the active character of love can be described by stating that love is primarily *giving*, not receiving.

What is giving? Simple as the answer to this question seems to be, it is actually full of ambiguities and complexities. The most widespread misunderstanding is that which assumes that giving is "giving up" something, being deprived of, sacrificing. The person whose character has not developed beyond the stage of the receptive, exploitative, or hoarding orientation, experiences the act of giving

²Spinoza, Ethics IV, Def. 8.

해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활동에 대한 또 하나의 개념은 외부의 변화가 있든 상관없이 인간의 타고난 힘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활동에 대 한 후자의 개념은 스피노자에 의해 가장 분명하게 정립되었다. 그는 감정을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으로 구별하여 '활동'과 '열정'이라 하였다. 능동 적인 감정을 행사할 때 인간은 자유롭고 그의 감정의 주인이 되지만, 수동적 인 감정을 행사할 때 인간은 조정을 받아 자신도 모르게 동기의 대상이 된 다. 이리하여 야심, 기타 모든 탐욕은 열정이다. 사랑은 활동이며 자유에서만 실천되고 강제의 결과로서는 결코 실천되지 않는 인간이 갖는 힘의 실천이 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은 아니다.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면, 사랑은 근본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는 말로 설명된다.

주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의 대답은 간단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호하고 복잡한 것이다.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오해는 주는 것이란 어떤 것을 '단 념하는 것', 빼앗기는 것, 희생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성격이 수용적이고 착취적이며 또는 저장의 경향을 지닌 태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① never as the result of a compulsion/억지로 실행되지 않는

in this way. The marketing character is willing to give, but only in exchange for receiving; giving without receiving for him is being cheated.³ People whose main orientation is a non-productive one feel giving as an impoverishment. Most individuals of this type therefore refuse to give. Some make a virtue out of giving in the sense of a sacrifice. They feel that just because it is painful to give, one should give; the virtue of giving to them lies in the very act of acceptance of the sacrifice. For them, the norm that it is better to give than to receive means that it is better to suffer deprivation than to experience joy.

For the productive character, giving has an entirely different meaning. Giving is the highest expression of potency. In the very act of giving, I experience my strength, my wealth, my power. This experience of heightened vitality and potency fills me with joy. I experience myself as overflowing, spending, alive, hence as joyous.⁴ Giving is more joyous than receiving, not because it is a deprivation, but because in the act of giving lies the expression of my aliveness.

It is not difficult to recognize the validity of this principle by applying it to various specific phenomena. The most elementary example lies in the sphere of sex. The culmination of the male sexual function lies in the act of

³Cf. a detalled discussion of these character orientations in E. Fromm, Man for Himself, Rinehart & Company, New York, 1947, Chap. III, pp. 54-117.

⁴Compare the definition of joy given by Spinoza.

'주는' 행위를 이런 방식으로 체험한다. 매매형(實買型)의 성격은 보답을 받을 것이라는 교환 조건에서만 기꺼이 준다. 그에게 있어 받지 않고 주기만하는 것은 사기당하는 것이다. 성격의 주요 방향이 비생산적인 사람들은 주는 것을 가난해지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개인들은 대부분 주려 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희생이라는 의미에서 주는 것을 덕으로 삼는다. 그들은 주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이유 때문에 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들에게 주어지는 덕은 희생을 감수한다는 행위에서만 성립된다. 그들의 경우,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낫다는 규범은 환희를 경험하기보다는 박탈당하는 것을 감수하는 편이 낫다는 의미이다.

생산적 성격의 사람에게는 주는 것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주는 것은 가장 높은 잠재력의 표현이 된다. 주는 행위에서 나는 나의 힘과 부와 역량을 체험한다. 고상한 생명력과 잠재력의 체험으로 나는 기쁨에 넘치게 된다. 나는 충만하고 소비하며 살아가기에 즐거운 나 자신을 체험한다. 주는 것은 그것이 손실이 아니라 내 생명력의 표현이라는 점에서 받는 것보다 더 즐겁다.

- 이 원리를 여러 가지 특수 현상에 적용시킴으로써 그 타당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가장 기본적인 예는 성(性)의 영역에서 볼 수 있다. 남성의 성적 기능의 절정은 주는 행위에 있다. 남성은 여성에게 자기
- 3. 이러한 성격의 방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려면 E. Fromm, Man for Himself (Rinehart & Company, New York, 1947, Chap. Ⅲ, pp. 54-117)를 참조할 것.
- 4. 환희에 대한 스피노자의 정의와 비교해 볼 것.

giving; the man gives himself, his sexual organ, to the woman. At the moment of orgasm he gives his semen to her. He cannot help giving it if he is potent. If he cannot give, he is impotent. For the woman the process is not different, although somewhat more complex. She gives herself too; she opens the gates to her feminine center; in the act of receiving, she gives. If she is incapable of this act of giving, if she can only receive, she is frigid. With her the act of giving occurs again, not in her function as a lover, but in that as a mother. She gives of herself to the growing child within her, she gives her milk to the infant, she gives her bodily warmth. Not to give would be painful.

In the sphere of material things giving means being rich. Not he who has much is rich, but he who gives much. The hoarder who is anxiously worried about losing something is, psychologically speaking, the poor, impoverished man, regardless of how much he has. Whoever is capable of giving of himself is rich. He experiences himself as one who can confer of himself to others. Only one who is deprived of all that goes beyond the barest necessities for subsistence would be incapable of enjoying the act of giving material things. But daily experience shows that what a person considers the minimal encessities depends as much on his character as it depends on his actual possessions. It is well known that the poor are more willing to give than the rich. Nevertheless, poverty beyond a certain

자신, 즉 자신의 성기를 준다. 오르가슴의 순간에 남성은 여성에게 정액을 제 공한다. 그가 성적 능력이 있는 한, 정액을 주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다. 만일 줄 수 없다면 그는 성불능자이다. 여성의 경우 다소 복잡할지 모르나 그 과정은 다를 것이 없다. 여성 역시 자기 자신을 준다. 즉, 여성의 핵심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는 것이다. 여성은 받아들이는 행위에서 주고 있는 것이다. 여성이 이런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면, 여성이 단지 받기만 한다면, 그 여성은 불감증(不感症) 환자이다. 여성에게는 주는 행위가 애인으로서의 기능뿐 아니라 어머니로서의 기능에서 또다시 나타난다. 여성은 자기 몸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에게 자기 자신을 주며 유아에게 젖과 체온을 준다. 여성에게는 주지 않는다면 고통스러울 것이다.

물질적인 영역에 있어서 주는 것은 부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많이 '주는' 사람이 부자이다. 무엇을 잃지나 않을까 근심스럽게 걱정하는 저축형의 사람은 아무리 그가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 심리학적으로 말한다면 가난하고 빈곤한 사람이다. 자신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다. 그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자신을 경험한다. 생존에 필요한 최저의 생필품 이외의 모든 것을 박탈당한 사람만이 뭔가를 주는 행위를 즐길 수 있다. 그러나 일상을 통해 우리는 인간이 최소의 생필품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실제로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에도 의존되지만 그의 성격에도 달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난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보다 더 기꺼이 주려 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를 넘어선 빈곤은 주는 행위를 불가능

① confer/주다, 제공하다, 수여하다 ② minimal/최소의

point may make it impossible to give, and is so degrading, not only because of the suffering it causes directly, but because of the fact that it deprives the poor of the joy of giving.

The most important sphere of giving, however, is not that of material things, but lies in the specifically human realm. What does one person give to another? He gives of himself, of the most precious he has, he gives of his life. This does not necessarily mean that he sacrifices his life for the other — but that he gives him of that which is alive in him: he gives him of his joy, of his interest, of his understanding, of his knowledge, of his humor, of his sadness — of all expressions and manifestations of that which is alive in him. In thus giving of his life, he enriches the other person, he enhances the other's sense of aliveness by enhancing his own sense of aliveness. He does not give in order to receive; giving is in itself exquisite jov. But in giving he cannot help bringing something to life in the other person, and this which is brought to life reflects back to him; in truly giving, he cannot help receiving that which is given back to him. Giving implies to make the other person a giver also and they both share in the joy of what they have brought to life. In the act of giving something is born, and both persons involved are grateful for the life that is born for both of them. Specifically with regard to love this means: love is a power which produces love; impotence is the inability to produce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빈곤이 직접 야기하는 고통뿐 아니라 그 빈곤이 가난 한 사람으로부터 주는 행위의 기쁨을 앗아가 버리는 사실 때문에 더욱 품위를 잃는다.

그러나 주는 행위의 가장 중요한 영역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면에 있다. 인간은 타인에게 무엇을 주는가? 그는 자기 자신, 그가 가진 가장 귀중한 것, 다시 말하면 생명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꼭 그가 타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한다는 뜻은 아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는데, 즉 그의 기쁨, 흥미, 이해, 지식, 유머, 슬픔 등, 그 안에 살아 있는 것들을 모두 표현하고 표명한다. 그러므로 자신의 생명을 줌으로써 타인을 풍족하게하며, 자신의 생동감을 고양함으로써 타인의 생동감도 고양하는 것이다. 받기 위해 주지는 않는다. 주는 행위 그 자체가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인 것이다. 그러나 그는 줌으로써 타인에게 무엇인가를 소생시키지 않으면 안 되며, 소생시킨 이것은 다시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 진실로 줄 때, 그는 그에게 되돌아온 것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주는 것은 타인도 역시 주는 자로 만든다는 것을 뜻하며, 그들은 그들이 소생시킨 것에 대한 기쁨을 공유하게 된다. 주는행위에는 무엇인가가 탄생하며 관련된 두 사람은 그들 둘을 위해 태어난 생명에 대해 감사한다. 특히 사랑에 대해 말한다면, 사랑은 사랑을 만들어 내는

① degrading/품위를 떨어뜨리는 ② manifestation/표명, 표시 ③ exquisite/더할 나 위 없이 훌륭한 ④ bring to life/소생시키다

love. This thought has been beautifully expressed by Marx: "Assume." he says. "man as man. and his relation to the world as a human one, and you can exchange love only for love, confidence for confidence, etc. If you wish to enjoy art, you must be an artistically trained person: if you wish to have influence on other people, you must be a person who has a really stimulating and furthering influence on other people. Every one of your relationships to man and to nature must be a definite expression of your real, individual life corresponding to the object of your will. If you love without calling forth love. that is, if your love as such does not produce love, if by means of an expression of life as a loving person you do not make of yourself a loved person, then your love is impotent. a misfortune."5 But not only in love does giving mean receiving. The teacher is taught by his students, the actor is stimulated by his audience, the psychoanalyst is cured by his patient - provided they do not treat each other as objects, but are related to each other genuinely and productively.

It is hardly necessary to stress the fact that the ability to love as an act of giving depends on the character development of the person. It presupposes the attainment of a predominantly productive orientation; in this orien-

⁵ "Nationalökonomie und Philosophie," 1844, published in Karl Marx' Die Friihschriften, Alfred Kröner Verlag, Stuttgart, 1953, pp. 300, 301, (My translation, E. F.)

힘이고 무능력은 사랑을 만들어 내는 능력이 없다는 의미이다. 마르크스는 이 사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인간을 인간으로서〉생각하고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인간적 관계로 생각하라. 그러면 사랑은 사랑만을 위해서, 신용은 신용만을 위해서 교환할 수 있다. 예술을 즐기고자 한다면 예술적 훈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면 진실로 타인에게 자극적이면서 촉진적인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인간과 자연에 대한 모든 관계는 소망의 대상에 상웅하는,〈진실한 개인〉생활의 명확한 표현이어야 한다. 만일 당신이 사랑을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사랑을 한다면, 즉 사랑이 사랑을 낳지 못한다면, 만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표현〉에 의하여 당신 자신을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무능력하며 하나의 불행이다.' 그러나 사랑에서만은 주는 것이 받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교사는 학생에게서 배우고 배우는 관객들로부터 자극받으며, 정신 분석가는 환자로 인하여 치유되는 것이다. 단, 그들이 서로 대상으로 다루지 않고 서로 성실하고 생산적인 관계를 맺을 경우에 말이다.

주는 행위로서 사랑하는 능력이 인간의 성격 발달에 좌우된다는 사실은 강조할 필요가 거의 없다. 그것은 주로 생산적인 방향에로의 발달을 전제 조건으로 한다. 이 방향에 있어서 인간은 의존성, 자기 도취(自己陶醉, narciss-

① artistically/예술적으로 ② call forth/불러 일으키다, 환기하다 ③ psychoanalyst/ 정신 분석가 ④ genuinely/성실하게, 진실하게 ⑤ predominantly/우세하게, 유력하 게, 주로, 특히

tation the person has overcome dependency, narcissistic omnipotence, the wish to exploit others, or to hoard, and has acquired faith in his own human powers, courage to rely on his powers in the attainment of his goals. To the degree that these qualities are lacking, he is afraid of giving himself — hence of loving.

Beyond the element of giving, the active character of love becomes evident in the fact that it always implies certain basic elements, common to all forms of love. These are care, responsibility, respect and knowledge.

That love implies care is most evident in a mother's love for her child. No assurance of her love would strike us as sincere if we saw her lacking in care for the infant, if she neglected to feed it, to bathe it, to give it physical comfort; and we are impressed by her love if we see her caring for the child. It is not different even with the love for animals or flowers. If a woman told us that she loved flowers, and we saw that she forgot to water them, we would not believe in her "love" for flowers. Love is the active concern for the life and the growth of that which we love. Where this active concern is lacking, there is no love. This element of love has been beautifully described in the book of Jonah. God has told Jonah to go to Ninevel to warn its inhabitants that they will be punished unless they mend their evil ways. Jonah runs away from his mission because he is afraid that the people of Nineveh will repent and that God will forgive them. He is a man

ism)적 전능(全能), 타인을 착취하려는 욕망, 비축하려는 욕망을 극복해 왔고, 자신의 인간 능력에 대한 신뢰와 자신의 목표의 성취는 자신의 힘에 의존한다는 용기를 얻었다. 이러한 자질이 부족한 정도에 따라, 인간은 자기 자신을 주기를 두려워하고, 따라서 사랑하기도 두려워하는 것이다.

사랑의 능동적 성격은, 주는 것의 요소 이외에도, 모든 형태의 사랑이 공 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어떤 기본적 요소를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명확해진다. 이것들은 '배려', '책임', '존경' 및 '지식'이다.

사랑에 '배려'가 내포된다는 사실은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가장 명확히 나타난다. 어머니가 아기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을 본다면,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먹이거나 목욕을 시키거나 몸을 편안히 해주는 것을 게을리한다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어떠한 확신도 진실감을 주지 못할 것이다. 반대로 아기에 대한 어머니의 정성된 사랑을 보게 되면 우리는 감명을 받을 것이다. 동물이나 꽃에 대한 사랑조차도 이와 다르지 않다. 어느 부인이 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꽃에 물 주는 것을 잊었다면, 우리는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고 믿기 어려울 것이다. '사랑이란 우리가 사랑하는 것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다.' 이 적극적 관심이 결핍된 곳에는 사랑이 있을 수 없다. 사랑의 이러한 요소는 요나의 책에 잘 묘사되어 있다. 하느님은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그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들 자신의 나쁜 행실을 고치지 않는다면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느님이 그들을 용서할 것을 꺼려 그의 임무를 저

with a strong sense of order and law, but without love. However, in his attempt to escape, he finds himself in the belly of a whale, symbolizing the state of isolation and imprisonment which his lack of love and solidarity has brought upon him. God saves him, and Jonah goes to Nineveh. He preaches to the inhabitants as God had told him, and the very thing he was afraid of happens. The men of Nineveh repent their sins, mend their ways, and God forgives them and decides not to destroy the city. Jonah is intensely angry and disappointed: he wanted "justice" to be done, not mercy. At last he finds some comfort in the shade of a tree which God had made to grow for him to protect him from the sun. But when God makes the tree wilt. Jonah is depressed and angrily complains to God. God answers: "Thou hast had pity on the gourd for the which thou hast not labored neither madest it grow; which came up in a night, and perished in a night. And should I not spare Nineveh, that great city. wherein are more than sixscore thousand people that cannot discern between their right hand and their left hand; and also much cattle?" God's answer to Jonah is to be understood symbolically. God explains to Jonah that the essence of love is to "labor" for something and "to make something grow," that love and labor are inseparable. One loves that for which one labors, and one labors for that which one loves.

Care and concern imply another aspect of love; that of

버리고 도망하였다. 그는 도망하려 했지만 사랑과 연대감(連帶感)의 부족으 로 인한 고독과 각금의 상태를 상징하는 고래의 뱃속에 갇히게 된다. 하느님 은 요나를 구해 주고 요나는 니느웨로 간다. 그는 하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그가 두려워했던 일이 일어난다. 니느웨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의 행실을 고쳐 하느님은 그들을 용서 하고 그 도시를 파괴하지 않기로 결정한다. 요나는 몹시 화가 나고 실망한다. 그는 자비가 아니라 '정의'를 원했던 것이다. 요나는 결국 태양으로부터 그를 보호하기 위해 하느님이 자라게 한 나무 그늘에서 간신히 위안을 느끼게 된 다. 그러나 하느님이 나무를 시들게 하자. 요나는 낙심하고 화가 나서 하느님 에게 불평을 털어 놓는다. 하느님은 대답한다. '너는 수고도 아니 하였고 키 우지도 아니 하였으면서.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 새에 시들고 만 박넝쿨을 애석히 여기는구나. 하물며 좌우를 판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 도 많이 있는 거대한 도시 니느웨를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 하 나?' 하느님이 요나에게 한 대답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하느님은 요 나에게 사랑의 정수는 무엇을 위해 '힘쓰는 것', '무엇인가 성장토록 만드는 것'이며. 사랑과 힘쓰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설명하고 있다. 사람은 자신 이 힘쓰는 대상을 사랑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 힘을 쏟는 것이다. 배려와 관심은 사랑의 또 다른 측면, 즉 '책임'의 측면을 암시한다. 오늘날

we we were the transfer to the transfer to the transfer the transfer the

① solidarity/연대 책임, 일치, 결속, 단결 ② sixscore/6×20=120

responsibility. Today responsibility is often meant to denote duty, something imposed upon one from the outside. But responsibility, in its true sense, is an entirely voluntary act, it is my response to the needs, expressed or unexpressed, of another human being. To be "responsible" means to be able and ready to "respond." Jonah did not feel responsible to the inhabitants of Nineveh. He, like Cain, could ask: "Am I my brother's keeper?" The loving person responds. The life of his brother is not his brother's business alone, but his own. He feels responsible for his fellow men, as he feels responsible for himself. This responsibility, in the case of the mother and her infant, refers mainly to the care for physical needs. In the love between adults it refers mainly to the psychic needs of the other person.

Responsibility could easily deteriorate into domination and possessiveness, were it not for a third component of love, respect. Respect is not fear and awe; it denotes, in accordance with the root of the word (respicere = to look at), the ability to see a person as he is, to be aware of his unique individuality. Respect means the concern that the other person should grow and unfold as he is. Respect, thus, implies the absence of exploitation. I want the loved person to grow and unfold for his own sake, and in his own ways, and not for the purpose of serving me. If I love the other person, I feel one with him or her, but with him as he is, not as I need him to be as an ob-

사랑의 이론

책임은 종종 의무나 외부로부터 부과된 무엇인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 있어 책임이란, 표현되었건 표현되지 않았건, 다른 사람의 욕구에 내가 응답하는 완전한 자발적인 행동인 것이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응답'할 수 있으며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요나는 니느웨의 사람들에게 책임을 느끼지 않았다. 그는 카인처럼 '나는 나의 형제들의 보호자인가?' 라고 물을 수 있는 자였다.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의 인생은 형제의 인생일뿐 아니라 동포에게도 책임을 느낀다. 유아와 어머니의 경우에 있어서 이 책임감은 주로 신체적 욕구에 대한 배려를 가리킨다. 성인 간의 사랑에 있어서는 그것은 주로 상대방의 정신적인 욕구를 가리킨다.

만일 사랑의 세 번째 요소인 '존경'이 없다면, 책임은 쉽게 지배와 소유로 타락할 것이다. 존경은 두려움이나 경외(敬畏)가 아니다. 존경이란, 그 어원 (respicere, 바라보다)에 따르자면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그 사람의 유일 무이한 개성을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다. 존경은 상대방이 그 나름대로 성장 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관심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존경은 착취가 없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 나에게 봉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한다. 만 일 내가 남을 사랑한다면, 나는 그 또는 그녀와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지만 그것은 '있는 그대로의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이지. 내가 사용할 대상으로 내

① exploitation/착취, 이기적인 이용

ject for my use. It is clear that respect is possible only if I have achieved independence; if I can stand and walk without needing crutches, without having to dominate and exploit anyone else. Respect exists only on the basis of freedom: "l'amour est l'enfant de la liberte" as an old French song says; love is the child of freedom, never that of domination.

To respect a person is not possible without knowing him: care and responsibility would be blind if they were not guided by knowledge. Knowledge would be empty if it were not motivated by concern. There are many lavers of knowledge; the knowledge which is an aspect of love is one which does not stay at the periphery, but penetrates to the core. It is possible only when I can transcend the concern for myself and see the other person in his own terms. I may know, for instance, that a person is angry. even if he does not show it overtly; but I may know him more deeply than that: then I know that he is anxious. and worried; that he feels lonely, that he feels guilty. Then I know that his anger is only the manifestation of something deeper, and I see him as anxious and embarrassed, that is, as the suffering person, rather than as the angry one.

Knowledge has one more, and a more fundamental, relation to the problem of love. The basic need to fuse with another person so as to transcend the prison of one's separateness is closely related to another specifically human

가 필요로 할 그와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존경이란 자립을 성취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은 뚜렷하다. 다시 말해서 '내'가 목발 없이, 즉 다른 사람을 지배하거나 착취하고자 함이 없이 서서 걸을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존경은 자유의 기반 위에서만 존재한다. 프랑스의 옛 노래에도 있듯이 '사랑은 자유의 소산'이며 사랑은 자유의 아들이지 결코 지배의 아들은 아니다

사람을 존경한다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하고는 불가능하다. 배려와 책임감은 그들의 지식에 의하여 유도되지 않는다면 맹목적이 된다. 관심에 의해 유발되지 않는 지식은 공허한 것이 되고 만다. 지식에는 여러 층이 있다. 사랑의 한 측면인 지식은 주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핵심까지 꿰뚫어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은 나 자신을 초월하여 타인을 그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을때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이 화내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안다고 하자. 그러나 더 나아가 노여움보다 더 깊은 곳까지를 그에 대해 안다고 하면, 그의 불안과 번민, 고독감과 죄책감을 나는 알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노여움이 더한층 심각한 그 무엇의 단순한 외적 표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를 불안하고 당황해 하는 사람, 다시 말해 노한 사람이라기보다 고통받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이다.

지식은 사랑의 문제와 더욱 기본적인 또 하나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분리 감의 감옥을 초월하기 위해 타인과 융합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구는 '인간

① crutch/목발 ② layer/충 ③ periphery/주위, 원주, 주변 ④ overtly/공공연하게, 명백히 ⑤ fuse/융합하다. 용해하다. 여합하다

desire, that to know the "secret of man." While life in its merely biological aspects is a miracle and a secret, man in his human aspects is an unfathomable secret to himself — and to his fellow man. We know ourselves, and yet even with all the efforts we may make, we do not know ourselves. We know our fellow man, and yet we do not know him, because we are not a thing, and our fellow man is not a thing. The further we reach into the depth of our being, or someone else's being, the more the goal of knowledge eludes us. Yet we cannot help desiring to penetrate into the secret of man's soul, into the innermost nucleus which is "he."

There is one way, a desperate one, to know the secret: it is that of complete power over another person; the power which makes him do what we want, feel what we want, think what we want; which transforms him into a thing, our thing, our possession. The ultimate degree of this attempt to know lies in the extremes of sadism, the desire and ability to make a human being suffer; to torture him, to force him to betray his secret in his suffering. In this craving for penetrating man's secret, his and hence our own, lies an essential motivation for the depth and intensity of cruelty and destructiveness. In a very succinct way this idea has been expressed by Issac Babel. He quotes a fellow officer in the Russian civil war, who has just stamped his former master to death, as saying: "With shooting — I'll put it this way — with shooting

사랑의 이론

의 비밀'을 알려 하는 다른 독특한 인간적 욕구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단순한 생물학적 관점에서도 생명은 기적적이고 신비적이기도 하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의 인간은 자신에게, 또 그의 동료들에게도 불가해한 비밀의 존재인 것이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다. 그러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완전히 알 수 없다. 우리는 동료를 알지만 우리가 하나의 사물이 아니고 우리의 동료가 하나의 사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우리의 존재 또는 타인의 존재에 점점 더 깊이 도달하면 도달할수록 지식의 목표는 더욱더 우리를 교묘히 피해 나간다. 하지만 우리는 인간의 영혼의 비밀 속으로, '인간' 그 자체의 가장 깊은 핵심 속으로 꿰뚫고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인간의 비밀을 알아내는 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모한 방법이다. 그것은 타인에게 완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다. 타인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당동하게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느끼도록 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사고하게 만드는 힘이다. 그것은 타인을 하나의 물건, 우리의 당시에서 함을 수 없는 고통을 주어 고통 속에서 자신의 비밀을 누설케 하는 욕구와 능력이다. 인간과 타인,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비를 파해쳐 보려는 이러한 열망에는 심오하고 강렬한 잔인성의 본질적인 동기가 있는 것이다. 이 사상은 아주 간결한 방법으로 아이작 바벨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 그는 러시아 내란 때 전 주인을 사형하라는 도장을 찍은 동료 장교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인용하고 있다. '나는 총살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총살로써는 그놈에게서 벗어날 수 있을 뿐이

① unfathomable/심오한, 불가해한 ② eludes/(교묘하게) 피하다, 회피하다 ③ desperate/무모한, 자포 자기의 ④ succinct/간결한, 간명한

you only get rid of a chap. . . . With shooting you'll never get at the soul, to where it is in a fellow and how it shows itself. But I don't spare myself, and I've more than once trampled an enemy for over an hour. You see, I want to get to know what life really is, what life's like down our way."

In children we often see this path to knowledge quite overtly. The child takes something apart, breaks it up in order to know it; or it takes an animal apart; cruelly tears off the wings of a butterfly in order to know it, to force its secret. The cruelty itself is motivated by something deeper: the wish to know the secret of things and of life.

The other path to knowing "the secret" is love. Love is active penetration of the other person, in which my desire to know is stilled by union. In the act of fusion I know you, I know myself, I know everybody — and I "know" nothing. I know in the only way knowledge of that which is alive is possible for man — by experience of union — not by any knowledge our thought can give. Sadism is motivated by the wish to know the secret, yet I remain as ignorant as I was before. I have torn the other being apart limb from limb, yet all I have done is to destroy him. Love is the only way of knowledge, which in the act of union answers my quest. In the act of loving, of giving myself, in the act of penetrating the other person, I find myself, I discover myself, I discover us both,

⁶I. Bable, The Collected Stories, Criterion Books, New York, 1955.

다. ……충살로써는 영혼에 도달하지 못하고 그놈의 어디에 영혼이 있고 또어떻게 보이는지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난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나는 적을한 시간 이상이나 짓밟아 본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니까 생명이란 것이 진정 무엇인지, 생명이 우리의 방식에 따라 어떻게 스러지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다.'

어린아이에게 있어 알려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이주 공공연하게 볼 수 있다. 어린아이들은 어떤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것을 끌어내어 분해한다. 또는 동물을 해부하기도 한다. 나비를 알기 위해, 나비의 비밀을 드러내기 위해 잔인하게 날개를 잡아뜯는다. 이러한 잔인성 그 자체는 사물과 생명의 신비를 알기 위한 더욱더 깊은 열망에 의해서 유발되는 것이다.

'비밀'을 알아내는 또 다른 방법은 사랑이다. 사랑이란 상대방에 대한 적극적인 침투인데 거기서 알고자 하는 나의 욕구는 합일에 의해서 이룩된다. 융합을 통해서 나는 당신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모든 사람을 알지만,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나는 오직 한 가지 방법에 의해서만 인간에 대한 살아있는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의 사고(思考)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합일의 경험에 의해서만 인간에게 가능하다는 것이다. 새디즘은 비밀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에 의해서 유발된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모르는 상태에 있다. 나는 다른 사람을 갈기갈기 찢어 보았으나 내가 한 일은 단지 그를 죽이고 만 것이었다. 사랑은 지식으로 이르는 유일한 길이며 사랑은 합일의 행위를 통해 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행위에서, 즉 나 자신을 주는 행위에서, 타인에게 침투하는 행위에서 나는 나 자신을 찾아내어 나 자신을 발견하고, 나는 우리라는 두 사람을

① chap/놈, 녀석 ② trample/짓밟다, 깔아 뭉개다 ③ take apart/분해하다

I discover man.

The longing to know ourselves and to know our fellow man has been expressed in the Delphic motto "Know thvself." It is the mainspring of all psychology. But inasmuch as the desire is to know all of man, his innermost secret, the desire can never be fulfilled in knowledge of the ordinary kind, in knowledge only by thought. Even if we knew a thousand times more of ourselves, we would never reach bottom. We would still remain an enigma to ourselves, as our fellow man would remain an enigma to us. The only way of full knowledge lies in the act of love: this act transcends thought, it transcends words. It is the daring plunge into the experience of union. However, knowledge in thought, that is psychological knowledge,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full knowledge in the act of love. I have to know the other person and myself objectively, in order to be able to see his reality, or rather, to overcome the illusions, the irrationally distorted picture I have of him. Only if I know a human being objectively, can I know him in his ultimate essence, in the act of love.7

The problem of knowing man is parallel to the religious problem of knowing God. In conventional Western theol-

⁷The above statement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for the role of psychology in contemporary Western culture While the great popularity of psychology certainly indicates an interest in the knowledge of man, it also betrays the fundamental lack of love in human relations today. Psychological knowledge thus becomes a substitute for full knowledge in the act of love, instead of being a step toward it.

발견하고 인간을 발견한다.

우리 자신을 알고 동포를 알고자 하는 갈망은 텔포이의 금언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모든 심리학의 주요 동기이기도 하다. 그 욕구가 인간의 모든 것 또는 그 가장 깊은 신비를 알고자 하는 것인 한, 이 욕구는 결코 일반 지식, 즉 사고에만 의존하는 지식으로는 결코 만족되지 않는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지금 알고 있는 것보다 천 배나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결코 그 밑바닥에 도달하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의 동료가 우리에게 수수께끼로 남아 있는 한,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완전한 지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사랑의 '행위'에 있는데, 이행위는 사고를 초월하고 언어를 초월한다. 그것은 합일의 경험으로 대답하게 뛰어든다. 하지만 심리학적 지식이긴 하나 사고에 의한 지식은 사랑의 행위에 있어서 완전한 지식의 추구를 위한 필요 조건이다. 타인의 진실을 알기위해서는, 오히려 그에 대한 나의 착각이나 불합리하게 왜곡된 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타인과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알아야 한다. 인간을 객관적으로 알 때에만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나는 인간을 궁극적 본질에 있어서 알 수 있다.

인간을 알고자 하는 문제는 신을 알고자 하는 문제와 병행한다. 전통적인 7. 이상의 말은 현대 서양 문화에 있어서 심리학의 역할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심리학의 대단한 인기는 확실히 인간의 지식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또한 오늘날의 인간 관계에 있어서의 사랑의 기본적 결핍을 드러내기도 한다. 따라서 심리학적 지식은 사랑의 행위을 통해 완전한 지식에 한걸음 다가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지식의 대용품이 된다.

① motto/급언, 격언 ② mainspring/주요 동기, 중요 원인 ③ enigma/수수께기

ogy the attempt is made to know God by thought, to make statements about God. It is assumed that I can know God in my thought. In mysticism, which is the consequent outcome of monotheism (as I shall try to show later on), the attempt is given up to know God by thought, and it is replaced by the experience of union with God in which there is no more room — and no need — for knowledge about God.

The experience of union, with man, or religiously speaking, with God, is by no means irrational. On the contrary, it is as Albert Schweitzer has pointed out, the consequence of rationalism, its most daring and radical consequence. It is based on our knowledge of the fundamental, and not accidental, limitations of our knowledge. It is the knowledge that we shall never "grasp" the secret of man and of the universe, but that we can know, nevertheless, in the act of love. Psychology as a science has its limitations, and, as the logical consequence of theology is mysticism, so the ultimate consequence of psychology is love.

Care, responsibility, respect and knowledge are mutually interdependent. They are a syndrome of attitudes which are to be found in the mature person; that is, in the person who develops his own powers productively, who only wants to have that which he has worked for, who has given up narcissistic dreams of omniscience and omnipotence, who has acquired humility based on the inner

서구 신학에 있어서는 사고에 의해서 신을 알고자 하는, 신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다. 이 신학은 나의 사고에 의해서 신을 알 수 있으리라 여겨졌다. 신비주의에 있어서, 이것은 일신교의 당연한 결과이지만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사고에 의해서 신을 알고자 하는 노력은 포기되었고, 신에 '대한' 지식 따위는 들어갈 여지가 없는 또 그럴 필요도 없는, 신과의 합일이라는 경험으로 대치되었다.

인간과의 합일의 경험, 종교적으로 말하자면 신과의 합일의 경험은 결코불합리하지는 않다. 알버트 슈바이처의 말을 빌린다면, 그것은 오히려 합리주의의 결과이며, 합리주의의 가장 대담하고도 철저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과 우리 지식의 한계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인간과 우주의 신비를 '이해'할 수 없으리라는 지식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행위에서 알 수 있는 지식인 것이다. 과학으로서의 심리학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신학의 논리적 결론이 신비주의 이듯이 심리학의 궁극적 결론은 사랑이다.

배려, 책임, 존경, 지식은 상호 의존한다. 이런 것들은 성숙한 사람, 다시 말해서 자신의 힘을 생산적으로 발전시키고 자신이 일한 만큼만을 갖기를 원하고 전지 전능하다는 자기 도취적 환상을 포기하고 순수한 생산적 활동 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내적인 힘에 입각한 겸손을 터득한 사람에게서 발견되

以下之子,其中其中其中其中其中其中其中其中其中其中其中其中其中其中其中其中其中

① mysticism/신비주의 ② monotheism/일신교 ③ interdependent/서로 의존하는 ④ syndrome/일련의 사건, 사회의 여러 중상 ⑤ omniscience/전지(全知), 박식 ⑥ omnipotence/전능

strength which only genuine productive activity can give.

Thus far I have spoken of love as the overcoming of human separateness, as the fulfillment of the longing for union. But above the universal, existential need for union rises a more specific, biological one: the desire for union between the masculine and feminine poles. The idea of this polarization is most strikingly expressed in the myth that originally man and woman were one, that they were cut in half, and from then on each male has been seeking for the lost female part of himself in order to unite again with her. (The same idea of the original unity of the sexes is also contained in the Biblical story of Eve being made from Adam's rib, even though in this story, in the spirit of patriarchalism. woman is considered secondary to man.) The meaning of the myth is clear enough. Sexual polarization leads man to seek union in a specific way, that of union with the other sex. The polarity between the male and female principles exists also within each man and each woman. Just as physiologically man and woman each have hormones of the opposite sex, they are bisexual also in the psychological sense. They carry in themselves the principle of receiving and of penetrating, of matter and of spirit. Man - and woman - finds union within himself only in the union of his female and his male polarity. This polarity is the basis for all creativity.

The male-female polarity is also the basis for interpersonal creativity. This is obvious biologically in the fact 어야 할 태도의 징표이다.

나는 지금까지 인간의 분리감을 극복하는 것으로서의 사랑, 합일에의 갈 망을 만족시키는 것으로서의 사랑에 대해 말해 왔다. 보편적이고 실존적인 합일에의 욕구 위에는 더욱 독특하고 생물학적인 욕구, 즉 남성과 여성이라 는 두 극(極) 사이의 합일이라는 욕구가 생긴다. 이러한 양극성(兩極性) 사 상은 본래 남성과 여성은 하나였으나 그들이 반으로 갈라진 때부터 남성은 각각 자신이 잃어버린 여성과 결합하기 위하여 자신의 일부인 여성을 찾고 있다는 신화에 뚜렷이 표현되어 있다(최초에 양성이 일체였다는 사상은 아 담의 갈비뼈로 이브가 만들어졌다는 성경의 이야기에도 들어 있는데, 이 이 야기에서는 가부장주의(家父長主義) 정신으로 여성이 남성의 이차적인 것으 로 생각되었다). 이 신화가 의미하는 바는 실로 명확하다. 성적인 양극성은 이성과의 합일이라는 특수한 방법으로 합의을 추구하도록 인간을 유도한다.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 사이의 양극성은 개개의 남녀 '속에도' 존재한다. 생리학상 남성과 여성은 각기 반대의 성호르몬을 가지고 있듯이 심리학적인 의미에 있어서도 각각의 성을 가지고 있다. 물질과 정신의 측면에서, 남성과 여성은 받는다는 것과 침투한다는 것의 원칙을 지니고 있다. 남성 그리고 여 성은 자신의 여성의 극 또는 남성의 극과의 합일에 의해서만 자신과의 합일 을 발견한다. 이러한 양극성은 모든 창조의 기반인 것이다.

남녀의 양극성은 상호간의 창조의 근거가 된다. 이것은 생리학적으로 정

① masculine/남성의, 남성적인 ② polarization/극화, 양극을 갖기, 분국 작용 ③ patriarchalism/가부장주의, 가장(家長) 정치(조직) ④ physiologically/생리학상으로 ⑤ bisexual/양성(兩性)의

that the union of sperm and ovum is the basis for the birth of a child. But in the purely psychic realm it is not different; in the love between man and woman, each of them is reborn. (The homosexual deviation is a failure to attain this polarized union, and thus the homosexual suffers from the pain of never-resolved separateness, a failure, however, which he shares with the average heterosexual who cannot love.)

The same polarity of the male and female principle exists in nature; not only, as is obvious in animals and plants, but in the polarity of the two fundamental functions, that of receiving and that of penetrating. It is the polarity of the earth and rain, of the river and the ocean, of night and day, of darkness and light, of matter and spirit. This idea is beautifully expressed by the great Muslim poet and mystic, Rumi:

Never, in sooth, does the lover seek without being sought by his beloved.

When the lightning of love has shot into this heart, know that there is love in that heart.

When love of God waxes in thy heart, beyond any doubt God hath love for thee.

No sound of clapping comes from one hand without the other hand.

Divine Wisdom is destiny and decree made us lovers of one another.

사랑의 이론

자와 난자의 결합이 아이의 출생에 기초가 된다는 사실에서 명확해진다. 순수한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그것은 다름이 없다. 남녀 사이의 사랑을 통해 그들은 각기 재생하는 것이다(동성애적인 일탈(逸脫)은 이 양극화된 합일에의 실패이고 따라서 동성애자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분리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으며, 사랑할 줄 모르는 이성애자(異性愛子)와 같은 것이다)

남성적 요소와 여성적 요소의 똑같은 양극성은 자연계에도 존재한다. 동물이나 식물에서 현저할 뿐 아니라 받음과 침투라는 두 가지 기본적인 기능의 양극성에도 존재한다. 대지와 비, 강과 바다, 밤과 낮, 어둠과 빛, 물질과정신의 양극성이 바로 그것이다. 이 사상은 위대한 회교도 시인이며 신비주의자였던 루미에 의해 잘 표현되어 있다.

사랑하는 이가 임을 찾을 때는 정녕 임은 그를 찾고 있다.

'이' 영혼에 사랑의 불이 켜질 때 '그' 영혼에도 사랑이 있음을 알게 된다.

그대의 마음속에서 신에 대한 사랑이 자랄 때 어김없이 신은 그대에 대한 사랑을 품는다.

다른 한 손이 없으면 한 손으로는 손뼉을 칠 수 없다.

성스러운 지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만드는 운명이요 법령이다.

① Muslim=Moslem/회교도의, 마호메트 신자의 ② in sooth/사실, 정말로, 정녕 ③ wax/커지다. 중대하다, 자라다 ④ decree/법령, 율령, 포고

THE ART OF LOVING

- Because of that fore-ordainment every part of the world is paired with its mate.
- In the view of the wise, Heaven is man and Earth woman: Earth fosters what Heaven lets fall.
- When Earth lacks heat, Heaven sends it; when she has lost her freshness and moisture, Heaven restores it.
- Heaven goes on his rounds, like a husband foraging for the wife's sake:
- And Earth is busy with housewiferies: she attends to births and suckling that which she bears.
- Regard Earth and Heaven as endowed with intelligence, since they do the work of intelligent beings.
- Unless these twain taste pleasure from one another, why are they creeping together like sweethearts?
- Without the Earth, how should flower and tree blossom?
 What, then, would Heaven's water and heat produce?
- As God put desire in man and woman to the end that the world should be preserved by their union,
- So hath He implanted in every part of existence the desire for another part.
- Day and Night are enemies outwardly; yet both serve one purpose,
- Each in love with the other for the sake of perfecting their mutual work,
- Without Night, the nature of Man would receive no income, so there would be nothing for Day to spend.⁸

사랑의 이론

세상의 모든 것이 짝을 이루는 것은 이미 정해진 번이다

현자(賢者)의 눈에는 하늘은 남성, 대지는 여성. 하늘이 내리는 것을 대지는 양육한다.

대지가 열을 잃을 때 하늘은 열을 보내고, 대지가 신선함과 습기를 잃을 때 하늘은 그것을 다시 보충해 준다.

하늘은 아내를 위해 양식을 찾아 해매는 남편처럼 끊임없이 회전한다.

대지는 가사일 보듯 분주하며 자식을 낳아 젖을 주고 기른다.

대지와 하늘이 지혜로운 일을 하고 있는 한, 대지와 하늘은 지혜를 타고난 것으로 여기자

대지와 하늘이 서로 기쁨을 나누지 않는다면, 어째서 이들은 연인처럼 포용하고 있는가?

대지가 없다면 어떻게 꽃이 피고 나무가 자랄 것인가? 그렇다면 하늘은 무엇을 위해 물과 열을 만들어 낼 것인가?

신은 남성과 여성에게 그들의 합일에 의해 세계를 보존하려는 욕망을 끝까지 품게 한 것처럼,

신은 실존의 모든 곳에 그의 또 다른 부분을 갈망하는 욕구를 심어 놓았다.

낮과 밤은 겉으로는 적이지만 그들은 하나의 목적을 같이하고 있다.

서로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낮과 밤을 서로 사랑하고 있다.

밤이 없으면 인간이란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따라서 낮에 소비할 것이 없으리라.

① forage for/양식(식량)을 찾아 헤매다 ② suckling/유아, 젖먹이 ③ to the end that/~하기 위해, ~의 목적으로

THE ART OF LOVING

The problem of the male-female polarity leads to some further discussion on the subject matter of love and sex. I have spoken before of Freud's error in seeing in love exclusively the expression — or a sublimation $\stackrel{\circ}{-}$ of the sexual instinct, rather than recognizing that the sexual desire is one manifestation of the need for love and union. But Freud's error goes deeper. In line with his physiological materialism. he sees in the sexual instinct the result of a chemically produced tension in the body which is painful and seeks for relief. The aim of the sexual desire is the removal of this painful tension; sexual satisfaction lies in the accomplishment of this removal. This view has its validity to the extent that the sexual desire operates in the same fashion as hunger or thirst do when the organism is undernourished. Sexual desire, in this concept, is an itch, sexual satisfaction the removal of the itch. In fact, as far as this concept of sexuality is concerned. Masturbation would be the ideal sexual satisfaction. What Freud, paradoxically enough, ignores, is the psycho-biological aspect of sexuality, the masculine-feminine polarity, and the desire to bridge this polarity by union. This curious error was probably facilitated by Freud's extreme patriarchalism, which led him to the assumption that sexuality per se is masculine, and thus made him ignore the specific female sexuality. He expressed this idea in the Three Contribu-

⁸R.A. Nicholson, Rūmī, George Allen and Unwin, Ltd. London, 1950, pp. 122-3.

사랑의 이론

남녀의 양극성의 문제는 사랑과 성이라는 과제에 대하여 좀더 토론할 필 요가 있다. 나는 전에 성욕이 사랑과 합일에의 욕구의 하나라는 점을 인정치 않고 성적 본능의 표현 또는 슷화로만 생각하는 프로이트의 작무에 대해 언 급한 적이 있다. 그러나 프로이트의 잘못은 더 심각한 것이다. 그는 생리학적 유물론과 일치하거니와, 그는 성적 본능을 체내에 화학적으로 생긴, 고통스 럽게 해소를 갈망하는 긴장의 결과라고 본다. 성욕의 목표는 이 고통스러운 긴장의 제거이며 성적 만족은 이 제거의 달성에 있는 것이다. 이 견해는 유 기체가 충분히 영양을 섭취하지 못했을 때 굶주림 또는 갈증이 작용하는 것 과 같이 성욕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 개념에서 성욕이 참을 수 없는 갈망 이며, 성적 만족이란 이 갈망의 해소라는 것이다. 사실 이 개념에 있어 자위 (自慰)는 이상적인 성적 만족이 될 것이다. 역설적이기는 하나 프로이트가 등하시하고 있는 것은 성의 심리 생물학적 측면, 남녀의 양극성, 합일에 의해 다리를 놓으려고 하는 욕망 등이다. 이 기묘한 잘못은 아마 프로이트의 극단 적인 가부장주의에 의해 조성되었을 것이다. 가부장주의 때문에 그는 성욕을 본래 남성적이라고 가정하게 되었고 따라서 여성적 성욕을 무시하게 되었다. 그의 《성의 이론에 관한 세 논문》에서 성적 충동(性的衝動, libido)은 여성에

① sublimation/숭화, 순화, 이상화 ② itch/갈망, 간절한 소망 ③ masturbation/수음(手淫), 자위 행위

tions to the Theory of Sex, saying that the libido has regularly "a masculine nature," regardless of whether it is the libido in a man or in a woman. The same idea is also expressed in a rationalized from in Freud's theory that the little boy experiences the woman as a castrated man, and that she herself seeks for various compensations for the loss of the male genital. But woman is not a castrated man, and her sexuality is specifically feminine and not of "a masculine nature."

Sexual attraction between the sexes is only partly motivated by the need for removal of tension; it is mainly the need for union with the other sexual pole. In fact, erotic attraction is by no means only expressed in sexual attraction. There is masculinity and femininity in character as well as in sexual function. The masculine character can be defined as having the qualities of penetration, guidance. activity, discipline and adventurousness; the feminine character by the qualities of productive receptiveness, protection, realism, endurance, motherliness. (It must always be kept in mind that in each individual both characteristics are blended, but with the preponderance of those appertaining to "his" or "her" sex.) Very often if the masculine character traits of a man are weakend because emotionally he has remained a child, he will try to compensate for this lack by the exclusive emphasis on his male role in sex. The result is the Don Juan, who needs to prove his male prowess in sex because he is unsure of his

사랑의 이론

있는 남성에 있는 상관없이 '남성적 성격'을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견해를 표현했다. 또한 사내아이가 거세된 남성으로서 여성을 경험하고 여성 자신은 남성 성기의 상실에 대해 여러 가지 보상을 찾고 있다는 프로이트의 이론에서 합리된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그러나 여성은 거세된 남성이 아니며 여자의 성욕은 '남성적 성격'이 아닌 여성의 고유한 것이다.

이성 간의 성적 매력은 이 긴장의 제거라는 욕구에 의해 유발되는데, 그것은 부분적일 뿐 그 매력은 주로 이성의 극과의 합일이라는 욕구인 것이다. '성적 기능'뿐 아니라 '성적 성격'에도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있다. 남성적 성격은 침투, 지시, 활동, 단련, 모험이라는 성질을 구비함으로써 분명해질 수 있고, 여성적 성격은 생산적인 수용성(受溶性), 보호, 현실성, 인내, 어머니다운 성질로써 명확해진다(개개인에게는 두 가지 특성이 혼합되어 있지만, '남성' 또는 '여성'의 성과 관련된 것이 우세하게 혼합되어 있는 것이란점을 항상 명심해야 된다). 종종 남성은 정서적으로 어린아이인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남성적 성격의 특징이 약해지면, '성교'에 있어 남성적 역할을 배타적으로 강조함으로써 이러한 결함을 보상하려 애를 쓴다. 결과적으로 돈환 같은 방탕아가 되는데, 그는 자신이 성격적인 의미에 있어 남성다움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성교에 있어서 자신의 남성으로서의 힘을 입증할 필요

① castrate/거세하다, 중요 부분을 없애다 ② preponderance/우세, 우위 ③ prowess/용맹, 용감, 훌륭한 솜씨

masculinity in a characterological sense. When the paralysis of masculinity is more extreme, sadism (the use of force) becomes the main — a perverted — substitute for masculinity. If the feminine sexuality is weakened or perverted, it is transformed into masochism, or possessiveness.

Freud has been criticized for his overevaluation of sex. This criticism was often prompted by the wish to remove an element from Freud's system which aroused criticism and hostility among conventionally minded people. Freud keenly sensed this motivation and for this very reason fought every attempt to change his theory of sex. Indeed, in his time. Freud's theory had a challenging and revolutionary character. But what was true around 1900 is not true any more fifty years later. The sexual mores have changed so much that Freud's theories are not any longer shocking to the Western middle classes, and it is a quixotic kind of radicalism when orthodox analysts today still think they are courageous and radical in defending Freud's sexual theory. In fact, their brand of psychoanalysis is conformist, and does not try to raise psychological questions which would lead to a criticism of contemporary society.

My criticism of Freud's theory is not that he overemphasized sex, but his failure to understand sex deeply enough. He took the first step in discovering the significance of interpersonal passions; in accordance with his philosophic premises he explained them physiologically. 가 있는 것이다. 남성다움의 마비가 극단적일 때, 새디즘(폭력의 사용)은 남성다움의 도착(倒錯)된, 주된 대용 수단이 된다. 여성의 성욕은 약화되거나도착에 빠지면, 매저키즘 또는 소유욕으로 변형된다.

프로이트는 성을 과대 평가하는 점에서 비판이 되어 왔다. 이러한 비판은 전통적인 사고 방식의 사람들 사이에 비난과 적의를 야기했던 요소를 프로이트 체계로부터 제거하려는 소망에 의해서 고무되었다. 프로이트는 예민하게 이런 동기를 눈치 채고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의 성 이론을 수정하고자 하는 온갖 시도와 싸웠다. 실제로 그의 시대에 있어서 프로이트의 이론은 다분히 도전적이고 혁명적인 성격을 지녔었다. 그러나 1900년대에 진실이었던 것이 50년 후에도 진실일 수는 없다. 성적인 관습이 많이 변해서 프로이트의 이론은 서구의 중류 계급에서도 별로 놀랄 만한 것이 아니며, 오늘날정통과의 분석가가 아직도 프로이트의 성 이론을 옹호하는 것을 용감하고급진적인 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동 키호테 식의 과격주의가 될 것이다. 사실 그들이 지닌 정신 분석가라는 낙인은 준봉자이며, 현대 사회의 어떤 비판을 유도해야 하는 심리학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프로이트 이론에 대한 나의 비판은 그가 성을 과대 평가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성을 충분히 깊이 이해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인 관계적인 열정의 중요성을 발견하는 일을 첫 단계로 삼고, 그의 철학적 전제에

عياسيان والمراد والمراد والمناول والمنا

① mores/관습 ② quixotic/동 키호테 식의, 공상에 미친, 현실을 모르는

In the further development of psychoanalysis it is necessary to correct and deepen Freud's concept by translating Freud's insights from the physiological into the biological and existential dimension.⁹

2. LOVE RETWEEN PARENT AND CHILD

The infant, at the moment of birth, would feel the fear of dying, if a gracious fate did not preserve it from any awareness of the anxiety involved in the separation from mother, and from intra-uterine existence. Even after being born, the infant is hardly different from what it was before birth; it cannot recognize objects, it is not yet aware of itself, and of the world as being outside of itself. It only feels the positive stimulation of warmth and food, and it does not yet differentiate warmth and food from its source: mother. Mother is warmth, mother is food, mother is the euphoric state of satisfaction and security. This state is one of narcissism, to use Freud's term. The outside reality, persons and things, have meaning only in terms of their satisfying or frustrating the inner state of the body. Real is only what is within; what is outside

⁹ Freud himself made a first step in this direction in his later concept of the life and death instincts. His concept of the former (eros) as a principle of synthesis and unification is on an entirely different plane from that of his libido concept. But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 theory of life and death instincts was accepted by orthodox analysts, this acceptance did not lead to a fundamental revision of the libido concept, especially as far as clinical work is concerned.

따라 그는 그것들을 생리학적으로 설명했다. 앞으로 정신 분석을 더욱 발전 시키는 과정에서 프로이트의 통찰을 생리학적 차원에서 생물학적 및 실존적 차원으로 옮겨 놓아 프로이트의 개념을 수정하고 탐구함 필요가 있다.

2.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모체와 자궁(子宮) 내의 생존으로부터의 분리에 수반되어 있는 불안을 아기가 알지 못하도록 자비로운 운명의 여신이 돌봐 주지 않는다면, 아기는 출생하는 순간부터 죽음의 공포를 느낄 것이다. 태어난 후에도 유아는 출생 전과 거의 다를 게 없다. 아직 대상을 인식치 못하고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며 자기 밖에 있는 세계를 알지 못한다. 따뜻함과 음식물에 대한 명확한 자극만을 느끼며, 아직 그런 자극을 자신의 근원인 어머니와 구별하지 못한다. 어머니는 따뜻함이고 음식물이며 만족과 안정의 행복한 상태이다. 프로이트의 용어를 빌린다면 이 상태는 자기 도취의 한 형태이다. 사람이나 사물, 즉 외계의 실재(實在)는 신체의 내적 상태를 만족시키거나 실망시키는 존재로서의의미만을 갖는다. 실체는 내재하는 것이고 외재하는 것은 나의 욕구에 한하

9. 프로이트 자신은 삶과 죽음의 본능에 대한 그의 후기 개념에서 이 방향으로 한걸음 전진했다. 종합과 통일의 원리에서 본 그의 사랑의 개념(에로스)은 그의 리비도 개념과 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나 삶과 죽음의 본능에 대한 이론이 권위 있는 분석가들에 의해 받아들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정은, 특히 임상적인 면에 관한 한, 리비 도 개념의 근본적 수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① intra-uterine/자궁 내의 ② differentiate/구별하다 ③ euphoric/행복감의, 도취의

is real only in terms of my needs — never in terms of its own qualities or needs.

When the child grows and develops, he becomes capable of perceiving things as they are; the satisfaction in being fed becomes differentiated from the nipple, the breast from the mother. Eventually the child experiences his thirst, the satisfying milk, the breast and the mother, as different entities. He learns to perceive many other things as being different, as having an existence of their own. At this point he learns to give them names. At the same time he learns to handle them; learns that fire is hot and painful, that mother's body is warm and pleasureful, that wood is hard and heavy, that paper is light and can be torn. He learns how to handle people; that mother will smile when I eat; that she will take me in her arms when I cry; that she will praise me when I have a bowel movement. All these experiences become crystallized and integrated in the experience: I am loved. I am loved because I am mother's child. I am loved because I am helpless. I am loved because I am beautiful, admirable. I am loved because mother needs me. To put it in a more general formula: I am loved for what I am, or perhaps more accurately, I am loved because I am. This experience of being loved by mother is a passive one. There is nothing I have to do in order to be loved — mother's love is unconditional. All I have to do is to be — to be her child. Mother's love is bliss. is peace, it need not be acquired, it need not be deserved. But 여 실체이고 결코 그 자체의 성질이나 욕구에 한한 것이 아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고 발달하게 되면 사물을 있는 그대로 감지할 수 있게 되며. 젖을 먹는 데서 얻는 만족은 젖꼭지와 구별되고 어머니의 유방은 어머 니와 구별된다. 결과적으로 어린아이는 감증, 만족을 주는 젖, 유방, 어머니 를 각각 다른 실재로서 경험한다. 어린아이는 많은 사물들이 각각 다른 것으 로서 나름대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이 시기에 그것들의 이름 을 배우게 되고 동시에 그것들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게 된다. 불은 뜨겁고 고통스럽다는 것, 어머니의 몸은 따뜻하고 만족할 만하다는 것, 나무는 단단 하고 무겁다는 것, 종이는 가볍고 찢어진다는 것들을 배운다. 또 어린아이는 사람을 다루는 법도 배우게 되는데, 즉 어머니는 내가 먹을 때 미소를 지을 것이고 울면 안아 줄 것이며 대소변을 가리면 칭찬받을 것이라는 것들을 알 게 된다. 이 모든 경험들은 '나는 사랑받고 있다'라는 경험으로 결정화되고 통합된다. 나는 어머니의 아이이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나는 무력하기 때문 에 사랑받는다. 나는 귀엽고 기특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 어머니가 나를 필 요로 하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다.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지금의 나로서 사랑받는다' 또는 더욱 정확히 표현하자면 '나는 나이기 때문에 사랑 받는다'는 것이다.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러한 경험은 수동적인 경 험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에 사랑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하 나도 없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존재하는 것', 어머니의 아이로서 존재하는 것 뿐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기쁨이고 평화이며 구할 필요도 보답할 필요도 없

① bowel/창자, 내장, 창자의 일부 ② to put it in a more general formula/일반적 인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하면

there is a negative side, too, to the unconditional quality of mother's love. Not only does it not need to be deserved — it also cannot be acquired, produced, controlled. If it is there, it is like a blessing; if it is not there, it is as if all beauty had gone out of life — and there is nothing I can do to create it.

For most children before the age from eight and a half to ten. 10 the problem is almost exclusively that of being loved — of being loved for what one is. The child up to this age does not yet love; he responds gratefully, joyfully to being loved. At this point of the child's development a new factor enters into the picture: that of a new feeling of producing love by one's own activity. For the first time, the child thinks of giving something to mother (or to father), of producing something — a poem, a drawing. or whatever it may be. For the first time in the child's life the idea of love is transformed from being loved into loving; into creating love. It takes many years from this first beginning to the maturing of love. Eventually the child, who may now be an adolescent. has overcome his egocentricity: the other person is not any more primarily a means to the satisfaction of his own needs. The needs of the other person are as important as his own — in fact, they have become more important. To give has become more satisfactory, more joyous, than to receive; to love, more important even than being loved. By loving, he has

¹⁰Cf. Sullivan's description of this development in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W. W. Norton & Co., New York, 1953.

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의 무조건적 특성에도 역시 부정적인 면이 있다. 보답할 필요가 없을 뿐 아니라 구할 수도 만들어 낼 수도 조절할 수도 '없다'. 어머니의 사랑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요, 없다면 온갖 아름다움이 삶에서 소멸된 것과 같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랑을 만들어 내고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8살 반에서 10살 사이의 대부분의 아이들에 있어서의 문제는 거의 예외없이 '사랑받는'문제, 즉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는 문제이다. 이 나이까지의 아이들은 아직 사랑할 줄 모르며, 사랑받는 데 대해서 기쁘고 행복하게 반응할 뿐이다. 어린아이가 발달하는 이 단계에서 어린아이의 심상(心象)에 자기 자신의 행위로서 사랑을 생산해 내는 새로운 감정의 요인이 파고든다. 처음에는 어머니(또는 아버지)에게 무언가를 '주려는', 시나 그림 또는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만들어 주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린아이의 생활에 있어 처음으로 사랑의 관념이 사랑받는 것에서 사랑하는 것, 즉사랑을 창조하는 것으로 변해 간다. 이 최초의 사랑에서 성숙한 사랑이 되기까지는 많은 세월이 소요된다. 마침내 어린아이는 사춘기에 접어들어서 자기중심, 즉 다른 사람들을 오직 자신의 욕구 수단으로 생각하는 태도를 극복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사람들의 욕구는 자신의 욕구만큼이나 중요하게 된다. 사실 다른 사람들의 욕구가 더 중요하게 된다.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만족스럽고 더 즐겁게 된다. 사랑하는 것이 사랑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된다.

1953)에서 Sullivan이 이러한 발달에 대해 한 설명을 참조할 것.

① unconditional/무조건, 아무 조건이 없는 ② adolescent/사춘기의 ③ egocentricity/자기 중심

left the prison cell of aloneness and isolation which was constituted by the state of narcissism and selfcenteredness. He feels a sense of new union, of sharing, of oneness. More than that, he feels the potency of producing love by loving — rather than the dependence of receiving by being loved — and for that reason having to be small, helpless, sick — or "good." Infantile love follows the principle: "I love because I am loved." Mature love follows the principle: "I am loved because I love." Immature love says: "I love you because I need you." Mature love says: "I need you because I love you."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capacity of love is the development of the object of love. The first months and years of the child are those where his closest attachment is to the mother. This attachment begins before the moment of birth, when mother and child are still one, although they are two. Birth changes the situation in some respects, but not as much as it would appear. The child, while now living outside of the womb, is still completely dependent on mother. But daily he becomes more independent: he learns to walk, to talk, to explore the world on his own; the relationship to mother loses some of its vital significance, and instead the relationship to father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In order to understand this shift from mother to father, we must consider the essential differences in quality between motherly and fatherly love. We have already spoken

사랑의 이론

사랑함으로써 더 즐겁게 된다. 그는 자기 도취와 자기 중심(自己中心, self-centeredness)의 상태에 의해 조성된 고독과 격리의 감옥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는 새로운 합일감(合一感), 참여감(參與感), 일체감(一體感)을 느낀다. 더나아가 그는 사랑받음으로써 받아들이는 의타심보다 사랑함으로써 생산적인 사랑의 능력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의타심으로 그는 작고 무력하며 아픈, 또는 '착한' 어린이가 되지 않을 수 없다. 유아기의 사랑은 '나는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원칙에 따르고 성숙한 사랑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받는다'는 원칙에 따른다. 미숙한 사랑은 '당신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하며, 성숙한 사랑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사랑의 '대상'의 발달은 사랑의 '능력'의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생후 몇 개월 또는 몇 년이 지난 어린아이에 있어서 가장 친밀한 애착은 어머니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애착은 어머니와 아이가 둘이면서 하나였던 출생 이전에서 시작된다. 출생은 어떤 관점에서는 상황의 변화를 초래하지만 나타날 정도는 아니다. 지금은 자궁 밖에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아이는 아직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나날이 아이는 독립해 간다. 즉, 걷기와 말하기를 배우며 독자적으로 세계를 탐색해 간다. 어머니와의 관계는 극히 중요한 의의를 다소 잃게 되며 대신에 아버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게 된다.

어머니에게서 아버지로의 변천 추이를 이해하려면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이 갖는 본질적인 차이점을 고려해야만 한다. 우리는 이미 어머니

① infantile/유아기의

about motherly love. Motherly love by its very nature is unconditional. Mother loves the newborn infant because it is her child, not because the child has fulfilled any specific condition, or lived up to any specific expectation. (Of course, when I speak here of mother's and father's love, I speak of the "ideal types" - in Max Weber's sense or of an archetype in Jung's sense - and do not imply that every mother and father loves in that wav. I refer to the fatherly and motherly principle, which is represented in the motherly and fatherly person.) Unconditional love corresponds to one of the deepest longings, not only of the child, but of every human being; on the other hand, to be loved because of one's merit, because one deserves it, always leaves doubt; maybe I did not please the person whom I want to love me. maybe this, or that there is always a fear that love could disappear. Furthermore, "deserved" love easily leaves a bitter feeling that one is not loved for oneself, that one is loved only because one pleases, that one is, in the last analysis, not loved at all but used. No wonder that we all cling to the longing for motherly love, as children and also as adults. Most children are lucky enough to receive motherly love (to what extent will be discussed later). As adults the same longing is much more difficult to fulfill. In the most satisfactory development it remains a component of normal erotic love; often it finds expression in religious forms. more often in neurotic forms.

의 사랑에 대해 말해 왔다. 어머니의 사랑은 본질적으로 무조건적이다. 어머 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은 이 아이가 어떤 특별한 조건을 채워 주었거나 어 떤 특별한 기대에 따라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아이가 그녀의 아이이기 때문이다(물론 내가 여기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말할 때는 막스 베버 적인 또는 육의 감각에서 위형(原型)인 '이상형'을 말하는 것이지, 모든 어머 니 아버지가 그런 방식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말하고픈 것은 어머니다우 아버지다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본질인 것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은 어린아이쁜 아니라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열망 중의 하나이다. 한편 어떤 장점 때문에 사랑받는다든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 사랑받는다는 것은 항상 의문의 여지를 남긴다. 어쩌면 내가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사랑이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받을 만하여 주어지는 사랑은' 자기 자신 때 문이 아니라 '단순히' 상대방을 즐겁게 해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이렇게 따지다 보면 결국 자기가 이용만 되었을 뿌 사랑을 반 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쓰라린 감정이 남게 되기 쉽다. 어린아이로서, 또한 성인으로서 어머니의 사랑에 집착하고 갈망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부분의 어 린아이는 행복하게도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다(어느 정도까지인가는 후에 논 의될 것이다). 그러나 성인들에 있어서 같은 열망을 충족시켜 주기는 더욱 어렵다. 가장 만족할 만한 발달에 있어서 그것은 정상적인 성애(性愛)의 한 요소로 존재하고 종종 종교적 형태로 표현되며 신경증적(神經症的) 형태로 도 많이 표현되다.

① by its very nature/본래부터 ② lived up to/~에 따라 살다

The relationship to father is quite different. Mother is the home we come from, she is nature, soil, the ocean; father does not represent any such natural home. He has little connection with the child in the first years of its life, and his importance for the child in this early period cannot be compared with that of mother. But while father does not represent the natural world, he represents the other pole of human existence; the world of thought, of man-made things, of law and order, of discipline, of travel and adventure. Father is the one who teaches the child, who shows him the road into the world.

Closely related to this function is one which is connected with socio-economic development. When private property came into existence, and when private property could be inherited by one of the sons, father began to look for that son to whom he could leave his property. Naturally, that was the one whom father thought best fitted to become his successor, the son who was most like him, and consequently whom he like the most. Fatherly love is conditional love. Its principle is "I love you because you fulfill my expectations, because you do your duty, because you are like me." In conditional fatherly love we find, as with unconditional motherly love, a negative and a positive aspect. The negative aspect is the very fact that fatherly love has to be deserved, that it can be lost if one does not do what is expected. In the nature of fatherly love lies the fact that obedience becomes the main virtue, 아버지와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 어머니는 우리가 태어난 집이며 자연이고 대자이고 대양이다. 반면 아버지는 이러한 자연적인 집을 상징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아기의 출생 후 몇 년 동안을 아이와 거의 관련이 없고 이 초기 단계에는 아이에 대한 아버지의 중요성은 어머니의 중요성과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연적 세계를 상징하지 않는 반면에, 인간 존재의 다른 극적인 사고(思考), 인공적인 사물, 법과 질서, 훈육(訓育), 여행과 모험 등을 상징한다. 아버지는 아이를 가르치는 사람이고 아이에게 세계로 진입하는 길을 보여 주는 사람이다.

이러한 기능은 사회 경제적 발달과 관련이 있는 기능과 밀접하게 관련이 된다. 사유 재산이 성립되고 사유 재산을 아들들 중의 하나에게 상속시킬 수 있을 때, 아버지는 재산을 남겨 줄 만한 아들을 찾기 시작한다. 아버지가 자신의 상속자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아들, 아버지를 가장 많이 닮았고 따라서 아버지가 가장 좋아하게 된 아들을 상속자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다. 그 원칙은 '네가 내 기대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네가 너의 의무를 다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닮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조건적인 아버지의 사랑에서도 우리는 무조건적인 어머니의 사랑에서와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을 발견한다. 부정적인 면은 아버지의 사랑이 보답되어야 한다는 사실이고, 사랑의 대상이 기대되었던 것을 하지 않았을 때 잃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아버지의 사랑의 본성에는 순종이 중요한 미덕이고 불복좋은 중요한 죄가 된다는

that disobedience is the main sin — and its punishment the withdrawal of fatherly love. The positive side is equally important. Since his love is conditioned, I can do something to acquire it, I can work for it; his love is not outside of my control as motherly love is.

The mother's and the father's attitudes toward the child correspond to the child's own needs. The infant needs mother's unconditional love and care physiologically as well as psychically. The child, after six, begins to need father's love, his authority and guidance. Mother has the function of making him secure in life, father has the function of teaching him, guiding him to cope with those problems with which the particular society the child has been born into confronts him. In the ideal case, mother's love does not try to prevent the child from growing up. does not try to put a premium on helplessness. Mother should have faith in life, hence not be overanxious, and thus not infect the child with her anxiety. Part of her life should be the wish that the child become independent and eventually separate from her. Father's love should be guided by principles and expectations; it should be patient and tolerant, rather than threatening and authoritarian. It should give the growing child an increasing sense of competence and eventually permit him to become his own authority and to dispense with that of father.

Eventually, the mature person has come to the point where he is his own mother and his own father. He has, as

사실이며 그것에 대한 벌은 아버지의 사랑을 철회하는 것이다. 긍정적인 면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아버지의 사랑이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처럼 조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어린아이에 대한 어머니와 아버지의 태도는 어린아이 자신의 욕구와 일치한다. 유아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배려가 필요하다. 아이는 여섯 살 이후부터 아버지의 사랑, 권위, 지도를 필요로하기 시작한다. 어머니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며, 아버지는 어린아이가 태어난 특정한 사회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대처해 나가도록 가르치고 안내하는 기능을 갖는다. 이상적인 경우에 있어 어머니의 사랑은 아이의 성장을 방해하거나 무력감을 조장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어머니는 삶에 신뢰를 갖고 지나치게 근심하지 말아야 하며, 어머니의 걱정이 아이에게 영향을 주어서도 안 된다. 어머니의 삶의 일부는 아이가 자립하고 결과적으로 그녀로부터 분리되어 가기를 바라는 소망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원칙과 기대에 의해서 유도되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위협적이고 권위주의적이기보다는 인내하고 관용적이어야 한다. 아버지의 사랑은 자라나는 아이에게 자신감을 증진시켜 주어야 하며, 따라서 스스로의 권위를 형성해 감으로써 아버지의 권위에서 벗어나도록 허용해야 한다.

결국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자신의 어머니이고 또한 아버지인 경지에 다다른다. 다시 말하자면, 그는 어머니다운 양심과 아버지다운 양심을 지니는

① physiologically/생리학적으로 ② psychically/정신적으로 ③ cope with/대처해 나가다 ④ put a premium on/~을 조장하다 ⑤ dispense with/필요 없게 하다

it were, a motherly and a fatherly conscience. Motherly conscience says: "There is no misdeed, no crime which could deprive you of my love, of my wish for your life and happiness." Fatherly conscience says: "You did wrong. you cannot avoid accepting certain consequences of your wrongdoing, and most of all you must change your ways if I am to like you." The mature person has become free from the outside mother and father figures, and has built them up inside. In contrast to Freud's concept of the super-ego, however, he has built them inside not by incorporating mother and father, but by building a motherly conscience on his own capacity for love, and a fatherly conscience on his reason and judgment. Furthermore, the mature person loves with both the motherly and the fatherly conscience,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y seem to contradict each other. If he would only retain his fatherly conscience, he would become harsh and inhuman. If he would only retain his motherly conscience, he would be apt to lose judgment and to hinder himself and others in their development.

In this development from mother-centered to father-centered attachment, and their eventual synthesis, lies the basis for mental health and the achievement of maturity. In the failure of this development lies the basic cause for neurosis. While it is beyond the scope of this book to develop this trend of thought more fully, some brief remarks may serve to clarify this statement.

사락의 이론

것이다. 어머니다운 양심은 '어떠한 그릇된 행동이나 범죄도 너에 대한 나의 사랑과 너의 생명과 햇복에 대한 나의 소맛을 앗아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 한다. 아버지다운 양심은 '네가 그릇된 행동을 하면 결코 너의 그릇된 행동의 결과를 피할 수 없음 거야. 내 맘에 들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너의 생활 방식 을 바꿔야만 해'라고 말한다. 성숙한 사람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모습으로부 터 벗어나서 그들 내면에 그 모습을 세우게 된다. 하지만 프로이트의 초자아 (超自我, super-ego)의 개념에 반하여,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내면에 '혼합' 함으로써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의 능력 위에 모성적 양심을 세우고 그들 내 면에 그 모습들을 구축해 가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성숙한 사람은 모성적 양심과 부성적 양심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 두 양심 을 함께 지니고 사랑한다. 만일 그가 부성적 양심만을 지니고자 한다면, 그는 거칠고 몰인정한 사람이 될 것이다. 만일 모성적 양심만을 지니고자 한다면, 판단력을 잃을 것이고 자신과 타인의 발전에 있어 방해가 되기 쉬울 것이다. 이러한 모성 중심의 애착에서 부성 중심의 애착으로의 발달과 그들의 이 러한 애착의 궁극적인 합성의 정신적 건강과 성숙의 기초가 놓여진다. 이러 한 발달의 실패에 신경증(神經症, neurosis)의 근본 원인이 있다. 이 사상의 경향을 좀더 충분히 전개하는 것은 이 책의 영역을 벗어나는 일이지만 몇 가

지 짧은 의견으로 앞에서 한 말을 명백히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THE ART OF LOVING

One cause for neurotic development can lie in the fact that a boy has a loving, but overindulgent or domineering mother, and a weak and uninterested father. In this case he may remain fixed at an early mother attachment. and develop into a person who is dependent on mother, feels helpless, has the strivings characteristic of the receptive person, that is, to receive, to be protected, to be taken care of, and who has a lack of fatherly qualities - discipline, independence, an ability to master life by himself. He may try to find "mothers" in everybody, sometimes in women and sometimes in men in a position of authority and power. If, on the other hand, the mother is cold unresponsive and domineering, he may either transfer the need for motherly protection to his father. and subsequent father figures - in which case the end result is similar to the former case - or he will develop into a onesidedly father-oriented person, completely given to the principles of law, order and authority, and lacking in the ability to expect or to receive unconditional love. This development is further intensified if the father is authoritarian and at the same time strongly attached to the son. What is characteristic of all these neurotic developments is the fact that one principle, the fatherly or the motherly, fails to develop or - and this is the case in the more severe neurotic development - that the roles of mother and father become confused both with regard to persons outside and with regard to these roles within

신경증 발생의 한 원인은 어떤 소년이 애정은 있되 지나치게 방치해 두거 나 지나치게 갓안적인 어머니와 약하고 무관심한 아버지를 두는 경우에 인 다 이 경우에 아이는 초기의 어머니에 대한 애착에 사로잡히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에게 의존하고 무럭감을 느끼고 수용적(受容的) 인간의 특징, 즉 받으 려 하고 보호반으려 하며 독보아 주기를 바라는 갈맛을 가지며 아버지다운 자질이 결여되어 규율, 독립심, 그리고 홀로 자신의 삶을 이끌려는 능력이 부 족한 사람으로 되어 버린다. 그리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서 '어머니'를 발견하 려 하는데, 어떤 때는 여성에게서, 어떤 때는 권위와 권력의 지위에 있는 남 자에게서 발견하려 한다. 그와 반대로 어머니가 냉담하고 동정심이 없고 강 압적인 경우에 그는 어머니다운 보호의 욕구를 아버지에게 전이하여 적합한 부친상(父親像)을 발견하고자 하는가-이 경우에도 최종적 결과는 전자의 경우와 유사하다—또는 일방적으로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인간으로 발전해 서 법, 질서, 권위의 원칙에 굴복할 뿐 무조건적 사랑을 기대하거나 수용할 능력이 결여된다. 이러한 발달은 아버지가 권위주의자이고 동시에 아들에게 강한 애착을 가질 때 촉진되다. 이러한 모든 신경증적 발달에 있어서 특징은 아버지다운 또는 어머니다운 한 원칙이 발달하지 못했다든가—이것은 더 심각한 신경증적 발달의 경우이다-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외부 사람들 에 있어서나 그 사람의 내면의 이러한 역할에 있어서 혼돈을 일으키게 된다

① unresponsive/반응이 느린, 둔감한, 동정이 없는 ② with regard to/~에 대해서, 관해서

the person. Further examination may show that certain types of neurosis, like obsessional neurosis, develop more on the basis of a one-sided father attachment, while others, like hysteria, alcoholism, inability to assert oneself and to cope with life realistically, and depressions, result from mother-centeredness.²

3. THE OBJECTS OF LOVE

Love is not primarily a relationship to a specific person: it is an attitude, an orientation of character which determines the relatedness of a person to the world as a whole, not toward one "object" of love. If a person loves only one other person and is indifferent to the rest of his fellow men, his love is not love but a symbiotic attachment, or an enlarged egotism. Yet, most people belive that love is constituted by the object, not by the faculty. In fact, they even believe that it is a proof of the intensity of their love when they do not love anybody except the "loved" person. This is the same fallacy which we have already mentioned above. Because one does not see that love is an activity, a power of the soul, one believes that all that is necessary to find is the right object — and that everything goes by itself afterward. This attitude can be compared to that of a man who wants to paint but who, instead of learning the art, claims that he has just to wait for the right object, and that he will paint beautifully

는 사실이다. 좀더 자세히 관찰하면 강박 신경증(強迫神經症)과 같은 유형의 신경증은 아버지에 대한 편파적 애착을 기초로 하여 더욱 발전하지만, 한편 히스테리, 알콜 중독, 자기를 주장하며 현실 생활을 대처해 가는 능력의 부 족, 우울 등과 같은 유형의 신경증은 어머니 중심적인 애착에서 생기다

3. 사랑의 대상

사랑은 근본적으로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 사랑은 사랑의 한 '대 상'으로서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세계에 대한 한 인간의 관계를 결정하는 '자세'이며 '성격의 적웅'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단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다른 동료에게는 무관심하다면,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공생적 애착(共生的 愛着) 또는 확대된 자기 본위(自己本位, egotism)이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랑은 대상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지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고 믿고 있다. 사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사랑의 강렬함을 증명하는 길이라고 믿는 것이다. 이것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동일한 오류이다. 사랑은 활동이며 정신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필요한 것은 단지 적절한 대상을 찾는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따라서 그 밖의 모든 것은 저절로 뒤따라온다고 믿는다. 이러한 태도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사람이 기술은 배우지 않고 적절한 대상만을 기다리면서 그 대상을 발견하면 훌륭한 그림을 그

① further examination may/더 깊이 조사하면 ~합지도 모른다 ② mother-centeredness/어머니 중심적 ③ be compared to/~에 비유되다

when he finds it. If I truly love one person I love all persons, I love the world, I love life. If I can say to somebody else, "I love you," I must be able to say, "I love in you everybody, I love through you the world, I love in you also myself."

Saying that love is an orientation which refers to all and not to one does not imply, however, the idea that there are no differences between various types of love, which depend on the kind of object which is loved.

a. Brotherly Love

The most fundamental kind of love, which underlies all types of love, is brotherly love. By this I mean the sense of responsibility, care, respect, knowledge of any other human being, the wish to further his life. This is the kind of love the Bible speaks of when it says: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Brotherly love is love for all human beings; it is characterized by its very lack of exclusiveness. If I have developed the capacity for love, then I cannot help loving my brothers. In brotherly love there is the experience of union with all men, of human solidarity, of human at-onement. Brotherly love is based on the experience that we all are one. The differences in talents, intelligence, knowledge are negligible in comparison with the identity of the human core common to all men. In order to experience this identity it is necessary to pene-

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태도에 비유된다. 만일 내가 진정 한 사람을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세계를 사랑하고 삶을 사랑하게 된 다. 만일 내가 누구에겐가 '그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나는 그대를 통해 나 자신까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랑은 하나에 대해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 언급하는 태도 결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랑받는 대상에 의존하는 사랑의 여러 형식 사이에 차이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인류애

모든 형태의 사랑의 기초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사랑은 '인류애(人類愛, brotherly love)'이다. 이것에 대해서 나는 책임감, 배려, 존경, 타인에 대한 지식, 타인의 삶을 조장하고자 하는 소망을 생각한다. 이것은 성경에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종류의 사랑이다. 인류애는 모든 인간에 대한 사랑이고 그것은 배타성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내가 사랑의 능력을 발달시켜 왔다면, 나는 나의 형제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인류애에는 모든 사람과의 결합, 인간적 단결, 인간적 일치의 경험이 있다. 인류애는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경험에 기반을 둔다. 재능, 지능, 지식에 있어서의 차이점들은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인간적 핵심의 동일성과 비교한다면 하찮은 것이다. 이러한 동일성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변에서 중심으로

① be characterized by/~의 특성이 있다

trate from the periphery to the core. If I perceive in another person mainly the surface. I perceive mainly the differences, that which separates us. If I penetrate to the core. I perceive our identity, the fact of our brotherhood. This relatedness from center to center - instead of that from periphery to periphery - is "central relatedness." Or as Simone Weil expressed it so beautifully: "The same words [e.g., a man says to his wife. "I love you" l can be commonplace or extraordinary according to the manner in which they are spoken. And this manner depends on the depth of the region in a man's being from which they proceed without the will being able to do anything. And by a marvelous agreement they reach the same region in him who hears them. Thus the hearer can discern, if he has any power of discernment, what is the value of the words."11

Brotherly love is love between equals: but, indeed, even as equals we are not always "equal"; inasmuch as we are human, we are all in need of help. Today I, tomorrow you. But this need of help does not mean that the one is helpless, the other powerful. Helplessness is a transitory condition; the ability to stand and walk on one's own feet is the permanent and common one.

Yet, love of the helpless one, love of the poor and the stranger, are the beginning of brotherly love. To love

¹¹ Simone Weil, *Gravity and Grace*, G. P. Putnam's Sons, New York, 1952, p. 117.

침투할 필요가 있다. 내가 주로 타인을 피상적으로 감지한다면, 우리들을 분류하는 차이점만을 주로 감지하게 되고 이 차이점은 우리를 분리시킨다. 만일 내가 중심으로 침투한다면, 나는 우리의 동일성, 즉 우리는 형제라는 사실을 감지하게 된다. 외각과 외각과의 관련이 아니라 중심과 중심과의 관계는 '중심적 관계'이다. 또는 시몬 배유가 잘 표현했던 것같이 '같은 말(예를 들면 아내에게 남편이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라도 말씨에 따라 평범하게도 들리며 범상치 않게 들리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말씨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지 없이 유래되는 인간 실존의 깊은 영역에 좌우된다. 놀랄 만한 조화에 의해서 그 말들은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같은 내적 영역에 도달한다. 그러므로 그가 약간의 식별력만 있다면, 그 청취자는 그 말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

인류에는 동등한 사람 사이의 사랑이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동등하기는 할지라도 항상 '동등'하지는 않다. 즉, 우리가 인간인 한, 항상 도움이 필요하다. 오늘은 내가, 내일은 당신이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이 도움의 필요라는 것은 본인이 무력하다든가 상대방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무력함은 일시적인 상태이며 스스로 일어서서 걸을 수 있는 능력은 영구적이고 보편적인 조건이다.

그러나 무력한 사람에 대한 사랑, 가난한 사람과 이방인(異邦人)에 대한 사랑은 모두 인류애의 시작이다. 자기의 육친(肉親)을 사랑한다는 것은 훌륭

またまたまたまたまたまたまたまたまたまたまたまたまたまたまたまた

① proceed without/계속해서 하다

one's flesh and blood is no achievement. The animal loves its young and cares for them. The helpless one loves his master, since his life depends on him; the child loves his parents, since he needs them. Only in the love of those who do not serve a purpose, love begins to unfold. Significantly, in the Old Testament, the central object of man's love is the poor, the stranger, the widow and the orphan. and eventually the national enemy, the Egyptian and the Edomite. By having compassion for the helpless one, man begins to develop love for his brother; and in his love for himself he also loves the one who is in need of help. the frail, insecure human being. Compassion implies the element of knowledge and of identification. "You know the heart of the stranger." says the Old Testament. "for you were strangers in the land of Egypt; . . . therefore love the stranger!"12

b. Motherly Love

We have already dealt with the nature of motherly love in a previous chapter which discussed the difference between motherly and fatherly love. Motherly love, as I said there, is unconditional affirmation of the child's life and his needs. But one important addition to this descrip-

¹²The same idea has been expressed by Hermann Cohen in his Religion der Vernunft aus den Quellen des Judentums, 2nd edition, J. Kaufmann Verlag, Frankfurt am Main, 1929, p. 168 ff.

한 일이 아니다. 짐승도 새끼를 사랑하고 돌본다. 무력한 인간은 그의 주인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그의 생명이 그 주인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린 아이는 부모를 사랑하는데, 그것은 부모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목적을 채우지 않는 사람들의 사랑에서만 사랑은 꽃피기 시작한다. 구약성서에서 인간의 사랑의 중심적 대상은 가난한 사람, 이방인, 과부, 고아,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국민의 적인 이집트 인과 에돔 인이라는 것은 의미 심장한 것이다. 무력한 인간을 동정함으로써 인간은 인류에를 발전시키기 시작하고, 자신에 대한 사랑에서도, 또한 도움이 필요한, 즉 약하고 위험한 입장에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동정은 지식과 동일시(同一視)의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구약성서에는 너희는 이방인의 마음을 알고 있다. 너희들은 이집트 땅에서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을 사랑할지어다'라고 쓰여 있다.

모성애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의 차이점을 토론했던 앞 장(章)에서 우리는 이미 모성애(母性愛, motherly love)의 본성을 다루었다. 내가 앞에서 말했듯이 모성애는 아이의 생명과 요구에 대한 무조건적 긍정이다. 그러나 여12. 동일한 사상은 Hermann Cohen의 Religion der Vernunft aus den Quellen des Judentums(2nd edition, J. Kaufmann Verlag, Frankfurt am Main, 1929, p. 168 ff.)에도 표현되어 있다.

のなったとうなったとうなったとうなったとうなったったとうなったったとうない。

① the Old Testament/구약성서 ② dealt with/~올 다루다

tion must be made here. Affirmation of the child's life has two aspects: one is the care and responsibility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preservation of the child's life and his growth. The other aspect goes further than mere preservation. It is the attitude which instills in the child a love for living, which gives him the feeling; it is good to be alive, it is good to be a little boy or girl, it is good to be on this earth! These two aspects of motherly love are expressed very succinctly in the Biblical story of creation. God creates the world, and man. This corresponds to the simple care and affirmation of existence. But God goes beyond this minimum requirement. On each day after nature — and man — is created. God says: "It is good." Motherly love, in this second step, makes the child feel: it is good to have been born: it instills in the child the love for life, and not only the wish to remain alive. The same idea may be taken to be expressed in another Biblical symbolism. The promised land (land is always a mother symbol) is described as "flowing with milk and honey." Milk is the symbol of the first aspect of love, that of care and affirmation. Honey symbolizes the sweetness of life, the love for it and the happiness in being alive. Most mothers are capable of giving "milk," but only a minority of giving "honey" too. In order to be able to give honey, a mother must not only be a "good mother," but a happy person and this aim is not achieved by many. The effect on the child can hardly be exaggerated. Mother's love for life is

기서는 이러한 묘사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첨가되어야만 한다. 아이의 생명 에 대한 궁젓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아이의 생명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배려와 책임이며, 또 하나는 단순한 생명의 유지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이것은 삶에 대한 사랑을 아이의 내면에 스며 들게 해주는 자세이며, 그에게 산다는 것은 좋은 일이고 소년 또는 소녀가 되는 것은 좋은 일이고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느끼도록 해주는 자세이다. 모성애의 이러한 두 측면은 처지 찻조의 성경 이야기 속에 아주 간결하게 표현되어 있다. 신은 천지를 창조하고 난 다음 인간을 창조한 다. 이것은 생존의 단순한 배려와 긍정을 나타낸다. 그러나 신은 이 최소한의 요구 조건을 초월한다. 자연 그리고 인간을 창조한 뒤 신은 '좇다'고 말하고 있다. 모성애가 이러한 제 2단계에 가서는 태어난 것이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아이에게 느끼게 해주며. 생존의 소망뿐 아니라 '삶에 대한 사랑'을 아이에게 심어 준다. 이와 같은 사상이 또 다른 성서의 상징에 나타나 있다. 약속된 땅 (땅은 항상 어머니를 상징한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묘사되고 있 다. 젖은 사랑의 첫 번째 측면, 즉 배려와 긍정의 상징이다. 꿀은 삶의 달콤 함, 삶에 대한 사랑, 생명에의 행복을 상징한다. 대부분의 어머니는 '젖'을 줄 수 있으나 '꿀'까지 줄 수 있는 어머니는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꿀을 줄 수 있으려면 어머니는 '좋은 어머니'이어야 할 뿐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어야 하 는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어머니가 많지는 않다.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 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어머니의 걱정이 그러하듯이 삶에 대한

① affirmation/궁정, 확인 ② correspond/일치하다, 여기서는 '해당하다' '들어맞다' 의 뜻 ③ go beyond/능가하다 ④ a minority of giving~/a minority와 of 사이에 are capable이 생략됨 ⑤ hardly be exaggerated/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as infectious as her anxiety is. Both attitudes have a deep effect on the child's whole personality; one can distinguish indeed, among children — and adults — those who got only "milk" and those who got "milk and honey."

In contrast to brotherly love and erotic love which are love between equals, the relationship of mother and child is by its very nature one of inequality, where one needs all the help, and the other gives it. It is for this altruistic. unselfish character that motherly love has been considered the highest kind of love, and the most sacred of all emotional bonds. It seems, however, that the real achievement of motherly love lies not in the mother's love for the small infant, but in her love for the growing child. Actually, the vast majority of mothers are loving mothers as long as the infant is small and still completely dependent on them. Most women want children, are happy with the new-born child, and eager in their care for it. This is so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y do not "get" anything in return from the child, except a smile or the expression of satisfaction in his face. It seems that this attitude of love is partly rooted in an instinctive equipment to be found in animals as well as in the human female. But, whatever the weight of this instinctive factor may be, there are also specifically human psychological factors which are responsible for this type of motherly love. One may be found in the narcissistic element in motherly love. Inasmuch as the infant is still felt to be a part of herself.

어머니의 사랑도 전염성이 있다. 이 두 가지 자세는 아이의 인격 전체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실제로 아이와 어른 중에서 '젖'만을 받은 사람과 '젖과 꿀'을 받은 사람을 구별할 수 있게 된다.

동등한 사람 사이의 사랑인 인류애와 성애(性愛)와는 달리,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한쪽은 전적인 도움을 요구하고 또 한쪽은 그 도움을 주는 불공평한 관계이다. 모성애가 가장 높은 차원의 사랑, 모든 감정적 결속중에서 가장 신성시되는 것은 이러한 이타적(利他的)이고 비이기적(非利己的)인 성격 때문이다. 모성애의 진정한 성취는 갓난애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는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에서 볼 수 있는 것 같다. 대다수의 어머니는 아이가 어려서 아직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동안은 아이를 사랑한다. 대부분의 부인들은 아이를 원하고 갓난애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며 그 아이를 열심히 보살피고 싶어한다. 어린애의 얼굴에 띠는 미소와 만족한 표정 이외에 받는 보상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면서도 여성들은 그러하다. 이러한 사랑의 태도는 부분적으로 인간의여성은 물론 집중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는 본능적인 것에 근거를 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본능적 요인의 비중이 어떠하든 이런 형태의 모성애에 책임을 져야 할, 특히 인간적인 심리적 요인이 있을 것이다. 그 한 가지가 모성애에 있는 자기 도취적 요소에서 발견될지도 모른다. 유아가 아직도 그녀의

① by its very nature/본래, 애당초부터 ② altruistic/이타적(利他的)인

her love and infatuation may be a satisfaction of her narcissism. Another motivation may be found in a mother's wish for power, or possession. The child, being helpless and completely subject to her will, is a natural object of satisfaction for a domineering and possessive woman.

Frequent as these motivations are. they are probably less important and less universal than one which can be called the need for transcendence. This need for transcendence is one of the most basic needs of man, rooted in the fact of his self-awareness, in the fact that he is not satisfied with the role of the creature, that he cannot accept himself as dice thrown out of the cup. He needs to feel as the creator, as one transcending the passive role of being created. There are many ways of achieving this satisfaction of creation; the most natural and also the easiest one to achieve is the mother's care and love for her creation. She transcends herself in the infant, her love for it gives her life meaning and significance. (In the very inability of the male to satisfy his need for transcendence by bearing children lies his urge to transcend himself by the creation of man-made things and of ideas.)

But the child must grow. It must emerge from mother's womb, from mother's breast; it must eventually become a completely separate human being. The very essence of motherly love is to care for the child's growth, and that means to want the child's separation from herself. Here lies the basic difference to erotic love, In erotic love, two

일부로서 느껴지는 한, 어머니의 사랑과 심취는 그녀의 자기 도취적 만족이 될 수도 있다. 또 다른 동기는 어머니의 힘과 소유에 대한 욕구에서 찾을 수 있다. 무력하며 완전히 어머니의 의사에 복종하는 아이는, 지배하려 하고 소유력이 강한 부인들을 위한 만족스러운 타고난 대상이다.

이러한 동기들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것들은 아마도 초월의 욕구라고 불릴 수 있는 것보다 중요성과 보편성이 적을 것이다. 초월하려는 욕구는 자기를 인식하고자 하는 사실, 피조물로서의 구실에 만족할 수 없다는 사실, 즉 컵 밖으로 내던져진 주사위로 자신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욕구 중 하나이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창조자로서, 피조물이라는 피동적인 구실을 초월한 자로서 느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창조의 욕구를 성취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가장 자연스럽고 또한 가장 편리한 성취 방법은 어머니로서 자신의 창조물을 보호하고 사랑하는 것이다. 어머니는 아이를 통해 자신을 초월하고 아이에 대한 그녀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녀의 삶은 의미와 중요성을 부여받게 된다(아이를 낳음으로써 초월에 대한 욕구를 만족시킬 능력이 없는 남성에 있어서는 남성의 손이 닿아야 되는 사물과 사상의 창조로써 자신을 초월하고자 하는 충동이 있다).

그러나 아이는 성장하여야만 한다. 아이는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며 결국 완전히 분리된 인간이 되어야만 한다. 모성애의 본질은 아이의 성장을 돌보아 주는 것이며 그것은 어머니로부터의 아이의 독립을 원함을 의미한다. 여기에 성애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

① frequent as these motivations are =as these motivations are frequent

people who were separate become one. In motherly love, two people who were one become separate. The mother must not only tolerate, she must wish and support the child's separation. It is only at this stage that motherly love becomes such a difficult task, that it requires unselfishness, the ability to give everything and to want nothing but the happiness of the loved one. It is also at this stage that many mothers fail in their task of motherly love. The narcissistic, the domineering, the possessive woman can succeed in being a "loving" mother as long as the child is small. Only the really loving woman, the woman who is happier in giving than in taking, who is firmly rooted in her own existence, can be a loving mother when the child is in the process of separation.

Motherly love for the growing child, love which wants nothing for oneself, is perhaps the most difficult form of love to be achieved, and all the more deceptive because of the ease with which a mother can love her small infant. But just because of this difficulty, a woman can be a truly loving mother only if she can *love*; if she is able to love her husband, other children, strangers, all human beings. The woman who is not capable of love in this sense can be an affectionate mother as long as the child is small, but she cannot be a loving mother, the test of which is the willingness to bear separation — and even after the separation to go on loving.

성애에서는 분리된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 모성애에서는 하나였던 두 사람이 분리된다. 어머니는 관대해야만 할 뿐 아니라 아이의 분리를 기대하고 도와야만 한다. 이 단계에 들어설 때 모성애는 매우 어려운 과제로 대두되어거기에는 이타성이 요청되며 무엇이나 다 내주며 사랑하는 아이의 행복 이외에는 이무것도 바라지 않는 능력이 요청된다. 또한 이 단계에서 많은 어머니들이 모성애라는 그들의 과업에 실패하고 만다. 자기 도취적이고 지배적이며 소유욕이 강한 여성들도 아이가 어린 한은 사랑하는 어머니로 성공할 수있다. 그렇지만 진실로 사랑하는 여성, 즉 받기보다 주기를 기뻐하는 여성,자기 자신의 존재에 확고히 뿌리박고 있는 여성만이 아이가 독립하는 과정에 있을 때도 사랑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성장하는 아이에 대한 모성애, 즉 자기 자신을 위해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사랑은 아마 가장 성취하기 어려운 형태의 사랑일 것이며, 아이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쉽게 그녀의 아이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여성이 사랑할 수 있는 경우, 즉 그녀의 남편, 다른 아이들, 이방인들, 모든 인류를 사랑할 수 있을 경우에만 여성은 진정 '사랑'하는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랑할 능력이 없는 여성은 아이가 어릴 동안에는 다정한 어머니가 될 수 있어도 진실로 사랑하는 어머니가 될 수는 없다. 진실로 사랑하는 어머니인가 아닌가를 가려 내는 시금석(試金石)은 아이의 독립을 견디어 낼 수 있는가, 독립해 나간 후에도 사랑을 계속 베풀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c. Erotic Love

Brotherly love is love among equals; motherly love is love for the helpless. Different as they are from each other, they have in common that they are by their very nature not restricted to one person. If I love my brother, I love all my brothers; if I love my child, I love all my children; no, beyond that, I love all children, all that are in need of my help. In contrast to both types of love is erotic love; it is the craving for complete fusion, for union with one other person. It is by its very nature exclusive and not universal; it is also perhaps the most deceptive form of love there is.

First of all, it is often confused with the explosive experience of "falling" in love, the sudden collapse of the barriers which existed until that moment between two strangers. But, as was pointed out before, this experience of sudden intimacy is by its very nature short-lived. After the stranger has become an intimately known person there are no more barriers to be overcome, there is no more sudden closeness to be achieved. The "loved" person becomes as well known as oneself. Or, perhaps I should better say as little known. If there were more depth in the experience of the other person, if one could experience the infiniteness of his personality, the other person would never be so familiar — and the miracle of overcoming the barriers might occur every day anew. But for most people

성애

인류애는 동등한 사람 사이의 사랑이고 모성애는 무력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서로 다르지만 근본적으로 대상이 한 사람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만일 내가 내 형제들 중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나는 나의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내 아이 중에서 어떤 아이를 사랑한다면, 나는 모든 내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아니, 그 이상으로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형태의 사랑과 대조적으로 '성애(性愛, erotic love)'는 타인과의 합일, 즉 완전한 융합을 갈망한다. 그 사랑은 그 본질에 있어서 배타적이고 보편성이 없으며 또한 가장 위성적인 사랑의 형태입지도 모른다

무엇보다도 성애는 사랑에 '빠진다'는 폭발적인 경험, 즉 두 이방인 사이에 그 순간까지 존재했던 장벽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지주 혼동된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갑작스러운 친밀의 경험은 본질적으로 오래가지 못한다. 타인이 친밀하게 아는 사람이 된 후에 그곳에는 극복해야 할 더 이상의 장벽도 없고, 성취해야 할 갑작스러운 접근도 없다. '사랑받는' 사람을 자기자신만큼이나 잘 알게 된다. 사실은 거의 모른다고 말해야 옳을지도 모르겠다. 만일 타인에 대해 더 깊은 경험을 했다든가, 타인의 인격의 무한성을 경험할 수 있다면, 타인은 결코 그렇게 친밀하게 되지 않을 것이며, 장벽을 극복하는 그런 기적이 매일매일 새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

① short-lived/단명한, 일시적인, 덧없는

their own person, as well as others, is soon explored and soon exhausted. For them intimacy is established primarily through sexual contact. Since they experience the separateness of the other person primarily as physical separateness, physical union means overcoming separateness.

Beyond that, there are other factors which to many people denote the overcoming of separateness. To speak of one's own personal life, one's hopes and anxieties, to show oneself with one's childlike or childish aspects, to establish a common interest vis-à-vis the world — all this is taken as overcoming separateness. Even to show one's anger. one's hate, one's complete lack of inhibition is taken for intimacy, and this may explain the perverted attraction married couples often have for each other, who seem intimate only when they are in bed or when they give vent to their mutual hate and rage. But all these types of closeness tend to become reduced more and more as time goes on. The consequence is one seeks love with a new person, with a new stranger. Again the stranger is transformed into an "intimate" person, again the experience of falling in love is exhilarating and intense, and again it slowly becomes less and less intense, and ends in the wish for a new conquest, a new love - always with the illusion that the new love will be different from the earlier ones. These illusions are greatly helped by the deceptive character of sexual desire.

Sexual desire aims at fusion — and is by no means only a

들에 있어서 그들 자신은 타인과 마찬가지로 곧 탐구되고 곧 고갈된다. 그들에게 있어서 친밀감이란 우선 성적 접촉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들은 타인과의 분리를 우선 신체적 분리로 경험하기 때문에 신체적 결합은 분리감의 극복을 의미한다.

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분리감의 극복을 나타내 주는 다른 요인들이 있다. 자기 자신의 개인 생활, 희망, 걱정거리를 말한다든지, 자기의 천진 난만하고 유치한 면을 드러내 보인다든지, 세상에 대해 공통된 관심을 확립한다든지 하는 것은 모두 분리를 극복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노여움, 중오, 억제력의 완전한 결여를 보이는 것조차도 친밀을 위해서 취해진 것이며,이것은 결혼한 부부가 종종 서로 성적 도착의 유혹을 갖는다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이런 부부들에게는 서로 중오와 노여움을 발산할 때나 잠자리에 있을 때에만 친밀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형태의접근법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점 더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새로운 사람, 새로운 이방인과의 사랑을 추구하게 된다. 다시 그 이방인은 '친밀한' 사람으로 변하고 또다시 사랑에 빠진다는 경험은 기분 좋고 강렬하지만,그것은 다시 점차로 강렬함이 약화되고 또다시 새로운 정복, 새로운 사랑을 — 항상 그 사랑은 이전의 사랑과는 다를 것이라는 환상을 지니면서— 갈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환상은 본래 성적 욕망의 위선적인 특성으로 더욱 조장되는 것이다.

성적 욕구는 융합을 지향하는데, 그것은 절대로 단순한 육체적인 욕망이

① childlike/어린이다운, 천진 난만한 ② childish/어린애 같은, 유치한 ③ vis-à-vis/ 마주 향하여, 맞보고, 얼굴을 맞대고 ④ give vent to/(노여움 따위를) 터뜨리다, 발산하다 ⑤ tend to/경향이 있다

physical appetite, the relief of a painful tension, But sexual desire can be stimulated by the anxiety of aloneness, by the wish to conquer or be conquered, by vanity, but the wish to hurt and even to destroy, as much as it can be stimulated by love. It seems that sexual desire can easily blend with and be stimulated by any strong emotion, of which love is only one. Because sexual desire is in the minds of most people coupled with the idea of love, they are easily misled to conclude that they love each other when they want each other physically. Love can inspire the wish for sexual union: in this case the physical relationship is lacking in greediness, in a wish to conquer or to be conquered, but is blended with tenderness. If the desire for physical union is not stimulated by love, if erotic love is not also brotherly love, it never leads to union in more than an orgiastic, transitory sense. Sexual attraction creates, for the moment, the illusion of union, yet without love this "union" leaves strangers as far apart as they were before - sometimes it makes them ashamed of each other, or even makes them hate each other, because when the illusion has gone they feel their estrangement even more markedly than before. Tenderness is by no means, as Freud believed, a sublimation of the sexual instinct; it is the direct outcome of brotherly love, and exists in physical as well as in nonphysical forms of love.

In erotic love there is an exclusiveness which is lacking in brotherly love and motherly love. This exclusive charac-

나 고통스러운 긴장의 해소만은 아니다 그러나 성적 욕구는 그것이 사랑에 의해서 자극될 수 있는 것과 같이 고독의 불안이나 정복하고자 하는 또는 정 복당하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 허영심에 의해 삿처를 내고 심지어 파괴하고 싶어하는 욕구에 의해서 자극될 수 있다. 성적 욕망은 사랑이 하나뿐이라는 음속에 사랑의 관념과 결부시켜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자신들이 육 체적으로 서로를 원하고 있을 때만 그들이 서로를 사랑하고 있다는 결론에 오도되게 마련이다. 물론 사랑은 육체적 결합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도 있다. 이 경우에 있어 육체적인 관계는 탐욕 정복 또는 피정복의 욕구가 없으며 자비심으로 결합된다. 만일 육체적 결합에 대한 욕구가 사랑에 의해 서 자극되지 않는다면, 성애가 동시에 인류애가 아니라면, 그것은 도취적이 고 일시적인 의미를 넘어선 합일로 결코 유도하지 못한다. 성적 매력은 일시 적으로 합일의 환상을 창조하지만 사랑이 수반되지 않을 때, 이 '합일'은 두 사람을 과거나 다름없는 남남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며, 서로를 부끄 럽게 만들 때도 있고 심지어는 미워하게 하기도 한다. 왜냐하면 환상이 사라 질 때 전보다 더욱 심한 소원감(疎遠感)을 느끼기 때문이다. 자비심이라는 것은 프로이트의 견해나 마찬가지로 성적 본능의 승화가 결코 아니며 그것 은 형제애의 직접적 결과이고, 비육체적 사랑의 형태와 마찬가지로 육체적인 사랑의 형태에도 존재하는 것이다.

성애에는 형제애나 모성애에는 결핍된 독점욕이 있다. 성애의 이러한 독

① tenderness/자비심 ② estrangement/이간, 소원, 이상함 ③ sublimation/승화, 순화

ter of erotic love warrants some further discussion Frequently the exclusiveness of erotic love is misinterpreted as meaning possessive attachment. One can often find two people "in love" with each other who feel no love for anybody else. Their love is, in fact, an egotism a deux? they are two people who identify themselves with each other. and who solve the problem of separateness by enlarging the single individual into two. They have the experience of overcoming aloneness, yet, since they are separated from the rest of mankind, they remain separated from each other and alienated from themselves: their experience of union is an illusion. Erotic love is exclusive, but it loves in the other person all of mankind, all that is alive. It is exclusive only in the sense that I can fuse myself fully and intensely with one person only. Erotic love excludes the love for others only in the sense of erotic fusion, full commitment in all aspects of life - but not in the sense of deep brotherly love.

Erotic love, if it is love, has one premise. That I love from the essence of my being — and experience the other person in the essence of his or her being. In essence, all human beings are identical. We are all part of One; we are One. This being so, it should not make any difference whom we love. Love should be essentially an act of will, of decision to commit my life completely to that of one other person. This is, indeed, the rationale behind the idea of the insolubility of marriage, as it is behind the

점적 특징은 더 토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애의 독점욕은 흔히 소유적 애착을 의미한다고 오해된다. 우리는 종종 서로 '사랑에 빠져 있으나' 그들 외에는 아무에게도 사랑을 느끼지 않는 두 사람을 발견할 때가 있다. 사실 그들의 사랑은 '두 사람 사이의' 이기주의다. 그들은 서로를 동일시하고, 개인을 두 사람에게로 확대함으로써 분리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고독의 극복을 경험하지만 그들은 자신들 이외의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분리가 된 채로, 그들 자신들을 소외시킨 채로 남아 있으며, 그들이 경험한 합일은 환상인 것이다. 성애는 독점적이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 모든 다른 사람들과 살아 있는 모든 것을 사랑한다. 그 사랑은 내가 나 자신을 완전하고 강렬하게 단 한 사람에게만 융합시킬 수 있을 때만 독점적이다. 성애는 성애적 융합에서만, 즉 생활의 모든 면에서 완전한 위탁이란 의미에서만 타인들에 대한 사랑을 배제한다. 그러나 결코 인류애의 깊은 뜻에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성애는, 만일 이것이 사랑이라면, 하나의 전제를 갖고 있다. 그 전제는 내존재의 본질을 바탕으로 하여 사랑하며, 여성 또는 남성의 존재의 본질에서 타인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본질적으로 모든 사람은 동일한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하나의 부분이다. 즉, 우리는 하나이다. 그렇다면 내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의지의 행위이며, 자신의 삶을 완전히 한 타인의 삶에 맡긴다는 결단의 행위이어야 한다. 실제로 이것은 두 배우자가 서로를 선택할 수 없이 선택되었으면서

① warrant/단언하다, 보증하다, ② a deux/2인용의, 양자간에, 한꺼번에 ③ commit A to B/B에게 A를 맡기다, 위탁하다 ④ rationale/이론적 해석, 이론적 근거 ⑤ insolubility/불용해성, 해결할 수 없음

many forms of traditional marriage in which the two partners never choose each other, but are chosen for each other — and vet are expected to love each other. In contemporary Western culture this idea appears altogether false. Love is supposed to be the outcome of a spontaneous. emotional reaction, of suddenly being gripped by an irresistible feeling. In this view, one sees only the peculiarities of the two individuals involved - and not the fact that all men are part of Adam, and all women part of Eve. One neglects to see an important factor in erotic love, that of will. To love somebody is not just a strong feeling - it is a decision, it is a judgment, it is a promise. If love were only a feeling, there would be no basis for the promise to love each other forever. A feeling comes and it may go. How can I judge that it will stay forever, when my act does not involve judgment and decision?

Taking these views into account one may arrive at the position that love is exclusively an act of will and commitment, and that therefore fundamentally it does not matter who the two persons are. Whether the marriage was arranged by others, or the result of individual choice, once the marriage is concluded, the act of will should guarantee the continuation of love. This view seems to neglect the paradoxical character of human nature and of erotic love. We are all One — yet every one of us is a unique, unduplicable entity. In our relationships to others the same paradox is repeated. Inasmuch as we are all one, we can love

도 나중에 서로 사랑하기를 기대하는 여러 형태의 전통적인 결혼의 이면에 있는 이론적 근거가 되듯이, 결혼이란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이론의 논리적 근거가 되는 것이다. 현대 서구 문화에 있어서 이 사상은 전적으로 그릇된 것처럼 보인다. 사랑은 자발적인 감정적 반응의 결과이며,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의해 갑자기 사로잡힌 결과로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에서 볼 때우리는 관련된 두 개인의 특성만을 이해할 뿐 모든 남성은 아담의 일부이고 모든 여성은 이브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해하지는 못한다. 우리는 성애에 있어 중요한 인자인 '의지'를 이해하는 데 소홀히 한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강렬한 감정이 아니다. 하나의 결정이고 판단이고 약속이다. 사랑이 단지 감정만이라면, 서로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약속은 근거 없는 것이 된다. 감정은 솟아났다 사라질 수도 있다. 내 행위가 판단과 결단을 수반하지 않을 때. 어떻게 사랑이 영원히 지속된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

이러한 건해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사랑이 전적으로 의지와 약속의 행위이고 따라서 그 두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다는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이다. 결혼이 타인에 의해서 예정되었든지, 개인적인 선택의 결과이든지 한번 결혼이 결정되면 의지의 행위가 영원한 사랑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인간성과 성애의 역설적인 성격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우리는 모두 하나이지만 우리들 개인 개인은 유일하며 복제(複製)할 수 없는 존재이다.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러한 역설은 반복된다. 우리가 하나인 한, 우리는 인류애라는 면에서

① be supposed to/~하기로 되어 있다, ~하게 마련이다 ② take~into account/~ 을 고려하다 ③ it does not matter who/누구이건 무관하다, 상관없다

everybody in the same way in the sense of brotherly love. But inasmuch as we are all also different, erotic love requires certain specific, highly individual elements which exist between some people but not between all.

Both views then, that of erotic love as completely individual attraction, unique between two specific persons, as well as the other view that erotic love is nothing but an act of will, are true — or, as it may be put more aptly, the truth is neither this nor that. Hence the idea of a relationship which can be easily dissolved if one is not successful with it is as erroneous as the idea that under no circumstances must the relationship be dissolved.

d. Self-Love 13

While it raises no objection to apply the concept of love to various objects, it is a widespread belief that, while it is virtuous to love others, it is sinful to love oneself. It is assumed that to the degree to which I love myself I do not

¹³Paul Tillich, in a review of *The Sane Society*, in *Pastoral Psychology*, September, 1955, has suggested that it would be better to drop the ambiguous term "self-love" and to replace it with "natural self-affirmation" or "paradoxical self-acceptance." Much as I can see the merits of this suggestion, I cannot agree with him in this point. In the term "self-love" the paradoxical element in self-love is contained more clearly. The fact is expressed that love is an attitude which is the same toward all objects, including myself. It must also not be forgotten that the term "self-love," in the sense in which it is used here, has a history. The Bible speaks of self-love when it commands to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and Meister Eckhart speaks of self-love in the very same sense.

모든 사람을 같은 방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른 한, 성애는 어떤 사람들 사이에는 존재하지만 모든 사람들 사이에는 존재하지 않는, 어떤 특별하고 이주 개인적인 요소들을 요구하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의 견해, 즉 성애를 특별한 두 사람 사이의 독특하고 완전히 개인적인 매력이라고 보는 견해는 성애를 단지 의지의 행위일 뿐이 라고 보는 다른 견해와 마찬가지로 다 일리는 있는 것이다. 더 적절히 표현 하자면, 진실은 전자도 후자도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의 관계가 순조 롭지 못할 때는 쉽게 파기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나, 어떠한 상황 아래에서 도 그 관계가 파기될 수 없다고 보는 견해는 모두 잘못된 것이다.

자기애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하여 사랑의 개념을 적용하는 데는 이의가 없는 반면, 남을 사랑하는 것은 미덕이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죄악이라는 믿음이 널 리 퍼져 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로 타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13. Paul Tillich는 Pastoral Psychology 1955년 9월 초의 The Sane Society에 대한 서평에서 '자기애'라는 모호한 말을 버리고 '자연스러운 자기 주장', '자연스러운 자기 수용'이라는 말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제안의 장점은 인정하지만 나는 이 점에서는 그에 동의할 수 없다. '자기애'라는 말에는 자기애의 역설적 요소가 더욱 명료하게 내포되어 있다. 사실 사랑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대상에 대하여 표시하는 것과 같은 태도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의미에서의 '자기애'라는 말에는 역사가 있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된다. 성서에서 '네 몸과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한 것은 자기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고,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도 자기애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① nothing but=only ② erroneous=incorrect mistaken ③ raise objection to/이 의롭 제기하다

love others, that self-love is the same as selfishness. This view goes far back in Western thought. Calvin speaks of self-love as "a pest." Freud speaks of self-love in psychiatric terms but, nevertheless, his value judgment is the same as that of Calvin. For him self-love is the same as narcissism, the turning of the libido toward oneself. Narcissism is the earliest stage in human development, and the person who in later life has returned to this narcissistic stage is incapable of love; in the extreme case he is insane. Freud assumes that love is the manifestation of libido, and that the libido is either turned toward others—love; or toward onself—self-love. Love and self-love are thus mutually exclusive in the sense that the more there is of one, the less there is of the other. If self-love is bad, it follows that unselfishness is virtuous.

These questions arise: Does psychological observation support the thesis that there is a basic contradiction between love for oneself and love for others? Is love for oneself the same phenomenon as selfishness or are they opposites? Furthermore, is the selfishness of mothern man really a corncern for himself as an individual, with all his intellectual, emotional and sensual potentialities? Has "he" not become an appendage of his socio-economic role? Is his selfshness identical with self-love or is it not caused by the very lack of it?

¹⁴John Calvin,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translated by J. Albau, Presbyterian Board of Christian Education, Philadelphia, 1928, Chap. 7, par. 4,

p. 622.

자기애(自己愛, self-love)는 이기주의(利己主義, selfishness)와 동일하다는 것을 가정으로 한다. 이 견해는 멀리로는 서구의 사상에까지 소급된다. 칼뱅은 자기애를 '페스트'라고 말한다. 프로이트는 자기애를 정신 의학적인 용어로 설명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가치 판단은 칼뱅의 것과 동일하다. 그에게 있어 자기애는 자기 도취와 같으며, 자기 자신으로 향하는 성적충동의 전향이다. 자기 도취는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단계이고 후에 이 자기 도취의 단계에 되돌아온 사람은 사랑이 전혀 불가능하며, 극단적인 경우에는 정신 이상자가 된다. 프로이트는 사랑을 리비도의 표출이라 보고 리비도는 타인에게 사랑으로서, 또는 자신에게 자기애로서 어느 쪽으로든지 전환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이리하여 사랑과 자기애는 어느한쪽이 많아지면 그만큼 다른 쪽은 적어진다는 의미에서 서로 배타적이다. 만일 자기애가 나쁜 것이라면, 비이기적인 것은 미덕이라는 말이 된다.

이러한 의문들이 제시된다. 즉, 심리학적인 관찰이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 사이에 기본적인 모순이 존재한다는 가정을 지지할 수있을까? 자기애는 이기주의와 같은 현상인가, 아니면 서로 상반되는 것인가? 더 나아가서 현대인의 이기주의라는 것이 진실로 지적, 정서적, 관능적 잠재성을 지닌 개인으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인가? '그'는 그의 사회적, 경제적인 역할의 부속물로 되어 버리지는 않았는가? '그의 이기심과 자기애는 동일한가, 또는 이기주의는 자기애의 결여로 말미암아 야기되는 것인가?'

The first the first the first first

① go far back/멀리까지 거슬러 올라가다 ② if~it follows that/~이면 that 이하가되다 ③ appendage/부가물, 부속물

Before we start the discussion of the psychological aspect of selfishness and self-love, the logical fallacy in the notion that love for others and love for oneself are mutually exclusive should be stressed. If it is a virtue to love my neighbor as a human being, it must be a virtue — and not a vice — to love myself, since I am a human being too. There is no concept of man in which I myself am not included. A doctrine which proclaims such an exclusion proves itself to be intrinsically contradictory. The idea expressed in the Biblical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implies that respect for one's own integrity and uniqueness, love for and understanding of one's own self, cannot be separated from respect and love and understanding for another individual. The love for my own self is inseparably connected with the love for any other being.

We have come now to the basic psychological premises on which the conclusions of our argument are built. Generally, these premises are as follows: not only others, but we ourselves are the "object" of our feelings and attitudes; the attitudes toward others and toward ourselves, far from being contradictory, are basically conjunctive. With regard to the problem under discussion this means: love of others and love of ourselves are not alternatives. On the contrary, an attitude of love toward themselves will be found in all those who are capable of loving others. Love, in principle, is indivisible as far as the connection between "objects" and one's own self is concerned. Genu-

이기주의와 자기애의 심리학적 측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삼는 견해 속의 논리적인 과오를 지적해야만 한다. 만일 이웃을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미덕이라면, 나도 또한 인간이기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악덕이 아니라 미덕이어야 한다.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간의 개념은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자기 소외를 주장하는 학설은 그 자체가 본질적으로 모순된다는 것이 명백하다. 성서에 표현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은 인간 자신의 고결성과 특이성, 즉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이해에 대한 존경이 다른 개인에 대한 사랑과 이해에 대한 존경과 분리될 수 없음을 뜻한다. 나 자신에 대한 사랑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불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주장에 대한 결론의 근거가 되는 기본적인 심리학적 전제들을 검토할 단계에 이르렀다. 일반적으로 이 전제들은 다음과 같다. 타 인뿐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우리의 감정과 태도의 '대상'이 된다. 타인에 대한 태도와 나 자신에 대한 태도는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모순되지 않는다. 토론중에 있는 문제와 연관시킨다면, 이것은 타인에 대한 사랑과 자 기 자신에 대한 사랑은 양자 택일(兩者擇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 이와 반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태도는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사 람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원리적으로 '사랑'은 '대상'과 우리 자신 의 자아와 관여된 측면에서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순수한 사랑은 생산성의

The state of the s

① exclusion/제외, 배제, 여기서는 '자기 소외' ② integrity/고결성 ③ conjunctive/ 결합하는, 접합(연결)하는, 접속적인

ine love is an expression of productiveness and implies care, respect, responsibility and knowledge. It is not an "affect" in the sense of being affected by somebody, but an active striving for the growth and happiness of the loved person, rooted in one's own capacity to love.

To love somebody is the actualization and concentration of the power to love. The basic affirmation contained in love is directed toward the beloved person as an incarnation of essentially human qualities. Love of one person implies love of man as such. The kind of "division of labor," as William James calls it, by which one loves one's family but is without feeling for the "stranger," is a sign of a basic inability to love. Love of man is not, as is frequently supposed, an abstraction coming after the love for a specific person, but it is its premise, although genetically it is acquired in loving specific individuals.

From this it follows that my own self must be as much an object of my love as another person. The affirmation of one's own life, happiness, growth, freedom is rooted in one's capacity to love, i.e., in care, respect, responsibility, and knowledge. If an individual is able to love productively, he loves himself too; if he can love only others, he cannot love at all.

Granted that love for oneself and for others in principle is conjunctive, how do we explain selfishness, which obviously excludes any genuine concern for others? The selfish person is interested only in himself, wants every-

표현이고 배려, 존경, 책임, 지식을 의미한다. 그것은 누구에게서 감동을 받는다는 의미의 '정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할 수 있는 능력에 근거를 둔, 사랑의 대상의 성장과 행복에 대한 적극적인 갈망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사랑의 능력을 행동으로 실현시키고 집중시키는 것이다. 사랑에 내포되어 있는 기본적인 긍정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성질이 구체화된 것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지향된다.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은 그것만으로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윌리엄 제임스가 일컬었던 것과 같은 노동의 '분업'의 일종은 사람이 자신의 가족은 사랑하지만, '낯선 사람'에 대한 사랑의 감정은 갖고 있지 않으며, 또한 그것은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무능력을 표시한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종종 생각되는 바와 같이, 어느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랑에서 파악되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며, 원초적으로이것이 특정한 개인을 사랑하는 일 속에서 체득된다 하더라도 그 전제에 불과한 것이다.

여기서 나 자신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의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한다는 귀결이 나온다. '우리 자신의 생명, 행복, 성장, 자유에 대한 긍정'은 '우리 자신의 사랑의 능력', 즉 배려, 존경, 책임, 지식에 근거를 두고 있다. 만일 어떤 개인이 생산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자기 자신도 사랑한다. 만일 그가 '오로지' 타인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결국 사랑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이 본질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 가정할 때, 타인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배제하고 있는 이기심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이런 '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에만 관심을

thing for himself, feels no pleasure in giving, but only in taking. The world outside is looked at only from the standpoint of what he can get out of it: he lacks interest in the needs of others, and respect for their dignity and integrity. He can see nothing but himself: he judges everyone and everything from its usefulness to him: he is basically unable to love. Does not this prove that concern for others and concern for oneself are unavoidable alternatives? This would be so if selfishness and self-love were identical. But that assumption is the very fallacy which has led to so mistaken conclusions concerning our problem. Selfishness and self-love, far from being identical, are actually opposites. The selfish person does not love himself too much but too little; in fact he hates himself. This lack of fondness and care for himself, which is only one expression of his lack of productiveness, leaves him empty and frustrated. He is necessarily unhappy and anxiously concerned to snatch from life the satisfactions which he blocks himself from attaining. He seems to care too much for himself, but actually he only makes an unsuccessful attempt to cover up and compensate for his failure to care for his real self. Freud holds that the selfish person is narcissistic, as if he had withdrawn his love from others and turned it toward his own person. It is true that selfish persons are incapable of loving others, but they are not capable of loving themselves either.

It is easier to understand selfishness by comparing it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바라며, 주는 일에 기쁨을 느끼는 일이 없이 오직 빼앗는 데만 기쁨을 느끼고 있다. 그는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관점에서만 외부 세계를 본다. 이기적인 사람은 타인의 요구 에 관심을 두지 않으며 타인의 존엄과 고결성에 대한 존경도 없다. 그는 자 기 자신을 제외하고서는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 모든 물건들은 그에게 있어 서는 그 유용성(有用性)이라는 면에서만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사람은 사랑 한다는 일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타인에 대한 관심과 자기 자신 에 대한 관심이 필연적으로 양자 택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지 않은가? 만일 이기주의와 자기애가 동일하다면, 그렇게 될 것 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그릇된 것이며 또 이러한 그릇된 것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문제에 관련된 많은 그릇된 결론이 유도되었다. '이기주의와 자기애는 동일하기는커녕, 사실상 정반대의 것이다.' 이기적인 사 람은 자기 자신을 거의 사랑하지 않으며,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자기 자신에 대한 애정과 주의가 결여된 것은 그의 생산성의 결여 를 보여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사람을 공허하게 만들고 좌절시킨 다. 그는 필연적으로 불행하며 생활 속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몰두하지만 자 기 자신이 이 만족을 얻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그는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진정한 자아를 사랑하지 못한 것을 감추고 보 상을 얻으려고 애쓸 뿐이며, 이러한 노력은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만다. 이기적인 인간은 자기 도취적이며 그들은 마치 자기의 사랑을 남에게서 회 수하여 자기 자신에게 돌려 주는 양 생각한다고 프로이트는 주장한다 '이기 적인 사람이 타인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 자신도 사랑 할 능력이 없다.'

이기주의를 쉽게 이해하려면, 이를테면 과잉 보호하는 어머니에게서 보는

① cover up/완전히 감추다, 감싸 덮어 버리다

with greedy concern for others, as we find it, for instance, in an oversolicitous mother. While she consciously believes that she is particularly fond of her child, she has actually a deeply repressed hostility toward the object of her concern. She is overconcerned not because she loves the child too much, but because she has to compensate for her lack of capacity to love him at all.

This theory of the nature of selfishness is borne out by psychoanalytic experience with neurotic "unselfishness," a symptom of neurosis observed in not a few people who usually are troubled not by this symptom but by others connected with it, like depression, tiredness, inability to work, failure in love relationships, and so on. Not only is unselfishness not felt as a "symptom"; it is often the one redeeming character trait on which such people pride themselves. The "unselfish" person "does not want anvthing for himself": he "lives only for others," is proud that he does not consider himself important. He is puzzled to find that in spite of his unselfishness he is unhappy, and that his relationships to those closet to him are unsatisfactory. Analytic work shows that his unselfishness is not something apart from his other symptoms but one of them, in fact often the most important one; that he is paralyzed in his capacity to love or to enjoy anything; that he is pervaded by hostility toward life and that behind the façade of unselfishness a subtle but not less intense selfcenteredness is hidden. This person can be cured only if 바와 같은, 타인에 대한 필요 이상의 관심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그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각별히 사랑한다고 의식적으로 믿고 있지만, 사실은 그녀의 관심의 대상에 대해 깊이 억압되어 있는 적의를 품고 있다. 아이를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한껏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결여를 보상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머니의 염려가 지나치는 것이다.

이기주의의 본질에 대한 이 이론은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신경증의 한 증상으로 신경증적 '비이기주의(非利己主義, unselfishness)'에 관한 정신 분석적인 경험에서 생긴 것이다. 이 종류의 신경증을 가진 사람은 이 증상만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다른 증상들, 이를테면 침울, 피로, 일에 대한 무능력, 사랑 관계의 실패 따위의 증상으로도 고생하고 있다. 그런데 이 비이기주의는 '증상'이라고 느껴지지 않으며 종종 그런 사람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구원적(救援的) 성격의 특징이기도 하다. '비이기적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 뿐이고' 자기 자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자랑한다. 그는 자신의 비이기주의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고 친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원만하지 않다는 점을 깨달으면 당황해 한다. 분석적인 연구에 의하면, 이 비이기주의는 그의 다른 증상과 별개의 것이 아니라 그의 증상들 중의 하나이며 실제에 있어서 흔히 가장 중요한 증상인 경우가 있다. 또한 분석적 연구에 의해 그는 삶에 대한 증오가 가득 차 있으며 비이기주의라는 외관의 뒤에는 교묘하고도 강한 자기 본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 그의 비이기주의도 다른 증상과 마찬가지

water and the second and the second

① oversolicitous/지나치게 염려하는 ② facade/정면, 외관 ③ subtle/미묘한, 형언하기 어려운

his unselfishness too is interpreted as a symptom along with the others, so that his lack of productiveness, which is at the root of both his unselfishness and his other troubles, can be corrected.

The nature of unselfishness becomes particularly apparent in its effect on others, and most frequently in our culture in the effect the "unselfish" mother has on her children. She believes that by her unselfishness her children will experience what it means to be loved and to learn in turn, what it means to love, the effect of her unselfishness, however, does not at all correspond to her expectations. The children do not show the happiness of persons who are convinced that they are loved: they are anxious. tense, afraid of the mother's disapproval and anxious to live up to her expectations. Usually, they are affected by their mother's hidden hostility toward life, which they sense rather than recognize clearly, and eventually they become imbued with it themselves. Altogether, the effect of the "unselfish" mother is not too different from that of the selfish one; indeed, it is often worse, because the mother's unselfishness prevents the children from criticizing her. They are put under the obligation not to disappoint her; they are taught, under the mask of virtue, dislike for life. If one has a chance to study the effect of a mother with genuine self-love, one can see that there is nothing more conducive to giving a child the experience of what love, joy and happiness are than being loved by a mother who

사랑의 이론

로 하나의 중상으로 해석되는 경우에 한해 치료될 수가 있으며, 또한 이 비이기주의의 중상으로 인해 야기되는 생산성의 결여도 같은 방법으로 고칠수 있다.

비이기주의의 본질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더욱 명확해진 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비이기적인' 어머니가 아이에게 주는 영향 에서 가장 비번히 나타난다. 그런 어머니는 자기의 비이기주의에 의해서 그 아이들 자신이 사랑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자기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녀의 비 이기주의의 영향은 그녀의 기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사랑받고 있 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내는 행복감을 보여 주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불안해 하고 긴장해 있고 어머니의 비난을 받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어머니 의 기대에 따라서 행동하기에 급급해 한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어머니가 품 고 있는 삶에 대한 중오에 영향을 받는데, 그것도 명확히 인식하기보다는 느 끼는 정도이며 마침내는 그들 자신이 그것에 감염되어 버린다. 결국 '비이기 적'인 어머니의 영향은 이기적인 어머니의 영향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사 실상 어머니의 비이기주의는 어린아이에게 어머니를 비평할 여지를 주지 않 기 때문에 종종 더욱 나쁜 결과로 되는 경우가 있다. 그들은 어머니를 실망 시켜서는 안 된다는 속박을 받고 있으며 그들은 미덕(美德)이라는 가면 밑에 서 삶에 대한 중오를 배운다. 만일 우리에게 순수한 자기애를 가직한 어머니 의 영향을 연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사랑, 기쁨,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경 험을 아이에게 주는 데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

loves herself

These ideas on self-love cannot be summarized better than by quoting Meister Eckhart on this topic: "If you love yourself, you love everybody else as you do yourself. As long as you love another person less than you love yourself, you will not really succeed in loving yourself, but if you love all alike, including yourself, you will love them as one person and that person is both God and man. Thus he is a great and righteous person who, loving himself, loves all others equally." 15

e. Love of God

It has been stated above that the basis for our need to love lies in the experience of separateness and the resulting need to overcome the anxiety of separateness by the experience of union. The religious form of love, that which is called the love of God, is, psychologically speaking, not different. It springs from the need to overcome separateness and to achieve union. In fact, the love of God has as many different qualities and aspects as the love of man has — and to a large extent we find the same differences.

In all theistic religions, whether they are polytheistic or monotheistic, God stands for the highest value, the most

¹⁵Meister Echhart, translated by R. B. Blakney, Harper & Brothers, New York, 1941, p. 204.

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러한 자기애에 관한 사상들은 무엇보다도 이 문제에 관한 마이스터 에 크하르트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잘 요약될 수 있다. '만일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대는 모든 사람을 그대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할 것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적게 타인을 사랑한다면, 그대는 그대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대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한다면, 그대는 동일한 사람으로 그대 자신과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러한 그대는 신인 동시에 인간이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는 위대하고 올바른 사람이라 하겠다.'

신에 대한 사랑

지금까지 말해 온 바는, 사랑을 추구하는 우리의 욕구의 근거는 분리의 체험과 이것에서 야기되는 분리의 불안을 합일의 경험에 의하여 극복하고자하는 욕구에 있다는 점이다. 종교적 형식의 사랑은 신(神)에 대한 사랑(love of God)이라고 불리지만, 심리학적으로 말한다면 별로 다를 게 없다. 그것은 분리를 극복하고 합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신에 대한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많은 성질과 측면이 있으며, 상당한 정도까지 우리는 동일한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

모든 유신론적인 종교에 있어서, 그것이 다신론(多神論)이든 또는 일신론 (一神論)이든 상관없이, 신은 최고의 가치와 가장 바람직한 선(善)을 뜻한

① theistic/유신론의, 유신론적인 ② polytheistic/다신교의 ③ monotheistic/일신론 의

desirable good. Hence, the specific meaning of God depends on what is the most desirable good for a person. The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God must, therefore, start with an analysis of the character structure of the person who worships God.

The development of the human race as far as we have any knowledge of it can be characterized as the emergence of man from nature, from mother, from the bonds of blood and soil. In the beginning of human history man. though thrown out of the original unity with nature, still clings to these primary bonds. He finds his security by going back, or holding on to these primary bonds. He still feels identified with the world of animals and trees, and tries to find unity by remaining one with the natural world. Many primitive religions bear witness to this stage of development. An animal is transformed into a totem: one wears animal masks in the most solemn religious acts. or in war; one worships an animal as God. At a later stage of development, when human skill has developed to the point of artisan and artistic skill, when man is not dependent any more exclusively on the gifts of nature — the fruit he finds and the animal he kills - man transforms the product of his own hand into a god. This is the stage of the worship of idols made of clay, silver or gold. Man projects his own powers and skills into the things he makes. and thus in an alienated fashion worships his prowess. his possessions. At a still later stage man gives his gods 다. 그러므로 신이 지니는 고유한 의미는 인간에게 가장 바람직한 선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신에 대한 개념의 이해는 신을 숭배하는 인간의 성격 구조의 분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인간의 발달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리고 혈연과 지연으로부터 출현한 사실로서 특징 지을 수 있다. 인류 역사의 시초에 있어서 인간은 자연과의 원초적 합일로부터 축출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최초의 인연에 매달려 있다. 인간은 이 원시적인 인연으로 돌아가든지 또는 이것에 매달림으로써 자기의 안전을 꾀한다. 인간은 또한 동물들의 세계와 식물들의 세계와의 동일화의 느낌을 가지고 있고 자연 세계와 하나가 되어 합일을 이루고자 노력한다. 여러 가지 원시적인 종교는 이정도의 발달 단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동물은 토템으로 바뀌어지고 사람들은 가장 엄숙한 종교적 행위 또는 전쟁의 경우에는 동물의 탈을 쓰고 동물을 신으로 숭배한다. 좀더 발달한 단계에서는 인간의 기술 발달이 직공과 예술가의 숙련에까지 도달하고 인간이 과일이나 동물 따위의 자연의소산에 의존하지 않게 되며, 그의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을 신으로 삼는다. 이것이 진흙, 은, 금으로 만들어진 우상을 숭배하는 단계이다. 인간은 그 자신의 함과 숙달을 그가 만드는 것에 집중시키며, 따라서 사람과는 소외된 방법으로 자기의 솜씨와 소유를 숭배한다. 이보다 더욱 발달한 단계에서는 인간

① bear winess to/~을 입중하다, 증명하다 ② project~into/~을 ~에 투영하다, 투입하다 ③ alienate/(사람음) 소홀히 하다. 이간하다

the form of human beings. It seems that this can happen only when he has become still more aware of himself, and when he has discovered man as the highest and most dignified "thing" in the world. In this phase of anthropomorphic god worship we find a development in two dimensions. The one refers to the female or male nature of the gods, the other to the degree of maturity which man has achieved, and which determines the nature of his gods and the nature of his love of them.

Let us first speak of the development from mothercentered to father-centered religions. According to the great and decisive discoveries of Bachofen and Morgan in the middle of the nineteenth century, and in spite of the rejection their findings have found in most academic circles, there can be little doubt that there was a matriarchal phase of religion preceding the patriarchal one, at least in many cultures. In the matriarchal phase, the highest being is the mother. She is the goddess, she is also the authority in family and society. In order to understand the essence of matriarchal religion, we have only to remember what has been said about the essence of motherly love. Mother's love is unconditional, it is all-protective, all enveloping; because it is unconditional it can also not be controlled or acquired. Its presence gives the loved person a sense of bliss; its absence produces a sense of lostness and utter despair. Since mother loves her children because they are her children, and not because they are

사랑의 이론

은 신에게 인간의 형상을 부여한다. 이러한 것은 인간이 좀더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인간을 세계에서 가장 높고 존귀한 존재로 여기게 될 때에 한하여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인간의 모습을 지닌 신을 숭배하는 이 단계에서는 두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다. 한 방향은 신이 여성인가 남성인가에 달려 있고, 또 다른 방향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었던 성숙의 정도에 달린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숭배하는 신들의 성격과 신들에 대한 인간의 사랑의 성질을 결정하는 것이다.

먼저 어머니 중심의 종교로부터 아버지 중심의 종교로 발달하는 과정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19세기 중엽 바하오펜과 모르간의 발견이 대부분의 학계에서는 거부되었지만, 그들의 위대하고 결정적인 발견에 의하면, 적어도 여러 문화에서 종교의 부계적 상태에 앞서 모계적 상태가 있었다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모계적 시기에서 최고의 존재는 어머니이다. 어머니는 여신이고 또 가족과 사회의 권위자이다. 모계적 종교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성애의 본질에 관해서 언급하였던 바를 상기해야 한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모든 것을 보호하고 모든 것을 감싸 주는 것이다. 그것은 무조건적이기에 또한 결코 통제되거나 후천적으로 획득되는 일도 없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존재는 사랑받는 사람에게 최고의 행복감을 주며, 사랑의 결여는 상실감과 절망감을 준다.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이

الاستقالات فالاستقالات فالمستقالات فالاستقالات فالاستقالات فالمستقالات فالمستقالات المستقالات فالمستقالات المستقالات المستد المستقالات المستقالات المستقلات المستقالات المستقالات المستقالا

① anthropomorphic/신인 동형론의, 인간의 모습을 지닌

"good," obedient, or fulfill her wishes and commands, mother's love is based on equality. All men are equal, because they all are children of a mother, because they all are children of Mother Earth.

The next stage of human evolution, the only one of which we have thorough knowledge and do not need to rely on inferences and reconstruction, is the patriarchal phase. In this phase the mother is dethroned from her supreme position, and the father becomes the Supreme Being, in religion as well-as in society. The nature of fatherly love is that he makes demands, establishes principles and laws, and that his love for the son depends on the obedience of the latter to these demands. He likes best the son who is most like him, who is most obedient and who is best fitted to become his successor, as the inheritor of his possessions. (The development of patriarchal society goes together with the development of private property.) As a consequence, patriarchal society is hierarchical; the equality of the brothers gives way to competition and mutual strife. Whether we think of the Indian, Egyptian or Greek cultures, or of the Jewish-Christian, or Islamic religions, we are in the middle of a patriarchal world, with its male gods, over whom one chief god reigns, or where all gods have been eliminated with the exception of the One, the God. However, since the wish for mother's love cannot be eradicated from the hearts of man. it is not suprising that the figure of the loving mother could 유는 '착하다'든가, 온순하다든가 자기의 소원과 명령을 행한다는 이유에서 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아이들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어머니의 사랑은 평 등에 기초를 둔다.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것은 그들이 한 어머니의 자녀이 며, '어머니인 대지(大地)'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인간 진화의 다음 단계는 부계적 상태인데, 우리가 완전히 알고 있고 추리나 이론의 재구성에 의존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는 물론 종교에 있어서도 어머니는 최고의 지위에서 탈락되고 아버지는 최고의 존재로 된다. 아버지의 사랑의 본질은 명령을 내리고 원리와 법칙을 확립하며,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의 요청에 대한 아들의 순종 여하에 따라 좌우된다. 아버지는 자기를 가장 많이 닮고 자기의 재산을 이어받기에 적당한 아들, 즉 그의 후계자가 되기에 가장 적당한 아들을 가장 좋아한다(부계적 사회의 발달은 사유 재산의 발달과 병행한다. 그 결과로서부계적 사회는 계급 조직적인 것으로 되며, 형제의 평등은 경쟁과 상호 투쟁속으로 사라진다. 인도 문화, 이집트 문화, 그리스 문화 또는 유태교, 기독교 또는 이슬람교의 어느 것을 생각해 보아도, 남성의 신들이 있고 그들을 하나의 장(長)이 되는 신이 다스리고 있는가,또는 '하나의 신'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들은 망각되어 있는 부계적인 세계의 한복판에 들어서게 된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소원은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결코 근절될 수 없기 때문에 다정한 어머니의 모습이 신전에서 완전히 추방되어 버리는 일이 결코 없

① inference/추론, 추리 ② be dethroned from/(권위 있는 자리에서) 쫓겨나다

never be fully driven out from the pantheon. In the Jewish religion, the mother aspects of God are reintroduced especially in the various currents of mysticism. In the Catholic religion. Mother is symbolized by the Church, and by the Virgin Even in Protestantism, the figure of Mother has not been entirely eradicated. although she remains hidden. Luther established as his main principle that nothing that man does can procure God's love. God's love is Grace. the religious attitude is to have faith in this grace, and to make oneself small and helpless: no good works can influence God - or make God love us, as Catholic doctrines postulated. We can recognize here that the Catholic doctrine of good works is part of the patriarchal picture; I can procure father's love by obedience and by fulfilling his demands. The Lutheran doctrine, on the other hand, in spite of its manifest patriarchal character carries within it a hidden matriarchal element. Mother's love cannot be acquired: it is there, or it is not there: all I can do is to have faith (as the Psalmist says, "Thou hadst let me have faith into my mother's breasts."16) and to transform myself into the helpless, powerless child. But it is the peculiarity of Luther's faith that the figure of the mother has been eliminated from the manifest picture, and replaced by that of the father; instead of the certainty of being loved by mother, intense doubt, hoping against hope for unconditional love by father, has become the paramount fea-

¹⁶Pslam 22: 9.

었다고 하더라고 놀랄 만한 일은 못 된다. 유태인의 종교에서는 신의 모성적 국면이 특히 여러 가지 신비주의의 조류에 재도인되다 기톡리교에서 '어머 니'는 '교회'와 '성처녀(聖處女)'의 상징이다. 신교(神教)에서도 '어머니'의 모습은 표면에 나타나지는 않으나 완전히 근절되어 있지는 않다. 루터는 인 간이 '행하는' 일치고 신의 사랑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음 그의 주된 원칙으로 확립해 놓았다. 신의 사랑은 '은총'이며 종교적 태도 는 이 은총을 믿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작고 무력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아 무리 선한 행위도 신을 움직이지는 못하며, 다시 말하면 가톨릭의 교리가 가 정했던 것같이 어떠한 선한 행위도 신으로 하여금 우리를 사랑하게 할 수는 없다. 우리는 여기서 선한 행위를 규정하는 가톨릭교의 교리가 부계적 양상 의 일부분임을 인정할 수 있다. 내가 아버지의 사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순 종에 의하여 또는 아버지의 욕구를 츳족시킴으로써만 가능하다. 반대로 루터 의 교리는 명백한 부계적 성격이 보이기는 하나 감춰진 모계적 요소가 내포 되어 있다. 어머니의 사랑은 후청적으로 획득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즉 그것은 여기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한 것이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내 모 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라고 시편(詩篇)의 시인이 말했듯 이) 믿음을 가지는 것뿐이며 자기 자신을 무렵한 아이로 전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형상은 뚜렷한 표면에서 제거하고 그 대신 아버지의 것으 로 대치한 것이 루터의 신앙의 특징이다. 즉,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확신 대신에 강한 의혹, 즉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라는 요행과는

والمراعات والمراعات

① pantheon/반신전(萬神殿) ② eradicate/~을 뽑아 버리다, 일소하다 ③ Martin Luther/(1483~1546) 독일의 신화자이자 종교 개혁자 ④ postulate=assume ; take for granted ⑤ Psalmist/다윗 왕(시편의 작자), as the Psalmist/시편의 ⑥ paramount/최고의, 최상의

ture.

I had to discuss this difference between the matriarchal and the patriarchal elements in religion in order to show that the character of the love of God depends on the respective weight of the matriarchal and the patriarchal aspects of religion. The patriarchal aspect makes me love God like a father: I assume he is just and strict, that he punishes and rewards; and eventually that he will elect me as his favorite son; as God elected Abraham-Israel, as Isaac elected Jacob, as God elects his favorite nation. In the matriarchal aspect of religion. I love God as an allembracing mother. I have faith in her love, that no matter whether I am poor and powerless, no matter whether I have sinned, she will love me, she will not prefer any other of her children to me; whatever happens to me, she will rescue me, will save me, will forgive me. Needless to say, my love for God and God's love for me cannot be separated. If God is a father, he loves me like a son and I love him like a father. If God is mother, her and my love are determined by this fact.

This difference between the motherly and fatherly aspects of the love of God is, however, only one factor in determining the nature of this love; the other factor is the degree of maturity reached by the individual, hence in his concept of God and in his love for God.

Since the evolution of the human race shifted from a . mother-centered to $^{\odot}$ a father-centered structure of so-

어긋나는 강렬한 회의가 으뜸가는 특징으로 되어 있다.

나는 신에 대한 사랑의 성격은 종교의 모계적 측면과 부계적인 측면의 각각의 비중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종교에 있어서의 모계적 요소와 부계적 요소 사이의 차이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부계적 측면은 나에게 신을 아버지처럼 사랑하게 한다. 따라서 신은 의롭고 엄격하며 상을 주고 벌을 내리며, 마침내 나를 그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선택할 것이다. 신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을 택했듯이, 이삭이 야곱을 택했듯이 그리고 신이 사랑하는 백성을 택했듯이, 종교의 모계적 측면에서는 나는 신을 모든 것을 감싸 주시는 어머니로서 사랑한다.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믿는다. 내가 가난하고 무력하더라도, 설사 죄를 범할지라도 어머니는 나를 사랑할 것이며, 그녀의 자녀들과 나를 차별 없이 사랑할 것이며,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머니는 나를 구원하고 나를 돕고 나를 용서할 것이다. 말할 여지도 없이 신에 대한 나의 사랑과 나에 대한 신의 사랑은 분리할 수 없다. 만일 신이 아버지라면 신은 나를 아들과 같이 사랑하며 나는 신을 아버지처럼 사랑할 것이다. 만일 신이 어머니라면 그녀의 사랑과 나의 사랑은 이같은 사실에 의해서 결정되다.

신의 사랑에 대한 모성적 측면과 부성적 측면의 이같은 차이는 이 사랑의 성질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요소이며, 다른 요인이 있다면 그것은 각자에 의 해서 도달되는 성숙의 정도이다. 따라서 이 두 요소는 신에 대한 개념과 신 에 대한 사랑이 결정한다.

인류의 발달은 종교와 마찬가지로 모계 중심의 사회 구조에서 부계 중심

① shift from A to B/A에서 B로 옮기다

ciety, as well as of religion, we can trace the development of a maturing love mainly in the development of patriarchal religion.¹⁷ In the beginning of this development we find a despotic, jealous God, who considers man, whom he created, as his property, and is entitled to do with him whatever he pleases. This is the phase of religion in which God drives man out of paradise, lest he eat from the tree of knowledge and thus could become God himself: this is the phase in which God decides to destroy the human race by the flood. because none of them pleases him, with the exception of the favorite son. Noah: this is the phase in which God demands from Abraham that he kill his only, his beloved son, Isaac, to prove his love for God by the act of ultimate obedience. But simultaneously a new phase begins; God makes a covenant with Noah. in which he promises never to destroy the human race again, a covenant by which he is bound himself. Not only is he bound by his promises, he is also bound by his own principle, that of justice, and on this basis God must yield to Abraham's demand to spare Sodom if there are at least ten just men. But the development goes further than transforming God from the figure of a despotic tribal chief into a loving father, into a father who himself is bound

¹⁷This holds true especially for the monotheistic religions of the West. In Indian religions the mother figures retained a good deal of influence, for instance in the Goddess Kali; in Buddhism and Taoism the concept of a God — or a Goddess — was without essential significance, if not altogether eliminated.

사랑의 이론

의 사회로 옮겨졌으므로 우리는 성숙해 가는 사랑의 발달 자취를 부계적 종 교의 발달 속에서 더듬어 볼 수가 있다. 이러한 발달의 초기에는 우리가 생 각하는 신은 그가 창조한 인간을 그의 소유로 간주하고 그가 위하는 것은 무 엇이든지 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전제적이고 질투심이 강한 신이 다. 이것은 인간이 지혜의 열매를 먹었다는 이유로 인간 자신이 신이 되는 일이 없도록 신이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하는 단계의 종교이다. 이것은 신이 사랑하는 노아를 제외하고는 인류 중의 아무도 그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이 유로 해서 인류를 홋수로 멸망시키려고 결정하는 그런 단계이다. 이것은 또 한 신이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순종의 행위로서 신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 도록 그의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요구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동 시에 새로운 단계가 시작해서 신은 결코 다시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일이 없 도록 신 자신을 구속하는 계약을 노아와 맺는다. 신은 계약에 의해 구속될 뿐 아니라 또한 신 자신의 원리, 즉 정의에 의해서도 구속되고 그 원리에 근 거하여 아브라함의 요구에 대하여 적어도 열 명의 올바른 자가 있는 한 소 돔을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나 더욱 발달함수록 신은 전제적인 부 족장의 모습으로부터 애정 있는 아버지로 스스로 가정한 워리에 구속을 받 17. 이것은 특히 일신론적(一神論的) 종교에 해당되다. 인도의 종교에서 어머니의 모 습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를 들면 여신(女神) 칼리-불교와 도교에서는 신 또는 여신-의 개념은, 전적으로 제거할 수는 없더라도, 본질적인 중요성은 갖고 있지 못했다.

我們不敢你不敢你不敢你不敢你不敢你不敢你 不敢你 不敢你 不敢你 不好你 不好你 不好你 不好你 不好你 不好你 不好你 不好

① despotic/전제적인, 독재적인, 횡포한 ② the flood/노아의 홍수 ③ make a covenant with/~와 계약을 맺다, 맹약하다 ④ ten just men/ 열 명의 의인(義人)

by the principles which he has postulated; it goes in the direction of transforming God from the figure of a father into a symbol of his principles, those of justice, truth and love. God is truth, God is justice. In this development God ceases to be a person, a man, a father; he becomes the symbol of the principle of unity behind the manifoldness of phenomena, of the vision of the flower which will grow from the spiritual seed within man. God cannot have a name. A name always denotes a thing, or a person, something finite. How can God have a name, if he is not a person, not a thing?

The most striking incident of this change lies in the Biblical story of God's revelation to Moses. When Moses tells him that the Hebrews will not believe that God has sent him, unless he can tell them God's name (how could idol worshipers comprehend a nameless God, since the very essence of an idol is to have a name?), God makes a concession. He tells Moses that his name is "I am becoming that which I am becoming." "I-am-becoming is my name." The "I-am-becoming" means that God is not finite, not a person, not a "being." The most adequate translation of the sentence would be: tell them that "my name is nameless." The prohibition to make any image of God, to pronounce his name in vain, eventually to pronounce his name at all, aims at the same goal, that of freeing man from the idea that God is a father, that he is a person. In the subsequent theological development, the idea is carried further in

사랑의 이론

는 아버지로 모습이 바뀌는 정도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신이 아버지의 모습에서 그가 제공한 원리, 즉 정의와 진리와 사랑의 원리의 상징으로 바뀌어 가는 방향으로 발달해 간다. 신은 진리이며 정의이다. 이러한 발전이 계속 되면서 인간이나 남자나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신은 다양한 현상 이면에 있는 합일의 원리 및 인간 내면의 씨에서 자라날 꽃의 모습을 상징하게 된다. 신은 이름이 있을 수 없다. 이름은 사물이나 사람 같은 특정한 것을 표시하게 마련이다. 신이 사람이나 사물이 아닌 이상 어떻게 이름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변천 속에서 가장 놀라운 일은 성서에 있는 모세에 대한 신의 계시이다. 모세가 신에 대하여, 자기에게 그 이름을 일러주지 않으면 그를 보냈다는 사실을 해브라이 사람들이 믿지 않으리라 말했을 때 (우상의 본질은 이름을 가져야 한다는 데 있거늘 우상 숭배자들이 어떻게 이름이 없는 신을 이해할 것인가) 신은 이에 대하여 양보한다. 신은 모세에게 그의 이름은 '스스로 있음이나라' '스스로 있음이 나의 이름이니라'고 말한다. '스스로 있음'이란신이 유한한 존재가 아니고, 존재도 아님을 뜻한다. 이 문장을 가장 적절하게 번역하면 '나의 이름은 이름이 없는 것이니라'고 말하라는 것이다. 신의 영상을 만들거나 또는 신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기를 급하며, 궁극적으로 그의 이름을 일컫지 못하도록 급하는 것은 신은 아버지이다, 신은 인간이다라는 생각으로부터 인간을 벗어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신학이 더욱 발달한 후에 그 사상은 인간이 신에게 어떤 명확한 속성을 부여해서는

① manifoldness/다양성

the principle that one must not even give God any positive attribute. To say of God that he is wise, strong, good implies again that he is a person; the most I can do is to say what God is not, to state negative attributes, to postulate that he is not limited, not unkind, not unjust. The more I know what God is not, the more knowledge I have of God. 18

Following the maturing idea of monotheism in its further consequences can lead only to one conclusion: not to mention God's name at all, not to speak about God. Then God becomes what he potentially is in monotheistic theology, the nameless One, an inexpressible stammer, referring to the unity underlying the phenomenal universe, the ground of all existence; God becomes truth, love, justice. God is I, inasmuch as I am human.

Quite evidently this evolution from the anthropomorphic to the pure monotheistic principle makes all the difference to the nature of the love of God. The God of Abraham can be loved, or feared, as a father, sometimes his forgiveness, sometimes his anger being the dominant aspect. Inasmuch as God is the father, I am the child. I have not emerged fully from the autistic with for omniscience and omnipotence. I have not yet acquired the objectivity to realize my limitations as a human being, my ignorance, my helplessness. I still claim, like a child,

¹⁸Cf. Maimonides' concept of the negative attributes in The Guide for the perplexed.

안 된다는 원리로 진전을 보이게 된다. 신은 영리하고 강하고 착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시금 신이 사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있는 바는 신은 '이처럼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비한정어로 말하는 것, 그는 한정되지도 '않으며', 불친절하지도 않고 불의가 아니다라고 가정하는 일이다. 신이 '이처럼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알게 될수록 나는 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된다.

일신론(一神論)의 사상이 더욱 성숙해짐으로써 그 결과는 신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며, 신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는다는 단 하나의 결론으로 유도되었다. 그때의 신은 일신론 신학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가능성을 내포한 신이 되며, 이름이 없는 초인간적 존재, 다시 말하면 현상 세계의 기초가 되는 합일과 모든 존재의 근거를 가리키는 형언키 어려운 말 못하는 신이된다. 신은 진리가 되고 사랑이 되고 정의가 된다. 내가 인간인 이상 신은 곧내가 된다.

신이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원리로부터 순수한 일신론적인 원리로 발전함에 따라서 신에 대한 사랑의 성질에 관해서도 여러 가지 차이가 일어난 것은 명백하다. 아브라함의 신은 어떤 때는 용서가 어떤 때는 분노가 지배적인 측면으로 나타나는 아버지로서 사랑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공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신이 아버지라면 나는 그의 아들이다. 나라는 것은 전지전능을 바라는 자폐적(自閉的) 욕망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나는 객관적으로 인간으로서의 나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있지 않으며, 나의 무지, 무력함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나는 아이처럼 나를 구원하고 감시하고 처벌하는 아버지, 18. The Guide for the perplexed에서의 부정적 속성에 대한 Maimonides의 개념을 참조할 것.

والمراجع والم والمراجع والمراجع والمراجع والمراجع والمراجع والمراجع والمراج

① attribute/붙어 다니는 것, 속성 ② stammer/말더듬기, 말더듬이 ③ anthropomorphic/사람의 모습을 가진 신 ④ autistic/자폐성의(몽상, 환상에 지배된 상태)

that there must be a father who rescues me, who watches me, who punishes me, a father who likes me when I am obedient, who is flattered by my praise and angry because of my disobedience. Quite obviously, the majority of people have, in their personal development, not overcome this infantile stage, and hence the belief in God to most people is the belief in a helping father — a childish illusion. In spite of the fact that this concept of religion has been overcome by some of the great teachers of the human race, and by a minority of men, it is still the dominant form of religion.

Inasmuch as this is so, the criticism of the idea of God, as it was expressed by Freud, is quite correct. The error, however, was in the fact that he ignored the other aspect of monotheistic religion, and its true kernel the logic of which leads exactly to the negation of this concept of God. The truly religious person, if he follows the essence of the monotheistic idea, does not pray for anything, does not expect anything from God; he does not love God as a child loves his father or his mother, he has acquired the humility of sensing his limitations, to the degree of knowing that he knows nothing about God. God becomes to him a symbol in which man, at an earlier stage of his evolution, has expressed the totality of that which man is striving for, the realm of the spiritual world, of love, truth and justice. He has faith in the principles which "God" represents; he thinks truth, lives love and justice,

사란의 이론

내가 수종하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찬미에 의하여 기뻐하며 나의 불 수종으로 부노하는 아버지가 있어야 한다고 아직도 믿는다. 참으로 명백한 이야기이지만 사람들은 그 인격의 발전 과정에서는 아직도 유아적 단계를 극복하지 못했으며 신에 대한 믿음에서도 대개의 사람은 도움을 주는 아버 지라는 착각을 믿고 있다. 이러한 종교적 개념은 소수의 위대한 학자 및 극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극복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직도 종교에서 유력한 형식을 형성하고 있다.

위에서 말한 바가 옳다면, 프로이트의 신의 개념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타 당한 것이다. 그러나 일신론적인 종교의 다른 측면과 그 논리가 결국 이러한 신의 개념마저 부인하는 길로 어김없이 유도해 간다는 종교의 참다운 핵심 을 간과했다는 사실에 그의 착오가 있다. 참으로 종교적인 사람은, 만일 그가 일신론적인 관념의 본질에 따른다면, 어떠한 일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고 신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는 아이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사랑하듯 신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는 신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 정도로 자기의 한계를 감지하는 겸손을 가지게 된다. 인간 발달의 초기 단계 에서 신은 인간이 열망하는 전체를 표시하는 상징이 되고, 정신 세계와 사랑 과 진리와 정의의 왕국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존재한다. 그는 '신'이 표현하는 원리를 믿는다. 그는 진리를 생각하고 사랑과 정의에 살고 그의 인간적인 힘

① kernel/잎, 날알, 핵심 ② negation/부정, 부인, 취소, 결여

and considers all of his life only valuable inasmuch as it gives him the chance to arrive at an ever fuller unfolding of his human powers — as the only reality that matters, as the only object of "ultimate concern"; and, eventually, he does not speak about God — nor even mention his name. To love God, if he were going to use this word, would mean, then, to long for the attainment of the full capacity to love, for the realization of that which "God" stands for in oneself.

From this point of view, the logical consequence of monotheistic thought is the negation of all "theology," of all "knowledge about God." Yet, there remains a difference between such a radical non-theological view and a non-theistic system, as we find it, for instance in early Buddhism or in Taoism.

In all theistic systems, even a non-theological, mystical one, there is the assumption of the reality of the spiritual realm, as one transcending man, giving meaning and validity to man's spiritual powers and his striving for salvation and inner birth. In a non-theistic system, there exists no spiritual realm outside of man or transcending him. The realm of love, reason and justice exists as a reality only because, and inasmuch as, man has been able to develop these powers in himself throughout the process of his evolution. In this view there is no meaning to life, except the meaning man himself gives to it; man is utterly alone except inasmuch as he helps another.

──중요하고 유일한 현실로서 '궁극적 관심'의 유일한 대상인 힘──을 보다 완전한 전개로 도달할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귀중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결 국 그는 신에 관해서 말하지도 않고 그의 이름도 말하지 않는다. 신을 사랑 한다는 것은, 이를테면 사랑하는 충분한 능력을 원하는 갈망이며, 신이 자기 편으로서 자기 안에 있기를 기대하는 갈망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다면, 일신론적인 사고의 논리적인 결과는 모든 '신학'과 모든 '신에 관한 지식'의 부정이다. 그러나 그러한 근원적인 비신학적(非神學的) 견지와, 이를테면 초기의 불교나 도교(道教)에서 볼 수 있는 무신론적(無神論的) 체제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모든 유신론적 체제들에 있어서는, 심지어 비신학적, 신비적 체제에 있어서 조차도 인간을 초월하며, 인간의 정신력 및 구원과 내적 탄생에 대한 열망의 의의와 타당성을 주는 따위의 정신적 왕국의 실제(實在)가 가정되어 있다. 무신론적 체제에 있어서는 인간 이외에 또는 인간을 초월하는 어떤 정신적 왕국도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 이성(理性), 정의의 왕국은 오로지 인간이이러한 힘들을 자기 자신 속에 그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발전시킬 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한 그 과정을 통과하는 한에서만 현실로 존재한다고 본다.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생명에는 인간 자신이 그 생명에 주는 의미를 제외하고는 다른 의미는 없다. 인간은 타인을 도울 때를 제외하고서는 완전히 고독하다.

① from this point of view/이런 견지에서 보면, 이런 관점에서 볼 때 ② a non-theistic system/비유신론적 체계 ③ throughout the process of his evolution/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Having spoken of the love of God, I want to make it clear that I myself do not think in terms of a theistic concept, and that to me the concept of God is only a historically conditioned one, in which man has expressed his experience of his higher powers, his longing for truth and for unity at a given historical period. But I believe also that the consequences of strict monotheism and a non-theistic ultimate concern with the spiritual reality are two views which, though different, need not fight each other.

At this point, however, another dimension of the problem of the love of God arises, which must be discussed in order to fathom the complexity of the problem. I refer to a fundamental difference in the religious attitude between the East (China and India) and the West; this difference can be expressed in terms of logical concepts. Since Aristotle, the Western world has followed the logical principles of Aristotelian philosophy. This logic is based on the law of identity which states that A is A, the law of contradiction² (A is not non-A) and the law of the excluded middle (A cannot be A and non-A, neither A nor non-A). Aristotle explains his position very clearly in the following sentence: "It is impossible for the same thing at the same time to belong and not to belong to the same thing and in the same respect; and whatever other distinctions we might add to meet dialectical objections. let them be added. This, then, is the most certain of all prin신에 대한 사랑에 관하여 설명해 왔는데, 다음과 같은 점을 명백히 밝혀 두고 싶다. 나 자신은 유신론적인 개념에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점, 나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개념은, 인간이 그의 보다더 높은 능력의 체험이나 주어진 역사의 어느 시기에 진리와 합일에의 갈망을 계속 표시해 왔던, 역사적으로 제약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보는 점이 바로 나의 견해이다. 그러나나는 역시 엄격한 의미에서의 일신론의 결론과 정신적 실재에 대한 비유신론적인 궁극의 관심은 서로 다르지만, 서로 싸울 필요도 없는 두 견해인 줄로 믿는다.

그러나 이 점에 있어서 신에 대한 사랑에 관하여 이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야기된다. 그 문제의 복잡성을 헤아리기 위해서는 이 점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 이 검토에 있어서 종교적인 태도는 동양(중국과 인도)과 서양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차이점을 언급하는 것이다. 이 차이점은 논리적인 개념의 관점에서 설명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후 서양 세계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적 원리를 신봉해 왔다. 이 논리학은 A는 A라고 말하는 동일률(同一律)과 모순율(矛盾律, A는 비(非)A가 아니다) 및 배중률(排中律, A는 A이기도 하고 비 A일 수는 없으며, A도 아니고 비 A도 아닌 일도 있을 수 없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견해를 아래와 같은 문장으로서 매우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 '즉, 동일한 것이 동일한 것에 동시에 동일한 관계로서 중속하며, 또한 동시에 중속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변중법적 반론에 대처하기 위하여 우리가 다른 어떠한 구별을 첨가하더라도, 그것들을 첨가된 채로 내버려 두자. 그러면 이것은 모든 원리 중에

① the law of identity/동일률(同一律) ② the law of contradiction/모순율 ③ the law of the excluded middle/배중률(排中律) ④ dialectical/변중법적인

ciples. . . . "19

This axiom of Aristotelian logic has so deeply imbued our habits of thought that it is felt to be "natural" and self-evident, while on the other hand the statement that X is A and not A seems to be nonsensical. (Of course, the statement refers to the subject X at a given time, not to X now and X later, or one aspect of X as against another aspect.)

In opposition to Aristotelian logic is what one might call paradoxical logic, which assumes that A and non-A do not exclude each other as predicates of X. Paradoxical logic was predominant in Chinese and Indian thinking, in the philosophy of Heraclitus, and then again, under the name of dialectics, it became the philosophy of Hegel, and of Marx. The general principle of paradoxical logic has been clearly described by Lao-tse. "Words that are strictly true seem to be paradoxical." And by Chuangtzu: "That which is one is one. That which is not-one, is also one." These formulations of paradoxical logic are positive: it is and it is not. Another formulation is negative: it is neither this nor that. The former expression of thought we find in Taoistic thought, in Heraclitus and again in Hegelian dialectics; the latter formulation is fre-

¹⁹ Aristotle, *Metaphysics*, Book Gamma, 1005b. 20. Quoted from *Aristotle's Metaphysics*, newly translated by Richard Hope, Columbia University Press, New York, 1952.

²⁰Lao-tse, The Tâo The King, The Sacred Books of the East, ed. by F. Max Mueller, Vol. XXXIX, Oxford University Press, London, 1927, p. 120.

가장 확실한 워리인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공리(公理)는 우리의 사고 관습에 깊이 침투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 '자연스럽고' 매우 확실한 것처럼 느껴진다. 한편 'X는 A고 비 A는 아니다'라는 말은 넌센스같이 들린다(물론 이 말은 일정한 시기에 있어 주사(主辭) X에 대해 말하고 있지 현재의 X와 나중의 X에 대해 말하거나 X의 한 면이 이것에 대립하는 다른 한 면과 비교되어 있지는 않다고하겠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에 대립되는, 우리가 '역설 논리학'이라고 부르는 것은 A와 비 A는 X의 빈사(資鮮)로서 서로 배격하는 것이 아님을 가정하고 있다. 역설 논리학은 중국 및 인도의 사상,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의 지배적 요소였으며, 또한 이것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헤겔과 마르크스의 철학이 되었다. 역설 논리학의 일반적 원리는 노자(老子)에 의해서 명백히 표현되었다. 즉, '엄밀하게 진실한 말은 역설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장자(莊子)에 의해서는 '하나는 하나이다. 하나가 아닌 것도 하나이다'라고 표현되었다. 이 러한 역설 논리학의 공식들을 명확하게 말한다면, '그것은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이다. 다른 공식들은 소극적으로 표현된 것이며 '그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라는 논리이다. 전자와 같은 사고의 표현은 도교 사상(道教思想) 헤라클레이토스 및 헤겔의 변증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후자의 공식은

① axiom/공리(公理) ② paradoxical logic/역설 논리학의 ③ Lao-tse/노자(老子)

④ Chuang-tzu/장자(莊子) ⑤ Taoistic/도교의, Taoism/도교

quent in Indian philosophy.

Although it would transcend the scope of this book to give a more detailed description of the difference between Aristotelian and paradoxical logic, I shall mention a few illustrations in order to make the principle more understandable. Paradoxical logic in Western thought has its earliest philosophical expression in Heraclitus' philosophy. He assumes the conflict between opposites is the basis of all existence. "They do not understand," he says, "that the all-One, conflicting in itself, is identical with itself; conflicting harmony as in the bow and in the lyre." Or still more clearly: "We go into the same river, and yet not in the same; it is we and it is not we." Or "One and the same manifests itself in things as living and dead, waking and sleeping, young and old."

In Lao-tse's philosophy the same idea is expressed in a more poetic form. A characteristic example of Taoist paradoxical thinking is the following statement: "Gravity is the root of lightness; stillness the ruler of movement."²⁴ Or "The Tão in its regular course does nothing and so there is nothing which he does not do."²⁵ Or "My words are very easy to know, and very easy to practice; but

²¹W. Capelle, *Die Vorsokratiker*, Alfred Kroener Verlag, Stuttgart, 1953, p. 134. (My translation. E. F.)

²²Ibid., p. 132.

²³Ibid., p. 133.

²⁴Mueller, op. cit., p. 69.

²⁵Ibid., p. 79.

인도 철학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과 역설 논리학 사이에서 발견되는 차이점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 원리를 좀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설명을 첨가한다. 서양 사상에서 역설의 논리를 가장 처음으로 철학적인 표현으로 다루었던 것은 헤라클레이토스 철학이다. 그는 대립하는 것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은 모든 존재의 기초라고 가정하였다. 그는 '그들은 그 자신에 있어 갈등하고 있는 모든 전일자(全一者)는 그 자신과 동일자라는 점, 즉 바이올린과 수금(竪琴)에서 나오는 불협화음의 조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명백하게 '우리는 같은 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지만 우리는 같은 강에 있지 않다. 그것은 우리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가 아니다' 또는 '하나이면서 동일한 것은 살아 있으면서 죽어 있는 것, 깨어 일하면서 자고 있는 것, 젊은이면서 동시에 늙은이로서 삶속에 그 자체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

노자의 철학에서는 이러한 사상이 더욱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노자의 역설적 사고의 특징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무게는 가벼움의 근원이고 고요 함은 소란함의 지배자이다' 또는 '그 본래의 정규 과정에서 도(道)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가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또는 '나의 말은 매우 알아듣기도 쉽고 행동하기도 쉽다. 그러나 그것을 잘 알아듣고 해함

のないのできたのでのできたのできたとうとうなるなのであるのである。

① the all-One/전일자(全一者) ② lyre/(고대 그리스의) 수금(竪琴)(현악기의 일종)

③ Tâo/도(道)

there is no one in the world who is able to know and able to practice them."26 In Taoist thinking, just as in Indian and Socratic thinking, the highest step to which thought can lead is to know that we do not know. "To know and vet [think] we do not know is the highest [attainment]; not know [and yet think] we do know is a disease."27 It is only a consequence of this philosophy that the highest God cannot be named. The ultimate reality, the ultimate One cannot be caught in words or in thoughts. As Lao-tse puts it. "The Tâo that can be trodden is not the enduring and unchanging Tâo. The name that can be named is not the enduring and unchanging name."28 Or. in a different formulation. "We look at it, and we do not see it, and we name it the 'Equable.' We listen to it, and we do not hear it, and we name it the 'Inaudible.' We try to grasp it, and do not get hold of it, and we name it the 'Subtle.' With these three qualities, it can not be made the subject of description; and hence we blend them together and obtain The One."29 And still another formulation of the same idea: "He who knows [the Tâo] does not [care to] speak [about it]: he who is [however ready to] speak about it does not know it."30

Brahmanic philosophy was concerned with the relation-

²⁶*Ibid.*, p. 112.

²⁷*Ibid.*, p. 113.

²⁸Ibid., p. 47.

²⁹ *Ibid.*, p. 57.

³⁰ Ibid., p. 100.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한다. 인도와 소크라테스의 사고에 있어서와 같이, 노자의 사상에서도, 사고가 유도할 수 있는 최고의 단계는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것이가장 최선의 〈깨달음〉이고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는〉 것은 병이다.' 최고의 신은 결코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이 이 철학의 유일한 결과이다. 궁극적 실재, 궁극적 유일자(唯一者)는 말과 사고에 의해 결코 파악될 수 없다. 노자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도를 도라 하는 것은 이미 변합없는 이름이 아니다' 또는 다르게 표현하면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으므로 변화 없을 이(養)라고 하고,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으므로 알아들을 수 없을 회(希)라고 하며, 잡으려 해도 잡히지 않으므로 그것을 모양이 없는 것, 즉미(微)라고 한다. 이 세 가지 성질을 볼 때 그것은 표현될 수 있는 소재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합쳐 어울려서 하나의 도로 삼는다'라고 하며, 다른 형태로 이러한 생각을 '진실로 〈도〉를 깨닫는 자는 〈도에 대해〉 말하지 않으며,〈이무리 준비가 되어도〉 도에 대해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하는 자이다'라고 한다.

바라문(婆羅門)의 철학에서도 (현상으로서의) 다양성과 통일성(브라만)

① put it/표현하다 ② the Equable/변화가 없음, 이(夷) ③ the Inaudible/알아들을 수 없음, 희(希) ④ the Subtle/포착하기 힘듬, 미(微)

ship between manifoldness (of phenomena) and unity (Brahman). But paradoxical philosophy is neither in India nor in China to be confused with a dualistic standpoint. The harmony (unity) consists in the conflicting position from which it is made up. "Brahmanical thinking was centered from the beginning around the paradox of the simultaneous antagonisms — vet — identity of the manifest forces and forms of the phenomenal world. . . . "31 The ultimate power in the Universe as well as in man transcends both the conceptual and the sensual sphere. It is therefore "neither this nor thus." But, as Zimmer remarks. "there is no antagonism between 'real and unreal' in this strictly non-dualistic realization."32 In their search for unity behind manifoldness, the Brahman thinkers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 perceived pair of opposites reflects the nature not of things but of the perceiving mind. The perceiving thought must transcend itself if it is to attain true reality. Opposition is a category of man's mind, not in itself an element of reality. In the Rig-Veda the principle is expressed in this form: "I am the two, the life force and the life material, the two at once." The ultimate consequence of the idea that thought can only perceive in contradictions has found an even more drastic sequence in Vedantic thinking, which postulates that thought - with all its fine distinction - was

³¹ H.R. Zimmer, Philosophies of India, Pantheon Books, New York, 1951.

³² Ibid.,

사랑의 이론

과의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역설 철학은 인도와 중국에 있어 서의 '이원론적(二元論的)인' 관점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조화(통일성)란. 조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감동의 상태에 존재한다 '바라문의 사고는 처음부 터 동시에 존재하는 대립 상태의 역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지금은 현상 전(現象的)인 세계의 현재적(顯在的)인 회득과 형태득의 동일성이라는 역성 에 집중되고 있다.' 인간은 물론 우주에 있어서도 궁극의 힘은 개념적 영역과 감각적 영역을 초월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다.' 그러나 집머가 언급한 것처럼 '이 엄밀한 비이원론적(非二元論的)인 현 실화(現實化)에 있어 〈현실과 비현실〉 사이에는 대립이 없다.' 다양성의 배 후에 있는 통일성에 대한 탁구에 있어. 바라문의 사색가들은,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서 지각되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반영하지 않고, 지각하는 마음의 성 질을 반영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지각하는 사고는, 참된 실재에 도달 하려면, 그 자신을 초월해야 한다. 대립이라는 것은 인간 정신의 범주이지 본 질적으로 실재의 요소를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 리그베다에는 그 원리가 이 런 식으로 묘사되어 있다. '나는 이자(二者), 즉 생명의 힘이며 생명의 자료 인 동시에 이자이다.' 사상이 대립 관계 속에서만 지각될 수 있다는 개념의 궁극적인 결과는 베다의 사상 속에서 한층 더 철저한 결론을 얻게 되었다. 그 결론은 사상의 사소한 차이는 가지고 있지만 '더욱 미묘한 무지의 세계에

① dualistic/이원(二元)의, 이원론적인 ② simultaneous antagonism/동시적인 대립 상태 ③ category/범주, 종류, 분류 ④ Rig-Veda/리그베다(인도 바라문교의 최고 경 전) ⑤ drastic/격렬한, 철저한

"only a more subtle horizon of ignorance, in fact the most subtle of all the deluding devices of maya." 33

Paradoxical logic has a significant bearing on the concept of God. Inasmuch as God represents the ultimate reality, and inasmuch as the human mind perceives reality in contradictions, no positive statement can be made of God. In the Vedantas the idea of an omniscient and omnipotent God is considered the ultimate form of ignorance.³⁴ We see here the connection with the namelessness of the Tâo, the nameless name of the God who reveals himself to Moses, of the "absolute Nothing" of Meister Eckhart, Man can only know the negation, never the position of ultimate reality. "Meanwhile man can not know what God is, even though he be ever so well aware of what God is not. . . . Thus contented with nothing, the mind clamors for the highest good of all."35 For Meister Eckhart, "The Divine One is a negation of negations, and a denial of denials. . . . Every creature contains a negation: one denies that it is the other."36 It is only a further consequence that God becomes for Meister Eckhart "The absolute Nothing," just as the ultimate reality is the "En Sof," the Endless One, for the Kabalah.

I have discussed the difference between Aristotelian and

³³*Ibid.*, p. 424.

³⁴Cf. Zimmer, *ibid.*, p. 424.

³⁵ Meister Eckhart, translated by R. B. Blakney, Harper & Brothers, New York, 1941, p. 114.

³⁶Ibid., p. 247. Cf. also the negative theology of Maimonides.

불과하였으며 실상은 현혹시키는 마야(maya)의 계략 가운데에서 가장 미묘한 것'이었다는 가정을 내린다.

역설 논리학은 신의 개념과 중요한 관계가 있다. 신은 최고의 실재를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인간의 마음은 모순의 실재를 지각하는 것이므로 신에 대하여 어떠한 적극적인 언급도 할 수 없다. 베다는 전지 전능한 신의 개념이무지의 궁극적인 형태라고 생각했다. 우리는 여기에 도(道)의 무명성(無名性), 모세에게 그 이름을 일러주는 신의 무명이라는 이름과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의 '절대무(節對無)' 사이의 관련성을 본다. 인간은 궁극적인 실재의 부정적인 면만을 알 수 있을 뿐이지 결코 그 긍정적인 면은 알 수 없다. '한편인간은 혹시 신이 이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신이 이처럼 있는 것이라는 점을 결코 알 수가 없다. 이같이 무(無)에 만족해 있더라도 마음은 모든 것 속에서 최고인 선을 부르짖는다.'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 있어서 '신성한 유일자는 부정의 부정이며, 거부의 거부이다…… 모든 창조물은 부정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다. 왜냐하면 창조물은 그것이 다른 것임을 부정하기 때문이다.'이 결론을 더욱 진전시키면, 카발라에 있어서 궁극의 존재가 '엔 소프(En sof)', 즉 무한한 유일자인 것처럼,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게 있어서 신은 '절대무'의 귀결점을 맺는다.

나는 신에 대한 사랑의 개념에 나타나는 중요한 차이점의 근거를 명백히 36. 전계서 p. 247. 또한 마이모니데스의 부정신학(否定神學)도 참조할 것.

① delude/현혹하다, 속이다 ② absolute Nothing/절대무(絕對無) ③ En Sof (The Endless One)/엔소프, 무한한 유일자 ④ Kabalah(cabala)/히브리의 신비 철학

paradoxical logic in order to prepare the ground for an important difference in the concept of the love of God. The teachers of paradoxical logic say that man can perceive reality only in contradictions, and can never perceive in thought the ultimate reality-unity, the One itself. This led to the consequence that one did not seek as the ultimate aim to find the answer in thought. Thought can only lead us to the knowledge that it cannot give us the ultimate answer. The world of thought reamins caught in the paradox. The only way in which the world can be grasped ultimately lies, not in thought, but in the act, in the experience of oneness. Thus paradoxical logic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love of God is neither the knowledge of God in thought, nor the thought of one's love of God, but the act of experiencing the oneness with God.

This leads to the emphasis on the right way of living. All of life, every little and every important action, is devoted to the knowledge of God, but a knowledge not in right thought, but in right action. This can be clearly seen in Oriental religions. In Brahmanism as well as in Buddhism and Taoism, the ultimate aim of religion is not the right belief, but the right action. We find the same emphasis in the Jewish religion. There was hardly ever a schism over belief in the Jewish tradition (the one great exception, the difference between Pharisees and Sadducees, was essentially one of two opposite social classes). The emphasis of the Jewish religion was (especially from

하기 위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역설 논리학 사이의 차이점을 검토해 보았다. 역설 논리학의 학자들은 인간 실재를 모순에 의해서만 인식할 수 있는 것이며, '사고(思考)'에 의해서는 결코 궁극의 실재성, 합일성, 즉 유일과 그 자체를 인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사람이 '사고'에 의하여 그 해답을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사고에 의하여 궁극의 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지식으로 우리를 유도할 뿐이다. 사고의 세계는 역설에 의해 파악된다. 세계가 궁극적으로 파악되는 유일한 방법은 사고에 있지 않고 행위성, 즉 일체성의 경험에 있다. 이리하여 역설 논리학에 의하면, 신에 대한 사랑이 사고에 의한 신에 관한지식도 아니며 인간의 신에 관한지식도 아니며 인간의 신에 대한 사랑에 관한사고도 아니며 인간의 신에 관한지식도 아니며 인간의 신에 관한지식도 아니며 인간의 신에 대한 사랑에 관한사고도 아니며 신과 일치되는 경험을 찾는 행위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러한 사상은 올바른 생활 태도를 강조하게 된다. 인생 전체가 사소한 행위이건 중요한 행위이건 간에 신에 대한 지식, 그것도 올바른 사고에 의한 지식이 아니라 올바른 행위에 의한 지식에 맡겨지게 된다. 이 점은 동양의 여러 종교에서 뚜렷이 엿볼 수 있다. 바라문교(婆羅門教)에서는 불교나 도교와 마찬가지로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 올바른 행위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동일한 강조점을 유태의 종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유태의 전통에는 일찍이 신앙에 대한 분열이 거의 없었다(하나의 큰 예외인바리새 인과 사도가이 인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두 개의 대립되는 사회 계층간의 불화였다). 유태교의 강조는 (특히 우리 기원의 처음부터) 올바른 생활

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

① schism/분열, (특히 교회 종파의) 분립 ② Sadducee/사두개 교도(옛 유태교의 종파)

the beginning of our era^①on) on the right way of living, the Halacha (this word actually having the same meaning as the Tao).

In modern history, the same principle is expressed in the thought of Spinoza, Marx and Freud. In Spinoza's philosophy the emphasis is shifted from the right belief to the right conduct of life. Marx stated the same principle when he said, "The philosophers have interpreted the world in different ways—the task is to transform it." Freud's paradoxical logic leads him to the process of psychoanalytic therapy, the ever deepening experience of oneself.

From the standpoint of paradoxical logic the emphasis is not on thought but on the act. This attitude had several other consequences. First of all, it led to the tolerance which we find in Indian and Chinese religious development. If the right thought is not the ultimate truth, and not the way to salvation, there is no reason to fight others, whose thinking has arrived at different formulations. This tolerance is beautifully expressed in the story of several men who were asked to describe an elephant in the dark. One, touching this trunk, said "this animal is like a water pipe", another, touching his ear, said "this animal is like a fan"; a third, touching his legs, described the animal as a pillar.

Secondly, the paradoxical standpoint led to the emphasis on transforming man, rather than to the develop-

방식, 즉 할라카(Halacha, 이 말은 실제로 도(道)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 에 있었던 것이다.

근대 역사에 있어서 동일한 원리가 스피노자, 프로이트, 마르크스의 사상속에 표현되어 있다. 스피노자의 철학에서는 그 강조점이 올바른 신앙으로부터 올바른 생활 방식으로 옮겨진다. 마르크스도 '철학자들은 각기 다른 방법으로 세계를 해석해 왔으나 그 과제는 세계를 변혁시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프로이트의 역설 논리는 그로 하여금 분석 치료의 과정으로 유도하였는데, 그것은 심화해 가는 자아의 체험인 것이다.

역설 논리학의 견지에서 보는 강조점은 사고에 있지 않고 행위에 있다. 이러한 태도에서 약간의 상이한 결과가 초래된다. 첫째로, 인도와 중국 종교의 발달에서 발견되는 '관용'이 바로 그것이다. 올바른 사고가 궁극의 진실이 아니며 또한 구원의 길도 아니라면, 같은 사고의 길을 거쳐서 자기와는 다른 공식에 도달하는 다른 사람과 충돌할 이유는 조금도 없다. 이러한 관용의 필요성은, 어둠 속에서 코끼리에 대한 이야기가 요구된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 잘 묘사되어 있다. 코끼리의 코를 만졌던 사람은 '이 동물은 수도관처럼 생겼다'라고 말하고, 귀를 만졌던 사람은 '이 동물은 부채와 같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다리를 만졌던 사람은 '이 동물은 기둥같이 생겼다'라고 말했던 것이다.

둘째로 역설적인 입장은 한편으로 '교리(教理)'의 발달, 한편으로는 '과학'

おけるできるとうとうとうとうとうとうできるとうとうとうとうとうとう。

① era/기원(紀元), 연대 ② psychoanalytic therapy/정신 분석적 치료 ③ salvation /구제. 구워

ment of dogma on the one hand, and science on the other. From the Indian, Chinese and mystical standpoints, the religious task of man is not to think right, but to act right, and/or to become one with the One in the act of concentrated meditation.

The opposite is true for the main stream of Western thought, Since one expected to find the ultimate truth in the right thought, major emphasis was on thought, although right action was held to be important too. In religious development this led to the formulation of dogmas, endless arguments about dogmatic formulations, and intolerance of the "non-believer" or heretic. It furthermore led to the emphasis on "believing in God" as the main aim of a religious attitude. This, of course, did not mean that there was not also the concept that one ought to live right. But nevertheless, the person who believed in God — even if he did not live God — felt himself to be superior to the one who lived God, but did not "believe" in him.

The emphasis on thought has also another and historically a very important consequence. The idea that one could find the truth in thought led not only to dogma, but also to science. In scientific thought, the correct thought is all that matters, both from the aspect of intellectual honesty, as well as from the aspect of the application of scientific thought to practice — that is, to technique.

In short, paradoxical thought led to tolerance and an

의 발달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인간의 개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인도, 중국 및 신비적 견지에서 본다면, 인간의 종교적 과제는 올바른 사고가 아니라 올바른 행위인 것이며, 또한 정신을 집중시켜 유일자와 합일을 이루는 것이다.

서양 사상의 주류를 이루는 것은 이와는 반대의 것이 진실이 되어 왔다. 올바른 사고에 의해서만 궁극적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기대했기 때문에 올바른 행동도 중요시되기는 했지만, 주요 강조점은 사고에 있었다. 종교적 발달에 있어서 이 사상들은 교리의 공식화와 교리의 공식화에 관한 끊임없는 논란, 그리고 '비신자(非信者)' 또는 이교도(異教徒)들에 대한 편협성으로 이끌어졌다. 더 나아가 종교적인 태도의 주요한 목적으로서 '신에 대한 민음'을 강조하게 되었다. 이것은 물론 인간이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개념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을 믿는 자는—비록 그가 신의 가르침을 실천하지 않으면서도—신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탁월하다고 생각만 했지 결코 신을 진실로 '민었던' 것은 아니다.

사고에 대한 강조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또 다른 결과를 가져 오고 있다. 사고에 의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관념은 교리만이 아니라 과학도 가져 왔다. 과학적인 사고 방식에 있어 올바른 사고란 지적으로 충실하다는 면에서나 과학적 사고를 실제——다시 말하면 기술——에 적용한다는 면에서나 관심의 초점이 된다.

요컨대 역설적인 사고는 관용과 자기 변혁을 위한 노력으로 이끌어 갔다.

① dogma/교리, 교의 ② heretic/이교도, 이단자

effort toward self-transformation. The Aristotelian standpoint led to dogma and science, to the Catholic Church, and to the discovery of atomic energy.

The consequences of this difference between the two standpoints for the problem of the love of God have already been explained implicitly, and need only to be summarized briefly.

In the dominant Western religious system, the love of God is essentially the same as the belief in God, in God's existence, God's justice, God's love. The love of God is essentially a thought experience. In the Eastern religions and in mysticism, the love of God is an intense feeling experience of oneness, inseparably linked with the expression of this love in every act of living. The most radical formulation has been given to this goal by Meister Eckhart: "If therefore I am changed into God and He makes me one with Himself, then, by the living God, there is no distinction between us. . . . Some people imagine that they are going to see God, that they are going to see God as if he were standing yonder, and they here, but it is not to be so. God and I: we are one. By knowing God I take him to myself. By loving God, I penetrate him." 37

We can return now to an important parallel between the love for one's parents and the love for God. The child starts out by being attached to his mother as "the ground of all being." He feels helpless and needs the all-enveloping

³⁷ Meister Eckhart, op. cit., pp. 181-2.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교리와 과학을, 즉 가톨릭 교리와 원자력 발전을 초래했다.

신에 대한 사랑의 문제의 두 입장의 차이점에 대한 결론은 이미 암암리에 설명되었으니 여기서는 간단히 요약해 보도록 하자.

지배적인 서양의 종교 체계에 있어서는 신에 대한 사랑은 신에 대한 믿음,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 즉 신의 정의와 신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신에 대한 사랑은 본질적으로 사고의 체험이다. 동양의 종교와 신비주의에 있어서는 신에 대한 사랑은 일체성의 강렬한 감정적 표현이며, 생활에 있어서 모든 행위에 표현되는 이 사랑과 불가분의 관련을 갖고 있다. 이 목표를 향한 가장 급진적인 정식화는 마이스터 에크하르트에 의하여 주 어졌다. '그러므로 내가 변하여 신이 되고, 그 신이 나를 신과 하나인 것으로 삼는다면, 살아 있는 신에 의해 신과 나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어진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보려고 하고 있으며, 마치 신은 저편에 서고 자기들은 이편에 서서, 신을 만나 보려고 상상하지만 그것은 그렇지가 않다. 신과 나, 즉 우리는 하나이다. 신을 앎으로써 나는 신을 나에게로 데려온다. 신을 사랑함으로써 나는 그에게 침투한다.'

우리는 이제 부모에 대한 사랑과 신에 대한 사랑 사이가 평행 관계라는 중 요한 점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아이는 '모든 존재의 근거'인 어머니에게 연 결됨으로써 삶을 시작한다. 그는 그의 무력함을 통감하며, 모든 것을 감싸 주

① all-enveloping/전부를 포용하는, 전부를 감싸 주는

love of mother. He then turns to father as the new center of his affections, father being a guiding principle for thought and action: in this stage he is motivated by the need to acquire father's praise, and to avoid his displeasure. In the stage of full maturity he has freed himself from the person of mother and of father as protecting and commanding powers: he has established the motherly and fatherly principles in himself. He has become his own father and mother: he is father and mother. In the history of the human race we see - and can anticipate - the same development: from the beginning of the love for God as the helpless attachment to a mother Goddess. through the obedient attachment to a fatherly God, to a mature stage where God ceases to be an outside power. where man has incorporated the principles of love and justice into himself, where he has become one with God, and eventually, to a point where he speaks of God only in a poetic, symbolic sense.

From these considerations it follows that the love for God cannot be separated from the love for one's parents. If a person does not emerge from incestuous attachment to mother, clan, nation, if he retains the childish dependence on a punishing and rewarding father, or any other authority, he cannot develop a more mature love for God; then his religion is that of the earlier phase of religion, in which God was experienced as an all-protective mother or a punishing-rewarding father.

는 어머니의 사랑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윽고 그는 그 애정의 새로운 중심으로서의 아버지에게, 즉 사고와 행위에 있어서의 지도 원리인 아버지에게 방향을 바꾼다. 이 단계에 있어서 그는 아버지의 청찬을 받으며, 아버지에게 불쾌를 주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게 된다. 그렇지만 완전히 성숙한 단계에서 그녀는 보호하고 명령하는 힘으로서의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해 방된다. 그는 모정과 부정의 원칙을 그 자신 속에 세우고 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아버지이며 어머니가 되어 있다. 즉, 그는 아버지'이며' 어머니'인' 것이다. 인류의 역사에서도 우리는 같은 발달을 보며 또 예측할 수 있다. 어머니인 여신(女神)에 대한 무력한 애착으로서의 신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버지인 남신(男神)에 대한 순종하는 애착의 단계를 거쳐서, 신이 외부의 힘이 되지 않고 인간이 사랑과 정의의 원리를 자기 내부에 편입시켜 신과하나가 되는 성숙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고찰들로부터 신에 대한 사랑과 부모에 대한 사랑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만일 사람이 어머니나 씨족이나 국가에 대한 근친 애적인 애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거나, 벌을 주며 상을 주는 아버지와 또는 다른 어떤 권위 있는 것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의존을 계속할 때 인간은 발달의 결과로서 더욱 성숙한 신에의 사랑까지 도달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종교는 신이 모든 일로부터 보호하는 어머니나 상벌을 주는 아버지로서 체험한 초기 단계의 종교에 머무르게 된다.

① incorporate/합체(합동)시키다, 섞다, 혼합하다, 구체화하다 ② speak of/~에 대해 이야기하다 ③ incestuous/근친 상간의(죄를 저지르는)

In contemporary religion we find all the phases, from the earliest and most primitive development to the highest. still present. The word "God" denotes the tribal chief as well as the "absolute Nothing." In the same way, each individual retains in himself, in his unconscious, as Freud has shown, all the stages from the helpless infant on. The question is to what point he has grown. One thing is certain: the nature of his love for God corresponds to the nature of his love for man, and furthermore, the real quality of his love for God and man often is unconscious - covered up and rationalized by a more mature thought of what his love is. Love for man, furthermore, while directly embedded in his relations to his family, is in the last analysis determined by the structure of the society in which he lives. If the social structure is one of submission to authority — overt authority or the anonymous authority of the market and public opinion, his concept of God must be infantile and far from the mature concept, the seeds of which are to be found in the history of monotheistic religion.

사랑의 이론

현대의 종교를 볼 때. 우리는 가장 초기의 가장 원시적인 발전 단계로부터 최고의 발전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음을 볼 수 가 있다. '신'이라는 말은 '절대무'와 동시에 부족장(部族長)을 뜻하다 마찬 가지로 하나하나의 개인도 자기 자신 속에, 즉 프로이트가 밝혔던 바와 같이 자신의 무의식 속에 무렴한 유아의 시기 이후부터의 모든 단계의 모습을 지 니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어느 한계까지 그가 성장하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 나 한 가지만이 확실한데, 자기의 신에 대한 사랑의 본질은 자기의 인간에 대 한 사랑의 본질과 일치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신과 인간에 대한 사랑의 참된 특성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자기의 사랑이 어떤 것 이냐에 관한 좀더 성숙한 '사고'에 의하여 그러한 사랑의 특성이 은폐되어 있 고 합리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인간에 대한 사랑은 직접적으로 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 깊이 파묻혀 있지만. 마지막까지 분석을 해보면 자기 가 살고 있는 사회의 구조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만약 사회 구조가 명 백한 권위이건 시장과 여론의 특정치 않은 권위이건 권위에 순종하는 구조 라면, 신의 개념은 분명히 초보적일 것이며, 그 근원을 일신론적 종교의 역사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숙한 개념은 결코 아닐 것이다.

① embed/깊숙히 박다, 파묻다, (마음속 따위에) 깊이 간직하다 ② anonymous/무명의, 아무 특징 없는

III.

Love and Its Disintegration in Contemporary Western Society

IF LOVE is a capacity of the mature, productive character, it follows that the capacity to love in an individual living in any given culture depends on the influence this culture has on the character of the average person. If we speak about love in contemporary Western culture, we mean to ask whether the social structure of Western civilization and the spirit resulting from it are conducive to the development of love. To raise the question is to answer it in the negative. No objective observer of our Western life can doubt that love — brotherly love, motherly love, and erotic love — a relatively rare phenomenon, and that its place is taken by a number of forms of pseudo-love which are in reality so many forms of the disintegration of love.

Capitalistic society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political freedom on the one hand, and of the market as the regulator of all economic, hence social relations, on the other. The commodity market determines the conditions under which commodities are exchanged, the labor market regulates the acquisition and sale of labor. Both useful things and useful human energy and skill are transformed into commodities which are exchanged without the use of force and without fraud under the conditions of the market.

III.

현대 서구 사회에 있어서의 사랑과 그 붕괴

사랑이 성숙하고 생산적 특성을 지닌 사람들의 능력이라면, 어느 특정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랑의 능력은 이 문화가 보통 사람의 성격에 끼치는 영향에 달려 있다. 현대 서구 문화에 있어서의 사랑에 대해 말한다면, 우리는 서구 문화의 사회 구조와 여기서 발생한 정신이 사랑의 발달에이로운 것인가에 대해 묻는 것이 된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는 이 문제에 대한 소극적인 대답이다. 서구 생활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본 사람은, 인류애, 모성애, 성애와 같은 사랑은 비교적 드물고, 여러 가지의 거짓 사랑—이것은 사랑의 여러 가지 붕괴 형태이다—이 대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심치 않을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자유의 원리,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경제의 조정자로서의 시장의 원리, 즉 사회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상품 시장은 상품의 교환 조건을 결정하고 노동 시장은 노동력의 획득과 판매를 조절한다. 유용한 물건과 인력 및 기술은 상품화하여 폭력을 사용하거나 기만하지 않고도 시장의 조건에 따라 교환된다. 구두는, 아무리 유용하고 필요

Shoes, useful and needed as they may be have no economic value (exchange value) if there is no demand for them on the market; human energy and skill are without exchange value if there is no demand for them under existing market conditions. The owner of capital can buy labor and command it to work for the profitable investment of his capital. The owner of labor must sell it to capitalists under the existing market conditions, unless he is to starve. This economic structure is reflected in a hierarchy of values. Capital commands labor; amassed things, that which is dead, are of superior value to labor, to human powers, to that which is alive.

This has been the basic structure of capitalism since its beginning. But while it is still characteristic of modern capitalism, a number of factors have changed which give contemporary capitalism its specific qualities and which have a profound influence on the character structure of modern man. As the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capitalism we witness an ever-increasing process of centralization and concentration of capital. The large enterprises grow in size continuously, the smaller ones are squeezed out. The ownership of capital invested in these enterprises is more and more separated from the function of managing them. Hundreds of thousands of stockholders "own" the enterprise; a managerial bureaucracy which is well paid, but which does not own the enterprise, manages it. This bureaucracy is less interested in making maximum

현대 서구 사회에 있어서의 사랑과 그 붕괴

하다 할지라도, 시장에서의 수요가 없으면 경제적 가치(교환 가치)를 갖지 못한다. 인력과 기술은 현재의 시장 조건 아래에서 수요가 없으면 교환 가치 를 갖지 못한다. 자본의 소유자는 노동력을 사서 자본의 유리한 투자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 노동자는 굶어 죽지 않으려면 현재의 시장의 조건에 따라 자본가에게 노동력을 팔아야 한다. 이러한 경제 구조는 가치 체제에 반영된 다. 자본은 노동력을 지배한다. 축적된 물품, 즉 사장(死藏)된 물품이 노동력 이나 인간의 힘이나 살아 있는 것보다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자본주의의 시작 이래 그 기본 구조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도 근대 자본주의의 특징이지만 많은 요인들이 변했고 이러한 요인들은 현대 자본주의의 특수한 성격을 부여하고 현대인의 성격 구조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자본주의 발달의 결과로서 우리는 자본의 중앙 집권화와 그 과정을 목격하고 있다. 대기업은 계속 규모가 커지고 소기업은 밀려난다. 이러한 기업에 투자된 자본의 소유권은 이 자본의 관리 기능으로부터 점점 분리된다. 많은 주주(株主)들이 기업을 '소유하고' 관리층은 많은 보수를 받고 있지만, 기업의 소유권은 없고 기업을 관리할 뿐이다. 관리층은 이익의 극대화보다는 기업의 확장과 그들의 권력에 더 많은 관심

おけるできたいとうとうとうとうとうとうとうとうとうとうとうとうできる

① existing/현존하는 ② command/~에 호령하다, 명령하다 ③ as the result of/~ 의 결과로서 ④ process of centralization and concentration/자본의 중앙 집권화와 그 과정

profits than in the expansion of the enterprise, and in their own power. The increasing concentration of capital and the emergence of a powerful managerial bureaucracy are paralleled by the development of the labor movement. Through the unionization of labor, the individual worker does not have to bargain on the labor market by and for himself; he is united in big labor unions, also led by a powerful bureaucracy which represents him vis-à-vis the industrial colossi. The initiative has been shifted, for better or worse, in the fields of capital as well as in those of labor, from the individual to the bureaucracy. An increasing number of people cease to be independent, and become dependent on the managers of the great economic empires.

Another decisive feature resulting from this concentration of capital, and characteristic of modern capitalism, lies in the specific way of the organization of work. Vastly centralized enterprises with a radical division of labor lead to an organization of work where the individual loses his individuality, where he becomes an expendable cog in the machine. The human problem of modern capitalism can be formulated in this way:

Modern capitalism needs men who co-operate smoothly and in large numbers; who want to consume more and more; and whose tastes are standardized and can be easily influenced and anticipated. It needs men who feel free and independent, not subject to any authority or principle or

현대 서구 사회에 있어서의 사랑과 그 붕괴

을 갖는다. 자본 집중화의 중대와 경영 관리 체제의 출현은 노동 운동과 병행하여 발달하고 있다. 노동력의 조직화로 각각의 노동자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위해 노동 시장에서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게 된다. 노동자는 대규모의 노동 조합을 통해 결합되고, 또한 산업적 거상(巨像)과 정면으로 맞서서 노동자를 대변해 주는 강력한 관료 기구에 의해 지도된다. 좋든 나쁘든 노동분야는 물론 더 많은 사람들이 자립하지 못하고 거대한 경제 제국의 관리들에게 의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자본의 집중화로부터 발생되는 또 하나의 결정적 특징은 현대 자본주의의 특성인 노동의 조직화에서 발견되는 특별한 방법에 있다. 노동이 철저하게 분업화되고 광범위하게 집중화된 기업에서는 노동은 조직화되고 개인은 개성을 잃고 소모되어 가는 기계의 톱니바퀴가 된다. 현대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인간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현대 자본주의는 원활히 집단적으로 협동하는 인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더욱더 소비를 원하고 취미의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쉽게 감화되고 예측이 쉬운 인간을 요구한다. 그것은 어떤 권위, 원리, 양심에 속하지 않고, 자유스럽고 자주적이지만 언제나 즐거이 명령에 따르고 자기에게 요구된 일을하고 마찰 없이 사회 기구에 순응하려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또한폭력 없이 관리되고 지도자 없이 인도되고 목적 없이 —좋은 것을 만들어

おけれてれてまたとけれてまたとけるとまじまでませましましまであるからあっ

① vis-à-vis/마주보고 있는 사람(것), 마주보고 있는 ② division of labor/노동의 분 업화

conscience — yet willing to be commanded, to do what is expected of them, to fit into the social machine without friction; who can be guided without force, led without leaders, prompted without aim — except then one to make good, to be on the move, to function, to go ahead.

What is the outcome? Modern man is alienated from himself, from his fellow men, and from nature.1 He has been transformed into a commodity, experiences his life forces as an investment which must bring him the maximum profit obtainable under existing market conditions. Human relations are essentially those of alienated automatons, each basing his security on staying close to the herd, and not being different in thought, feeling or action. While everybody tries to be as close as possible to the rest. everybody remains utterly alone, pervaded by the deep sense of insecurity, anxiety and guilt which always results when human separateness cannot be overcome. Our civilization offers many palliatives which help people to be consciously unaware of this aloneness: first of all the strict routine of bureaucratized, mechanical work, which helps people to remain unaware of their most fundamental human desires, of the longing for transcendence and unity. Inasmuch as the routine alone does not succeed in this, man overcomes his unconscious despair by the rou-

¹Cf. a more detailed discussion of the problem of alienation and of the influence of modern society on the character of man in *The Sane Society*, E. Fromm, Rinehart and Company, New York, 1955.

현대 서구 사회에 있어서의 사랑과 그 붕괴

내고 활동적이고 책임을 다하고 발전해 나간다는 목적 이외에는—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요구한다.

그 결과는 무엇인가? 현대인은 자기 자신과 동료와 자연으로부터 소외된다. 현대인은 상품화되었으며 자신의 삶을 현재의 시장의 조건 밑에서 얻게되는 최대의 이익을 가져 오는 투자로서 인식한다. 근본적으로 인간 관계는소외당한 자동 기계의 관계이고 각자는 군중과 가깝게 함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따라서 사상이나 감동이나 행동에 있어서 군중과 다른 점이없다. 개개인은 모든 사람과 가까워지려 해도 그들은 아주 고독하고, 인간의분리 상태는 극복되지 않고 항상 그 결과로 인한 깊은 불안감, 걱정, 죄책감이 만연하게 된다. 우리의 문화는 인간들이 이러한 고독에 대해 의식하거나깨닫지 않아도 되도록 많은 완화제를 제공한다. 우선 엄격하게 제도화된 관료적이고도 기계적인 작업,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욕망, 즉 초월과 합일에 대한 열망을 인식할 수 없게 한다. 이러한 노동의 일률화만으로는 이러한 일에 성공하지 못하므로, 오락의 일상화에 의해, 즉 오

1. 소외 문제와 현대 사회가 인간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자세히 검토하려면, E. Fromm, The Sane Society(Rinehart and Compay, New York, 1955)를 참조 할 것.

tine of amusement, the passive consumption of sounds and sights offered by the amusement industry furthermore by the satisfaction of buying ever new things, and soon exchanging them for others. Modern man is actually close to the picture Huxley describes in his Brave New World, well fed, well clad, satisfied sexually, yet without self, without any except the most superficial contact with his fellow men. guided by the slogans which Huxlev formulated so succinctly, such as: "When the individual feels, the community reels": or "Never put off till tomorrow the fun you can have today," or, as the crowning statement: "Everybody is happy nowadays." Man's happiness today consists in "having fun." Having fun lies in the satisfaction of consuming and "taking in" commodities, sights, food, drinks, cigarettes, people, lectures, books, movies - all are consumed, swallowed. The worlds is one great object for our appetite, a big apple, a big bottle, a big breast: we are the sucklers, the eternally expectant ones, the hopeful ones — and the eternally disappointed ones. Our character is geared to exchange and to receive, to barter and to consume; everything, spiritual as well as material objects, becomes an object of exchange and of consumption.

The situation as far as love is concerned corresponds, as it has to by necessity, to this social character of modern man. Automatons cannot love; they can exchange their "personality packages" and hope for a fair bargain. One

락 산업이 제공하는 음향과 구경거리를 수동적으로 소비함으로써 나아가서는 언제나 새것을 사들이고 다시 이것과 다른 것을 교환하여 만족감을 얻음으로써 무의식의 절망을 극복한다. 사실상 현대인은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에서 묘사한 인간과 비슷하다. 잘 먹고 잘 입고 성적으로도 만족하지만 자아가 결핍되어 있으며 피상적 접촉 이외에는 동료들과의 접촉도 없고 다음과 같은 헉슬리의 간결한 슬로건에 의해 지배된다. '개인이 감정을 가질 때, 사회는 흔들린다' 또는 '오늘 얻을 수 있는 흥미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 또는 결정적 선언이지만 '요즈음 모든 사람은 행복하다'. 오늘날 인간의 행복은 '즐기는 데' 있다. 즐기는 것은 '만족한 소비'를 말하고, 상품, 구경거리, 음식물, 음료, 담배, 대중, 강연, 책, 영화 등을 '입수하는 것'을 말한다. 모든 것이 소비되고 모든 것을 삼켜 버리는 것이다. 세상은 우리의 식욕의 대상이며, 커다란 사과, 커다란 병, 커다란 유방(乳房)이 된다. 우리는 젖먹이이고 영원히기다리는 사람이고 희망에 가득 찬 자들이고 또 영원히 실망하는 사람이다. 우리들의 성격은 교환하고 받아들이는 데, 사고 팔고 소비하는 데 적합하게되어 있다. 물질적 대상은 물론 정신적 대상도 교환과 소비의 대상이 된다.

사랑에 관한 한 상황은 당연히 그래야 되지만, 현대인의 이러한 사회적 성격과 일치한다. 기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는 없고, '인격이라는 상품 꾸러미'를 교환할 수 있고 공정한 계약을 바랄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① the routine of amusement/오락의 규격화 ② the amusement industry/오락 산업 ③ Brave New World/멋진 신세계 ④ put off/연기하다, 마루다 ⑤ personality package/인격의 꾸러미

of the most significant expressions of love, and especially of marriage with this alienated structure, is the idea of the "team." In any number of articles on happy marriage, the ideal described is that of the smoothly functioning team. This description is not too different from the idea of a smoothly functioning employee; he should be "reasonably independent," co-operative, tolerant, and at the same time ambitious and aggressive. Thus, the marriage counselor tells us, the husband should "understand" his wife and be helpful. He should comment favorably on her new dress. and on a tasty dish. She, in turn should understand when he comes home tired and disgruntled, she should listen attentively when he talks about his business troubles, should not be angry but understanding when he forgets her birthday. All this kind of relationship amounts to is the welloiled relationship between two persons who remain strangers all their lives, who never arrive at a "central relationship." but who treat each other with courtesv and who attempt to make each other feel better.

In this concept of love and marriage the main emphasis is on finding a refuge from an otherwise unbearable sense of aloneness. In "love" one has found, at last, a haven from aloneness. One forms an alliance of two against the world, and this egoism à deux is mistaken for love and intimacy.

The emphasis on team spirit, mutual tolerance and so forth is a relatively recent development. It was preceded, in the years after the First World War, by a concept of 소외된 구조를 가진 사랑, 특히 결혼의 가장 중요한 표현의 하나는 '팀'이라는 개념이다. 행복한 결혼에 대한 여러 가지의 논문에는 원활하게 기능을 다하는 팀이 이상적인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러한 설명은 원활히 일하는 고용인이라는 개념과 다르지 않다. 이러한 고용인은 '합리적으로 독립적'이며, 협동적이고 관대한 동시에 아심과 진취감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결혼 상담자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남편은 아내를 '이해해야' 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남편은 아내의 새 옷과 맛있는 요리를 칭찬해 줘야 한다. 반대로 아내는 남편이 피곤해서 기분이 언짢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이해해 줘야 하고 남편의 사업상의 곤란에 관해 귀를 기울여야 하고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잊을 경우 화를 내지 말고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관계에 있어서 공통되는 것은 평생 동안 남남으로 있게 되고 결코 '핵심 관계'에 도달하지는 못하지만서로 예의 바르고, 상대방의 기분을 즐겁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두 사람 사이의 원활한 관계이다.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이러한 개념에서 가장 강조되는 점은, 도피처를 찾아 내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독감에서 도피하는 것 이다. 사람들은 마침내 '사랑'에서 고독으로부터의 도피처를 찾게 된다. 그리 하여 두 사람은 동맹을 맺고 세상과 대항한다. 그리고 이러한 두 사람만의 이기주의가 사랑과 친밀로 오해받게 되는 것이다.

팀 정신과 상호 관용(相互寬容) 등에 대한 강조는 비교적 최근에 발달된 일이다. 제 차 세계 대전 후 수년 동안에는 서로의 성적 만족이 만족스러운

① the marriage counselor/결혼 상담자(조언자) ② in turn/반대로 ③ courtesy/예 의, 공손, 정중 ④ refuge/피난소, 은신처 ⑤ this egoism a deux/이 두 이기주의

love in which mutual sexual satisfaction was supposed to be the basis for satisfactory love relations, and especially for a happy marriage. It was believed that the reasons for the frequent unhappiness in marriage were to be found in that the marriage partners had not made a correct "sexual adjustment"; the reason for this fault was seen in the ignorance regarding "correct" sexual behavior, hence in the faulty sexual technique of one or both partners. In order to "cure" this fault, and to help the unfortunate couples who could not love each other, many books gave instructions and counsel concerning the correct sexual behavior, and promised implicitly or explicitly that happiness and love would follow. The underlying idea was that love is the child of sexual pleasure, and that if two people learn how to satisfy each other sexually, they will love each other. It fitted the general illusion of the time to assume that using the right techniques is the solution not only to technical problems of industrial production, but of all human problems as well. One ignored the fact that the contrary of the underlying assumption is true.

Love is not the rusult of adequate sexual satisfaction, but sexual happiness — even the knowledge of the so-called sexual technique — is the result of love. If aside from every-day observation this thesis needed to be proved, such proof can be found in ample material of psychoanalytic data. The study of the most frequent sexual problems — frigidity in women, and the more or less severe forms of

사랑의 관계, 특히 행복한 결혼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사랑의 개념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불행한 결혼의 원인은 결혼 상대자들이 올바른 '성적 적응'을 하지 못했었다는 점에서 발견된다고 믿었다. 이러한 실패의 원인은 '올바른' 성행위(性行爲)에 대한 무지(無知), 즉 한쪽 또는 두 사람의 잘못된 성행위의 기교에 있다고 믿었다. 이런 잘못을 '바로잡기'위해, 또한 서로 사랑할 수 없는 불행한 부부를 돕기 위해, 많은 책들이 올바른 성행위에 대해 가르쳤고 조언을 했으며, 행복과 사랑이 뒤따를 것이라고 넌지시 또는 공공연하게 약속했다. 이러한 생각의 기초는 사랑을 성적 만족의 소산으로 믿는 것이고, 만일 서로 성적 만족을 느낀다면, 서로 사랑하게 되리라는 것이 근본 사상이었다. 이러한 생각은, 올바른 기 회의 사용은 공업적 생산의 문제뿐 아니라 인간의 온갖 문제까지도 해결해 준다고 가정했던, 그 세대의 일반적 상황에 적합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 기초적인 가정과 반대되는 것이 도리어 진실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사랑은 적합한 성적 만족의 결과가 아니고 성적 만족은 — 이른바 성의 기술에 대한 지식조차 — 사랑의 결과이다. 만일 매일매일의 관찰은 별도로 하고 이러한 명제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면, 이러한 증거는 정신 분석적 자료에서 풍부한 자료를 찾아낼 수 있다. 가장 빈번한 성적 문제 — 여성의 불감증과 남성의 다소 심한 심인성(心因性)에 의한 불능증(不能症) — 에 대한 연

① a correct sexual adjustment/올바른 성적 적용 ② so-called/소위, 이른바 ③ aside from/~은 차치하고 ④ psychoanalytic/정신 분석학의

psychic impotence in men — shows that the cause does not lie in a lack of knowledge of the right technique, but in the inhibitions which make it impossible to love. Fear of or hatred for the other sex are at the bottom of those difficulties which prevent a person from giving himself completely, from acting spontaneously, from trusting the sexual partner in the immediacy and directness of physical closeness. If a sexually inhibited person can emerge from fear or hate, and hence become capable of loving, his or her sexual problems are solved. If not, no amount of knowledge about sexual techniques will help.

But while the data of psychoanalytic therapy point to the fallacy of the idea that knowledge of the correct sexual technique leads to sexual happiness and love, the underlying assumption that love is the concomitant of mutual sexual satisfaction was largely influenced by the theories of Freud. For Freud, love was basically a sexual phenomenon. "Man having found by experience that sexual (genital) love afforded him his greatest gratification, so that it became in fact a prototype of all happiness to him, must have been thereby impelled to seek his happiness further along the path of sexual relations, to make genital eroticism the central point of his life." The experience of brotherly love is, for Freud, an outcome of sexual desire, but with the sexual instinct being transformed into an impulse with

²S. Freud,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translated by J. Riviere, The Hogarth Press, Ltd., London, 1953, p. 69.

구에서 그 원인이 올바른 기술에 관한 지식의 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억압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성에 대한 두려움 또는 증오는 육체적인, 친밀하고도 직접적인 접촉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주지 못하도록, 자발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성적행위의 상대를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어려운 점에 바탕을 두고 있다. 성적으로 억압된 사람이 공포나 증오로부터 벗어난다면, 그의 또는 그녀의성적 문제는 해결된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성의 기교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풍부하다 할지라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신 분석적 치료를 통해 얻은 자료에 따르면 올바른 성에 대한 지식이 성적 행복과 사랑으로 이끈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서로의 성적 만족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 근본적 사상은 프로이트의 이론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이다. 프로이트에 있어서 사랑은 기본적으로 성적 현상이었다. '경험에 의해 성적(생식적) 사랑이 최대의 기쁨을 준다는 것을 알고, 결과적으로 성적 사랑이 사실상 그의 모든 행복의 원형이 된 사람은 계속 성적 관계의 과정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고 생식적 에로티시즘을 자신의 삶의 핵심으로 삼게 마련이다.' 프로이트의 경우 인류에의 경험은 성적 욕망에서 비롯되고 성적 본능의 '억압된 목표'를 지난 충동으로 변형된

① sexual love=genital love/성적 사랑, 생식적 사랑 ② gratification/만족(시킴), 희열 ③ prototype/원형, 표준, 모범

"inhibited aim." "Love with an inhibited aim was indeed originally full of sensual love, and in man's unconscious mind is so still." As far as the feeling of fusion, of oneness ("oceanic feeling"), which is the essence of mystical experience and the root of the most intense sense of union with one other person or with one's fellow men, is concerned, it was interpreted by Freud as a pathological phenomenon, as a regression to a state of an early "limitless narcissism."

It is only one step further that for Freud love is in itself an irrational phenomenon. The difference between irrational love, and love as an expression of the mature personality does not exist for him. He pointed out in a paper on transference love,⁵ that transference love is essentially not different from the "normal" phenomenon of love. Falling in love always verges on the abnormal, is always accompanied by blindness to reality, compulsiveness, and is a transference from love objects of childhood. Love as a rational phenomenon, as the crowning achievement of maturity, was, to Freud, no subject matter for investigation, since it had no real existence.

However, it would be a mistake to overestimate the influence of Freud's ideas on the concept that love is the result of sexual attraction, or rather that it is the same as sexual

³*Ibid.*, p. 69.

⁴*Ibid.*, p. 21.

⁵ Freud. Gesamte Werke, London, 1940-52, Vol. X.

현대 서구 사회에 있어서의 사랑과 그 봇괴

것이다. '억압된 목표를 수반한 사랑은 사실상 원래는 관능적 사랑으로 가득 찬 것이었고 인간의 무의식적 마음속에는 아직도 여전하다.' 신비적 경험의 본질이고 다른 한 사람 또는 동료들과의 강렬한 일치감의 근원인 융합감, 일 체감 ('대양과 같은 감정')에 관한 한, 프로이트의 병리적 현상, 즉 초기의 '무제한한 자기 도취'의 퇴행(退行)으로 해석된다.

한걸음만 나이가면 프로이트의 경우 사랑은 본질적으로 불합리한 사상이된다. 그에게 있어 불합리한 사랑과 성숙한 개성의 표현으로서의 사랑과의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감정 전이적(感情轉移的) 사랑에 대한 논문에서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랑의 '정상적' 현상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언제나 비정상에 기울어지고 언제나 현실에 대한 맹목성(盲目性)이 따르고 강박적이며, 어린 시절의 사랑의 대상으로부터의 감정 전이이다. 합리적인 현상으로서의 사랑은, 즉 절정에 이른 성숙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프로이트에게 있어서 이러한사랑은 탐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사랑은 성적 매력의 결과라든가, 또는 오히려 의식적인 감정에 반 영된 성적 만족과 '동일'하다든가 하는 개념에 대한 프로이트 사상의 영향을

① oceanic feeling/대양(大洋)과 같은 감정 ② pathological phenomenon/병리하 현상, 병리적 현상 ③ regression/퇴보, 퇴화, 역행 ④ transference love/감정 전이 적 (感情轉移的) 사랑

satisfaction, reflected in conscious feeling. Essentially the causal nexus proceeds the other wav around. Freud's ideas were partly influenced by the spirit of the nineteenth century: partly they became popular through the prevailing spirit of the years after the First World War. Some of the factors which influenced both the popular and the Freudian concepts were. first, the reaction against the strict mores of the Victorian age. The second factor determining Freud's theories lies in the prevailing concept of man, which is based on the structure of capitalism. In order to prove that capitalism corresponded to the natural needs of man, one had to show that man was by nature competitive and full of mutual hostility. While economists "proved" this in terms of the insatiable desire for economic gain, and the Darwinists in terms of the biological law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 Freud came to the same result by the assumption that man is driven by a limitless desire for the sexual conquest of all women, and that only the pressure of society prevented man from acting on his desires. As a result men are necessarily jealous of each other, and this mutual jealousy and competition would continue even if all social and economic reasons for it would disappear.6

⁶The only pupil of Freud who never separated from the master, and yet who in the last years of his life changed his views on love, was Sandor Ferenczi. For an excellent discussion on this subject see *The Leaven of Love* by Izette de Forest, Harper & Brothers, New York, 1954.

현대 서구 사회에 있어서의 사랑과 그 붕괴

과대 평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본질적으로 인과적(因果的) 관계는 다른 방법으로 시작된다 프로이트 사상은 부분적으로는 19세기 정신의 영향을 받 와고 부분적으로는 제 차 세계 대전 이후의 수년 동안 유행했던 정신을 통해 인기를 끌었다. 통속적 생각과 프로이트의 개념에 영향을 미친 몇 가지 중 첫째는 빅토리아 시대의 엄격한 관습에 대한 반발이었다. 프로이트의 이론을 결정한 두 번째 요인은 자본주의(資本主義)의 구조에 바탕을 둔 인간의 개념 이 널리 퍼졌다는 것이다. 자본주의가 인간의 자연적 요구에 부합한다는 것 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은 본래 경쟁을 하게 되어 있으며, 서로 적의로 가득 차 있다고 보여 줄 수밖에 없었다. 경제학자들은 이 점을 경제적 이득 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이라는 견지에서 '증명하고' 다윈설의 신봉자들은 적 자 생존(適者生存)의 생물학적 법칙에 의해 '증명'했으나, 프로이트는 남자 는 모든 여자를 정복하려는 끝없는 욕망에 쫓기고 있고 오직 사회의 압력만 이 남자의 이러한 욕망을 행동화하는 것을 저지한다고 가정함으로써 같은 결과에 도달했다. 그 결과로 남자들은 서로 질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하 서로간의 질투와 경쟁은, 비록 사회적 경제적 원인이 모두 소멸되더라도, 계 속될 것이다.

6. 스승으로부터 절대로 떠나지는 않았지만 만년에 사랑에 대한 견해를 바꾼 프로이트 의 유일한 제자는 Sándor Ferenczi였다. 이 문제에 대한 훌륭한 연구로서는 Izette de Forest, The Leaven of Love(Harper & Brothers, New York, 1954)를 참조할 것.

① mores/관습, 풍습 ② be based on/~에 기초를 두고 ③ law of the survival of the fittest/적자 생존의 법칙 ④ a limitless desire for the sexual conquest of all women/모든 여성을 정복하고자 하는 남성의 끝없는 욕망

Eventually. Freud was largely influenced in his thinking by the type of materialism prevalent in the nineteenth century. One believed that the substratum of all mental phenomena was to be found in physiological phenomena: hence love, hate, ambition, jealousy were explained by Freud as so many outcomes of various forms of the sexual instinct. He did not see that the basic reality lies in the totality of human existence, first of all in the human situation common to all men, and secondly in the practice of life determined by the specific structure of society. (The decisive step beyond this type of materialism was taken by Marx in his "historical materialism." in which not the body, nor an instinct like the need for food or possession. serves as the key to the understanding of man, but the total life process of man, his "practice of life"). According to Freud, the full and uninhibited satisfaction of all instinctual desires would create mental health and happiness. But the obvious clinical facts demonstrate that men - and women - who devote their lives to unrestricted sexual satisfaction do not attain happiness, and very often suffer from severe neurotic conflicts or symptoms. The complete satisfaction of all instinctual needs is not only not a basis for happiness, it does not even guarantee sanity. Yet Freud's idea could only have become so popular in the period after the First World War because of the changes which had occurred in the spirit of capitalism, from the emphasis on saving to that on spending, from self-frustra-

현대 서구 사회에 있어서의 사랑과 그 붕괴

끝으로 프로이트는 그 사고에 있어서 19세기에 유행한 유형의 유물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사람들은 모든 정신적 현상의 근위을 생리학적 현상에 서 발견할 수 있다고 믿었다. 따라서 사랑, 증오, 야망, 질투 등은 프로이트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성적 본능의 여러 결과로 설명되었다. 그는, 근본적 현실 은 인간 존재의 총체에 있다는 것, 즉 첫째,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 인간의 상 황. 둘째. 사회의 특수한 사회 구조에 의해 결정되는 생활상의 실천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이러한 유형의 유신론을 넘어서는 결정적 조치는 마르크 스의 '유물 사관(唯物史觀)'에 의해 취해졌고, 유물 사관에서는 신체나 식욕, 소유욕 등의 본능이 아니라 인간의 전체적 생활 과정, 즉 인간의 '생활상의 실천'이 인간 이해의 열쇠가 된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모든 보능적 욕구의 충분하고 억압되지 않은 만족은 정신적 건강과 행복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명백한 임상적 사실(臨床的事實)을 보면 자신의 생활을 무제한한 성 적 만족에 바친 남자들—그리고 여자들—도 행복을 얻지 못하고 자주 신 경증적 갈등이나 증상에 고통을 받고 있다. 모든 본능적 욕구에 대한 완전한 만족은 햇복을 위한 기초가 아닐 뿐 아니라 온전한 정신도 보장하지 못한다. 그러나 프로이트 사상이 제다 세계 대전 이후의 시대에 인기를 얻을 수 있 었던 것은 자본주의 정신의 변화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절약에서 소비의 강

① substratum/하충, 기초, 토대 ② clinical/임상 강의의

tion as a means for economic success to consumption as the basis for an ever-widening market, and as the main satisfaction for the anxious, automatized individual. Not to postpone the satisfaction of any desire became the main tendency in the sphere of sex as well as in that of all material consumption.

It is interesting to compare the concepts of Freud, which correspond to the spirit of capitalism as it existed, yet unbroken, around the beginning of this century, with the theoretical concepts of one of the most brilliant contemporary psychoanalysts, the late H. S. Sullivan. In Sullivan's psychoanalytic system we find, in contrast to Freud's, a strict division between sexuality and love.

What is the meaning of love and intimacy in Sullivan's concept? "Intimacy is that type of situation involving two people which permits validation of all components of personal worth. Validation of personal worth requires a type of relationship which I call collaboration, by which I mean clearly formulated adjustments of one's behavior to the expressed needs of the other person in pursuit of increasingly identical — that is, more and more nearly mutual satisfactions, and in the maintenance of increasingly similar security operations." If we free Sullivan's statement from its somewhat involved language, the essence of love is seen in a situation of collaboration, in which two people feel: "We play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game to preserve our prestige and feeling of superiority and merit."

조로, 경제적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자기 욕구 불만에서 계속 확장되어 가는 시장의 기초로서의 소비와 불안하고 자동 기계화한 개인의 주요한 만족으로서의 소비의 강조로 변했던 것이다. 어떠한 욕망의 만족을 연기하지 않기 위한 것이 모든 물질의 소비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성적 분야에서도 주류로 되었다.

20세기 초엽까지 파괴되지 않은 채 남아 있던 자본주의 정신과 일치하는 프로이트의 개념을 가장 빛나는 현대 정신 분석 학자의 한 사람인 고(古) H. S. 설리반의 이론적 개념과 비교하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설리반의 정신 분석 체계에서 우리는, 프로이트의 체계와는 대조적으로, 성욕과 사랑의 엄격한 구별을 발견한다.

설리반의 개념에 있어서 사랑과 친밀감의 의미는 무엇인가? '친밀감은 인간의 가치의 모든 구성 인자가 정당한 근거가 있음을 확인해 주는 그러한 유형의 두 사람이 관련되는 상황이다. 개인적 가치의 확인은 내가 제휴(提携, collaboration)라고 부르는 관계를 요구한다. 나는 제휴라는 말로 점점 더 동일해지고 있는—다시 말하면 더욱더 접근하는 상호간의 만족의 추구에 있어서, 그리고 점점 더 유사해 가는 안전성의 조작의 유지에 있어서, 상대가 표명한 욕구에 대해 어떤 사람이 명백히 정식화된 방식으로 행동을 적응시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만일 우리가 설리반의 약간 까다로운 어법에 말려들지 않는다면, 사랑의 본질을 두 사람이 '우리들은 우리들의 명예와 우월감과 공적감(功績感)을 유지하기 위해 게임의 규칙에 따르고 있다'고 느끼는 제휴의 상태에서 볼 수 있다.

① validation/(법률상) 유효하게 함, 확인, 비준

Just as Freud's concept of love is a description of the experience of the patriarchal male in terms of nineteenth-century capitalism, Sullivan's description refers to the experience of the alienated, marketing personality of the twentieth century. It is a description of an "egotism à deux," of two people pooling their common interests, and standing together against a hostile and alienated world. Actually his definition of intimacy is in priciple valid for the feeling of any co-operating team, in which everybody "adjusts his behavior to the expressed needs of the other person in the pursuit of common aims" (it is remarkable that Sullivan speaks here of expressed needs, when the least one could say about love is that it implies a reaction to unexpressed needs between two people).

Love as mutual sexual satisfaction, and love as "teamwork" and as a haven from aloneness, are the two "normal" forms of the disintegration of love in modern Western society, the socially patterned pathology of love. There are many individualized forms of the pathology of love,

⁷H. S. Sullivan,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W. W. Norton Co., New York, 1953, p. 246. It must be noted that although Sullivan gives this definition in connection with the strivings of pre-adolescence, he speaks of them as integrating tendencies, coming out during pre-adolescence, "which when they are completely developed, we call love," and says that this love in pre-adolescence "represents the beginning of something very like full-blown, psychiatrically defined *love*."

⁸ Ibid., p. 246. Another definition of love by Sullivan, that love begins when a person feels another person's needs to be as important as his own, is less colored by the marketing aspect than the above formulation.

현대 서구 사회에 있어서의 사랑과 그 분과

프로이트의 사랑의 개념이 19세기 자본주의의 견지에서 가부장적 남성의 체험을 묘사한 것처럼 설리반의 묘사는 20세기의 소외된 시장형의 개성의 체험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두 사람만의 이기주의', 즉 공통된 이해 관계를 갖고 적대적이며 소외된 세계에 함께 대항한 두 사람에 대한 묘사이다. 사실설리반의 친밀감의 정의는 원칙적으로 '공동 목표의 추구에서 상대방이 표명한 욕구에' 모든 사람이 '행동을 적응시키는' 협동적인 팀의 어떠한 감정에도 타당하다(여기서 설리반의 '표명된' 욕구라고 말한 것이 적어도 두 사람 사이의 '표명되지 않은' 욕구에 대한 반응을 포함시키지 않고는 사랑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하는 뜻이라면 주목할 만하다).

상호간의 성적 만족으로서의 사랑과 '팀워크'로서의, 또한 고독에서의 피 난처로서의 사랑은 현대 서양 사회에 있어서의 사랑의 붕괴, 사회적으로 유 형화된 사랑의 병리학의 두 가지 '전형적'인 형태이다. 사랑의 병리에는 여러

- 7. H. S. Sullivan,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W. W. Norton Co., New York, 1953, p. 246). 설리반은 사춘기 이전의 욕망과 연결시켜 이러한 정의를 내리고 있지만, 그는 이러한 욕망을 사춘기 이전에 오는 통합적인 경향이며 '이 경향은 완전히 발달되었을 때 사랑이라고 불린다'고 말하고 또한 사춘기 이전의 이 사랑은 '완전히 성숙한 정신 의학적으로 규정된 〈사랑〉과 거의 가까운 초기 중상을 보인다'라고 말하는 점에 주의한 필요가 있다.
- 8. 전개서 p. 246.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욕구를 자기 자신의 욕구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고 느낄 때 사랑이 시작된다고 하는, 설리반의 사랑에 대한 또 하나의 정의는 앞에서 말한 시장적 색채가 덜하다.

① the patriarchal male/가장적 남성 ② valid for/~에 타당한 ③ in the pursuit of/~을 찾아서, ~을 추구하여

which result in conscious suffering and which are considered neurotic by psychiatrists and an increasing number of laymen alike. Some of the more frequent ones are briefly described in the following examples.

The basic condition for neurotic love lies in the fact that one or both of the "lovers" have remained attached to the figure of a parent, and transfer the feelings, expectations and fears one once had toward father or mother to the loved person in adult life; the persons involved have never emerged from a pattern of infantile relatedness, and seek for this pattern in their affective demands in adult life. In these cases, the person has remained, affectively, a child of two, or of five, or of twelve, while intellectually and socially he is on the level of his chronological age. In the more severe cases, this emotional immaturity leads to disturbances in his social effectiveness, in the less severe ones, the conflict is limited to the sphere of intimate personal relationships.

Referring to our previous discussion of the mother- or father-centered personality, the following example for this type of neurotic love relation to be found frequently to-day deals with men who in their emotional development have remained stuck in an infantile attachment to mother. These are men who have never been weaned as it were from mother. These men still feel like children; they want mother's protection, love, warmth, care, and admiration; they want mother's unconditional love, a love which is

가지 개별화된 형태가 있지만, 이것은 의식적인 괴로움에서 생기는 것이고 정신과 의사에 의해, 또한 점점 더 그 수효가 늘어나고 있는 비전문가들에 의해서도 신경증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 중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는 것들 은 다음과 같은 예로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신경증적 사랑에의 기본적 조건은 '애인' 중의 한 사람 또는 두 사람이 부모의 상(像)에 애착을 느끼고 있고, 어른임에도 일찍이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대해 품고 있던 감정, 기대, 공포를 애인에게 전이시킨다는 사실에 있다. 이러한 사람들은 유아적 관계의 유형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했고 성인으로서의 애정적 욕구에 있어서도 이러한 유형을 추구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이 사람은 지적, 사회적으로는 그의 생활 연령의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애정의 경우 두 살 또는 다섯 살, 열두 살의 아이로 남아 있다. 보다 심각한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감정적 미숙성은 사회적 효과에 있어서 방해가 되기도 한다. 보다 덜 심각한 경우에 있어서 갈등은 친밀한 개인적 인간 관계의 분야에 제한된다.

앞에서 검토한 아버지 또는 어머니 중심의 인격과 관련되는 것이지만, 오늘날 자주 볼 수 있는 이러한 신경증적 애정 관계에서 다음 예는 정서적 발달 단계가 어머니에 대한 유아적 애착을 벗어나지 못한 남자들을 다루고 있다. 말하자면, 이러한 남자들은 아직도 어머니의 젖을 떼지 못한 사람들이다. 여전히 아이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어머니의 보호, 사랑, 온정, 배

① psychiatrist/정신병 학자, 정신과 의사 ② neurotic/신경의, 신경증, 신경 과민의

③ emerge from/~에서 벗어나다 ④ refer to/~에 언급하다, ~에게 돌리다

given for no other reason than that they need it, that they are mother's child, that they are helpless. Such men frequently are quite affectionate and charming if they try to induce a woman to love them, and even after they have succeeded in this. But their relationship to the woman (as, in fact, to all other people) remains superficial and irresponsible. Their aim is to be loved, not to love. There is usually a good deal of vanity in this type of man, more or less hidden grandiose ideas. If they have found the right woman, they feel secure, on top of the world, and can display a great deal of affection and charm, and this is the reason why these men are often so deceptive. But when, after a while, the woman does not continue to live up to their phantastic expectations, conflicts and resentment start to develop. If the woman is not always admiring them, if she makes claims for a life of her own, if she wants to be loved and protected herself, and in extreme cases, if she is not willing to condone his love affairs with other women (or even have an admiring interest in them). the man feels deeply hurt and disappointed, and usually rationalizes this feeling with the idea that the woman "does not love him, is selfish, or is domineering." Anything short of the attitude of a loving mother toward a charming child is taken as proof of a lack of love. These men usually confuse their affectionate behavior, their wish to please, with genuine love and thus arrive at the conclusion that they are being treated quite unfairly; they imag-

려. 첫찬을 바라고 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바란다. 즉. 그들은 그 것이 필요하고 그들이 어머니의 자식이며 무렵하다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사랑을 바라는 것이다. 이러한 남자들은 여성에게 사랑을 구할 때는 사랑을 얻은 후에도 종종 이주 애정적이고 매력적이다. 그러나 그들의 여자에 대한 관계는(사실상 모든 대인 관계도 마찬가지이겠지만) 피상적이고 무책임한 것이다. 그들은 사랑을 베풀기보다는 사랑받기를 바라다. 이러한 유형의 남 자는 대개 속이 비어 있고 약간의 눈에 보이지 않는 과장 의식이 들어 있다. 만약 그들이 적합한 여자를 찾게 된다면, 안정감을 느끼고 의기 양양하고 상 당한 애정과 매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이들 은 이주 잘 속는다. 그러나 얼마 후 이들의 환상적 기대에 어긋난 행동을 여 자가 할 때 갈등과 불만이 야기된다. 만일 그 여자가 항상 그들을 칭찬해 주 지 않으면, 또 여자가 자신의 생활을 주장한다든가, 그녀 자신의 사상을 바라 며 보호받고 싶어한다든가. 극단적인 경우에는 자신의 생활 권리를 주장하고 다른 여자와의 애정 관계를 용납하지 않을 때(이러한 애정 관계에 관심을 갖 고 찬양하지 않을 경우) 남자는 깊은 상처를 입고 절망에 빠진다. 대개 이러 한 쓰라린 감정을 그 여자는 '그를 사랑하지 않으며 또한 이기적이고 거만하 다는' 생각으로 합리화시키다. 귀여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다정한 태도가 부족하면 사랑의 결핍으로 여긴다.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자기의 애정 행위, 쾌락에 대한 욕망을 순수한 감정과 구별하지 못한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부 당하게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한다. 즉, 그들은 그들 자신을 위대한 애인으로

① on top of the world/크게 성공하여 ② live up to/~에 따라 생활하다, 행동하다

ine themselves to be the great lovers and complain bitterly about the ingratitude of their love partner.

In rare cases such a mother-centered person can function without any severe disturbances. If his mother, in fact, "loved" him in an overprotective manner (perhaps being domineering, but without being destructive), if he finds a wife of the same motherly type, if his special gifts and talents permit him to use his charm and be admired (as is the case sometimes with successful politicians), he is "well adjusted" in a social sense, without ever reaching a higher level of maturity. But under less favorable conditions — and these are naturally more frequent — his love life, if not his social life, will be a serious disappointment; conflicts, and frequently intense anxiety and depression arise when this type of personality is left alone.

In a still more severe from of pathology the fixation to mother is deeper and more irrational. On this level, the wish is not, symbolically speaking, to return to mother's protecting arms, nor to her nourishing breast, but to her all-receiving— and all-destroying— womb. If the nature of sanity is to grow out of the womb into the world, the nature of severe mental disease is to be attracted by the womb, to be sucked back into it— and that is to be taken away from life. This kind of fixation usually occurs in relation to mothers who relate themselves to their children in this swallowing-destroying way. Sometimes in the name of love, sometimes of duty, they want to keep the child, the

알고 상대방의 배은 망덕을 몹시 탓한다.

가끔 이러한 어머니 중심의 사랑도 큰 불편 없이 기능을 다할 수 있다. 만일 그가 어머니의 지나친 보호 아래 '사랑을 받거나'(오만하기는 하나 파괴적이 아닌), 또는 그가 어머니와 같은 형의 아내를 발견한다면, 그의 천부적 재능이 그에게 매력을 갖추게 하고 칭찬을 받게 하면(가끔 성공적인 정치가에게서 보게 되지만), 그는 보다 높은 성숙 단계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의미에서는 '잘 적용한다.' 그러나 여건이 불리해지면— 당연히 이러한 경우가 더 많지만— 그의 애정 생활은, 비록 그의 사회 생활이 그렇지 않다할지라도, 심각한 실망을 겪게 된다. 이러한 유형의 인격 소유자를 홀로 내버려 두면,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심한 불안감과 우울증이 자주 나타난다.

더 심한 중세라면, 어머니에 대한 병적 애착이 한층 더 깊어지고 불합리해 진다. 이러한 단계에서는 상징적으로 보아 아늑한 어머니의 팔로 되돌아가거 나 자양분이 많은 어머니의 품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또 모든 것을 파괴하는—모태로 되돌아가는 것이 소망이다. 만일 건전한 정신의 본질이 모태에서 세상 밖으로 나와 성장해 가는 것이라면, 심한 정신병의 본질은 모태에 이끌려 그리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고, 따라서 생활로부터는 단절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애착은 흔히 삼키고 파괴하는 방법으로 자녀를 대하는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생긴다. 때로는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의무라는 명목으로 이러한 어머니들은 아이와 청년과 남자를

① in rare cases/가끔 ~할 경우가 있다 ② well adjusted/잘 적용하고 있는 ③ all-receiving/모든 것을 받아 줌

adolescent, the man, within them; he should not be able to breathe but through them; not be able to love, except on a superficial sexual level — degrading all other women; he should not be able to be free and independent but an eternal cripple or a criminal.

This aspect of mother, the destructive, engulfing one, is the negative aspect of the mother figure. Mother can give life, and she can take life. She is the one to revive, and the one to destroy; she can do miracles of love — and nobody can hurt more than she. In religious images (such as the Hindu goddess Kali) and in dream symbolism the two opposite aspects of mother can often be found.

A different form of neurotic pathology is to be found in such cases where the main attachment is that to father.

A case in point is a man whose mother is cold and aloof, while his father (partly as a result of his wife's coldness) concentrates all his affection and interest on the son. He is a "good father," but at the same time authoritarian. Whenever he is pleased with the son's conduct he praises him, gives him presents, is affectionate; whenever the son displeases him, he withdraws, or scolds. The son, for whom father's affection is the only one he has, becomes attached to father in a slavish way. His main aim in life is to please father — and when he succeeds he feels happy, secure and satisfied. But when he makes a mistake, fails, or does not succeed in pleasing father, he feels deflated, unloved, cast out. In later life such a man will try to find a father figure

자신 속에 묶어 두려 한다. 그들은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는 호흡할 수 없으며 모든 다른 여성들을 타락시키는 피상적인 성적 수준 이외는 사랑할 수도 없다. 그는 영원히 불구자가 되거나 범죄자가 되지 않는 한, 자유스럽게 독립할 수 없다.

파괴적이고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어머니의 이러한 측면은 부정적인 어머니 상의 측면이다. 어머니는 생명을 줄 수도 빼앗을 수도 있다. 어머니는 소생(蘇生)시키는 사람이고 멸망시키는 사람이다. 또한 어머니의 사랑은 기적을 행할 수 있고 누구보다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다. 종교적 표상(힌두교의 여신 칼리와 같은)과 꿈의 상징에서 흔히 상반되는 어머니의 두 측면이 발견된다.

신경증적 증상의 다른 형태는 주로 아버지에 대한 애착인 경우에 발견된다.

좋은 예로 어머니는 냉정하고 초연하지만, 아버지는(부분적으로는 아내가 냉정하기 때문이지만) 모든 애정과 관심을 아들에게 쏟는 경우이다. 그는 '좋은 아버지'일테지만 권위주의자이기도 하다. 아들의 행동에 만족하면 언제나 칭찬하고 선물을 주고 정답다. 아들에게 불만을 느낄 경우는 언제나 물러서 거나 꾸짖는다. 아들은, 아버지의 애정이야말로 유일한 애정이므로, 아버지에게 거의 노예처럼 집착한다. 자식의 주요 생활 목표는 아버지를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다. 그리고 이에 성공했을 때는 행복하고 안심하고 만족한다. 그러나 잘못이나 실패를 했을 경우,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을 때는 기우을 잃고 사랑도 못 받고 버림받은 느낌을 갖게 된다. 이러한 사람은 어른

and the state of t

① engulf/(심연, 소용돌이 따위 속으로) 삼켜 버리다

to whom he attaches himself in a similar fashion. His whole life becomes a sequence of ups and downs, depending on whether he has succeeded in winning father's praise. Such men are often very successful in their social careers. They are conscientious, reliable, eager - provided their chosen father image understands how to handle them. But in their relationships to women they remain aloof and distant. The woman is of no central significance to them: they usually have a slight contempt for her, often masked as the fatherly concern for a little girl. They may have impressed a woman initially by their masculine quality. but they become increasingly disappointing, when the woman they marry discovers that she is destined to play a secondary role to the primary affection for the father figure who is prominent in the husbands's life at any given time; that is, unless the wife happens to have remained attached to her father - and thus is happy with a husband who relates to her as to a capricious child.

More complicated is the kind of neurotic disturbance in love which is based on a different kind of parental situation, occurring when parents do not love each other, but are too restrained to quarrel or to indicate any signs of dissatisfaction outwardly. At the same time, remoteness makes them also unspontaneous in their relationship to their children. What a little girl experiences is an atmosphere of "correctness," but one which never permits a close contact with either father or mother, and hence

이 된 뒤에도 어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애착을 느끼며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려 한다. 아버지의 칭찬 여부에 따라 그의 전 생애는 기복의 연속이 된다. 이러한 사람들이 흔히 사회적 출세에 매우 성공적이다. 그들이 선택한 아버지의 상을 어떻게 다루느냐를 이해하는 경우, 그들은 양심적이고 믿을 수 있으며 열성적이다. 그러나 여자 관계에 있어서는 냉담하고 무관심 하다. 그들에게 있어서 여자는 핵심적 중요성이 없다. 그들은 여자를 다소 경 멸하는데, 그 경멸감은 귀여운 소녀에 대한 아버지다운 관심으로 가면을 쓰 고 나타나는 경우가 흔히 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이러한 남성적 성격으로 여 자를 감동시킬는지 모르지만, 결혼한 여자의 경우, 한때 남편의 생활을 지배 했던 아버지 상에 대한 일차적인 남편의 애정에 대해 아내는 부수적일 뿐이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다시 말해 아내가 우연히도 자기의 아버지에게 애착 을 느끼는 상태에서 남편이 변덕스러운 어린아이를 다루듯 그녀를 다루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지 않는 한. 그들은 점점 더 실망을 느낀다.

더욱 복잡한 것은, 부모가 서로 사랑하지 않지만 말다툼을 억제하거나 불만의 표정을 나타내지 않으려 할때, 그러한 어버이들의 특수 상황에서의 사랑의 신경증적 장애이다. 동시에 부모 간의 소원한 관계는 자녀와의 사이도 부자연스럽게 만든다. 소녀는 '예의 바른' 분위기를 경험하지만, 부모 사이의

① masculine/남성의, 남자의

leaves the girl puzzled and afraid. She is never sure of what the parents feel or think; there is always an element of the unknown, the mysteroius, in the atmosphere. As a result the girl withdraws into a world of her own, daydreams, remains remote, and retains the same attitude in her love relationships later on.

Furthermore the withdrawal results in the development of intense anxiety, a feeling of not being firmly grounded in the world, and often leads to masochistic tendencies as the only way to experience intense excitement. Often such women would prefer having the husband make a scene and shout, to his maintaining a more normal and sensible behavior, because at least it would take away the burden of tension and fear from them; not so rarely they unconsciously provoke such behavior, in order to end the tormenting suspense of affective neutrality.

Other frequent forms of irrational love are described in the following paragraphs, without going into an analysis of the specific factors in childhood development which are at their roots:

A form of pseudo-love which is not infrequent and is often experienced (and more often described in moving pictures and novels) as the "great love" is idolatrous love. If a person has not reached the level where he has a sense of identity, of I-ness, rooted in the productive unfolding of his own powers, he tends to "idolize" the loved person. He is alienated from his own powers and projects them

밀접한 관계를 갖게 하는 분위기는 결코 경험하지 못한다. 따라서 소녀는 당황하고 두려워한다. 소녀는 부모의 느낌과 생각을 결코 알지 못한다. 이러한분위기에는 미지의 신비한 요소가 항상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소녀는 자기자신의 세계, 즉 공상적 세계로 빠져들게 되고 늘 다른 사람과 사귀지 않고지내며, 성장 후에도 애정 관계에서 이러한 태도를 지니게 된다.

더 나아가 이와 같은 움추림은 강렬한 불안, 즉 세상에 확고한 뿌리를 박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조성하며, 강렬한 홍분을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써 자기 학대의 경향을 띠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여성들은 종종 남편이 야단치고 소리 지르는 것을 좋아하고 남편이 정상적이고 분별력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적어도 남편의 소동이 긴장이라는 부담과 여기서 생기는 공포를 제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종종 무의식적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애정의 중간 상태의 괴로움을 끝내기 위해서이다.

흔히 보게 되는 또 다른 불합리한 사랑의 형태에 대해 설명하는 데 있어 바탕이 되는 유아기 성장의 특수 요인은 분석하지 않겠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가끔 '위대한 사랑'으로서 경험되는(영화나 소설에서 잘 묘사되는) 거짓 사랑의 형태는 '우상 숭배적 사랑'이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힘의 생산적 전개에 바탕을 두고 있는 동일성, 즉 자아의 인식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우상화'하기 쉽다.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소외되고 그 능력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투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① later on/후일의, 다음의 ② masochistic tendency/피학대 음란증의 경향, 매저키 즘적인 경향 ③ make a scene and shout/부부 싸움으로 큰 소동을 벌이다 ④ I-ness / '나'라는 것

into the loved person, who is worshiped as the summum bonum the bearer of all love, all light, all bliss. In this process he deprives himself of all sense of strength, loses himself in the loved one instead of finding himself. Since usually no person can, in the long run, live up to the expectations of her (or his) idolatrous worshiper. disappointment is bound to occur, and as a remedy a new idol is sought for, sometimes in an unending circle. What is characteristic for this type of idolatrous love is, at the beginning, the intensity and suddenness of the love experience. This idolatrous love is often described as the true. great love: but while it is meant to portray the intensity and depth of love, it only demonstrates the hunger and despair of the idolator. Needless to sav it is not rare that two persons find each other in a mutual idolatry which. sometimes, in extreme cases, represents the picture of a folie à deux.

Another form of pseudo-love is what may be called "sentimental love." Its essence lies in the fact that love is experienced only in phantasy and not in the here-and-now relationship to another person who is real. The most wide-spread form of this type of love is that to be found in the vicarious love satisfaction experienced by the consumer of screen pictures, magazine love stories and love songs. All the unfulfilled desires for love, union, and closeness find their satisfaction in the consumption of these products. A man and a woman who in relation to their

'최고선(最高善)', 즉 모든 사랑과 광명과 희열을 지니고 있는 사람으로 숭배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힘에 대한 모든 감각을 빼앗기고, 자신을 찾는 대신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일반적으로 그녀를(또는 그를) 우상시하는 자의 기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결국 그는 실망하게 마련이고, 그 보상으로서 새로운 우상을 찾게 되며, 때때로 이러한 순환이 끝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우상숭배적 사랑의 특징은 초기에는 강렬하고 갑작스러운 사랑의 경험이다. 이러한 우상숭배적 사랑은 종종 진실되고 위대한 사랑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강렬함과 깊이를 표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단지 우상 숭배자의 갈망과 절망을 드러낼 뿐이며, 때로는 극단적인 경우, '감용 정신병(感應精神病)'의 형태로 되기도 한다.

거짓 사랑의 다른 형태는 '감상적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 사랑은 환상속에서만 경험될 뿐, 실재하는 다른 사람과 지금 여기서 갖고 있는 관계에서는 경험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이러한 사랑의 본질이 있다.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이러한 사랑의 형태는 영화나 잡지의 사랑 이야기나, 사랑의 노래에서 소비자가 경험하는 사랑의 대상적(代賞的) 만족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 사랑, 합일, 친밀감을 바라는 충족되지 않는 욕망은 이러한 매개체를 사용하는 데서 만족을 찾는다. 배우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분리의 벽을 꿰뚫을 수 없었

① summum bonum=the highest good/최고의 선 ② in the long run/결국, 마침 내, 드디어 ③ live up to/~에 맞게 행동하다 ④ be bound to/~하게 되어 있다 ⑤ idolatrous/맹목적으로 숭배하는

spouses are incapable of ever penetrating the wall of separateness are moved to tears when they participate in the happy or unhappy love story of the couple on the screen. For many couples, seeing these stories on the screen is the only occasion on which they experience love — not for each other, but together, as spectators of other people's "love." As long as love is a day dream, they can participate; as soon as it comes down to the rea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real people — they are frozen.

Another aspect of sentimental love is the abstractification of love in terms of time. A couple may be deeply moved by memories of their past love, although when this past was present no love was experienced - or the phantasies of their future love. How many engaged or newly married couples dream of their bliss of love to take place in the future, while at the very moment at which they live they are already beginning to be bored with each other? This tendency coincides with a general attitude characteristic of modern man. He lives in the past or in the future. but not in the present. He remembers sentimentally his childhood and his mother - or he makes happy plans for the future. Whether love is experienced vicariously by participating in the fictitious experiences of others, or whether it is shifted away from the present to the past or the future, this abstractified and alienated form of love serves as an opiate which alleviates the pain of reality, the aloneness and separateness of the individual.

던 남자와 여자는 스크린 속의 부부의 행복한 또는 불행한 사랑의 이야기에 참여할 때 감동으로 눈물을 흘린다. 많은 경우 부부들은 스크린 속의 이러한 이야기를 구경할 때 서로가 사랑을 주고받지는 못하지만 함께 '사랑'을 구경함으로써 사랑을 경험하는 유일한 기회를 갖는다. 사랑이 공상인 것에 한해서 그들은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이 실재하는 두 사람 사이의 현실적인 관계가 될 때 그들은 냉담해졌다

감상적 사랑의 또 다른 면은 시간의 견지에서 본 사랑의 추상화이다. 부부는 과거의 그들의 사랑—비록 이 과거가 현재였을 때에는 사랑을 전혀 경험하지 못했을지라도—의 기억이나 미래의 환상적 사랑에 의해 깊은 감동을 받을 수도 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이미 서로 싫증을 느끼고 있으면서도얼마나 많은 약혼자 또는 신혼 부부들이 미래에 있을 그들의 사랑의 축복을 꿈꾸고 있는가? 이러한 경향은 현대인을 특징 지우는 일반적 태도와 일치한다. 현대인은 과거나 미래에서 살고 오늘을 살지 못한다. 그는 감상적으로 그의 어린 시절과 어머니를 화상하고, 또는 미래를 위한 행복한 계획을 세운다. 다른 사람들의 가공적인 경험에 참여함으로써 대리로 사랑을 경험하든, 또는 사랑의 경험이 현재에서 과거나 미래로 옮겨지든, 이처럼 추상화되고 소외된 사랑의 형태는 개인의 현실적 고통과 고독과 분리감을 경감시켜 주는 진통제로서 작용한다.

-

① newly married couples/신혼 부부들 ② coincide with/~와 일치하다 ③ fictitious/가상의, 꾸며 낸 이야기의

Still another form of neurotic love lies in the use of projective mechanisms for the purpose of avoiding one's own problems, and being concerned with the defects and frailties of the "loved" person instead. Individuals behave in this respect very much as groups, nations or religions do. They have a fine appreciation for even the minor shortcomings of the other person, and go blissfully ahead ignoring their own - always busy trying to accuse or to reform the other person. If two people both do it — as is so often the case - the relationship of love becomes transformed into one of mutual projection. If I am domineering or indecisive, or greedy. I accuse my partner of it, and depending on my character. I either want to cure him or to punish him. The other person does the same - and both thus succeed in ignoring their own problems and hence fail to undertake any steps which would help them in their own development.

Another form of projection is the projection of one's own problems on the children. First of all such projection takes place not infrequently in the wish for children. In such cases the wish for children is primarily determined by projecting one's own problem of existence on that of the children. When a person feels that he has not been able to make sense of his own life, he tries to make sense of it in terms of the life of his children. But one is bound to fail within oneself and for the children. The former because the problem of existence can be solved by each

현대 서구 사회에 있어서의 사랑과 그 붕괴

신경증적 사랑의 또 다른 형태는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고, 대신에 '사랑하는' 사람의 결합이나 결점에 관계하기 위해 '투사적 메커니즘'을 이용하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개인은 집단, 민족 또는 종교가 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행동을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작은 결점조차도 비판하고, 자신의 단점은 천연덕스럽게 무시해 버린다. 즉, 항상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개조하는 데 바쁜 것이다. 두 사람이 모두 이와 같이 하며——종종 있는 일이지만——사랑의 관계는 상호간의 투영(投影) 관계로 변한다. 만일 내가 교만하거나 결단성이 없거나 욕심이 많다면, 나는 상대방의 이러한 점을 비난하고 나의 성격에 따라 그들을 고치거나 벌 주려고 한다. 다른 상대방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문제를 무시하는 데 있어서 성공하고 따라서 그들의 발달에 도움이 되는 어떤 대책을 세우는 데 실패한다.

투영의 또 하나의 형태로는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아이에게 투영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투영은 자식에 대한 소망에서 자주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소망은 일차적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 문제를 자녀의 문제에 투영함으로써 결정된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는 자녀의 삶의 견지에서 자신의 삶을 이해하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내면에 있어서나 아이들에게서 파악하려는 노력도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된다. 실존 문제는 각자에 의해 스스로의 힘으

① for the purpose of/~을 위하여 ② as is so often the case/때때로 있는 일이지 만

one only for himself, and not by proxy; the latter because one lacks in the very qualities which one needs to guide the children in their own search for an answer. Children serve for projective purposes also when the question arises of dissolving an unhappy marriage. The stock argument of parents in such a situation is that they cannot separate in order not to deprive the children of the blessings of a unified home. Any detailed study would show, however, that the atmosphere of tension and unhappiness within the "unified family" is more harmful to the children than an open break would be — which teaches them at least that man is able to end an intolerable situation by a courageous decision.

One other frequent error must be mentioned here. The illusion, namely, that love means necessarily the absence of conflict. Just as it is customary for people to believe that pain and sadness should be avoided under all circumstances, they believe that love means the absence of any conflict. And they find good reasons for this idea in the fact that the struggles around them seem only to be destructive interchanges which bring no good to either one of those concerned. But the reason for this lies in the fact that the "conflicts" of most people are actually attempts to avoid the real conflicts. They are disagreements on minor or superficial matters which by their very nature do not lend themselves to clarification or solution. Real conflicts between two people, those which

로써만 해결될 수 있고 남이 대신해서 해결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자신의 내면에서 실패하지 않을 수 없다. 자녀들에게 스스로 해답을 찾도록 지도하는 데 필요한 자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아이에 대해서도 실패한다. 불행한 결혼을 해소시키려고 할 때에도 자녀들은 투영의 목적에 사용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들의 혼한 논쟁은 화목한 가정의 행복을 아이들에게서 빼앗지 않으려면 헤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좀더 자세히 연구해 보면 '화목한 가정' 안에서 감도는 긴장과 불행의 분위기는 공개적 이별보다도 자녀들에게는 더욱 해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공개적 결별은 적어도 자녀들에게 인간이 판단성 있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참을 수 없는 상황을 끝낼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또 하나의 자주 일어나는 실수에 대해 여기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사랑이란 필히 갈등이 없어야 된다는 환상이 그것이다. 어떠한 환경 밑에서든 고통과 슬픔을 피해야만 한다고 믿는 것이 사람들의 버릇인 것처럼, 그들은 갈등이 없는 것이 사랑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투쟁은 당사자의 어느 쪽에도 마찬가지로 다 좋지 못하고 오직서로 파괴적인 자기 주장의 교환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는 사실에서 그들은 이러한 생각에 대한 좋은 원인을 찾아낸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한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갈등'은 실상 '실재하는' 갈등을 피하려는 노력이라는 사실에 있다. 그들은 사소한 또는 피상적 문제에 대해서 불일치하고 이러한 것은 본질적으로 해명이나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사람 사이의

① clarification/명료하게 함, 정화

do not serve to cover up or to project, but which are experienced on the deep level of inner reality to which they belong, are not destructive. They lead to clarification, they produce a catharsis from which both persons emerge with more knowledge and more strength. This leads us to emphasize again something said above.

Love is possible only if two persons communicate with each other from the center of their existence, hence if each one of them experiences himself from the center of his existence. Only in this "central experience" is human reality, only here is aliveness, only here is the basis for love. Love, experienced thus, is a constant challenge: it is not a resting place, but a moving, growing, working together: even whether there is harmony or conflict, joy or sadness, is secondary to the fundamental fact that two people experience themselves from the essence of their existence, that they are one with each other by being one with themselves, rather than by fleeing from themselves. There is only one proof for the presence of love: the depth of the relationship, and the aliveness and strength in each person concerned; this is the fruit by which love is recognized.

Just as automatons cannot love each other they cannot love God. The disintegration of the love of God has reached the same proportions as the disintegration of the love of man. This fact is in blatant contradiction to the idea that we are witnessing a religious renaissance in this

실재 갈등, 즉 은폐하거나 투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고 그들의 내면적 현실의 같은 차원에서 겪게 되는 갈등은 파괴적인 것이 아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에 가서 해명이 되며 두 사람은 보다 많은 지식과 힘이 나타나게 되는 정화 작용을 하게 된다. 이러한 점은 우리로 하여금 위에서 말한 바를 강조하게 한다.

두 사람이 서로 그들 존재의 핵심에서부터 교제할 때, 그리하여 그들 각자의 실존의 중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경험하게 되면 사랑은 가능할 수 있다. 오직 이러한 '핵심적 경험'에만 인간의 현실이 있고 오직 여기에만 생기가 있고 오직 여기에만 사랑의 기반이 있다. 이처럼 경험되는 사랑은 계속 도전을 받는다. 즉, 사랑은 휴식처가 아니라 함께 움직이고 성장하고 일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조화, 갈등, 기쁨, 슬픔, 그 어떤 것이든 두 사람이 그들 존재의 본질에서 자기들을 경험하고 자신에 대한 도피보다는 자신과 하나가 됨으로써서로 일체가 된다는 기본적 사실에 대해서조차 이차적인 것이다. 사랑의 현존에 대해서 오직 하나만의 증거가 있을 뿐이다. 즉, 관계의 깊이와 사랑하는 당사자 각자가 내부에 지니는 생동감과 힘이 바로 그것이다.

자동 인형이 서로 사랑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은 신을 사랑할 수 없다. '신에 대한 사랑의 붕괴'는 인간에 대한 사랑의 붕괴와 같은 정도에 도달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종교 부흥을 목격하고 있다는 사상

① cover up/은폐하다 ② for the presence of love/사랑의 존재에 관해서 ③ be in blatant contradiction to/~와 이만저만 모순이 되는 게 아니다

epoch.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What we witness (even though there are exceptions) is a regression to an idolatric concept of God, and a transformation of the love of God into a relationship fitting an alienated character structure. The regression to an idolatric concept of God is easy to see. People are anxious, without principles or faith, they find themselves without an aim except the one to move ahead; hence they continue to remain children, to hope for father or mother to come to their help when help is needed.

True, in religious cultures, like that of the Middle Ages. the average man also looked at God as to a helping father and mother. But at the same time he took God seriously also, in the sense that the paramount goal of his life was to live according to God's principles, to make "salvation" the supreme concern to which all other activities were subordinated. Today, nothing of such effort is present. Daily life is strictly separated from any religious values. It is devoted to the striving for material comforts, and for success on the personality market. The principles on which our secular efforts are built are those of indifference and egotism (the latter often labeled as "individualism," or "individual initiative"). Man of truly religious cultures may be compared with children at the age of eight, who need father as a helper, but who begin to adopt his teachings and principles in their lives. Contemporary man is rather like a child of three, who cries for father

과 명백히 모순이 된다. 이 사상보다 진실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없으리라.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것은 (비록 예외는 있겠지만) 신에 대한 우상 숭배적 개념의 퇴행이며 신에 대한 사랑을 소외된 성격 구조에 적합한 관계로 변형시키는 것이다. 신에 대한 우상 숭배적 개념으로의 퇴행을 알기는 쉽다. 사람들은 불안하고 원칙이나 신념이 없으며 그들은 전진한다는 목적이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 따라서 그들은 어린아이로 계속 남아 있으며, 도움이 필요하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도움을 주러 오기를 바라고 있다.

중세 문화와 같은 종교 문화에 있어서는 보통 사람들이 신을 도움을 주는 아버지나 어머니로 생각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삶의 최대 목표를 신의 섭리에 따라 사는 것이라 생각했으며 '구원(救援)'은 모든 행위에 종속되는 지상의 과제로 삼았다는 의미에서 그들은 신을 진지하게 생각했다. 오늘날 이러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일상 생활은 어떠한 종교적 가치와도 명백히 분리되어 있다. 단지 물질적 위안과 인격 시장에 있어서의 성공만을 갈망할 뿐이다. 우리의 세속적인 노력을 구축하는 원리는 무관심과 이기주의의 원리이다(후자는 종종 '개인주의' 또는 '개인의 독창성'이라 불린다). 진실한 종교 수양을 쌓은 사람은 여덟 살짜리 아이와 비교될 수 있는데, 그 아이는 구원자로서 아버지가 필요하며 그들의 생활 속에 아버지의 가르침과 원리를 체택하기 시작한다. 현대의 인간은 아버지가 필요할 때

① idolatric/우상 숭배적인 ② paramount=the highest/최고의, 지상의, 탁월한

when he needs him, and otherwise is quite self-sufficient when he can play.

In this respect, in the infantile dependence on an anthronomorphic picture of God without the transformation of life according to the principles of God, we are closer to a primitive idolatric tribe than to the religious culture of the Middle Ages. In another respect our religious situation shows features which are new, and characteristic only of contemporary Western capitalistic society. I can refer to statements made in a previous part of this book. Modern man has transformed himself into a commodity: he experiences his life energy as an investment with which he should make the highest profit, considering his position and the situation on the personality market. He is alienated from himself, from his fellow men and from nature. His main aim is profitable exchange of his skills, knowledge, and of himself, his "personality package" with others who are equally intent on a fair and profitable exchange. Life has no goal except the one to move, no principle except the one of fair exchange, no satisfaction except the one to consume.

What can the concept of God mean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is transformed from its original religious meaning into one fitting the alienated culture of success. In the religious revival of recent times, the belief in God has been transformed into a psychological device to make one better fitted for the competitive struggle.

울고 찾는, 그렇지 않으면 놀고 있을 때 스스로 만족하는 세 살 먹은 아이와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신의 섭리에 따르는 전환 없이 신인동형적(神人同形的)인 신의 모습에 유아적으로 의존함에 있어서 우리는 중세 종교 문화보다 원시적 우상 숭배를 하는 종족에 더 가깝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종교적 상황은 현대의 서구 자본주의 사회의 새롭고도 특징적인 면을 보여준다. 나는 이 책의 앞 부분에서 논술한 것을 지적할 수 있다. 현대인은 스스로를 상품화하였는데, 즉 자신의 생명력은 인격 시장에서의 자신의 지위와 상황을 고려하면서 최고의 이윤을 볼 수 있는 투자로 경험한다. 현대인은 자기 자신과 동료와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주요 목표는 그의 기술, 지식 또는 자기 자신, 즉 자신의 '인격 보따라'를 공정하고 유리한 거래를 하고자 똑같이 열망하는 다른 사람과 유리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 인생이란 단지 움직인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목표도 없고, 공정한 교환 이외에는 어떤 원칙도 없으며, 소비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만족도 없다.

이러한 상황 아래에서 신에 대한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신의 개념은 그 원래의 종교적인 의미에서 소외된 문화에 적합한 의미로 바뀌고 말았다. 최근의 종교 부흥에서 신에 대한 신앙은 인간이 경쟁적인 투쟁에 더 잘 적응해 갈 수 있게 해주는 수단으로 변모되고 말았다.

① self-sufficient/지급할 수 있는, 충족하고 있는 ② anthropomorphic/신인(神人) 동형설의 ③ the religious revival of recent time/최근의 중교적 부흥

Religion allies itself with auto-suggestion and psychotherapy to help man in his business activities. In the twenties one had not yet called upon God for purposes of "improving one's personality." The best-seller in the year 1938. Dale Carnegie's How to Win Friends and Influence People, remained on a strictly secular level. What was the function of Carnegie's book at that time is the function of our greatest best-seller today,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 by the Reverend N. V. Peale. In this religious book it is not even questioned whether our dominant concern with success is in itself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monotheistic religion. On the contrary, this supreme aim is never doubted, but belief in God and prayer is recommended as a means to increase one's ability to be successful. Just as modern psychiatrists recommend happiness of the employee, in order to be more appealing to the customers, some ministers recommend love of God in order to be more successful. "Make God your partner" means to make God a partner in business, rather than to become one with Him in love, justice and truth. Just as brotherly love has been replaced by impersonal fairness, God has been transformed into a remote General Director of Universe, Inc.; you know that he is there, he runs the show (although it would probably run without him too), you never see him, but you acknowledge his leadership while you are "doing your part."

종교는 인가의 사업 활동을 돕기 위해 자기 암시나 심리 요법과 결합하고 있다. 1920년대까지만 해도 인간은 '인격을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신을 요구 하지는 않았다. 1938년도 베스트 셀러인 데일 카네기의 《어떻게 친구를 얻고 또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는 확실히 세속적인 수단에 머물러 있었다. 당시에 카네기의 책이 지녔던 역할은 오늘날 베스트 셀러인 N. V. 피일 목사 저서인 《적극적 사고(思考)의 위력》이 지니는 역할과 같다. 성공에 대한 우 리의 지배적인 관심이 일신론적인 종교의 관심과 근본적으로 일치하는가 어 떤가에 대한 의문은 피일 저서에서도 제기하지 않고 있다. 그에 반해서 이 지상의 목표가 결코 의심되지는 않지만 신에 대한 믿음과 기도는 성공에 필 요한 각자의 능력을 증가시키는 방법으로서 권유되고 있다. 마치 현대의 정 신과 의사가 고객에게 더 인기를 갈구하기 위해 피고용인의 행복을 권유하 듯. 어떤 성직자들은. 보다더 성공하기 위해 신의 사랑을 권장한다. '신을 당 신의 동반자로 삼아라'는 말은 사랑과 정의와 진리의 면에서 신과 일체가 된 다는 의미보다는 오히려 사업에 있어서의 동반자를 의미하는 것이다. 인류에 가 비인격적인 공명 정대로 변모되었듯이. 신은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라는 주식회사의 총감독으로 변모되고 말았다. 다 알다시피 신은 먼 그곳에 있으 면서 쇼를 주재하고 있지만(비록 신이 없을지라도 쇼가 계속될는지는 모르 나) 우리는 결코 신을 볼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맡은 바를 다하고' 있는 동안은 신의 지도력을 인정할 것이다.

① auto-suggestion/자기 암시

The Practice of Love

HAVING dealt with the theoretical aspect of the art of loving, we now are confronted with a much more difficult problem, that of the practice of the art of loving. Can anything be learned about the practice of an art, except by practicing it?

The difficulty of the problem is enhanced by the fact that most people today, hence many readers of this book, expect to be given prescriptions of "how to do it yourself." and that means in our case to be taught how to love. I am afraid that anyone who approaches this last chapter in this spirit will be gravely disappointed. To love is a personal experience which everyone can only have by and for himself; in fact, there is hardly anybody who has not had this experience in a rudimentary way, at least, as a child, an adolescent, an adult. What the discussion of the practice of love can do is to discuss the premises of the art of loving, the approaches to it as it were, and the practice of these premises and approaches. The steps toward the goal can be practiced only by oneself, and discussion ends before the decisive step is taken. Yet, I believe that the discussion of the approaches may be helpful for the mastery of the art — for those at least who have freed themselves from expecting "prescriptions."

IV.

사랑의 실천

지금까지 사랑의 기술에 대한 관념적인 상황만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우 리는 이에 '사랑의 기술의 실천'이라는 더욱더 어려우 무제에 부디치게 되다. 기술을 행해 보지 않고서는 기술의 실천에 대해 배울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 그러므로 이 책의 많은 독자들도 '어떻게 기 술을 스스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처방을 받게 되리라는 기대를 갖는다는 것 때문에, 게다가 우리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한 다는 사실에 의해 그 문제의 어려움은 더하게 된다. 그런데 그 말의 의미는 우리들의 경우에 있어서 사랑하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마 음으로 이 마지막 장에 접근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라도 대단히 실망하게 되 지 않을까 하여 나는 두렵다. 사랑한다는 것은 누구나 오직 본인 혼자서 겪 어야 하는 개인적인 경험이다. 사실 적어도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어른으로 서 기초적인 방법으로나마 이러한 사랑의 체험을 갖지 못한 사람은 누구도 없을 것이다. 사랑의 실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기술에의 전 제. 과거 그대로의 사랑에의 접근. 또 그러한 전제와 접근책의 실천과 같은 문제들을 의논해 보는 것이다. 목표에 이르는 단계는 본인 혼자서만이 실천 할 수 있다. 더불어 결정적인 조처가 가해지기 전에 토론은 끝나게 된다. 그 러나 내가 생각해 보건대 접근에 대한 토론이 기술의 숙련에 보탬이 되리라 고 본다. 적어도 '처방'을 예상하는 과정을 벗어난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럴 것이다.

① at least/적어도, 하여가

The practice of any art has certain general requirements, quite regardless of whether we deal with the art of carpentry, medicine, or the art of love. First of all. the practice of an art requires discipline. I shall never be good at anything if I do not do it in a disciplined way: anything I do only if "I am in the mood" may be a nice or amusing hobby, but I shall never become a master in that art. But the problem is not only that of discipline in the practice of the particular art (say practicing every day a certain amount of hours) but it is that of discipline in one's whole life. One might think that nothing is easier to learn for modern man than discipline. Does he not spend eight hours a day in a most disiplined way at a job which is strictly routinized? The fact, however, is that modern man has exceedingly little self-discipline outside of the sphere of work. When he does not work, he wants to be lazy, to slouch or, to use a nicer word, to "relax." This very wish for laziness is largely a reaction against the routinization of life. Just because man is forced for eight hours a day to spend his energy for purposes not his own, in ways not his own, but prescribed for him by the rhythm of the work, he rebels and his rebelliousness takes the form of an infantile self-indulgence. In addition, in the battle against authoritarianism he has become distrustful of all discipline, of that enforced by irrational authority, as well as of rational discipline imposed by himself. Without such discipline, however, life

사랑의 실천

우리가 목수의 일이건 의숨이건. 또는 사랑의 기술을 취급하든 않든 개의 치 않고, 기술의 실천에는 어떤 일반적인 요구가 있게 마련이다. 우선 기술의 실천에는 '후련'이 필요하다 내가 어떤 일이든지 후련된 대로 행하지 않는 이상 그 일에는 전혀 익숙할 수가 없을 것이다. '내가 할 마음이 내키는' 때에 만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홍류하거나 즐거운 취미이겠지만 나는 결코 그 기술에 숙달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특별한 기술을 행하는 데 있 어서 훈련의(말하자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실천한다든가 하는) 문제일 뿐 아 니라 그것은 인생 전체에 있어서 훈련의 문제이기도 하다. 현대인에게 있어 서 훈련만큼 습득하기 쉬운 일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할 사람이 있을지도 모 른다. 현대인은 정확하게 틀에 박혀 있는 직장에서 최고로 후려된 방법으로 하루의 여덟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사실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현 대인은 자기 일을 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은 게으르고 빈둥거리고 또 괜찮은 말로는 '편히 쉬고'자 한다. 이와 같은 나태에 관한 소망 자체는 대개 틀에 박 힌 생활에 대한 반박을 볼 수가 있다. 사람은 본인의 방법으로서가 아닌 일 의 흐름에 의해 본인에게 지시된 방법으로 본인의 것이 아닌 목적을 위해 하 루 여덟 시간씩 본인의 에너지를 버리지 않을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반항하고, 그 반항은 유아적 자기 방종(幼兒的自己放縱)의 태도 를 지니게 된다. 이와 더불어 또 권위주의에 맞선 싸움에서 사람은 본인에게 할당된 합리적인 단련은 말할 것도 없고, 불합리한 권위에 의해 강요된 단련 에 이르는 어떠한 훈련도 신뢰하지 않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단련이 없다면,

① first of all/우선, 먼저

becomes shattered, chaotic, and lacks in concentration.

That concentration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mastery of an art is hardly necessary to prove. Anyone who ever tried to learn an art knows this. Yet, even more than self-discipline, concentration is rare in our culture. On the contrary, our culture leads to an unconcentrated and diffused mode of life, hardly paralleled anywhere else. You do many things at once; you read, listen to the radio, talk, smoke, eat, drink. You are the consumer with the open mouth, eager and ready to swallow everything - pictures, liquor, knowledge. This lack of concentration is clearly shown in our difficulty in being alone with ourselves. To sit still, without talking, smoking, reading, drinking, is impossible for most people. They become nervous and fidgety, and must do something with their mouth or their hands. (Smoking is one of the symptoms of this lack of concentration; it occupies hand, mouth, eve and nose.)

A third factor is patience. Again anyone who ever tried to master an art knows that patience is necessary if you want to achieve anything. If one is after quick results, one never learns an art. Yet, for modern man, patience is as difficult to practice as discipline and concentration. Our whole industrial system fosters exactly the opposite: quickness. All our machines are designed for quickness: the car and airplane bring us quickly to our destination—and the quicker the better. The machine which can pro-

인생은 붕괴되고 질서가 없어지고 집중력이 부족해지는 것이다.

'정신 집중'이 기술 습득의 필수 조건이라는 것은 구태여 입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술을 습득하려고 시도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것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단련 이상으로 우리 문화 안에서 정신 집중을 찾기란 회박한 일이다. 이와 반대로 우리 문화는 어느 장소에서도 거의전례를 볼 수 없는, 정신력을 잃어버리고 흐트러진 생활 방식으로 이끌려 가고 있다. 사람들은 많은 일을 동시에 한다. 무엇을 읽고 라디오를 듣고 이야기를 하고 담배를 피우고 먹고 마신다. 사람들은 입을 벌리고, 영화, 음료, 지식 등 무엇이든지 삼키고 싶어하는 열망과 준비가 되어 있는 소비자들이다. 이와 같이 정신을 집중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자기 홀로 있기가 어렵다는 점에 명백히 나타나 있다. 대개의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읽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앉아 있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들은 신경이 과민하게 되고 조바심을 내며 또 입이나 손으로 무엇인가 해야만 된다(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정신 집중 부족의 징후 가운데 하나이다. 담배를 피운다는 것은 손과 입과 눈과 코를 점유한다).

세 번째 요소는 '참을성'이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술을 깨우치려고 시도한 사람이라면 목적을 달성하고 싶을 때 참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재빠른 결말을 얻어 내려는 사람은 결코 어떤 기술도 배우지 못한다. 그런데 현대인에게 참을성은 훈련이나 집중력과 마찬가지로 실천하기 어렵다. 우리의 모든 산업 제도는 상반된 기민성을 조장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기계는 민첩성을 위해 설계되었다. 자동차나 비행기는 우리의 목적지까지 재빠르게 데려다 준다. 더불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똑같은 양의 시간을 반으로 단축

duce the same quantity in half the time is twice as good as the older and slower one. Of course, there are important economic reasons for this. But, as in so many other aspects, human values have become determined by economic values. What is good for machines must be good for man — so goes the logic. Modern man thinks he loses something — time — when he does not do things quickly; yet he does not know what to do with the time he gains — except kill it.

Eventually, a condition of learning any art is a supreme concern with the mastery of the art. If the art is not something of supreme importance, the apprentice will never learn it. He will remain, at best, a good dilettante, but will never become a master. This condition is as necessary for the art of loving as for any other art. It seems, though, as if the proportion between masters and dilettantes is more heavily weighted in favor of the dilettantes in the art of loving than is the case with other arts.

One more point must be made with regard to the general conditions of learning an art. One does not begin to learn an art directly, but indirectly, as it were. One must learn a great number of other — and often seemingly disconnected things — before one starts with the art itself. An apprentice in carpentry begins by learning how to plane wood; an apprentice in the art of piano playing begins by practicing scales; an apprentice in the Zen art of archery begins by doing breathing exercises. If one wants to

사랑의 실천

시켜 만들어 내는 기계가 더 오래되고 느린 기계에 비해 두 배나 낫다. 물론 거기에는 중대한 경제적인 까닭이 있다. 그렇지만 다른 상황들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가치는 경제적 평가에 의해 단정 짓게 되었다. 기계에 유익한 것은 인간에게도 유익해야 한다는 식으로 논리는 전개된다. 현대인이무슨 일들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할 때에는 무엇인가를, 즉 시간을 잃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현대인은 자기가 번 시간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른다. 다만 시간을 허비할 줄밖에 모른다.

끝으로 어떤 기술을 배우는 조건은 기술 터득에 대한 '최고의 관심'이다. 만일 기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견습공(見習工)은 그 기술을 배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기껏해야 전문가가 아닌 좋은 애호가로서 서게 될 것이다. 이 상황은 어떤 다른 기술과 마찬가지로 사랑의 기술에 필요한 조건 이다. 단지 전문가와 애호가 사이의 조화가 사랑의 기술에 있어서는 다른 경 우에 있어서보다 애호가 쪽으로 유리하게 된다는 생각이 든다.

기술을 습득하는 데 있어 고려해 볼 만한 대체적인 경우들에 관해 하나만 시사하겠다. 사람은 직접적으로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배우기 시작한다. 기술을 배우기 시작하기 전에 사람들은 대단히 많은 다른 것들—가끔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 등—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목수일을 배우는 견습공은 대패질 하는 것부터 시작하며, 피아노 연주를 배우는 자는 음계(音階) 연습부터 시작하며, 활쏘기의 선적(禪的) 기술을 배우는 자는 호흡하는 연습부터 시작한다. 만일 어떠한 기술의 전문가가 되기

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大学

① kill it (time)/소일하다, 심심풀이로 시간을 보내다 ② at (the) best/잘해야, 기 쩟, 최상의 경우라도 ③ regard to/~을 고려하다

become a master in any art, one's whole life must be devoted to it, or at least related to it. One's own person becomes an instrument in the practice of the art, and must be kept fit, according to the specific functions it has to fulfill. With regard to the art of loving, this means that anyone who aspires to become a master in this art must begin by practicing discipline, concentration and patience throughout every phase of his life.

How does one practice discipline? Our grandfathers would have been much better equipped to answer this question. Their recommendation was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not to indulge in unnecessary luxuries, to work hard. This type of discipline had obvious shortcomings. It was rigid and authoritarian, was centered around the virtues of frugality and saving, and in many ways was hostile to life. But in a reaction to this kind of discipline,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tendency to be suspicious of any discipline, and to make undisciplined, lazy indulgence in the rest of one's life the counterpart and balance for the routinized way of life imposed on us during the eight hours of work. To get up at a regular hour, to devote a regular amount of time during the day to activities such as meditating, reading, listening to music, walking; not to indulge, at least not beyond a certain

¹ For a picture of the concentration, discipline, patience and concern necessary for the learning of an art, I want to refer the reader to Zen in the Art of Archery, by E. Herrigel, Pantheon Books, Inc., New York, 1953.

사랑의 실천

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전 생애가 거기에 맡겨지거나, 또는 적 어도 그것과 관계가 맺어진다. 그 사람 자신의 인격은 기술 훈련의 도구가 되며, 또 기술이 완수해야 할 독특한 작용에 따라서 인격은 알맞은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사랑의 기술을 관찰해 본다면, 의미는 이 기술 분야의 전문가 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모든 방면을 통해 훈련, 정신 집중, 참을성 을 '실천하는 일'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어떻게 훈련을 하는가? 우리의 조상들은 이 물음에 대답할 수 있는 것을 훨씬 더 잘 갖추고 있었을 것이다. 조상들의 충고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필요 없는 쾌락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형태의 훈련에는 뚜렷한 단점이 있었다. 그것은 엄격하고 권위주의적인 절약과 저축이라는 미덕에 집중되어 있었고, 또 많은 방법에서 인생에 적의를 지니게 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에 대한 반발로 '어떠한' 훈련이라고 의심을 해보고 훈련받지 않은 채 일생을 편안히 즐기는 것으로, 여덟 시간 일을 하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지는 틀에 박힌 생활 방법과 비교되고 대조되는 것으로, 균형을 잡으려는 추세가 확대되어 왔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는 것, 하루 중일정량의 시간을 명상, 독서, 음악 감상, 산책 같은 행위에 할애하는 것, 탐정 1. 어떤 기술의 습득에 필요한 정신 집중, 훈련, 인내, 관심에 대해 확실히 알려고하면 나는 다음과 같은 책을 권하겠다. E. Herrigel, Zen in the Art of Archery

を見るなるないないないないないないないないないない。

(Pantheon Books, Inc., New York, 1953)

① according to/~에 따라. ~에 의하여

minimum, in escapist activities like mystery stroies and movies, not to overeat or overdrink are some obvious and rudimentary rules. It is essential, however, that discipline should not be practiced like a rule imposed on oneself from the outside, but that it becomes an expression of one's own will; that it is felt as pleasant, and that one slowly accustoms oneself to a kind of behavior which one would eventually miss, if one stopped practicing it. It is one of the unfortunate aspects of our Western concept of discipline (as of every virtue) that its practice is supposed to be somewhat painful and only if it is painful can it be "good." The East has recognized long ago that that which is good for man — for his body and for his soul — must also be agreeable, even though at the beginning some resistances must be overcome.

Concentration is by far more difficult to practice in our culture, in which everything seems to act against the ability to concentrate. The most important step in learning concentration is to learn to be alone with oneself without reading, listening to the radio, smoking or drinking. Indeed, to be able to concentrate means to be able to be alone with oneself — and this ability is precisely a condition for the ability to love. If I am attached to another person because I cannot stand on my own feet, he or she may be a lifesaver, but the relationship is not one of love. Paradoxically, the ability to be alone is the condition for the ability to love. Anyone who tries to be alone

소설과 영화 같은 도피주의적인 행위는 최소한도로 즐긴다는 것, 과식하거나 과음하지 않는 것 등은 뚜렷하고 기본적인 규칙이다. 그러나 훈련이 외부로 부터 자신에게 부과된 규칙처럼 실천되어서는 안 되고 자기 자신의 의지의 표출이어야 한다는 것, 다시 말하면 훈련을 즐겁게 생각하고 훈련을 그만두면 결국 실패하게 될 행동에 천천히 익숙해지는 것이 본질적인 일이다. 어쨌든 훈련은 고통스러운 것으로 가정하고 고통스러운 훈련만이 '좋은'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훈련에 대한 서구식 관념(모든 미덕에 있어서도)의 불행한면 중의 하나이다. 사람에게 유익한 것—그의 몸과 그의 정신을 위해서—은 시작할 때는 약간의 저항을 이겨야 하는 일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역시 유쾌한 것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동양에서는 오래 전에 인식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집중하는 능력과 역행하는 것같이 보이는 서구 문화에서 집중 력을 실천한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다. 집중하는 것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독서하거나 라디오를 듣거나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지 않고 홀로 있는 것을 터득하는 것이다. 실제로 집중하는 것은 자신이 홀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능력은 명백히 말해서 사랑하는 능력을 위한 전제가 된다. 만일 내가 내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애착을 느낀다면, 남자이든 여자이든 생명의 은인은 될지 모르지만 사랑의 관계는 아니다. 이치에 닿지 않지만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을 하기 위한 능력의 조건이 된다. 누구든지 자기가 혼자 있어 보

① be attached to/~에 애착을 느끼다. ~에 부속하다

with himself will discover how difficult it is. He will begin to feel restless, fidgety, or even to sense considerable anxiety. He will be prone to rationalize his unwillingness to go on with this practice by thinking that it has no value. is just silly, that it takes too much time, and so on, and so on. He will also observe that all sorts of thoughts come to his mind which take possession of him. He will find himself thinking about his plans for later in the day, or about some difficulty in a job he has to do, or where to go in the evening, or about any number of things that will fill his mind - rather than permitting it to empty itself. It would be helpful to practice a few very simple exercises, as, for instance, to sit in a relaxed position (neither slouching, nor rigid), to close one's eyes, and to try to see a white screen in front of one's eyes, and to try to remove all interfering pictures and thoughts, then to try to follow one's breathing; not to think about it, nor force it, but to follow it - and in doing so to sense it; furthermore to try to have a sense of "I"; I = myself. as the center of my powers, as the creator of my world. One should, at least, do such a concentration exercise every morning for twenty minutes (and if possible longer) and every evening before going to bed.2

Besides such exercises, one must learn to be concentrated in everything one does, in listening to music, in reading a book, in talking to a person, in seeing a view. The activity at this very moment must be the only thing

려고 시도해 본 사람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발견하게 될 것 이다. 침착성을 잃어 가기 시작하거나 초조 또는 삿당한 불안감을 느끼기 시 작할 것이다. 그는 이러한 실행을 더 이상 계속해 갈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 는 의사를, 그것은 가치가 없는 일이며, 단지 지각 없는 일일 뿐이며,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따위로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그는 또한 자 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온갖 생각이 떠오른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그날 나중에 해야 할 자기의 계획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는 자기가 해 야만 할 일의 어떤 어려움에 관해서, 저녁에 어디를 갈까라든지, 자기의 마음 을 메이게 할 것 같은 많은 삶들에 관한 것이라든지,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이 무의미하게 되도록 묵인하지는 않을 것이다. 몇 가지 용이한 연습을 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테면 편한 자세로 앉아 있다든가(몸을 굽 힌 것도 아니고 경직된 것도 아닌) 눈을 감고 있다든가, 눈앞을 지나치는 하 얀 영사막을 보려고 한다든가. 모든 귀찮은 장면과 생각들을 벗어 버린다든 가, 그리고 나서 심호흡을 시도해 본다든가 하는 행위들이다. 호흡에 관하여 생각하지 않는다든가, 호흡을 강요하지 않는다든가, 그러한 귀결로써 그것을 지각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서 '나'를 지각하려고 시도해 보 는 행위, 나, 즉 나 자신을 내 능력의 중심으로 나의 세계의 창조자로 느끼 는 것도 보탬이 될 것이다. 적어도 그러한 집중 연습은 매일 아침 20분 동안 (가능하면 오랫동안), 그리고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연습 외에도 음악 감상, 독서, 사람과의 대화, 경치 구경 등 자기가 실행하는 모든 일에 집중하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바로 이 시기에

其事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

① and so on=and what not/등통, 따위 ② sort of/다소, 약간, 말하자면 ③ go to bed/자러 가다

that matters, to which one is fully given. If one is concentrated, it matters little what one is doing; the important, as well as the unimportant things assume a new dimension of reality, because they have one's full attention. To learn concentration requires avoiding, as far as possible, trivial conversation, that is, conversation which is not genuine. If two people talk about the growth of a tree they both know, or about the taste of bread they have just eaten together, or about a common experience in their job, such conversation can be relevant, provided they experience what they are talking about, and do not deal with it in an abstractified way; on the other hand a conversation can deal with matters of politics or religion and vet be trivial; this happens when the two people talk in clichés, when their hearts are not in what they are saving. I should add here that just as it is important to avoid trivial conversation, it is important to avoid bad company. By bad company I do not refer only to people who are vicious and destructive; one should avoid their company because their orbit is poisonous and depressing. I mean also the company of zombies, of people whose soul is dead, although their body is alive; of people whose

²While there is a considerable amount of theory and practice on this point in the Eastern, especially the Indian cultures, similar aims have been followed in recent years also in the West. The most significant, in my opinion, is the school of Gindler, the aim of which is the sensing of one's body.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Gindler method, cf. also Charlotte Selver's work, in her lectures and courses at the New School, in New York.

해해야 하는 행동이 준대하며, 자신을 완전히 내맡기는 유일한 일이어야 한 다. 집중만 하고 있는다면 자신이 하는 일이 '무엇'이가 하는 것은 거의 문제 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은 일뿐 아니라 중요한 일도 우리들의 충분한 주목 을 받게 되기 때문에 새로운 차워의 현실성을 갖게 된다. 집중력을 배우려면 가능한 한 쓸데없는 대화, 말하자면 진지하지 않은 대화는 피해야 한다. 두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 어떠한 나무의 성장, 그들이 이제 방금 먹어 본 빵의 맛, 또는 그들의 일에 있어서 공통되는 경험에 관하여 이야기를 할 경우, 그 들이 말하고 있는 대화의 대상을 체험해서 알거나 추상적인 방법으로 다루 지 않는 한, 그러한 대화는 적당한 대화가 될 수 있다. 그 반면에 어떤 대화 는 정치나 종교의 문제를 말하면서도 필요 없는 대화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은 두 사람이 상투적인 말을 할 때나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에 가지 않을 때이다. 여기에 부가한다면 쓸데없는 대화를 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과 같이 불량한 친구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다. 불량한 친구란 처신이 나쁜 몹시 해로운 사람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들과의 만남을 피해야 하는 까닭은 그들의 생활이 불쾌하기 이를 데 없으며 의기 소침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불량한 친구란 또 바보 같은 일 햇을 의미한다 그들의 몸은 활동하고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고, 사고 2. 동양, 특히 인도의 문화에 있어서는 이 점에 대한 상당한 이론과 실례가 있으나 서양에서는 최근에 동일한 목표가 추구되고 있다. 내 의견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Gindler 학파이고 이 학파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이해하는 것이다. Gindler의

방법을 이해하려면, Charlotte Selver의 업적, 뉴욕의 뉴 스쿨에서의 그녀의 강연과

강의를 참조함 것.

① as well as/~와 마찬가지로, ~뿐만 아니라, 아울러 ② as far as/~까지는, ~한에서는 ③ on the other hand/그 반면에

thoughts and conversation are trivial; who chatter instead of talk, and who assert cliche opinions instead of thinking. However, it is not always possible to avoid the company of such people, nor even necessary. If one does not react in the expected way — that is, in clichés and trivialities — but directly and humanly, one will often find that such people change their behavior, often helped by the surprise effected by the shock of the unexpected.

To be concentrated in relation to others means primarily to be able to listen. Most people listen to others, or even give advice, without really listening. They do not take the other person's talk seriously, they do not take their own answers seriously either. As a result, the talk makes them tired. They are under the illusion that they would be even more tired if they listened with concentration. But the opposite is true. Any activity, if done in a concentrated fashion, makes one more awake (although afterward natural and beneficial tiredness sets in), while every unconcentrated activity makes one sleepy—while at the same time it makes it difficult to fall asleep at the end of the day.

To be concentrated means to live fully in the present, in the here and now, and not to think of the next thing to be done, while I am doing something right now. Needless to say that concentration must be practiced most of all by people who love each other. They must learn to be close to each other without running away in the many ways in 나 대화가 쓸데없거나 말하는 것 대신에 지껄이거나 생각한 것 대신에 상투적인 의견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피한다는 것이 항상 가능한 일이 아니며, 또 꼭 그럴 필요도 없다. 만일 누가얘기한 대로 상투적인 말과 평범한 말로 나오지 않고 노골적으로 인간답게 나온다고 하면, 예기치 않은 태도가 주는 충격 때문에 생긴 놀라움에 의하여자극받는 일이 종종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를 고치는 일이흔히 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진심으로 경청하지 않고 남의 말을 듣는 체하거나 또는 충고까지 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들 자신의 대답조차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대화라는 것은 그들을 지치게 만든다. 그들은 정신을 집중시키고 듣는다면 한층 더 지칠 것이라는 환상에 젖어 있다. 그러나 사실은 정반대이다. 정신을 집중시킨 상태에서 행한다면 모든 행동은 훨씬 잘 깨우치게 되지만 (나중에 자연스럽고 유익한 피로감이 일어나지만), 집중하지 않은 모든 행동은 졸립게 만들며 동시에 하루가 끝난 후에 잠드는 것도 힘들게 만든다.

집중을 한다는 것은 현재와 지금에 충실히 사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어떤 일을 하는 동안 다음에 일어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집중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가장 많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관례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많은 방법으로 도

① instead of/~의 대신으로, ~하지 않고 ② be able to/~할 수 있다 ③ set in/일 어나다, 비롯하다, 정해지다, 굳어지다 ④ at the same time/동시에, 그렇지만

which this is customarily done. The beginning of the practice of concentration will be difficult; it will appear as if one could never achieve the aim. That this implies the necessity to have patience need hardly be said. If one does not know that everything has its time, and wants to force things, then indeed one will never succeed in becoming concentrated — nor in the art of loving. To have an idea of what patience is one need only watch a child learning to walk. It falls, falls again, and falls again, and yet it goes on trying, improving, until one day it walks without falling. What could the grown-up person achieve if he had the child's patience and its concentration in the pursuits which are important to him!

One cannot learn to concentrate without becoming sensitive to oneself. What does this mean? Should one think about oneself all the time, "analyze" oneself, or what? If we were to talk about being sensitive to a machine, there would be little difficulty in explaining what is meant. Anybody, for instance, who drives a car is sensitive to it. Even a small, unaccustomed noise is noticed, and so is a small change in the pickup of the motor. In the same way, the driver is sensitive to changes in the road surface, to movements of the cars before and behind him. Yet, he is not thinking about all these factors; his mind is in a state of relaxed alertness, open to all relevant changes in the situation on which he is concentrated — that of driving his car safely.

피하지 말고 서로 어쩔 수 없이 밀접해지는 것을 배워야만 한다. 집중의 실행은 시작이 어려울 것이다. 마치 목적을 전혀 성취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것은 참율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임은 이야기할 필요가 거의 없을 것이다. 만일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억지로 떠밀고 나간다면, 정신 집중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사랑의 기술도 그러할 것이다. 참율성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린아이의 걸음마를 배우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지나 계속 시도해 향상을 거듭하다가 넘어지지 않고 걷게 된다. 만일 어른이 자신의 중대한 일에 어린아이처럼 인내와 집중을 추구한다면, 무엇이든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누구나 '자신에게 민감하지' 않고는 정신 집중을 배우지 못한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내내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신을 '분석하는' 등의 일을 해야만 한다는 말인가? 기계에 민감하다는 것에 관해 말할라치면, 그 의미를 설명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차를 모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에 민감하게 마련이다. 작고 귀에 익숙하지 않은 소음이라도 눈치채며, 모터의 가속 성능에 조그만 변화가 와도 알아차린다. 이와 마찬가지로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 표면에서 일어나는 변화와 자기 앞뒤의 차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민감하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이러한 요인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느긋하면서도 방심치 않는 상태에 있으며, 자기가 정신을 집중시키고 있는 자기 차의 안전 운행이라는 상황과 관련된 모든 변화에 쉽게 적용하다.

If we look at the situation of being sensitive to another human being, we find the most obvious example in the sensitiveness and responsiveness of a mother to her baby. She notices certain bodily changes, demands, anxieties, before they are overtly expressed. She wakes up because of her child's crying, where another and much louder sound would not waken her. All this means that she is sensitive to the manifestations of the child's life; she is not anxious or worried, but in a state of alert equilibrium, receptive to any significant communication coming from the child. In the same way one can be sensitive toward oneself. One is aware, for instance, of a sense of tiredness or depression, and instead of giving in to it and supporting it by depressive thoughts which are always at hand. one asks oneself "what happened?" Why am I depressed? The same is done by noticing when one is irritated or angry. or tending to daydreaming, or other escape activities. In each of these instances the important thing is to be aware of them, and not to rationalize them in the thousand and one ways in which this can be done; furthermore, to be open to our own inner voice, which will tell us - often rather immediately — why we are anxious, depressed, irritated.

The average person has a sensitivity toward his bodily processes; he notices changes, or even small amounts of pain; this kind of bodily sensitivity is relatively easy to experience because most persons have an image of how it

다른 사람에게서 예민하다는 것을 찾아본다면, 우리는 가장 명확한 예를 어머니의 아이에 대한 예민성과 재빠른 반응성에서 발견하게 된다. 어머니는 신체적 변화, 요구와 근심이 겉으로 나타나기도 전에 알아차린다. 어머니는 다른 훨씬 큰 소리가 나도 깨지 않으면서 아이의 울음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게 된다. 이와 같은 것은 모두 어머니가 아이의 생명의 표현에 예민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어머니가 근심스러워하거나 애태우는 것이 아니라, 방심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에서, 이들에게서 나오는 의미가 있는 전달이라면 무엇이든 지 받아들일 수 있는 빈틈 없는 균형 상태를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어 떤 사람은 자기 자신에 관하여 예민할 수 있다. 말하자면 피로나 의기 소침 을 느끼고 나서 그런 기분에 움추리거나 언제나 또 가까이에 있는 우울한 생 각들로 기분을 지속시키는 대신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나?'라고 자문해 본 다. 왜 나는 우울한가? 안달이 나거나 화가 날 때, 또 공상이나 다른, 도피적 인 행위의 경향이 있을 때도 알아채고 자문을 해보는 것이다. 이 경우 중요 한 것은, 그러한 여건을 알아채는 것이며, 그렇게 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으 로 그러한 여건을 합리화시키지 않는 것이다. 더군다나 우리가 왜 근심스러 워하고 우울하고 안달스러워하는지의 이유를, 조속하게가 아니라 가끔, 우리 에게 말해 줄 우리 자신의 내적인 소리를 활짝 열어 놓고 들을 줄 아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보통 사람은 자기의 변화에 대하여 예민하다. 변화가 있거나 약간의 아픔의 요소가 있어도 주목하게 된다. 이와 같이 몸에 대한 예민성은 위험하기가 비교적 쉽다. 왜냐하면 몸의 상태가 좋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대부분의 사

① at hand/손 가까이에, 가까운 장래에 ② be relatively to/~에 비례하다

feels to be well. The same sensitivity toward one's mental processes is much more difficult, because many people have never known a person who functions optimally. They take the psychic functioning of their parents and relatives, or of the social group they have been born into. as the norm, and as long as they do not differ from these they feel normal and without interest in observing anything. There are many people, for instance, who have never seen a loving person, or a person with integrity, or courage, or concentration. It is quite obvious that in order to be sensitive to oneself, one has to have an image of complete, healthy human functioning - and how is one to acquire such an experience if one has not had it in one's own childhood, or later in life? There is certainly no simple answer to this question; but the question points to one very critical factor in our educational system.

While we teach knowledge, we are losing that teaching which is the most important one for human development: the teaching which can only be given by the simple presence of a mature, loving person. In previous epochs of our own culture, or in China and India, the man most highly valued was the person with outstanding spiritual qualities. Even the teacher was not only, or even primarily, a source of information, but his function was to convey certain human attitudes. In contemporary capitalistic society — and the same holds true for Russian Communism — the men suggested for admiration and emulation are

람들이 알아채고 있기 때문이다. 정신 상태에 대한 예민성은 체험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누가 가장 바람직한 정신적 활동을 하고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모나 친척 또는 그들이 출생했던 사회 단체의 정신 작용을 표준이라 여긴다. 또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는 한, 그들은 정상이라 느끼고 그 밖에 다른 기능을 살펴보는 것에는 별로 흥미를 갖지 못한다. 예를 들자면 사랑하는 사람, 근면하고 용기가 있고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을 결코 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 자기 자신에게 예민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완전하고 건강한 사람의 기능의 전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다. 그럼 어린 시절이나 유년 후에 그런 전형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간결한 응답은 없지만 그 질문이 우리 교육 제도의 매우 비평적인 요소를 알려 주고 있다.

우리는 지식을 가르치지만, 인간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 즉 성숙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주어질 수 있는 충분한 가르침을 상실하고 있다. 우리 문화 이전의 시대에는, 또는 중국이나 인도에서는 가장 높이 평가받은 사람은 뛰어난 정신적 자질을 지닌 사람이었다. 비록 선생이 근본적으로는 지식의 원천이었지만, 어떤 인간적 태도를 전해 주는 것이 그의 임무였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 이것은 러시아 공산주의에도 적용되는 경우이지만 — 찬사와 본받기 위한 경쟁의 대상으로 제시되는 사람

① in order to/~하기 위해서 ② have an image of/~을 상상하다, ~을 그려 보다

everything but bearers of significant spiritual qualities. Those are essentially in the public eve who give the average man a sense of vicarious satisfaction. Movie stars, radio entertainers, columnists, important business or government figures — these are the models for emulation. Their main qualification for this function is often that they have succeeded in making the news. Yet, the situation does not seem to be altogether hopeless. If one considers the fact that a man like Albert Schweitzer could become famous in the United States, if one visualizes the many possibilities to make our youth familiar with living and historical personalities who show what human beings can achieve as human beings, and not as entertainers (in the broad sense of the word), if one thinks of the great works of literature and art of all ages, there seems to be a chance of cerating a vision of good human functioning, and hence of sensitivity of malfunctioning. If we should not succeed in keeping alive a vision of mature life, then indeed we are confronted with the probability that our whole cultural tradition will break down. This tradition is not primarily based on the transmission of certain kinds of knowledge, but of certain kinds of human traits. If the coming generations will not see these traits any more, a five-thousand-year-old culture will break down, even if its knowledge is transmitted and further developed.

Thus far I have discussed what is needed for the practice of any art. Now I shall discuss those qualities which

들에게 중요한 정신적 자질을 갖춘 사람들만이 제외되고 있다. 일반 대중의 누으로 볼 때 그러한 차사와 흑모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워래 보통 사람들 에게 대리 만족감을 주는 사람들이다. 영화배우, 라디오 연예인, 컬럼니스트, 중요한 사업가 및 정부 고관들이 경쟁의 대상이 되는 전형적 인물들이다. 이 러한 기능을 갖게 된 그들의 중요한 자격은 뉴스거리를 종종 만든다는 사실 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아주 절망적으로 보이는 것 같지는 않다. 만일 알버트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 미국에서 유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든지, 인간이 연예인(넓은 의미에 있어서의)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 서 무엇을 이룰 수 있는가를 보여 주는 생존해 있는 명사나 역사적 인물들과 우리의 젊은이들이 친밀해질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마음속에 그 려 본다든지. 또는 모든 시대의 위대한 문학 작품과 예술 작품을 생각해 본 다든지 하면, 훌륭한 인간의 기능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내고 인간의 기능 부전(機能不全)에 대한 비전을 만들어 낼 기회는 남아 있는 것 같다. 만일 우 리가 원숙한 생활에 대한 비전을 살려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든 문화의 전통이 무너질 가망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전통은 근본적 으로 어떤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특성의 전달에 바탕을 둔 것 이다. 만일 다음 세대들이 이러한 특성을 앞으로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한다면, 비록 그 지식이 전달되어 더욱 발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5천 년의 문화는 파괴되고 말 것이다.

지금까지 나는 '어떤' 기술을 실행하는 데 어떠한 것이 필요한가를 논의해 왔다. 이제부터는 사랑하는 능력에 특히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특성에 대해

① in the public eye/일반인이 볼 때 ② keep alive/살아 있다, 끊이지 않게 하다

are of specific significance for the ability to love. According to what I said about the nature of love, the main condition for the achievement of love is the overcoming of one's narcissism. The narcissistic orientation is one in which one experiences as real only that which exists within oneself, while the phenomena in the outside world have no reality in themselves, but are experienced only from the viewpoint of their being useful or dangerous to one. The opposite pole to narcissism is objectivity; it is the faculty to see people and things as they are, objectively, and to be able to separate this objective picture from a picture which is formed by one's desires and fears. All forms of psychosis show the inability to be objective, to an extreme degree. For the insane person the only reality that exists is that within him, that of his fears and desires. He sees the world outside as symbols of his inner world, as his creation. All of us do the same when we dream. In the dream we produce events, we stage dramas, which are the expression of our wishes and fears (although sometimes also of our insights and judgment), and while we are asleep we are convinced that the product of our dreams is as real as the reality which we perceive in our waking state.

The insane person or the dreamer fails completely in having an objective view of the world outside; but all of us are more or less insane, or more or less asleep; all of us have an unobjective view of the world, one which is

거론해 보겠다. 사랑의 본질에 대해 내가 이야기한 바에 의하면, 사랑을 이루 는 중대한 상황은 자신의 '자기 도취'를 '이기는' 일이다. 자기 도취의 성향이 란 자기 내부에 존재하는 것만을 실재하는 것으로 체험하는 것인데, 외부 세 계에 있는 현상들은 그들 스스로가 실재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 현상 들이 자기에게 유용한가, 위험한가라는 견해에서만 체험된다. 자기 도취에 대한 반대되는 극은 객관성(客觀性)이다. 객관성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 들을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재주이며, 이러한 '객관적인' 사실 을 자기의 욕심이나 두려움에 의해 형성되는 모습과 선별할 중 아는 재주름 말한다. 정신 이상의 모든 형태는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무력함을 극한적으로 나타낸다. 제정신이 아닌 사람에게 유일한 실재는 자기 내부에 있는 두려움 과 욕망뿐이다. 그에게는 세상이 자기 내부 세계의 상징으로 보이며 그의 창 조처럼 보인다. 우리도 꿈꿀 때에는 모두 똑같다. 꿈속에서 우리는 사건을 만 들어 내고 우리의 소망과 두려움의 표현인(때로는 우리의 통찰력과 분별력 의 표현일 때도 있지만) 연극의 무대를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잠들고 있는 동안 우리는 꿈의 결과가 깨어 있을 때 감지하는 실재와 다름없는 현실이라 고 수긍한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나 꿈꾸는 사람은 '전적으로' 외부 세계를 객관적으로 관찰하지 못한다. 그러나 우리는 다소는 정신 이상이거나 얼마간은 잠자고 있는 상황에 있다. 우리는 모두 자기 도취의 경향에 의해서 편견의 세계

① more or less/다소, 얼마간의, 대개

distorted by our narcissistic orientation. Do I need to give examples? Anyone can find them easily by watching himself, his neighbors, and by reading the newspapers. They vary in the degree of the narcissistic distortion of reality. A woman, for instance, calls up the doctor, saying she wants to come to his office that same afternoon. The doctor answers that he is not free this same afternoon, but that he can see her the next day. Her answer is: But, doctor, I live only five minutes from your office. She cannot understand his explanation that it does not save him time that for her the distance is so short. She experiences the situation narcissistically: since she saves time, he saves time; the only reality to her is she herself.

Less extreme — or perhaps only less obvious — are the distortions which are commonplace in interpersonal relations. How many parents experience the child's reactions in terms of his being obedient, of giving them pleasure, of being a credit to them, and so forth, instead of perceiving or even being interested in what the child feels for and by himself? How many husbands have a picture of their wives as being domineering, because their own attachment to mother makes them interpret any demand as a restriction of their freedom? How many wives think their husbands are ineffective or stupid, because they do not live up to a phantasy picture of a shining knight which they might have built up as children?

The lack of objectivity, as far as foreign nations are con-

를 객관적이지 못한 눈으로 보고 있다. 필요하다면 예를 들겠다. 자기 자신이나 이웃을 살피거나 신문을 읽어 보면 쉽게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자기 도취적 현실 왜곡(現實歪曲)은 정도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면 어느 부인이 의사에게 전화해 그날 오후에 병원에 들르겠다고 말했다 하자. 의사는 오후에 한가하지 않으니 다음날 와달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 병원에서 5분밖에 안 걸리는 곳에 사는데요'라고 대답한다. 그녀는 자기에게 거리가 짧다는 것이 '그'의 시간을 절약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의사의 해석을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부인은 그 경우를 자기 도취로 경험하는 것이다. 즉, '그녀'가 시간을 벌므로 '그'도 시간을 번다는 식이다. 그녀에게 유일한 실재는 그녀 자신뿐이다.

대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편견은 그렇게 과격한 것도 아니며, 또 그렇게 명확한 것도 아니다. 어린아이가 혼자서 자기를 위해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알아채지도 못하거나 그런 데에 관심조차 표명하지 않으면서, 아이가 순 응하고 즐거움을 주고 명예가 된다는 관점에서 아이의 반응을 체험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어머니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 어떠한 요구도 해오는 아내들을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아내를 건방지다고 상상하는 남편들이 과연 얼마나 많은가? 어린 시절에 쌓아 놓았을는지도 모르는 빛나는 기사(騎士)상에 꼭 맞는 환상적인 상을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고 해서, 남편을 무력하고 변변치 못하다고 생각하는 아내들이 얼마나 많은가?

다른 나라들에 관한 한, 객관성의 결여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날이 갈

① in terms of/~의 말로, ~에 특유한 말로 ② and so forth/~등, 운운 ③ build up/확립하다, 단련하다 ④ lack of/~의 부족 때문에

cerned, is notorious. From one day to another, another nation is made out to be utterly depraved and fiendish, while one's own nation stands for everything that is good and noble. Every action of the enemy is judged by one standard — every action of oneself by another. Even good deeds by the enemy are considered a sign of particular devilishness, meant to deceive us and the world, while our bad deeds are necessary and justified by our noble goals which they serve. Indeed, if one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s, as well as between individuals, one comes to the conclusion that objectivity is the exception, and a greater or lesser degree of narcissistic distortion is the rule.

The faculty to think objectively is reason; the emotional attitude behind reson is that of humility. To be objective, to use one's reason, is possible only if one has achieved an attitude of humility, if one has emerged from the dreams of omniscience and omnipotence which one has as a child.

In terms of this discussion of the practice of the art of loving, this means: love being dependent on the relative absence of narcissism, it requires the development of humility, objectivity and reason. One's whole life must be devoted to this aim. Humility and objectivity are indivisible, just as love is. I cannot be truly objective about my family if I cannot be objective about the stranger, and vice versa. If I want to learn the art of loving, I must strive for objectivity in every situation, and become sensitive

사랑의 실천

수록 자기 나라는 무엇이나 선하고 고귀한 것을 상징하는 반면, 다른 나라는 극히 퇴폐적이며 흉악하다고 생각한다. 적의 모든 행위는 한 가지 기준에 의하여 판단되며, 자신의 모든 행위는 다른 기준에 의하여 판단을 받는다. 적의 행위는 선한 것이라 하더라도 각별히 극악 무도한 행위의 신호로 간주되고, 우리와 세계를 기만하는 것으로 풀이되는 반면, 우리의 행위는 비록 악한 것이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것이며, 우리의 고귀한 목표에 이바지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된다. 개인과 개인 사이는 물론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를 검토해 본다면, 실제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다. 즉, 객관성은 예외라는 것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기 도취적 왜곡이 규칙이 된다는 사실이다.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은 '이성'이다. 이성 배후에 있는 감정 태도는 '겸손'한태도이다. 객관적 태도를 유지하며 이성을 활용한다는 것은, 겸손의 태도를 달성한 경우에나 누구나 어렸을 때 꾸게 되는 전지 전능의 꿈의세계에서 탈피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능해질 수 있는 일이다.

사랑의 기술을 실행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점에서 보면 그 말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된다. 사랑은 자기 도취의 상대적 부족에 의존되는 것이니까, 사랑은 겸손, 객관성, 이성의 발전을 요구한다는 의미가 된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위해 전 생애를 바쳐야 한다. 겸손과 객관성은 사랑이 그렇듯이 별개가될 수 없다. 내가 이방인(異邦人)에게 객관적일 수 없는 한, 진실로 내 가족에게도 객관적이지 못하며, 그 역(逆)도 성립된다. 만일 내가 사랑의 기술을 배우고자 한다면, 나는 모든 경우에 있어서 객관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내

① stand for/~을 나타내다, 대표하다

to the situations where I am not objective. I must try to see the difference between my picture of a person and his behavior, as it is narcissistically distorted, and the person's reality as it exists regardless of my interests, needs and fears. To have acquired the capacity for objectivity and reason is half the road to achieving the art of loving, but it must be acquired with regard to everybody with whom one comes in contact. If someone would want to reserve his objectivity for the loved person, and think he can dispense with it in his relationship to the rest of the world, he will soon discover that he fails both here and there.

The ability to love depends on one's capacity to emerge from narcissism, and from the incestuous fixation to mother and clan; it depends on our capacity to grow, to develop a productive orientation in our relationship toward the world and ourselves. This process of emergence, of birth, of waking up, requires one quality as a necessary condition: faith. The practice of the art of loving requires the practice of faith.

What is faith? Is faith necessarily a matter of belief in God, or in religious doctrines? Is faith by necessity in contrast to, or divorced from, reason and rational thinking? Even to begin to understand the problem of faith one must differentiate between rational and irrational faith. By irrational faith I understand the belief (in a person or an idea) which is based on one's submission to irrational

가 객관성을 잃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예민해져야 한다. 어떤 사람과 그의 처신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도취에 의해 편견된 그대로의 심상과 '나의' 호기심과 필요, 두려움과는 관계없이 현존하는 그대로의 그 사람의 실 재 사이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시도해야 한다. 객관성과 이성의 능력을 달성했다면 그것은 사랑의 기술을 절반은 이룩한 셈이다. 그러나 그 기능은 반드시 자기가 교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객관성을 보유하고 싶어하면서도 그 이외의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객관성이 소용없다고 생 각한다면, 그 사람은 양쪽 다 실패하고 만다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랑의 역량은 자기 도취에서 또 어머니와 친척에 대한 근친 상간적(近親相姦的) 집념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 있다. 말하자면, 사랑의 능력은 세상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에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자라고 발전해 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의존된다. 이러한 탈피, 탄생, 깨달음의 과정에서 필수 조건으로서 한 가지 특색이 요구되는데, 그것이 '믿음'이다. 사랑의 기술의 실천은 믿음의 실천을 필요로 한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필수적으로 신이나 또 종교적인 교리를 믿는 믿음의 문제인가? 믿음이란 반드시 이성이나 지각 있는 사고와 대비되거나 분리되는 것일까? 믿음의 문제를 이해하려면, '합리적 믿음'과 '비합리적 믿음'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비합리적 믿음이란 비합리적인 권력에의 복종에 기초를 두고 있는(인간이나 사상에 대한) 믿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반

① dispense with/~을 폐지하다, 소용없게 만들다 ② depend on/~에 의지하다 ③ based on/~에 기초를 두다

authority. In contrast, rational faith is a conviction which is rooted in one's own experience of thought or feeling. Rational faith is not primarily belief in something, but the quality of certainty and firmness which our convictions have. Faith is a character trait pervading the whole personality, rather than a specific belief.

Rational faith is rooted in productive intellectual and emotional activity. In rational thinking, in which faith is supposed to have no place, rational faith is an important component. How does the scientist, for instance, arrive at a new discovery? Does he start with making experiment after experiment, gathering fact after fact, without having a vision of what he expects to find? Rarely has a truly important discovery in any field been made in this way. Nor have people arrived at important conclusions when they were merely chasing a phantasy. The process of creative thinking in any field of human endeavor often starts with what may be called a "rational vision," itself a result of considerable previous study, reflective thinking, and observation. When the scientist succeeds in gathering enough data, or in working out a mathematical formulation to make his original vision highly plausible, he may be said to have arrived at a tentative hypothesis. A careful analysis of the hypothesis in order to discern its implications, and the amassing of data which support it, lead to a more adequate hypothesis and eventually perhaps to its inclusion in a wide-ranging theory.

대로 합리적인 믿음은 자기 자신의 사상과 또는 감정의 체험에서 기본을 이루는 확신이다. 합리적인 믿음이란 근본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이 가지고 있는 확실성(確實性)과 견고성(堅固性)이다. 믿음이란 특별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격 전체에 가득 차있는 성격상의 특성이다.

합리적인 믿음이란 생산적인 지혜의 행동과 감정의 행동에 바탕을 두고 있다. 믿음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추측되는 합리적 사고의 중요한 구성 분자는 합리적인 믿음이다. 예를 들면, 과학자는 어떻게 해서 하나의 새로운 발견을 하는가? 과학자는 자기가 발견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에 대한 비전도 없이 실험을 거듭하고 사실을 모으는 것으로 시작하는가? 어느 분야에서든 참으로 중대한 것이 이러한 방식으로 발견된 일은 거의 없다. 환상을 좇고만 있는데 위대한 결론에 도달한 사람도 역시 거의 없다. 사람의 노력의 모든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창조적 사고의 과정은, 그 자체가 이전의 합리적인 연구와 분별 있는 사고와 관찰력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비전'이라고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충분한 자료를 모으거나 창조적인 예견을 그럴 듯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어떤 수학적 법칙을 완전히 세우고 난다음에, 과학자는 잠정적 가설에 도달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가설이 의미하는 뜻을 가려 내기 위해 가설을 용의 주도하게 분석하고 가설을 뒷받침해 주는 사실들을 모음으로써 더 타당한 가설을 내리게 되며, 마침내는 어떤 광범위한 이론 속에 그 가설을 포함시키는 과정에까지 도달하게 될 것이다.

The history of science is replete with instances of faith in reason and visions of truth. Copernicus, Kepler, Galileo. and Newton were all imbued with an unshakable faith in reason. For this Bruno was burned at the stake and Spinoza suffered excommunication. At every step from the conception of a rational vision to the formulation of a theory. faith is necessary; faith in the vision as a rationally valid aim to pursue, faith in the hypothesis as a likely and plausible proposition, and faith in the final theory, at least until a general consensus about its validity has been reached. This faith is rooted in one's own experience in the confidence in one's power of thought, observation, and judgment. While irrational faith is the acceptance of something as true only because an authority or the majority say so, rational faith is rooted in an independent conviction based upon one's own productive observing and thinking, in spite of the majority's opinion.

Thought and judgment are not the only realm of experience in which rational faith is manifested. In the sphere of human relations, faith is an indispensable quality of any significant friendship or love. "Having faith" in another person means to be certain of the reliability and unchangeability of his fundamental attitudes, of the core of his personality, of his love. By this I do not mean that a person may not change his opinions, but that his basic motivations remain the same; that, for instance, his respect for life and human dignity is part of himself, not subject to

사랑의 실천

과학의 역사에는 이성에 대한 믿음과 진리의 비전에 대한 예가 얼마든지 있다. 코페르니쿠스,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 같은 과학자들에게는 이성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물들어 있었다. 그리하여 브루노는 화형(火刑)에 처해졌으며 스피노자는 제명 처분을 받았다. 합리적 비전의 잉태로부터 이론의 법칙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 추구해야 할 합리적으로 합당한 목표로서의 예견에 대한 믿음, 있음직하고 그럴 듯한 제안으로서의 가정에 대한 믿음, 마지막 지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적어도 그 이론의 유효성에 대한 일반인의 의견의 합일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와 같은 믿음은 자기 자신의 체험과 사고, 관측, 분별의 자기 재능에 대한 확신에서 오는 것이다. 비합리적인 믿음이란 어떤 권위자나 대부분이 그렇게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떤 것을 진리로 순용하기는 하지만, 합리적인 믿음은 대부분의 견해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창작적인 관측과 사고에 기초를 둔 합리적인 확신에서 오는 것이다.

사고와 분별력은 합리적인 믿음이 나타내는 독자적인 체험의 영역은 아니다. 인간 관계의 범위에서 믿음이란 어떤 중대한 우정이나 사랑에 필수적인 성질이다. 다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삶의 근본적인 자세와 그 사람의 인격의 핵심과 그 사람의 사랑이 지니고 있는 확실성과 불변성을 확신한다는 말이다. 그것은 꼭 사람이 자기의 의사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거의 원천적인 동기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말하자면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경심은 자기 인격의 한 부분으로 결코 변화되기 쉬운 것이 아니

① be part of oneself/자기 인격의 한 부분

change.

In the same sense we have faith in ourselves. We are aware of the existence of a self, of a core in our personality which is unchangeable and which persists throughout our life in spite of varying circumstances, and regardless of certain changes in opinions and feelings. It is this core which is the reality behind the word "I," and on which our conviction of our own identity is based. Unless we have faith in the persistence of our self, our feeling of identity is threatened and we become dependent on other people whose approval then becomes the basis for our feeling of identity. Only the person who has faith in himself is able to be faithful to others, because only he can be sure that he will be the same at a future time as he is today and, therefore, that he will feel and act as he now expects to. Faith in oneself is a condition of our ability to promise, and since, as Nietzsche said, man can be defined by his capacity to promise, faith is one of the conditions of human existence. What matters in relation to love is the faith in one's own love; in its ability to produce love in others, and in its reliability.

Another meaning of haiving faith in a person refers to the faith we have in the potentialities of others. The most rudimentary form in which this faith exists is the faith which the mother has toward her newborn baby: that it will live, grow, walk, and talk. However, the development of the child in this respect occurs with such regularity that

라는 말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는다. 우리는 변화할 수 없고 여러가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또한 의견과 감정의 어떠한 변화와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영속되는 우리 인격의 핵심의 존재를 알고 있다. '나'라는 말뒤의 실재가 바로 이러한 핵심이며, 우리 자신의 정체에 대한 확신도 이러한 설재에 근거를 둔다. 만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속성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 자신의 정체에 대한 확신도 협박을 받게 되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게 되어 그들의 찬성이 있어야 우리 정체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자신을 믿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에게 충실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만이 미래에 가서도 지금의 자기와 똑같은 사람일 것이며, 따라서 자기가현재 예기하고 있는 것과 같이 느끼고 행동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믿는 것이 우리가 약속할 수 있는 능력의 조건이 된다. 니체가말했듯이 인간은 약속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정체가 명백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은 자기 인간 실존의 요건 중의 하나가 된다.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다.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자기 사랑의 능력과 그 사랑의 건실성에 대한 믿음이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이 존재하는 가장 기초적인 상태는 어머니가 갓난아이에 관하여 갖는 믿음, 즉 아이가 살고 자라고 걷고 이야기하게 되리라는 믿음이 다. 그러나 이러한 면에서의 아이의 발달은 이러한 기대를 하는데 믿음 같은

① be aware of/~을 알아채고 있다, ~을 알고 있다(=know) ② regardless of/~ 에 관심 없이, ~에 상관하지 않는 ③ potentiality=latency/잠재 능력, 잠재력

the expectation of it does not seem to require faith. It is different with those potentialities which can fail to develop: the child's potentialities to love, to be happy, ot use his reason, and more specific potentialities like artistic gifts. They are the seeds which grow and become manifest if the proper conditions for their development are given, and they can be stifled if these are absent.

One of the most important of these conditions is that the significant person in a child's life have faith in these potentialities. The presence of this faith makes the difference between education and manipulation. Education is identical with helping the child realize his potentialities.³ The opposite of education is manipulation, which is based on the absence of faith in the growth of potentialities, and on the conviction that a child will be right only if the adults put into him what is desirable and suppress what seems to be undesirable. There is no need of faith in the robot, since there is no life in it either.

The faith in others has its culmination in faith in mankind. In the Western world this faith was expressed in religious terms in the Judaeo-Christian religion, and in secular language it has found its strongest expression in the humanistic political and social ideas of the last hundred and fifty years. Like the faith in the child, it is based on the idea that the potentialities of man are such that given

³The root of the word education is *e-ducere*, literally, to lead forth, or to bring out something which is potentially present.

것이 필요하지 않아 보일 정도로 규칙적인 것이다. 그것은 개발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 즉 아이가 사랑하고 행복해지고 그의 이성을 유용할 수 있을 잠재 능력이라든가, 예술적 천부성과 같은 특이한 잠재력과는 다른 것이다. 이러한 아이의 잠재력은 그 능력을 발전시키는 데 적당한 조건이 부여되면 자라고 명백해지는 종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빠지면 잠재력은 은페된다.

이러한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의 생활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일이다. 믿음의 존재 여부에 따라 교육과 조작은 차이가 생긴다. 교육은 아이가 자기의 잠재 능력을 깨닫는 것을 도와 주는 것이다. 교육과 반대되는 것이 조작이다. 조작의 근거는 잠재력에 대한 믿음의 부재에 바탕을 두고 있고, 어른들이 옳은 것을 아이에게 넣어 주고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제지시키기만 하면 아이는 바르게 될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로봇에게는 믿음이 필요 없다. 그것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인류'에 대한 믿음에서 그 절정에 달한다. 서구에서는 이러한 믿음이 유태교와 기독교라는 측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종교적인 면으로는 지난 150여 년간의 인본주의적(人本主義的) 정치와 사회적인 이념에 가장 뚜렷이 나타났다. 아이에 대한 믿음과 마찬가지로, 인류에 대한 믿음의 근본은, 인간의 가능성이란 적당한 조건이 이루어져 3. education (교육)의 어원은 e-ducere로서, 글자 그 자체로는 잠재적으로 현존하는 것을 나타나게 하다 또는 끌어내다의 뜻이다.

① significant person/중요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 ② the presence of this faith/이러한 시념의 존재

the proper conditons he will be capable of building a social order governed by the principles of equality, justice and love. Man has not yet achieved the building of such an order, and therefore the conviction that he can do so requires faith. But like all rational faith this too is not wishful thinking, but based upon the evidence of the past achievements of the human race and on the inner experience of each individual, on his own experience of reason and love.

While irrational faith is rooted in submission to a power which is felt to be overwhelmingly strong, omniscient and omnipotent, and in the abdication of one's own power and strength, rational faith is based upon the opposite experience. We have this faith in a thought because it is the result of our own observation and thinking. We have faith in the potentialities of others, of ourselves, and of mankind because, and only to the degree to which, we have experienced the growth of our own potentialities, the reality of growth in ourselves, the strength of our own power of reason and of love. The basis of rational faith is productiveness; to live by our faith means to live productively. It follows that the belief in power (in the sense of domination) and the use of power are the reverse of faith. To believe in power that exists is identical with disbelief in the growth of potentialities which are as yet unrealized. It is a prediction of the future based solely on the manifest present; but it turns out to be a grave miscalculation, 야만 인간은 동등함과 정의와 사랑의 본질에 의해 지도되는 사회적인 질서를 확립할 가능성을 말한다는 이념에 있는 것이다. 인간은 아직은 그러한 질서를 확립해 본 일이 없다. 그래서 인간이 확립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합리적인 믿음과 같이 이 믿음 역시 소망적 사고가 아니라, 인류가 과거에 이룩한 공적이라는 증거에 바탕을 두고있으며, 개개인의 내부 체험과 개개인의 이성과 사랑의 체험에 바탕을 두고있다.

비합리적인 믿음이란 강압적일 정도로 강대하고 전지 전능하다고 느껴지는 지배력에 순종하고, 또한 각자의 힘과 정력을 버리는 데서 생기는 것이지만, 합리적인 믿음은 그와 반대되는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다. 우리가 어떤이념에 믿음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그 이념이 자신의 관찰과 사고의 결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가능성과 자신의 가능성과 인류의 가능성을 믿는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의 가능성의 성장과 우리 내적인 성장의 실재와 우리 자신의 이성과 사랑의 능력이 갖는 권능을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이며,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체험한 정도에서 우리는 자신의 가능성을 믿게되는 것이다. '합리적인 믿음의 바탕은 생산력이다.' 우리의 믿음에 따라 산다는 것은 창조적으로 산다는 것을 내포한다. 당연한 귀결로 힘(지배라는 의미로서)을 신용하고 힘을 활용한다는 것은 믿음의 반대라는 것이 된다. 현존하는 힘을 믿는 것은 아직 실패하지 않은 가능성의 성장을 믿지 못하는 것과 같다. 그것은 명백한 현실에 기초를 둔 미래에 대한 예보이다. 그러나 그것은

① be capable of/~할 수 있는 ② wishful thinking/희망적 관측 ③ achievement/ 위업 ④ be rooted in=be based upon/~에 기초를 두고

profoundly irrational in its oversight of the human potentialities and human growth. There is no rational faith in power. There is submission to it or, on the part of those who have it, the wish to keep it. While to many power seems to be the most real of all things, the history of man has proved it to be the most unstable of all human achievements. Because of the fact that faith and power are mutually exclusive, all religions and political systems which originally are built on rational faith become corrupt and eventually lose what strength they have, if they rely on power or ally themselves with it.

To have faith requires courage, the ability to take a risk, the readiness even to accept pain and disappointment. Whoever insists on safety and security as primary conditions of life cannot have faith; whoever shuts himself off in a system of defense, where distance and possession are his means of security, makes himself a prisoner. To be loved, and to love, need courage, the courage to judge certain values as of ultimate concern — and to take the jump and stake everything on these values.

This courage is very different from the courage of which that famous braggart Mussolini spoke when he used the slogan "to live dangerously." His kind of courage is the courage of nihilism. It is rooted in a destructive attitude toward life, in the willingness to throw away life because one is incapable of loving it. The courage of despair is the opposite of the courage of love, just as the faith in power

인간의 가능성과 인간의 성장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중요한 오판임이 판명된다. 힘에는 합리적인 믿음이 없다. 힘에 대한 순종이 있거나, 힘을 지닌 사람들 쪽은 그 힘을 지속하려는 소망이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힘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실재적인 것으로 보일지도 모르지만, 인류의 역사를 볼 때 힘이라는 것은 인류가 이루어 놓은 공적 가운데 가장 불안정한 것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믿음과 힘은 상호 배타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합리적인 믿음 위에 이루어진 모든 종교 및 정치 제도는, 그 자체가 힘에 의뢰하거나 힘과 결연한다면, 타락하게 되고 드디어는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위력마저 잃어버리게 된다.

믿음을 갖는 데는 '용기'가 필요한데, 용기는 위험을 무릅쓸 수 있는 재량을 말하며 괴로움과 절망을 수용하기도 하는 준비를 말한다. 안전과 무사를 삶의 첫 번째 요건으로 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즉, 그의 안전의 수단인 보호 제도 속에 자신을 가두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죄인으로 만든다.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하는 데는 용기를 필요로 하며, 용기는 모든 가치를 지극히 중대하다고 단정하며 급전하여 모든 것을 걸고 그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는 용기를 말한다.

이러한 용기를 유명한 허풍선이 뭇솔리니가 '위험에 가득 찬 생활을 위해'라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말한 용기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한 종류의 용기는 허무주의의 용기이다. 이러한 용기는 인생에 대한 파멸적인 자세에서 나온 것이며, 삶을 사랑할 수 없다 해서 인생을 스스로 포기하려고 하는 자세에서 빚어진 것이다. 힘에 대한 믿음이 삶에 대한 믿음과 반대되는 것과

① take a risk/위험을 무릅쓰다, 위험을 떠맡다 ② make(take) \sim prisoner/포로로 하다

is the opposite of the faith in life.

Is there anything to be practiced about faith and courage? Indeed, faith can be practiced at every moment. It takes faith to bring up a child; it takes faith to fall asleep; it takes faith to begin any work. But we all are accustomed to having this kind of faith. Whoever does not have it suffers from overanxiety about his child, or from insomnia, or from the inability to do any kind of productive work; or he is suspicious, restrained from being close to anybody, or hypochondriacal, or unable to make any longrange plans. To stick to one's judgment about a person even if public opinion or some unforeseen facts seem to invalidate it, to stick to one's convictions even though they are unpopular — all this requires faith and courage. To take the difficulties, setbacks and sorrows of life as a challenge which to overcome makes us stronger, rather than as unjust punishment which should not happen to us, requires faith and courage.

The practice of faith and courage begins with the small details of daily life. The first step is to notice where and when one loses faith, to look through the rationalizations which are used to cover up this loss of faith, to recognize where one acts in a cowardly way, and again how one rationalizes it. To recognize how every betrayal of faith weakens one, and how increased weakness leads to new betrayal, and so on, in a vicious circle. Then one will also recognize that while one is consciously afraid of not being

같이, 절맛의 용기는 사랑의 용기와 상반되는 것이다.

믿음과 용기에 대하여 실천해 볼 것이 따로 있겠는가? 사실상 믿음은 어느 순간에도 실행될 수 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도 믿음이 필요하고 잠드는 데도 믿음이 필요하고 어느 일을 시작하는 데도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데에 모두 익숙해져 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 아이에 대한 지나친 근심이나 불면증, 또는 어떤 창조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괴로워한다. 또는 의심이 많아 누구와도 친밀하게 지내지 못하거나 우울증을 일으키거나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지 못한다. 여론이나 예기치 못한 사실들이 어떤 사람에 대한 자기의 분별을 백지화시키더라도 자기의 확신을 고집하는 것이나, 대중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자기의 확신을 주장하는 것은, 모두 신념과 용기를 필요로 한다. 삶의 어려움, 패배, 비탄을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옳지 못한 처벌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으면 우리가 더 강인해지는 어떤 도전으로 생각하는 데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믿음과 용기의 실행은 일상 생활의 작은 일부터 시작된다. 첫 단계는 어디서 언제 사람이 믿음을 잃게 되는가에 주목하는 것이고, 이러한 믿음의 상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이용되는 합리화를 꿰뚫어 보는 것이고, 어느 경우에 사람이 비열한 행동을 취하는지 또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합리화시키는지를 다시 알아보는 것이다. 믿음을 배신할 때마다 얼마나 연약해지며, 그리고 그 연약함이 증가하면 어떻게 새로운 배신에 이르게 되고 이러한 약순환이 어떻게 계속되는가를 알아보는 것이다. 그 후 사람이 또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

① bring up/기르다, 교육하다 ② look throug/토아여 보다, 간과하다

loved, the real, though usually unconscious fear is that of loving. To love means to commit oneself without guarantee, to give oneself completely in the hope that our love will produce love in the loved person. Love is an act of faith, and whoever is of little faith is also of little love. Can one say more about the practice of faith? Someone else might; if I were a poet or a preacher, I might try. But since I am not either of these, I cannot even try to say more about the practice of faith, but am sure that anyone who is really concerned can learn to have faith as a child learns to walk.

One attitude, indispensable for the practice of the art of loving, which thus far has been mentioned only implicitly. should be discussed explicitly since it is basic for the practice of love: activity. I have said before that by activity is not meant "doing something," but an inner activity, the productive use of one's powers. Love is an activity; if I love. I am in a constant state of active concern with the loved person, but not only with him or her. For I shall become incapable of relating myself actively to the loved person if I am lazy, if I am not in a constant state of awareness, alertness, activity. Sleep is the only proper situation for inactivity; the state of awakeness is one in which laziness should have no place. The paradoxial situation with a vast number of people today is that they are half asleep when awake, and half awake when asleep, or when they want to sleep. To be fully awake is the condition for

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의식적으로 근심하고는 있지만 진정한 두려움(일반적으로 무의식적인 것이기는 하나)은 사랑한다는 불안감이다'는 사실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아무런 보장 없이 자신을 내맡긴다는 것을 뜻하며, 우리의 사랑이 사랑을 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사랑을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자신의 전부를 맡기는 것을 뜻한다. 사랑은 믿음의 행동이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사랑 또한 없다. 믿음의 실행에 대해서 더 말할 사람이 있는가? 누군가가 말할지도 모른다. 만일 내가 시인이거나 설교자라면, 나는 시도해 볼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시인도 설교자도 아니기 때문에, 믿음의실행에 대해 더 이야기하려고 시도해 볼 수도 없는 처지이지만, 그러나 관심 있는 사람이면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믿음을 갖는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다.

지금까지는 암시적으로 언급해 온, 사랑하는 기술의 실천에 필요 불가결한 한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실행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중요한 까닭에 뚜렷이 논의하고 넘어가야겠다. 그것은 바로 '활동'이다. 나는 앞에서 활동이란 '어떤 일을 하는 것'을 뜻하지 않고, 내적인 행동, 즉 자기 재능의 창조적 유용을 의미한다고 말한 바 있다. 사랑은 활동이다. 만일 내가 사랑한 다면, 나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변치 않는 적극적인 관심을 갖는 상황에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로지 사랑하는 남자나 여자에게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태하거나 항상 의식성을 잃지 않고 방심하지 않으며 활동하는 상태에 빠지지 못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자신을 적극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이 역부족이기 때문이다. 잠은 활동하지 않는 정지의 유일한 적합한 상태이지만 깨어 있는 상태는 나태가 끼어들 자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상태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처해 있는 역설적인 상태는 깨어 있을 때에도 반은 잠들어 있고, 잠을 자고 있거나 또는 잠들고 싶을 때도 반은 깨어 있는 상태이다. 완전히 깨어 있다는 것은 싫증이 나거나 지루하지 않기 위한 여건을

not being bored, or being boring — and indeed, not to be bored or boring is one of the main conditions for loving. To be active in thought, feeling, with one's eyes and ears, throughout the day, to avoid inner laziness, be it in the form of being receptive, hoarding, or plain wasting one's time, is an indispensable condition for the practice of the art of loving. It is an illusion to believe that one can separate life in such a way that one is productive in the sphere of love and unproductive in all other spheres. Productiveness does not permit of such a division of labor. The capacity to love demands a state of intensity, awakeness, enhanced vitality, which can only be the result of a productive and active orientation in many other spheres of life. If one is not productive in other spheres, one is not productive in love either.

The discussion of the art of loving cannot be restricted to the personal realm of acquiring and developing those characteristics and attitudes which have been described in this chapter. It is inseparably connected with the social realm. If to love means to have a loving attitude toward everybody, if love is a character trait, it must necessarily exist in one's relationship not only with one's family and friends, but toward those with whom one is in contact through one's work, business, profession. There is no "division of labor" between love for one's own and love for strangers. On the contrary, the condition for the existence of the former is the existence of the latter. To take this in-

사랑의 실천

말하고, 실제로 싫증을 갖지 않거나 지루하지 않은 것이 사랑의 주요한 요건 중의 하나이다. 하루 내내 눈과 귀를 가지고 느끼고 사고하는 것, 즉 내적인 권태를 피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나 잘 받아들이고 비축하는 형태에 속하는 것이건 평범하게 시간을 낭비하는 형태에 속하는 것이건 간에 사랑의 기술을 실천하는 데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 된다. 사랑의 영역에서는 생산적이고 그 밖의 다른 모든 영역에서는 비생산적이라는 방식으로 생활을 격리 시킬 수 있다고 믿는 것은 하나의 환상이다. 생산성은 이러한 노동의 분업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랑의 능력에는 긴장과 의식성과 고양된 생명력의 상태가 요구되는데, 이러한 상태는 삶의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 생산적이고 능동적인 경향에서 취해지는 결과일 수밖에 없다. 다른 분야에서 생산적이지 못한 사람이면 사랑에 있어서도 비생산적이다.

사랑의 기술에 대한 논의는 이 장에서 설명한 바 있는 특징과 자세를 획득하고 발전시키는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될 수는 없다. 그러한 논의는 사회적 영역과 불가분의 관련이 있다. 사랑한다는 것이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하는 자세를 갖는 것을 뜻하며, 또 사랑이 성격의 특징이라면, 자신의 가족과 친구에 대한 연관뿐 아니라 자기의 일이나 사업이나 직업을 통해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사랑은 필수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타인에 대한 사랑 사이에는 '노동의 분업'이 없다. 이와 반대로, 타인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조건이 된다. 이러한 통찰을 진담으

sight seriously means indeed a rather drastic change in one's social relations from the customary ones. While a great deal of lip service is paid to the religious ideal of love of one's neighbor, our relations are actually determined, at their best, by the principle of fairness. Fairness meaning not to use fraud and trickery in the exchange of commodities and services, and in the exchange of feelings. "I give you as much as you give me," in material goods as well as in love, is the prevalent ethical maxim in capitalist society. It may even be said that the development of fairness ethics is the particular ethical contribution of capitalist society.

The reasons for this fact lie in the very nature of capitalist society. In pre-capitalist societies, the exchange of goods was determined either by direct force, by tradition, or by personal bonds of love or friendship. In capitalism, the all-determining factor is the exchange on the market. Whether we deal with the commodity market, the labor market, or the market of services, each person exchanges whatever he has to sell for that which he wants to acquire under the conditions of the market, without the use of force or fraud.

Fairness ethics lend themselves to confusion with the ethics of the Golden Rule. the maxim "to do unto others as you would like them to do unto you" can be interpreted as meaning "be fair in your exchange with others." But actually, it was formulated originally as a more popular

사랑의 실천

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 인습적 변경이 아니라 철저하게 변화시키는 것을 뜻한다. 말뿐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종교적 이상이 수없이 되풀이되고 있지만 우리의 관계는 기껏해야 '공명성'이라는 원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공명성이란 상품과 용역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감정의 교류에 있어서 사기와 속임수를 쓰지 않는 것을 뜻한다. 물질적 재화에 있어서나 사랑에 있어서도 '받은 만큼 준다'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보편적인 윤리적 격언이다. 공정성의 윤리를 발달시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의 특수한 윤리의 공헌이라고 말해도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의 이유는 자본주의 사회의 성격 자체에 있다.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는 재화의 교환이 직접적인 무력이나 전통이나 사랑 또는 정이라는 개인적 유대에 의해 결정되었다. 우리가 상품 시장, 노동 시장, 또는 용역 시장 등 어느 시장에서 거래를 하든, 각각의 사람은 무력을 쓰거나 사기를 하지 않고 시장의 여건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과 팔 수 있는 것을 교환한다.

공명성의 윤리는 '중용'의 윤리와 혼동되기 쉽다.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격언은 '남과 거래할 때는 공명성을 지 녀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그 금언은 본래 '네 이웃을 네

① drastic change/극적인 변화, 과감한 변경, 철저한 변화 ② maxim/격언, 금언

③ all-determining/모든 결정 요인 ④ the Golden Rule/황금률

version of the Biblical "Love thy neighbor as thyself." Indeed, the Jewish-Christian norm of brotherly love is entirely different from fairness ethics. It means to love your neighbor, that is, to feel responsible for and one with him, while fairness ethics means not to feel responsible, and one, but distant and separate; it means to respect the rights of your neighbor, but not to love him. It is no accident that the Golden Rule has become the most popular religious maxim today; because it can be interpreted in terms of fairness ethics it is the one religious maxim which everybody understands and is willing to practice. But the practice of love must begin with recognizing the difference between fairness and love.

Here, however, an important question arises. If our whole social and economic organization is based on each one seeking his own advantage, if it is governed by the principle of egotism tempered only by the ethical principle of fairness, how can one do business, how can one act within the framework of existing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practice love? Does the latter not imply giving up all one's secular concerns and sharing the life of the poorest? This question has been raised and answered in a radical way by the Christian monks, and by persons like Tolstoi, Albert Schweitzer, and Simone Weil. There are others⁴ who share the opinion of the basic incompatibil-

⁴Cf. Herbert Marcuse's article "The Social Implications of Psychoanalytic Revisionism," Dissent, New York, summer, 1955.

몸같이 사랑하라'는 대중적인 성경 구절로 공식화되었다. 사실 유태교와 기독교의 인류애의 규범은 공명성의 윤리와는 전혀 다르다. 인류애의 규범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해 이웃에 책임을 느끼고 이웃과 하나가 되라는 것이고 공명성의 윤리는 책임이나 일체감을 느끼지 말고 이웃과 거리를 두고 있는 단독적인 것을 뜻한다. 공명성의 윤리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것을 뜻한다. '중용'이 오늘날 가장 대중적인 종교적 격언이 된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중용이 공명성의 윤리라는 관점에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뜻을 알고 실천하려고 하는 하나의 종교적 금언이 된 것이다. 그러나 사랑의 실천은 공명성과 사랑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제시된다. 만일 우리의 모든 사회적 경제 조직이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면, 또 그 조직이 공명성이라는 윤리적인 원리에 의해 조절되는 이기주의의 원칙에 의해 지배받게된다면, 사람은 어떻게 거래할 수 있으며, 현존하는 사회의 틀 안에서 어떻게활동할 수 있으며 동시에 사랑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 사랑의 실행이란 자기의 모든 세속적 관심사를 포기하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생활을 같이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닐는지? 이러한 의문은 기독교 수도자들에 의해, 톨스토이, 알버트 슈바이처, 시몬 베유 같은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고 대답되었

Revisionism (Dissent, New York, summer, 1955)을 참조할 것.

① the Jewish-Christian norm of brotherly love/유태교와 기독교의 동포에의 규범 ② economic organization/경제 조직, 경제 단체 ③ Christian monk/기독교의 수사 (修士)

ity between love and normal secular life within our society. They arrive at the result that to speak of love today means only to participate in the general fraud; they claim that only a martyr or a mad person can love in the world of today, hence that all discussion of love is nothing but preaching. This very respectable viewpoint lends itself readily to a rationalization of cynicism. Actually it is shared implicitly by the average person who feels "I would like to be a good Christian — but I would have to starve if I meant it seriously." This "radicalism" results in moral nihilism. Both the "radical thinkers" and the average person are unloving automatons and the only difference between them is that the latter is not aware of it, while the former knows it and recognizes the "historical necessity" of this fact.

I am of the conviction that the answer of the absolute incompatibility of love and "normal" life is correct only in an abstract sence. The principle underlying capitalistic society and the principle of love are incompatible. But modern society seen concretely is a complex phenomenon. A salesman of a useless commodity, for instance, cannot function economically without lying; a skilled worker, a chemist, or a physician can. Similarly, a farmer, a worker, a teacher, and many a type of businessman can try to practice love without ceasing to function economically. Even if one recognizes the principle of capitalism as being incompatible with the principle of love, one must admit

다. 우리 사회 안에서는 근본적으로 사랑과 정상적인 세속적 생활이 병립할수 없다는 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오늘날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은 전반적인 사기에 말려드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순교자나 미친 사람만이 오늘날의 세계 안에서 사랑할 수 있고, 따라서 사랑에 대한 온갖 토의는 설교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존경할 만한 이러한 견해는 쉽게 냉소(冷笑)를 합리화하는 것이 된다. '나는 훌륭한 기독교인이 되고 싶지만, 그것을 진지한 목표로 한다면 굶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은연중에 그러한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진주의(急進主義)'는 도덕적 허무주의의결과이다. '과격한 사상가'들과 평범한 사람들은 모두 사랑할 줄 모르는 기계적인 사람들이다. 그들의 차이점은, 후자에 속하는 평범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과격한 사상가들은 그 점을 알고 있고, 또 이것은 '역사적 필연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일 것이다.

사랑과 '정상적인' 생활의 양립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것은 추상적인 뜻에서만 옳은 대답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적 '원리'와 사랑의 '원리'는 양립하기 어렵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본 현대 사회는 복잡한 현상이다. 이를테면, 필요 없는 상품을 파는 점원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경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없지만, 숙련공(熟練工)이나 화학자, 의사 등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농부, 노동자, 교사 그리고 여러 유형의 비즈니스맨은 경제적 기능을 중지하지 않고서도 사랑의 실천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자본주의의 원리는 사랑의 원리와 양립할

① nothing but/다만 ~뿐, ~에 불과한 ② cynicism/견유(犬儒)주의 ③ radicalism /급진주의 ④ nihilism/허무주의(니힐리즘) ⑤ historical necessity/역사적 필연성

that "capitalism" is in itself a complex and constantly changing structure which still permits of a good deal of non-conformity and of personal latitude.

In saving this, however, I do not wish to imply that we can expect the present social system to continue indefinitely, and at the same time to hope for the realization of the ideal of love for one's brother. People capable of love. under the present system, are necessarily the exceptions; love is by necessity a marginal phenomenon in present-day Western society. Not so much because many occupations would not permit of a loving attitude, but because the spirit of a production-centered. commodity-greedy society is such that only the non-conformist can defend himself successfully against it. Those who are seriously concerned with love as the only rational answer to the problem of human existence must, then, arrive at the conclusion that important and radical changes in our social structure are necessary, if love is to become a social and not a highly individualistic, marginal phenomenon. The direction of such changes can, within the scope of this book, only be hinted at. 5 Our society is run by a managerial bureaucracy, by professional politicians; people are motivated by mass suggestion, their aim is producing more and consuming more, as purposes in themselves. All activities are subordinated to economic goals, means have become ends;

⁵In The Sane Society, Rinehart & Company, New York, 1955, I have tried to deal with this problem in detail.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라도, '자본주의'는 그 자체가 상당한 불일치나 관습에 따르지 않으려는 경향과 개인의 자유를 늘 허용하는 복잡하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구조라는 점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 나는 현재의 사회 제도가 무하히 지속되기를 기 대할 수 있고 동시에 인류애라는 이상을 실현시켜 주기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의미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체제하에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외가 된다. 사랑은 오늘날 서구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한계에 다다 른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직업이 사랑하는 자세를 허욧 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생산 중심의 상품을 열망하는 사 회의 정신이 사랑하는 태도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만이 그런 사회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간 실존의 문제 에 대한 유일한 합리적인 대답으로서의 사랑에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 람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 즉, 만일 사랑이 사회적이면서도 매우 개인주의적인 것도 아니고 한계에 달하지도 않는 현상이 되려면, 우리 사회 구조에 중대하고도 급진적인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러한 변화의 방향 은 이 책의 영역 안에서 암시되었을 뿐이다. 우리 사회는 경영자의 관료 조 직에 의해, 직업적인 정치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사람들은 집단 암시에 의해 자극을 받고 그들의 목표는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는 것이 다. 모든 활동은 경제적 목적에 종속되고 수단은 목적이 되어 버렸다. 사람은 5. The Sane Society (Rinehart & Company, New York, 1955) 에서 나는 이 문제 를 자세히 다루려고 했다.

① occupation/직업, 업무 ② the spirit of a production-centered/생산 중심의 정신

③ commodity-greedy society/상품을 갈망하는 사회 ④ hinted at/~을 암시하다 ⑤ bureaucracy/관료 정치(제도, 주의)

man is an automaton well fed, well clad, but without any ultimate concern for that which is his peculiarly human quality and function. If man is to be able to love, he must be put in his supreme place. The economic machine must serve him, rather than he serve it. He must be enabled to share experience, to share work, rather than, at best, share in profits. Society must be organized in such a way that man's social. loving nature is not separated from his social existence, but becomes one with it. If it is true, as I have tried to show, that love is the only sane and satisfactory answer to the problem of human existence, then any society which excludes, relatively, the development of love, must in the long run perish of its own contradiction with the basic necessities of human nature. Indeed, to speak of love is not "preaching." for the simple reason that it means to speak of the ultimate and real need in every human being. That this need has been obscured does not mean that it does not exist. To analyze the nature of love is to discover its general absence today and to criticize the social conditions which are responsible for this absence. To have faith in the possibility of love as a social and not only exceptional-individual phenomenon, is a rational faith based on the insight into the very nature of man.

사랑의 실천

잘 먹고 잘 입지만 인간 본래의 자질이나 기능이 되는 것에는 조금도 궁극적 관심을 갖지 않는 기계적인 것에 불과하다 인간이 사랑한 수 있으려면 자신 을 최고의 위치에 놓아야 한다. 인간이 경제적 기구에 봉사하지 않고 오히려 경제적 기구가 인간에게 이바지해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기껏해야 이익을 나누어 갖는 데 그치지 말고 오히려 체험을 나누고 일을 나누어 가질 수 있 어야 한다. 인간의 사회성과 사랑의 본성이 인간의 사회적 존재와 구분되지 않고, 사회적 존재와 일체를 이루도록 사회를 조직해야 한다. 이제까지 내가 입증하려고 한 것과 같이. 인간 실존의 문제에 대한 건전하고 만족스러운 대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뿐이라는 사실인데, 상대적으로 사랑의 발달 을 배제하는 사회는 인간성의 기본적 필연성과 모순을 일으킴으로써 결국 멸망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사랑에 관해 말한다는 것은 '설교'가 아니다. 간 단히 말하자면. 사랑에 관해 말하는 것은 모든 인간 실존의 궁극적이고 현실 적인 욕구에 대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욕구가 은폐되었다 해서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랑의 본성을 분석한다는 것은 오늘날 사회에 일반적으로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 내고 사랑이 결여된 상태에 책임이 있는 사회적 여거들을 비파해 보는 것이다. 개인의 예 외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사회적 현상으로서 사랑의 가능성을 신뢰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 자체에 대한 통찰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믿음이다.

① automaton/기계적으로 행동하는 사람, 자동 기계, 자동 인형 ② in the long run/결국, 마침내 ③ its general absence today/오늘날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 ④ not only exceptional-individual phenomenon/예외적이며 개인적인 현상으로서가 아니라

والموافقة والمناور والموافقة والموافقة والموافقة والموافقة والموافقة والموافقة والموافقة والموافقة والموافقة

